

<2023년도 한일관계사학회·전북대 이재연구소 공동학술회의>

## 역사적으로 본 한일 양국의 갈등·현안과 해법 모색

- 일시: 2023년 10월 14일(토) 13시~15(일) 12시
- 장소: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205호
- 주최: 한일관계사학회·전북대 이재연구소
-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사학회·전북대 이재연구소  
2023.10.14.

이 발표자료집은 2023년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 역사적으로 본 한일 양국의 갈등·현안과 해법 모색

일시: 2023년 10월 14일(토) 13시~15일(일) 12시  
장소: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205호실  
주최: 한일관계사학회·전북대 이재연구소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 ◆ 프로그램 ◆

#### ■ 세부일정 10월 14일(토) 13시~15일(일) 12시

일정	발표 및 내용	비고
14일(토) 1부 2023.10.14. (13:00~ 14:40)	13:00~ 13:10 등록	1부 사회자 한문종 (전북대)
	13:10~ 13:20 개회사, 축사	
	13:20~ 13:50 기조 강연 : 통신사행의 문화교류와 일본학의 성립 발표자 : 하우봉(전북대 명예교수)	
	13:50~ 14:15 고대 한일 양국의 현안과 해법 - '백춘강 전쟁'의 원인에 대한 재검토 발표자 : 나행주(건국대) 토론자 : 연민수(전 동북아역사재단)	
	14:15 ~14:40 중세 한일관계의 현안과 해법 - 중국 미디어에서의 '왜구' 사용법 발표자 : 윤성익(경희대) 토론자 : 이훈(한림대)	

장내정리	14:40~ 14:50	휴식		
2부 (14:50~ 16:05)	14:50~ 15:15	근세 한일관계의 현안과 해법 - 정한위략(征韓偉略)과 임진전쟁 발표자: 김문자(상명대) 토론자: 조인희(한국국학진흥원)	2부 사회자 장순순 (전주대)	
	15:15~ 15:40	근대 한일 양국의 현안과 해법 - 변혁기(1867-1888년) 한일 관계와 표류민 송환의 변화 발표자 : 현명철(서울대) 토론자 : 김영미(국민대)		
	15:40~ 16:05	현대 한일 양국의 현안과 해법 - 일본의 안보체제 강화와 헌법문제- 발표자 : 유지아(원광대) 토론자 : 김동명(국민대)		
장내정리	16:05~ 16:20	장내정리		
3부	16:20~ 18:00	종합토론 좌장 : 홍성덕(전주대)		
폐회	18:00	폐회		

■ 15일(일) 09:00~12:00

전주지역 역사 문화 탐방 및 간담회

■ 참가예정 인원현황

구분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합계
국내 참가자	6명(기조강연 포함)	6명	3명	14명
국외 참가자	0명	0명	0명	0명
일반인 참가자		30명		

# 역사적으로 본 한일 양국의 갈등·현안과 해법 모색

## ■ 목 차

◆개 회 사회: 조인희(한국국학진흥원)

개회사 나행주(한일관계사학회 회장, 건국대)

축 사 한문종(이재연구소 소장, 전북대)

<제1부 기조강연 및 발표> 사회: 한문종(전북대)

[기조강연] 통신사행의 문화교류와 일본학의 성립

발표자 : 하우봉(전북대 명예교수) ----- 7

[제1발표] 고대 한일 양국의 현안과 해법-‘백촌강 전쟁’의 원인에 대한 재검토

발표: 나행주(건국대)----- 19

토론: 연민수(전 동북아역사재단)----- 49

[제2발표] 중세 한일관계의 현안과 해법- 중국 미디어에서의 ‘왜구’ 사용법

발표: 윤성익(경희대)----- 51

토론: 이 훈(한림대)----- 89

<제2부 발표> 사회: 장순순(전주대)

[제3발표] 근세 한일관계의 현안과 해법- 정한위략(征韓偉略)과 임진전쟁

발표: 김문자(상명대)----- 91

토론: 조인희(한국국학진흥원)-----105

[제4발표] 근대 한일 양국의 현안과 해법 - 변혁기(1867-1888년) 한일관계와  
표류민 송환의 변화

발표: 현명철(서울대)-----107

토론: 김영미(국민대)-----123

[제5발표]

현대 한일 양국의 현안과 해법 -일본의 안보체제 강화와 헌법문제-

발표: 유지아(원광대)-----125

토론: 김동명 (국민대)-----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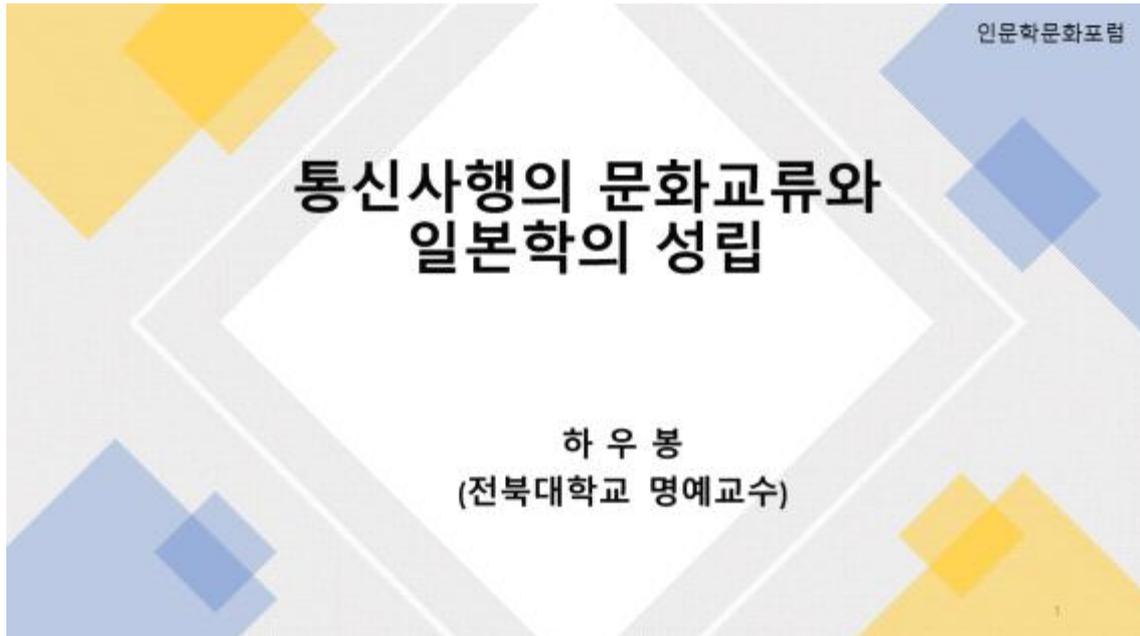
<제3부 종합토론> 좌장: 홍성덕(전주대)

◆폐 회 사회: 조인희(한국국학진흥원)

10월 15일(일)[09:00~12:00] - 전주지역 역사 문화 탐방 및 간담회



## <기조강연>



## 1. 통신사행의 문화교류 활동

- ▶ 17c 후반 청의 안정, 조일 양국의 평화 정착 → 통신사행의 정치적 의미 감소
- ▶ 1682년 임술사행부터 문화교류 기능 부상 → 활발한 문화교류



## 2) 계미통신사 (1763)의 문화교류와 특징

- 계미통신사 : 혼슈(本州) 통과해 에도(江戸)까지 간 마지막 사행
- 사문사: 제술관 남옥(南玉), 서기 성대중(成大中), 원중거(元重舉), 김인겸(金仁謙)
- 22개 주 통과하며 필담창화, 문화교류 활발: 고학파와 본격적으로 교류, 논쟁
- 14종의 일본사행록과 43종의 필담창화집 간행

4

## 1) 통신사행을 통한 문화교류

- \* 조선후기의 통신사 : 12회 왕래, 470명에 달하는 국왕사절단
- \* 사명은 국서의 교환이지만, 점차 문화적 기능이 중시됨
- \* 1682년 임술사행부터 문화교류 담당 인원 증원, 문화사절단 성격
- \* 유학, 시문, 의학, 회화, 서예, 음악, 무술 등 각 분야의 교류 전개
- \* 사문사(四文士)의 필담창화 → 일본에서 200종의 필담창화집 간행
- \* 통신사행원들의 일본사행록 : 70여 종 저술, 40종 현전. 일본정보, 문화견문록
- \* 문화교류 주도 : 선린외교, 일본 근세 문화발전에 기여, 일본 문화 전래 통로

3

원중거 초상 ▶



▼ 필담창화도



### 3) 게이토신사 문화교류의 의의

- 양국 문사들의 교류 → 병세의식(並世意識)과 동문의식(同文意識) 공유
- 병세의식 : 한 세상을 같이 살아간다는 연대의식. 상우천고(尙友千古)의 시간중심적 사유에서 천애지기(天涯知己)의 공간중심의 사유로 바뀜
- 동문의식 : 한문과 유교문화를 공유하는데서 오는 문화적 유대감
- 원중거, 성대중 등 연암일파와 오사카 겐카도카이(兼葭堂會) 문사의 교류 : '동아시아 문예공화국'의 형성
- 일본사회와 문물에 대해 객관적, 실용적인 관점에서 인식 : 창수보다 필담 중시
- 일본 이해의 심화 : 『화국지(和國志)』는 통신사행원의 일본인식의 최고봉



정사 조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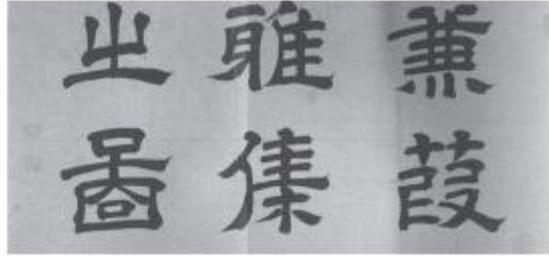
키무라 켄카도



다이텐 켄쵸



경가아집도2



경가아집도1

## 2. 조선시대 일본지식의 축적과 일본학의 성립

- 조선시대 일본에 관한 저술 : 신숙주의 『해동제국기』, 강항의 『간양록』
- 일본학 성립의 연원, 통신사행원의 필독서
- 통신사행원의 일본사행록 : 「문견록」은 일본에 대한 '종합적 정보보고서'
- 조선후기 일본지식 축적 과정 : 해동제국기+간양록에서 추가→ 심화→ 체계화



신숙주 초상



『해동제국기』

11



강항 초상



『간양록』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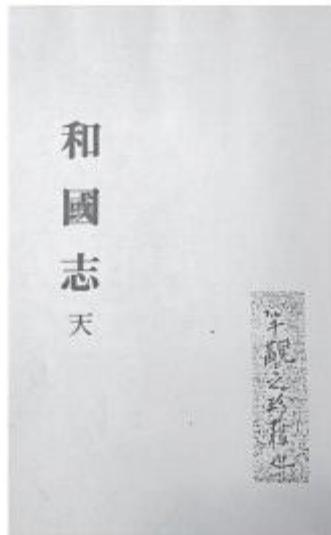
## 1) 『화국지(和國志)』와 『청령국지(蜻蛉國志)』

- 원중거의 3부작 : 『승사록(乘槎錄)』과 『화국지(和國志)』, 『일동조아(日東藻雅)』
- 『화국지』 : 형식과 내용면에서 가장 정제되고 수준 높은 '일본국지(日本國志)'
- 이덕무의 『청령국지』 : '일본국지'로서 인문지리서, 일본입문서의 성격
- 서명(書名) : 우호적 내지 가치중립적, 실용적이고 개방적 인식 반영
- 『화국지』가 『간양록』과 유사한 성격이라면, 『청령국지』는 『해동제국기』와 유사

13



원중거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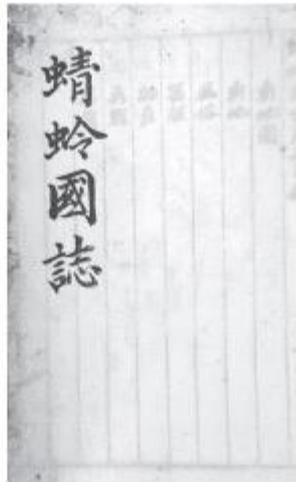
『화국지』



『화국지』 일본지도



이덕무 초상



『청령국지』



『청령국지』 본문

13

## 2) 일본학의 성립

- 『화국지』와 『청령국지』는 조선후기 일본인식의 최고봉
- 축적된 지식의 질적 변화 : '일본학'이라는 학문영역으로 정립
- '북학(北學)', '서학(西學)'과 유사함, 밀접한 연관성 지님
- 19세기 초 시볼트(Philip F. Siebold)의 『일본(NIPPON』(20권)과 비교 필요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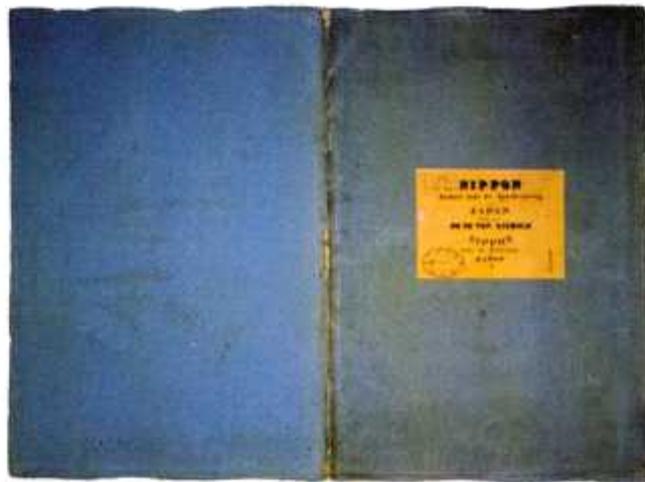
◀ 박제가 초상



『북학의』 ▶



시볼트 초상



시볼트 『일본』 표지

### 3. 통신사행의 문화사적 의의

- ▶ 통신사행이 통과하는 지역마다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
- ▶ 쇄국체제 하의 양국에 의미 있는 영향 : 서적 비롯한 문물 상호 전래
- ▶ 양국 학자들과 민중의 순수한 교류
- ▶ 동아시아사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 동아시아문예공화국
- ▶ 통신사와 부경사(赴京使=연행사)는 동북아시아의 정보 통로와 문화교류의 고속도로





**감사합니다**

21



# 고대 한일 양국의 현안과 해법: '백촌강 전쟁'의 원인에 대한 재검토\*

나행주(건국대)

## <목차>

### 머리말

1 백제 구원군 파견 배경

2 백촌강 전투 과정

3 백촌강 전투(전쟁) 결과

### 맺음말

## 머리말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국가 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냉엄한 국제관계의 장에서 일관되는 원칙이자 명제이다. 고대 동아시아 제국의 사례를 보아도 수궁이 간다. 왜국과 고구려, 왜국과 신라, 왜국과 중국(당)의 관계가 그러하다. 그러나 특수한 예외가 존재한다. 왜국과 백제의 관계이다. 양국은 369년의 칠지도 증여로 시작된 우호친선을 기조로 하는 동맹관계 성립 후 백제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상호 간에 칼끝을 단 한 차례도 겨냥하지 않았다. 세계외교사에 유례가 없는 특수한 사례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귀착점이 왜국의 백제 부흥을 위한 전쟁 즉 백촌강 전투에의 참가이다.

이 전쟁은 고대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전쟁, 나당연합군과 백제·고구려·왜국 연합군의 대결, 혹자가 말하는 고대 동아시아 세계대전이다.<sup>1)</sup> 그런 만큼 패전의 결과는 한국고대사, 일본고대사, 고대한일관계사, 그리고 고대동아시아사의 이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한중일 삼국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남겼다.

본 발표는 백제멸망 이전의 왜국과 백제의 관계 속에서 백촌강 전투(전쟁)의 역사적 배경을 찾아보기로 한다. 특히 파병 원인 및 목적과 관련해 종래의 통설적 이해인 ‘동이의 소제국’론에 입각한 일본학계의 이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어 백촌강 패전의 이유를 종래의 이해에 더해 왜국의 대외인식, 국제정세 인식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패전의 결과가 가져온 영향, 즉 역사적 의의에 대해 국내적(고대일본) 측면과 국제적(고대한일관계 및 동아시아) 측면에서 정리해 보기로 한다.

## 제1장 백제 구원군 파견 배경-역사적 배경과 파견 이유·목적

용어의 문제-협정의 백촌강[백강(백강구)] 전투, 광의의 백촌강[백강(백강구)] 전쟁

현재 한일 양국 학계에서는 백강구 전투, 백강구 전쟁, 백강 전쟁, 백강 전투, 백강구전, 백촌강 전투(白村江の戦い)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sup>2)</sup> 본 발표에서는 ‘전투’와 ‘전쟁’을

\* ‘백촌강 전쟁’과 고대 한일관계의 행방

1) 서영교 <<고대 동아시아 세계대전>> 글항아리, 2015

2) 본고의 주된 문제 관심은 일본고대사에 있기 때문에 일본 측(일본서기)의 사료 용어인 ‘백촌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다 엄밀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즉 광의의 백촌강 전쟁은 661년 5월의 제1차 구원군 파견에서 663년 8월의 백촌강 전투, 그리고 9월의 최종적인 주류성 함락까지의 과정을 포함한다. 협의의 백촌강 전투는 일본 수군 1만 명과 당 수군 7천 명의 격전이 펼쳐진 663년 8월 27일~28일 이틀간의 싸움에 대해 한정적으로 백촌강(백강구) 전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백촌강[백강구(백강)]의 위치

사료상으로 백강, 백촌, 백사(삼국사기 및 구당서), 백촌강(일본서기) 등으로 보이는 역사무대로서의 백촌강[백강구(백강)]의 위치에 대해서는 최근 이를 동진강(부안지역)으로 비정하는 이해도 제시되고 있으나 통설에 따라 금강하구(서천지역)설을 따른다.<sup>3)</sup> 따라서 서천군은 고대의 백강구전투(663)의 무대이자 고려시대(1380년) 진포대첩지로서 한일관계사, 더 나아가 동아시아사상의 중요한 역사 무대였다.



3) 지금까지 위치론에 대해서는 실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즉 백촌강(백강)의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錦江 설, 東津江 설, 안성천 하구 白石浦 설, 사비도성 함락시의 백강은 금강이고 周留城 함락시의 백강은 茁浦內浦라는 설, 백강은 금강이고 白村江은 斗浦川에 비정하는 설, 熊津江과 白馬江을 포함한 금강 일원을 白村江으로 비정하는 설, 泗泚河에서 錦江河口까지로 보는 설, 牙山灣 설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한 제설의 상세에 대해서는 沈正輔 1989, 144~148; 同 2003, 172~197; 卞麟錫 1994, 110~115; 서정석 2004, 203~205; 서영교 2015 등 참조.

#### 백촌강 전투에의 참전 이유 및 목적

왜국이 이 전투에 참전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의 이해가 제시되어 있다.<sup>4)</sup> (1)제국주의전쟁론, (2)조국부흥전쟁설, (3)국방상의 위기설이다.

우선, (1)설과 관련해 왜국의 백제구원군 파견 원인과 배경으로서 고대일본의 소중화의식·소중화주의의 조건 충족을 위한 외교적 선택이라는 이해가 일본학계를 대표하는 이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해는 石母田正의 고대의 제국주의론 즉 ‘동이의 소제국’론의 영향이며, 대표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공납제 유지설(鬼頭설)이나, 제명조 소중화의식의 존재를 전제로 한 학설들(坂元설, 熊谷설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설들은 공통적으로 백제와 신라에서 왜국에 장기간에 걸쳐 파견한 ‘質’에 대한 이해 및 ‘任那의 調’에 대한 이해(鬼頭, 熊谷설)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관위 수여 및 백제왕 책립 관련 기사와 관련해 西嶋定生の ‘책봉체제’론의 영향 하에서 그 의미를 과도하게 이해하는 설(坂元, 熊谷설)에 대해서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

우선, 풍장에게 직관을 수여한 것이나 백제왕 책립을 제명조의 동이의 소제국 성립과 연결지어 이해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전지왕과 동성왕 귀국 시의 백제왕 책립 사례<sup>5)</sup>, 백제의 質 장복(長福) 귀국시 왜국의 관위 수여 사례<sup>6)</sup>, 백제 사절 귀국 시의 관위 수여 사례 등을 통해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2)설과 관련해서는, 백제가 일차적으로 멸망하는 660년 단계에서, 이전의 7세기 초의 推古朝 조정에서나 645년의 을사의 변 이전까지의 시기에 있어 왜국의 대외정책을 주도했던 백제계 씨족( 즉 蘇我씨와 같은 왜국내의 외교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백제계 씨족)을 상징하는 것은 무리이다.

후술하는 것처럼, 왜국의 백제구원군 파견 결정은 백제와 왜국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구축된 우호친선의 동맹관계 성립과 안정적 유지의 결과라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왜국에 대한 백제의 ‘질 체제’(소위 왕족외교) 유지의 성과이자 결과라 할 수 있다.(김현구, 연민수, 나행주) 말할 나위도 없이 풍장이 왜국에 거주하게 된 것도 ‘질 체제’ 유지의 결과이다. 즉 백제의 왕족(귀족도 그 대상)이 質로서 장기간에 걸쳐 왜국에 체재하면서 백제와 왜국의 특수한 관계가 유지된 것이다. 풍장(교기)과 제명(황극)·천지천황(中大兄황자)과의 장기간에 걸친 친교의 성과이자 對신라대항책으로서 백제가 선택한 對왜외교 승리의 결과로 보아야 마땅하다.

(3)설 즉 대외적 위기설에 대해서는, 齊明天황은 물론 왜국내의 실질적인 정치적 주도권을

4) 왜국의 백제부흥군 파견 이유 및 목적을 둘러싸고도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즉, 구원군 파견 이유 및 배경을 ①왜왕권이 백제에 대해 당을 대신하는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라는 견해(石母田正 1971), ②당이 한반도를 세력권 안에 두면 왜국이 위협에 처하게 되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견해(井上光貞 1975), ③왜왕권이 백제왕을 책립하기 위해서라 추측한 견해(八木充 1986), ④『일본서기』에 보이는 왜와 백제·신라 간 공납관계를 백제멸망 후에도 확보하여 왜국내의 모순을 극복하고 권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견해(鬼頭清明 1976), ⑤왜 왕권과 畿內 유력호족에 의한 선진문물 독점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調 납입국인 백제왕권을 부흥시키고 고구려를 지탱시키기 위해서라는 견해(鈴木英夫 1985), ⑥任那의 調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이해(田村圓澄 1981) 등. 이와 관련한 연구사 정리는 정효운 1995, 185~187 참조.

5) 『日本書紀』卷十 乙巳神天皇十六年(乙巳二八五)是歲。百濟阿花王薨。天皇召直支王謂之曰。汝返於國以嗣位。仍且賜東韓之地而遣之。〈東韓者。甘羅城。高難城。爾林城是也。〉

『日本書紀』卷十四 雄略天皇二三年(己未四七九)夏四月。百濟文斤王薨。天皇以昆支王五子中。第二末多王幼年聰明。勅喚內裏。親撫頭面誠勸慰。使王其國。仍賜兵器。并遣筑紫國軍士五百人。衛送於國。是爲東城王。

6) 『日本書紀』卷二四 皇極天皇元年(六四二)八月丙申(十三)。以小德授百濟質達率長福。中客以下授位一級。賜物各有差。

지닌 中大兄황자나 中臣鎌足이 660년 8~9월의 백제멸망 소식을 접한 단계에서, 당이 한반도 남부까지를 직접지배할 것으로 예측하고 왜국의 직접적인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막으려고 했다고 상정하는 것은 무리이다(倉本, 154쪽 등). 서일본 전역에 걸친 일련의 국방상의 방어시설의 구축 즉 664년의 사키모리(방인) 배치와 봉화 체제 정비, 규슈지역의 水城 건설<sup>7)</sup> 및 665~667년에 걸친 서일본 각지의 백제식 산성 축조<sup>8)</sup> 등은 어디까지나 백촌강 패전 이후 시기에 본격적으로 강구된 대책이다. 오사카 難波에서 나라 大和(야마토)로의 환도를 국방상의 위기위식의 소산으로 보는 이해도 있으나, 역시 이는 중대형의 정권 장악의 결과로서 孝德천황의 정치적 거점이었던 難波를 떠나 자신들의 고향으로의 환도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하다. 그 점은 667년 아스카(飛鳥)에서 오미(近江) 大津京으로의 천도<sup>9)</sup>와 비교해 보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아스카에서 오미로의 궁거의 이전이야말로 백촌강 패전 이후 왜국이 경험한 미증유(未曾有)의 위기위식의 소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67년에는 최전선인 對馬島에 金田城을 축조한 것을 비롯해 讚岐에 屋嶋城, 야마토에 高安城을 축조하여 對馬에서 야마토에 걸친 각지에 방어시설이 배치되었다. 야마토지역까지 적의 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조치이다. 같은 667년에 왕도를 近江의 大津에 옮긴 것도 주로 국방상(방어상)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倉本설)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는 일본학계의 통설이라 할 수 있는 (1)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 가) 사카모토(坂元義種)의 견해

①제명천황 7년, 661년 천황의 사후에는 황태자가 지휘를 하여 귀국하는 **풍장왕자에게 직관의 관위를 수여하고** 처로서 다신장수의 동생과 결혼하게 하였다. <중략> 왕자는 구원군의 호위를 받으며 백제로 들어가 **662년 왜국의 책봉을 받아 백제왕에 취임**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일본이 백제왕을 신하의 지위에 두는 것임을 의미**한다. (중략) 일본은 백제구원군의 파견을 일본의 백제 지배, 나아가서는 반항적인 신라 지배(정벌)의 호기로 생각했던 것인데 이 전쟁의 결과, 한반도에 대한 발판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동씨 집필<<대외관계사사전>> ‘백촌강 전투’ 항목)

②왜왕에서 대왕으로, 대왕에서 천황으로의 코스를 생각할 때 중국황제의 책봉을 거부했던 **<일출처의 천자>가 왜5왕 이래 한반도 제국의 왕들 위에 군림해 온 흐름 속에서 백제왕을 이끌고 당과 싸운 백촌강의 전투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획득한 것이지만 신라에 의한 한반도 통일전쟁의 과정 속에서 한반도에서 벗어난 **백제왕족을 비롯한 다수의 망명자를 조정내에 규합함으로써 제변의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천황의 존귀성은** 어쩔 수 없이 고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坂元, 1993, 104쪽)

#### 나) 구마가이(熊谷公男)의 이해

여제가 백제구원을 “石의 왕도” 왜경의 조영과 阿倍比羅夫의 북정이라는 제명조의 2대 ‘興事’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은 [천하]적 세계의 중심과 주변에서의 ‘흥사’였는데, 이 백제부흥은 **한층 더한 천하적 세계의 확대책**이다. 왜국에 장기간 체재하고 있던 **백제풍(여풍장)을 백제왕에 옹립, 원군을 파견하여 백제부흥을 실현시키면 왜국**

7) 『日本書紀』卷二七天智天皇三年(六六四)是歲。於對馬嶋。壹岐嶋。筑紫國等置防與烽。又於筑紫築大堤貯水。名曰水城。

8) 『日本書紀』卷二七天智天皇四年(六六五)秋八月。遣達率答怱春初築城於長門國。遣達率憶禮福留。達率四比福夫於筑紫國築大野及椽二城。 및 『日本書紀』卷二七天智天皇六年(六六七)十一月是月。築倭國高安城。讚吉國山田郡屋嶋城。對馬國金田城。

9) 『日本書紀』卷二七天智天皇六年(六六七)三月己卯《十九》。遷都于近江。

은 백제를 부용국으로 휘하에 둘 수가 있게 되어 백제를 포괄하는 천하적 세계에 군림하는 '치천하대왕'의 권위는 고양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제명천황의 의도였다고 생각한다. 백제부흥책은 여제에게 있어서는 최후이자 최대의 흥사였던 것이다. (熊谷, 2001, 302쪽)

다) 구라모토(倉本一宏)의 이해

백촌강 전투의 대외적인 목적 즉 파견 이유에 관해서는, <동이의 소제국> 즉 중화제국으로부터 독립하여 한반도제국을 하위에 두어 蕃國을 지배하는 소제국을 만들고 싶다는 원망(願望)이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어서 中大兄과 鎌足도 그에 따른 것이다. (倉本, 2017, 154쪽)

이상에서 제시한 일본학계의 대표적인 이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石母田正의 동이의 소제국론의 영향이라 할 수 있는데, 일본고대사의 기본적인 역사상을 규정한 石母田의 학설은 후술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일본학계의 이해에 있어서 제명조 당시에 그러한 소중화 인식의 존재나 그에 기초한 국가체제의 존재를 자명한 전제로 하면서 소제국의를 제명조 대외정책 결정의 규정 요인으로 과도하게 이해하는 것은 무리이다. 즉 7세기 제명조의 소제국 지향을 역사적 사실로 전제한 위에서 백촌강 전투에의 참전을 이해하는 것은 당시의 역사상을 크게 왜곡하는 것이다.

일본고대국가 형성에 있어 대외적 요인 즉 국제적 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石母田正의 '동이의 소제국론' 자체, 그 입론의 사료적 근거에 커다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 (졸고, <일본고대사와 동이의 소제국론> <<일본역사연구>>45, 2017) 무엇보다도 6세기 이전의 역사상 이해는 '일본서기 사관'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末松保和 <<임나흥망사>>(1949)의 이해에 근거하고 있으며, 7세기 <<수서>>왜국전의 대국의를 관한 내용도 역시 7세기 단계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세계의 일원인 한반도 제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자국중심주의 의식, 즉 소중화주의의 존재를 현실의 역사세계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의식과 현실의 차이를 무시한 역사이해이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제국과 왜국의 '질' 및 '임나의 조'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고대제국주의 왜국의 존재를 부동의 역사적 사실(실체)로 전제한 위에서 왜국 중심의 역사이해를 하고 있다. 아울러, 石母田正의 동이의 소제국론은 8세기 초에 완성된 일본율령국가의 대외관으로서 大寶律令에 규정된 당=인국, 한반도=신라=변국이라는 후대의 역사인식을 7세기, 6세기, 더 거슬러 올라가 5세기의 왜5왕 단계에까지 그 기원을 소급해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앞에서 제시한 이해들에 대해 관련 사료를 통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로 한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일본 역사학계는 기본적으로 (1)설을 전제로 백촌강 전투에의 참전 즉 백제구원군 파견의 이유 및 목적으로 삼고 있다.

파견의 역사적 배경 이해와 관련해 <<일본서기>> 齊明天皇 6년(660) 10월조 기사에 분주에는 풍장의 백제왕 책립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책(或本)에는 천황이 풍장을 왕으로 세우고 새상(塞上)을 보좌로 삼아 예를 갖추고 떠나보냈다고 한다."고 적고 있다.<sup>10)</sup>

이 기사에 대한 일본학계의 통설적 이해는 왜왕의 백제왕 책립을 사실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우선 사실관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풍장의 경우 천황에게 먼저 책봉을 받고 비로소 백제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백제가 멸망한 직후에 풍장을 옹립해 백제왕으로 삼겠다는 복신 등 백제부흥운동 세력의 요청에 따른 것임은 일본서기 기사가 증명하고 있다.<sup>11)</sup> 따라

10) 『日本書紀』卷二六齊明天皇六年(六六〇)冬十月。(진략) 宜有司具爲與之。以禮發遣云云。〈送王子豐璋及妻子與其叔父忠勝等。其正發遣之時。見于七年。或本云。天皇立豐璋爲王。立塞上爲輔。而以禮發遣焉。〉

서 제명천황의 풍장왕 책립은 그 자체를 역사적 사실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남는다. 즉 뒤에서 제시한 사료를 통해 확인되는 것처럼, 질 귀국 시의 전지왕, 동성왕에게 백제의 왕위를 잇게 했다는 내용과 흡사한 것으로 이러한 기사들은 어디까지나 일본서기 편자의 한반도 번국 관이라는 후대의 역사 인식에 기초해 윤색된 기사이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663년 백촌강 전쟁 패전 이후 30년 가깝게 지난 시점인 691년 정월에 持統천황이 의자왕의 후예인 선광왕 일족에 대해 당시의 공경·귀족에 준하는 파격적인 관위 수여를 통해 廷臣化를 꾀하고<sup>12)</sup> 이를 전후해 백제왕족에게 ‘百濟王氏’를 사성(賜姓)한 역사적 실례<sup>13)</sup>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사료 1> 질 귀국 관련 사료-백제왕 책립 사례

질 직지(전지) 귀국시의 백제왕 책립[應神16年(285-->405)是歲]

是歲。百濟阿花王薨。天皇召直支王謂之曰。汝返於國以嗣位。仍且賜東韓之地而遣之。

질 곤지의 왕자 동성왕 귀국시의 백제왕 책립[雄略23年(479)4月]

廿三年夏四月。百濟文斤王薨。天皇以昆支王五子中。第二末多王幼年聰明。勅喚內裏。親撫頭面誠勸慰。使王其國。仍賜兵器。并遣筑紫國軍士五百人。衛送於國。是爲東城王。

<사료 2> 질 귀국 시의 관위 수여 사례

황극조 질 장복 일행 귀국시의 관위 수여[皇極元年(642)八月丙申(13)]

丙申。以小德授百濟質達率長福。中客以下授位一級。賜物各有差。

이상을 통해 백제구원군 파견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일본학계의 동이의 소제국론에 입각한 통설적 이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결국, 이러한 왜국의 국가의식 고양과 함께 한반도제국을 번국으로 자리매김 한 소위 소중화 일본의 탄생은 663년의 백촌강 패전 후의 持統朝에 있어서의 선광왕에 대한 사성 즉 ‘백제왕 씨’의 탄생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귀결은 大寶律令의 당=인국, 한반도(통일신라, 나아가 발해)=번국관의 정립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구원군 파견 이유와 관련해 (4)선진문화 도입창구의 확보 및 공납제 유지설(鬼頭清明)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1)설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데, ‘질’과 ‘임나의 조’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다. 질=국가 간의 복속의 상징, 調=외교상의 복속의례의 조공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한일관계사상에 나타난 백제·신라에서 왜국으로 보내진 質과 調는 질=외교특사(현재의 대사관의 대사에 해당) 신분이고(졸고, 2006), 調=외교상의 전략물자의 일환(山尾幸久, 1989)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왜국의 백제구원군 파견 배경과 관련해, 倉本은 대내적 요인에 주목하여 3~4가지의 다른 요인을 추측하고 있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天智와 鎌足 등 지배자층들이 의도적으로 위기의식을 고양시켜 국내의 지배체제 구축에 이용하고자 했다는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내정과 외교의 불가분성을 이용하기 위해 참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새로운 이해를 제

11) 『日本書紀』卷二六齊明天皇六年(六六〇)冬十月。百濟佐平鬼室福信遣佐平貴智等。來獻唐俘一百餘人。今美濃國不破。片縣二郡唐人等也。又乞師請救。并乞王子余豐璋曰。(중략) 方今謹願。迎百濟國遣侍天朝王子豐璋。將爲國主。云云。

12) 『日本書紀』卷三〇持統五年(六九一)正月癸酉朔。賜親王。諸臣。內新王。女王。內命婦等位。  
『日本書紀』卷三〇持統五年(六九一)正月己卯《七》。賜公卿飲食。衣裳。優賜正廣肆百濟王余禪廣。直大肆遠寶。良虞。與南典。各有差。 참고로, 백제왕 선광에게 내려진 正廣肆는 대보령제의 종3위에 상당함.

13) 『統日本紀』天平神護2年6月28日条.

기하고 있다. 이 구라모토설은 (3)설의 범주에 속하는 이해이자 山尾씨가 제시한 대외위기론<sup>14)</sup>을 확대 발전시킨 이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지배체제 구축 작업의 본격화는 역으로 백촌강 전쟁 패전이 가져온 외적 요인(대외적 계기)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백촌강에서의 패배는 왜국의 국내정치상의 지배체제 구축의 변화를 초래한 가장 강력한 외적 요인, 다름 아닌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하여 천지조 이후의 왜국에서 본격적으로 국내의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2009).

결국, 왜국의 백제 구원을 목적으로 한 원군 파견의 배경 및 이유에 대해서는 백촌강 파병의 원인을 일본열도의 국방상의 위기론 및 장기간에 걸친 선진문물(인적·물적자원) 공급처로서의 백제의 상실이라는 국내적 요인과 함께 백제가 장기간에 걸쳐 왕족외교에 기초해 구축한 친연 관계를 바탕으로 한 구원요청이라는 외적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하는 견해(연민수, 2003)가 내외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보다 타당한 이해라 여겨진다.

## 제2장 백촌강 전투 과정-경과

여기서는 백촌강 전투(백강구 전쟁)의 경과로서 (1)구원군의 구성과 규모, (2)파견 시기 및 배경, (3)패인 등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백촌강 전투의 규모 및 결과 등에 대한 삼국의 관련 사료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료 3>

①구당서 유인궤전(신당서 유인궤전, 자치통감, 삼국사기 백제본기 등도 거의 같은 내용)

인궤는 白江의 입구에서 왜군과 만나 4차례 싸워서 모두 이겼고 그들의 배(舟) 400척(艘)을 불태웠다. 그 연기와 화염은 하늘을 뒤덮었고 바닷물도 모두 붉게 물들었다. 적의 군병은 크게 궤멸했다. 여풍은 몸을 빠져나가 도망했다.

②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11년(671) 7월 26일조 <答薛仁貴書>의 내용

왜국의 병선이 와서 백제를 돕다. 왜선 千艘가 정박하여 白沙에 있다. 백제의 정예 기병(精騎)은 강기슭에서 (왜국의) 배를 지켰다. 신라의 효기(驍騎)는 당의 선봉이 되어 우선 백제의 강기슭에 있던 적진을 물리치자 周留城은 실망하고 마침내 항복하였다.

(至龍朔三年 總管孫仁師領兵來救府城 新羅兵馬 亦發同征 行至周留城下 此時 倭國船兵 來助百濟 倭船千艘 停在白沙{江} 百濟精騎 岸上守船 新羅驍騎 爲漢前鋒 先破岸陣 周留失膽 遂卽降下 南方已定 廻軍北伐 任存一城 執迷下降 兩軍併力 共打一城 固守拒捍 不能打得 新羅卽欲廻還. <하략>)

③일본서기 천지2년(663)8월 己酉(28일)조

가) 대당의 軍將, 戰船 170艘를 이끌고 白村江에 진열하다. 일본의 船師 가운데 처음 도착한 자와 대당의 선사가 서로 맞아 싸우다. 일본 패하여 물러나다. ……대당은 곧 좌우에서 배를 협격하여 공격하다. 순식간에 관군이 패하다. 물에 떨어져 익사한 사람이 부지기수이다. 배의 앞뒤(舳艫)를 움직이지 못하다.

나) 일본 장수들과 백제왕은 기상을 살피지 않고 서로 일러 말하기를, “우리들이 앞다투어 싸우면 저들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중군의 군졸들을 이끌고 대오가 어지럽게 나아가, 굳게 진을 치고 있는 당의 군대를 공격하였다. 당이 바로 좌우에서 배를 협공하여 에워싸고 싸우니, 잠깐 사이에 일본군이 계속 패하여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많고 배가 앞뒤를 돌릴 수 없었다. 에치노다쿠쓰(朴市田來津)

14) 山尾幸久는 일찍이 왜국의 백촌강 전쟁 참전 동기를 만성적인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이를 빌미로 국가권력의 전반적인 발달을 꾀하기 위해서였다고 보는 천지(중대형) 주도의 위기조성론을 제시했다(山尾幸久 1989, 418).

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맹세하고 분하여 이를 갈며 성을 내고 수십 인을 죽이고 전사하였다. 이에 백제왕 풍장이 몇 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로 달아났다.

#### ④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20년조

왜인과 白江口에서 만나 네 번 싸워서 모두 이겼다. 그 배 400척을 불살랐다. 연기와 화염이 하늘을 뒤덮었고 바닷물은 붉게 물들었다. 왕 부여풍은 몸을 빠져나가 도망갔는데 그 소재를 알 수 없다. 혹은 고구려로 도망갔다고 한다.

(於是 仁師仁願及羅王金法敏帥陸軍進 劉仁軌及別帥杜爽扶餘隆帥水軍及糧船 自熊津江往白江以會陸軍 同趨周留城 遇倭人白江口 四戰皆克 焚其舟四百艘 煙炎灼天 海水爲丹 王扶餘豐脫身而走 不知所在 或云 奔高句麗<하락>)

이상의 사료를 통해 백촌강(백강구) 전쟁이 나당연합군에 대해 백제부흥군과 왜국의 구원군(여기에 고구려도 가담)이 치른 국제전이라면, 백촌강 전투는 663년 8월 27일과 28일에 걸쳐 육상에서 백제와 신라의 육군이, 해상에서 당과 왜국의 수군이 치른 전투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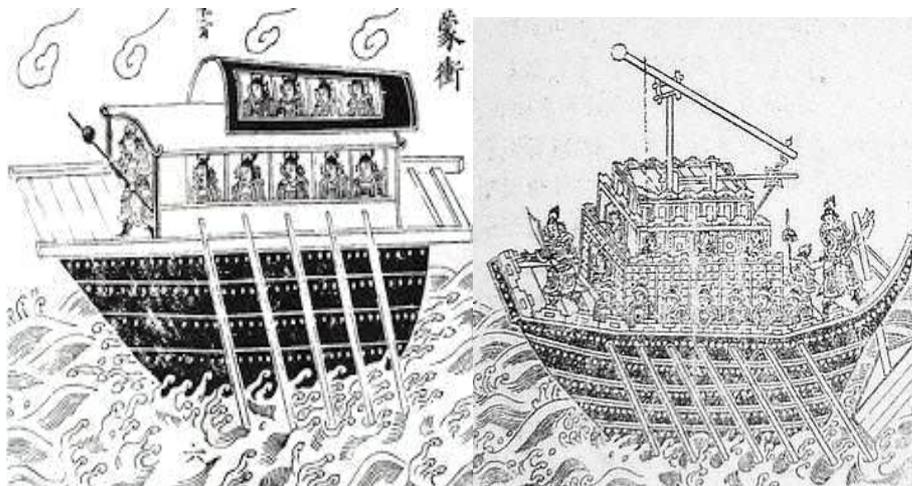
#### 구원군의 구성-규모와 전투력

후술하는 백촌강전투(나아가 백촌강전쟁)의 패배 요인과도 관련되는 사항이지만, 백촌강 전투 결과를 전하는 중국사서에는 왜군의 전선을 1천 척의 배(舟), 그 병사를 '倭敵數萬'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冊府元龜>>, <<資治通鑑>> 등). 물론 그 수에 어느 정도 과장을 포함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新川, 2003) 다만 삼국사기에도 '倭船千艘'라 특필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신라의 입장에서 백촌강 전투를 생각하면, 2만 7천에 이르는 왜국의 백제구원군의 주력이 신라 공격을 목표로 바다를 건너온 군대라고 간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질적인 백촌강 전투 즉 해전의 중심인 왜국과 唐 양국의 군세(군사 수)를 비교해 보면, 규모 면에서 1만여의 왜국군이 7천의 당 수군과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군대로서의 능력 즉 병력, 장비, 작전과 전법 등 그 어떤 면에서도 왜국 측에 승산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측의 기록인 구당서 유인궤전에는 왜의 수군은 배(舟) 400척(艘)이라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당군은 대형 병선 170艘로 구성되어 있고 더욱이 宋代의 전선인 蒙衝과 樓舡과 같은 대규모 전함을 갖추었을 가능성도 제시되어 있다(森公章 1998, 노태돈 2009 등).

\*그림 자료-蒙衝(좌)과 樓舡(우) [송대 <<武經總要>>에 보이는 중국 군선]



이하, (1)구원군의 구성과 규모, (2)파견 시기 및 배경, (3)패인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660년 10월의 왜국에 대한 구원군의 파견 및 백제왕자 여풍장의 귀국 요청에서 663년 8월의 백촌강 전투에서 패배하기까지의 과정을 <<일본서기>> 제명~천지조의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백촌강 전투 관련 연표>

연 도	일본서기 관계기사 (<가>백제, <나>왜국의 움직임)	비 고 (삼국사기·구당서 등 관련 기사)
660(제명6)	<p>&lt;가&gt; 10월, 백제의 좌평 귀실복신, 사자를 보내 당군 포로 100여인을 동반하고 來朝, 구원군의 파견과 백제왕자 여풍장의 귀국을 요청.</p> <p>&lt;나&gt; 12월24일, 귀실복신의 요청에 응해 구원군의 파견을 결정, 難波宮에 행행하여 그곳에 軍器를 배치함.</p> <p>&lt;나&gt;이해, 백제구원에 사용할 배를 駿河國에 건조하게 함. 그러나 이유 없이 배의 舳艫가 휘어짐.</p>	
661(제명7)	<p>&lt;나&gt;1월7일, 제명천황, 西征을 위해 難波를 出帆.</p> <p>&lt;가&gt;4월, 백제 귀실복신, 遣使上表하여 재일 왕자 풍장(紇解)의 송환을 요청</p> <p>&lt;나&gt;7월24일, 제명천황 물, 황태자 중대형 칭제(*水表之軍政을 지휘)</p> <p>8월, 백제구원을 위해 전장군과 후장군을 임명해 파견. 무기와 식료 등을 보냄.</p> <p>9월, 백제왕자 풍장에게 織冠을 수여, 多蔣藪의 妹를 처로 삼음. 이어 狹井檣榔 등에게 병사 5,000여명을 주어 본국으로 衛送하게 함.</p>	*661년 9월 제1차 파견군과 군수물자 수송
662(천지1)	<p>&lt;나&gt;1월27일, 鬼室福信에게 矢10만隻, 絲500근, 綿 1000근, 布1000端, 韋1000張 및 稻種 3000斛을 내림.</p> <p>3월4일, 백제왕(여풍장)에게 포 300단을 줌.</p> <p>5월, 대장군 阿曇比羅夫 등에게 船師 170艘를 이끌고 풍장 등을 백제로 보내도록 함.</p> <p>이해, 백제구원에 대비해 兵甲을 수선하고 船舶을 준비하고 兵糧을 비축함.</p>	<p>*5월의 선사 170척은 제1차 파견군과 관련됨.</p> <p>**662년 시세조의 활동은 제2차 파견군을 위한 준비과정임.</p>
663(천지2)	<p>&lt;나&gt;3월, 전장군·중장군·후장군으로 구성된 백제구원군에게 2만7천인을 내려 신라를 정</p>	*3월, 제2차 파견군 <<삼국사기>>신라본기 문무

	<p>토하게 함.</p> <p>6월, 백제구원 일본군 전장군 등 신라의 2성을 공략</p> <p>&lt;가&gt;8월13일, 풍장, 여러 장수에게 일본의 구원군(健兒 1만 명) 廬原某 등이 마침내 도착한다고 말하고 이를 맞이하기 위해 백촌강으로 나감.</p> <p>&lt;나&gt;8월27일, 백제구원 일본군의 선봉, 백촌강에 이르러 당군과 전투, 불리하여 물러남.</p> <p>8월28일, 일본군 백촌강에서 다시 당군과 전투, 대패함. 익사자 다수.</p> <p>&lt;가&gt;백제왕 풍장, 고구려로 도망감</p>	<p>왕11년7월26일조-왜의 병선 1천 척 백강에 정박</p> <p>**8월, 제3차 파견군</p> <p>&lt;&lt;구당서&gt;&gt;유인궤전 유인궤의 수군이 왜병과 조우 배 400 艘를 불태움</p>
--	---	--

<<일본서기>>에 의하면 백제 구원군의 총규모는 4만2천 명으로, 풍장 호위병(별동대) 5천, 즉 제1차 파견군 170艘, 제2차 파견군 2만7천 명(1천 척), 제3차 파견군 1만의 건아(선박 400척)로 기록되어 있다.

다만, 구원군의 구체적인 파견 시기 등에는 사료상의 중복이 보인다. 즉 일본서기의 백제구원 관련 기사에는 중복과 연대상의 혼란이 다수 보이고 있어 사실적인 경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귀실복신이 여풍장의 귀국을 요청한 것은 660년(제명6) 10월과 다음 해 4월에 보이며, ‘唐俘’(포로가 된 당군)를 현상한 것도 660년 10월과 다음 해 11월에도 보인다. 여풍장을 백제까지 호송한 것도 661년 9월과 662년 5월로 시기가 중복되어 있다.

이를 결론적으로 정리해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2-구원군 파견 시기 및 구성 관련 내용 정리>

구분	시기	규모(병사)	규모(선박)	목적 및 전투 대상	비고 (결과, 출전 등)
제1차 파견군	661년 9월	5천 명	170척(艘)	풍장 호송과 군수물자 수송 및 주류성 방어	일본서기
제2차 파견군	663년 3월	2만 7천 명	1000척	對신라전	일정한 성과 일본서기,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3차 파견군	663년 8월	1만 명	舟 400척	對 당 수군 7000	대패(백촌강 전투) 일본서기, 구당서, 삼국사기 백제본기

(1)파견 시기와 규모, 그리고 목적

제1차 파견군으로 661년 9월, 풍장 귀국 시 5,000명의 군사가 파견된다. 築紫大率帥 阿倍比羅夫가 이끄는 築紫의 병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종래의 100명~500명 규모의 파병(특히 왕자 호송군-전지왕의 경우 100명, 동성왕의 경우 500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주요 목적은 풍장의 귀국 호위와 동시에 무기, 곡물 등 군수물자의 수송이 제1차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동원된 배는 駿河國을 중심으로 건조된 170척의 배였다.

제2차 파견군은 662년 1년여에 걸친 각 지역에서의 제2차 구원군 파견을 위한 준비 과정(시세조)을 거쳐 663년 3월, 2만 7천 명을 파견하게 된다. 그 주요 목적은 ‘西征’ 즉 신라를 치는 일에 있었다. 동원된 戰船은 1천 척으로 보인다.

제3차 파견군은 663년 8월, 만여 명의 별동대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신라 공격을 위한 구원병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당 수군(170척, 7천명)과 백촌강에서 조우, 역사적인 백촌강 전투를 치르게 된다. 전투의 결과는 왜국 수군의 궤멸적인 대패로 끝났다.

왜국이 당시의 국력을 총동원해 보낸 백제파견군의 구성에 관해 鬼頭清明씨는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백제파견군의 중추기구인 장군 등의 지휘체계에는 아직 관료적·율령적 성격이 보이지 않고 호족연합군적인 느슨한 결합이었다는 점, ②이들 파견군에 참가한 군대는 기내 호족군과 지방호족군이 있으며, 전자는 가내노예제군이라 말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점, ③지방호족군은 국조제를 매개로 하여 편성된 것이라는 점 등이다. 총괄해서 말하면 파견군은 강고한 관료제를 기초로 하는 율령적 군대가 아닌 극히 원초적인 유제를 남기고 있는 築紫에 본영을 둔 천황 및 중대형에 대한 인격적 종속제를 유대원리로 하는 군대였으며, 지방호족군이 야마토정권의 백제파견군에 참가하게 된 것은 국조제라고 하는 정치적 신분제를 매개로 하여 실현된 것이며, 이 시기에 있어서도 국조제는 군대의 차출과 인솔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고 이해되고 있다(鬼頭, 1980, 170-171쪽).

이러한 왜국의 군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성인지를 알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 백제의 구원군으로 출병해 당군의 포로가 되어 있다가 훗날 귀국하게 된 사람들의 리스트이다(板楠, 1991, 제11표 참조).

<표3-백제구원군 포로 귀환자 일람>

귀국년	출신국·군	인명	출전
천지3년		土師連富杼 氷連老 弓削連元寶	지통기4-10조
천지10년	築紫	築紫君薩野馬	천지기10-11조
천무13년	築前 那珂	築前三宅連得許 猪使連子首	천무기13-12조
지통4년	築後 上陽咩	大伴部博麻	지통기4-9조 지통기4-10조
지통10년	伊豫 風速 肥後 皮石	物部藥 壬生諸石	지통기4-10조
문무 경운4년	築後 山門 讚岐 那珂 陸奥 信太	許勢部 形見 錦部 刀良 生王 五百足	속기 경운4-5조
	伊豫 越智	大領先祖 越智直	영이기 상권 제17
	備後 三谷	大領先祖	영이기 상권 제7

\*출전의 속기는 續日本紀, 영이기는 日本靈異記, 천지, 천무, 지통기는 日本書紀를 말함.

\*\*森公章(1998)씨의 연구에 기초해 작성.

駿河國의 경우, 제명7년 시세조에 의하면 선박을 조영하도록 명령하고 있어서 이 지역도 백제구원전쟁에 가담한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풍토기의 기사를 통해 常陸國과 播磨國, 그리고 備中國이 전투에 동원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일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常陸國 풍토기 香島郡조에는 ‘淡海之世’ 즉 천지천황의 시대에 石城에서 건조한 배가 香島郡에 표착해 왔다고 전하고 있다. 播磨國 풍토기의 讚容郡조에는 國宰道守臣이 官船을 제조했다고 전하고 있다. 備中國 풍토기 일문은 백제구원을 위해 천지천황이 邇磨郷에서 병사 2만 명을 징집했다고 하는 邇磨郷의 지명 유래와 관련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결국, 병선 건조 등의 군수물자 조달은 물론 직접 병사로 징발되어 백제구원전쟁 즉 백촌강 전투에 동원되어 참전한 지역은 거의 전국에 걸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구원군의 장군으로 임명되었던 장군의 출신 지역을 통해(新川, 2003)서나 일본영이기(佐藤, 2003)의 備後國 三谷郡 군령의 조상이 백촌강 전투에 참가한 이야기를 통해 그 관련 지역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후자의 사례를 통해 주인공이 귀국길에 백제의 승려 弘濟와 함께 돌아와 절을 조영하고 있는 이야기는, 후술하는 백촌강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는데 많은 시사를 준다. 즉 백촌강 전투에의 참가가 왜국에 불교문화의 지방 전파와 확산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병

제명여제의 難波에서 규슈 朝倉宮까지의 여정이 바로 군사의 징발 지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제는 백제구원을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이 정토군을 이끌고 筑紫에 이르렀다. 마치 신라정벌을 했다는 전설상의 인물 신공황후의 재래이다.(熊谷, 2001. 바로 이점이 신공황후 전설의 모델이 제명천황이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실존이 확실한 대왕 가운데에는 전혀 유례가 없다. 여제 자신이 중대형 등을 이끌고 서정을 단행한 것은 여제 자신의 결의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도중 각 지역에서의 징병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또한 구원군의 사기를 고양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備中國 풍토기>> 일문에는 중대형 황자가 下道評(오카야마현 眞備町)에서 병사를 징발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熱田津에 2개월 가깝게 체재하고 있었던 것도 징병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파병군에 징집된 국조군의 지역적 범위

앞에서 표로 제시한 포로 귀환병의 사례를 통해, 장군의 출신 지역을 통해, 선박 제조 명령이 내려진 스루가(駿河) 지역, 그리고 앞서 본 <<備中國風土記>>를 통해 備中國에서도 대규모 징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지역적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출신지가 명기된 경우를 보면 陸奥의 일례를 제외하고 筑紫1, 筑前1, 筑後2, 肥後1, 伊予2, 讚岐1, 備後1로 되어 있다. 우선 畿内 이서의 西國이 90%로 그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총 10사례 중 그 절반에 해당하는 5례가 九州지방의 사람들이다.

이상의 자료에 대한 岸俊男씨의 분석을 통해 대장군 지휘하에 실제로 출정군을 구성한 것은 울령제하의 국군제로 이행하면서도 서국의 국조와 배하의 병사로 구성되는 ‘국조군’이 중심이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九州지역의 국조군이 중추를 이루었다고 이해되고 있다(岸俊男, <防人考>, <<日本古代政治史研究>>, 1966).

특히 九州의 국조군은 이미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大化전대부터 외정군으로 동원되고 있었다. 웅략기23년(479) 4월조에 백제와 함께 고려(고구려)를 친 인물로 보이는 筑紫安置臣과 동

馬飼臣을 비롯하여 흠명기15년(554) 12월조에는 백제 왕자 여창을 구한 궁의 명수 축자국조 鞍橋君의 활약상이 특필되어 있으며 흠명기17년(556)정월조에는 백제왕자 혜의 귀국에 즈음하여 용사 천명을 이끌고 津의 요로를 지킨 筑紫火君, 마찬가지로 흠명조에 大伴連金村을 따라 海表에 사자로 보내진 葦北國造靺部 阿里斯登(민달10년 시세조)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왜국군의 구성과 군사상의 한계

왜국 파병의 백제부흥군은 그 수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군은 당의 수군에 적수가 되지 못했다. 왜일까.

당군은 백전연마로 싸움에 익숙해 있었고 게다가 이때는 백촌강에 미리 도착해 진을 치고 왜군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경험이 부족한 왜군은 명확한 작전이 없었고 지휘통제도 충분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을 <<일본서기>>는 ‘왜국의 제장과 백제왕은 “우리가 기선을 제압하면 적은 스스로 퇴각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왜국의 대오가 무너진 중군의 부대를 이끌고 진격하여 굳건하게 진을 치고 있던 당군에 공격을 가했으나 오히려 당의 협격을 당해 순식간에 왜군은 패배했다’고 기술하고 있다.<sup>15)</sup>

그런데 왜군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森公章씨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왜국군은 호족군의 결집이었고 지휘계통이 一元化 되지도 못했다.

661년 8월에 한반도에 파견된 선봉대는 전후 2군의 편성이며, 663년 3월의 증원부대도 전중후의 3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전군을 통괄하는 지휘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중후군의 명칭도 군대의 편제가 아닌 구원군이 파견된 시간상의 전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군대조직으로서는 미숙하다고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군은 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구원군 모집의 대상과 그 중심 지역

왜군의 병사는 주로 서일본에서 징발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지역적으로는 동일본 나아가 멀리 陸奥에까지 미치고 있다. 즉, 구원군 징발 대상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나 역시 중심 지역은 北九州지역이었다. 이는 한반도와의 지리적 위치상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왜국의 대외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규슈 지역의 특수성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와 관련해 왜국의 양대 군사씨족인 物部씨와 大伴씨의 부민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점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를 部民과 屯倉의 분포 및 귀환 병사의 출신지 일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규슈의 해당지역과 物部(○), 大伴部(●)의 분포 상황을 정리해 보면 <표4>와 같다.

<표4-九州지역의 물부씨와 대반씨 부민의 분포>

국 명	物部(군명)	大伴(군명)
豊前	○(上上毛, 企救)	●(上毛)
豊後	○(直入)	
筑前	○(嶋, 鞍手)	
筑後	○(御井, 生葉, 三瀦, 山門, 三毛)	●(上妻)
肥前	○(基肄, 三根, 養父)	●(小城)
肥後	○(合志)	●(菊池, 益城, 葦北)

<표4>를 통해 축·화·풍의 규슈 6개 지역에 물부씨의 부민이 널리 분포해 있고, 대반씨의 경우도 풍후와 축전을 제외한 4개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야마토 왕권의 대표적인 군사씨족인 모노노베씨나 오토모씨가 이끄는 한반도 파견군이 구성될 경우에 규슈지역의 인민이

15) <<일본서기>> 천지2년(663)8월 己酉(28일)조. 본문 <사료 3>의 ③ 참조.

일차적으로 차출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체천황 이후 安閑·宣化 양 천황기에는 전국에 걸쳐 屯倉설치 기사가 집중되어 있다. 九州에 관해서도 安閑2년(535) 5월기에 축자의 穂波(筑前國 穂波郡), 鎌(筑前國 嘉磨郡), 豊國의 轉碕(豊後國 國埼郡), 桑原(豊前國), 肝等(豊前國 京都郡/大分현 刈田향), 大拔(豊前國 企救郡), 我鹿(豊前國 田川郡), 勝碕(豊後國 國埼郡), 火國의 春日部(肥後國 飽田郡 私部郷) 등 8곳의 둔창이 설치되어 있다. 앞서 설치된 糟屋둔창(筑前國 糟屋郡)을 합하면 9개이다.

<표5-九州지역의 둔창과 위치>

둔창	위치(국군-현재지)	출전
糟屋	筑前國 糟屋郡(福岡현)	계체기22-12조
穂波	筑前國 穂波郡(福岡현)	안한기2-5조
鎌	筑前國 嘉磨郡(福岡현)	상동
桑原	豊前國(福岡현? 혹은 大分현)	상동
肝等	豊前國 京都郡(福岡현)	상동
大拔	豊前國 企救郡(福岡현)	상동
我鹿	豊前國 田川郡(福岡현)	상동
勝碕	豊後國 國埼郡(大分현)	상동
春日部	肥後國 飽田郡(熊本현)	상동

그 위치는 北九州 연안부와 遠賀川 상류에 8개 둔창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하나만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筑後를 사이에 둔 春日둔창이다. 이러한 규슈지역의 둔창의 분포상황은 역시 한반도 출병시의 병량미 확보와 那津관가의 경영재원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구마모토(熊本) 평야에 위치하는 春日부둔창은 有明海·八代海 방면으로부터의 출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筑紫君이나 火君 일족의 재란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적·군사적 거점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板楠, 1991).

이상을 통해 규슈지역이 왜왕권의 한반도 파병에 있어 외교의 최전선, 대외 군사기지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백제부흥을 목적으로 파견된 왜국군의 특징은 상비군이 아닌 각 지방의 國造가 이끄는 국조군, 즉 豪族軍이었다는 점, 그 중심 지역 및 병력은 서일본 지역 특히 규슈지역 즉 筑紫國의 병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이며, 이러한 두 요소는 곧 백촌강 전투의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백촌강으로의 여정

왜국의 백제구원군 파견의 역사적 배경 및 구체적인 구원군 파견 과정과 관련해서는 특히 당과 백제 및 신라와의 관계, 백제와 왜국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651년의 당의 백제에 대한 최후통첩, 653년과 654년의 제2차 견당사와 제3차 견당사 파견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 위에서, 특히 653년의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13년 조의 의미 즉 ‘王與倭國通好’라 특필한 의미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651년 신라와 당의 일체화와 당 고종의 백제에 대한 최후통첩, 전자는 唐服을 착용한 신라사의 來倭로 나타났고, 왜국 조정에서의 ‘신라정토’ 주장의 대두로 이어진다. 후자는 653년의 백제와 왜국의 관계 강화 즉 의자왕의 ‘왜국과의 통호’로 나타난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과 관련시켜 보면, 이후 655년 제명조의 신라의 質 彌武의 처지(왜국에서 사망)도 장차 현실로 나타날 국제관계의 커다란 변화를 암시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아울러, 왜국의 백촌강으로의 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국내 백제의 質의 장기적 체재 소위 ‘질외교(왕족외교)’의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640년대에서 660년대를

중심으로 왜국에 체재하고 있던 백제와 신라의 질을 정리해서 제시하기로 한다.

<표6-왜국 체재의 백제·신라의 질>

시기	백제의 질	신라의 질	비고
서명조(629~) 및 그 이전	武子 長福		무자는 서명조 이전 시기 래왜 장복은 황극조에 들어 귀국
황극조(642~)	풍장(교기)		642년 이후 장기 체재
효덕조(645~)	풍장(교기)	김춘추(647), 김다수(649)	김춘추 648년에는 귀국 후 입당
제명조(655~)	풍장(교기)	彌武(655)	미무, 입국 후 곧 사망
천지조(661~)	풍장(교기)		

#### 과정과 배경

백제말기 의자왕대인 650~660년대의 한일관계, 특히 백제·신라와 왜국의 관계를 質의 관점에서 보면 흥미로운 점이 포착된다.

주지하는 것처럼, 645년의 개신정권 수립 이후 孝德朝 왜국의 대외정책이 백제일변도에서 소위 다면외교로 전환된다.(김현구, 1985) 그 결과가 신라의 질 파견이다. 즉 402년의 신라 최초의 질 未斯欣의 파견 이후, 약 250년 만인 647년의 김춘추, 649년의 김다수, 그리고 655년의 미무로 이어진다. 그러나 신라의 질은 단기간의 체재에 그치고 특히 최후의 질 미무의 파견지(왜국)에서의 죽음은 신라와 왜국 간의 향후의 국가관계를 암시하는 듯하다.

이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백제의 질이다. 즉 백제의 질은 397년의 태자 전지의 왜국행 이후 663년의 백촌강 전투에 이르기까지 왜국의 각 조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왜외교를 수행하고 있었다.

아울러, 백촌강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속에서 <<삼국사기>> 백제본기가 ‘王與倭國通好’라 특필하고 있는 653년이 커다란 획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왜국의 제2차 및 제3차 견당사 파견 시기의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왜국의 제2차 견당사가 파견되어 귀국으로 임무를 완수하기 이전 시기에 긴급하게 제3차 견당사가 파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3차 견당사의 대표로 高向玄理가 발탁되어 직접 入唐하고 있는 점은 중요한 시사를 준다. 고향현리는 646년 개신정권의 國博士로서 신라에 직접 건너가 김춘추와의 교섭을 통해 신라의 질 체제를 성립시킨 당사자인데, 그런 그가 직접 견당사 사절단을 이끌고 당과의 교섭을 위해 입당했고, 무엇보다도 입당 전에 신라에서 일정 기간 체재하면서 신라의 집권세력들과 교섭을 한 후 당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653년과 654년 사이에 국제정세의 긴박과 급변하는 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당의 한반도에 대한 강경태도의 명확화(즉 백제·고구려를 노골적으로 적시, 신라 측에 우호적 태도 천명)와 이에 대한 백제의 대응책으로서의 대외전략상 왜국과의 한층 더한 관계 강화로 나타난다. 즉 의자왕 13년(653)의 왜국과의 通好 즉 結好이다.

<사료 4> 질 관련 사료-통호, 결호, 화통 사례

- ①삼국사기 의자왕13년(653)8월조 十三年 秋八月 王與倭國通好
- ②삼국사기 아화왕6년(397)5월조 六年夏五月 王與倭國結好 以太子腆支爲質
- ③광개토대왕비문 영락9년(399)기해조 百殘違誓與倭和通
- ④삼국사기 실성왕 원년(402)3월조 元年三月 與倭國通好 以奈勿王子未斯欣爲質

그 과정을 보면, 651년 신라사가 唐服을 착용하고 來倭하여 당과의 일체화를 과시하는 일이 발생한다(그 전제로서 648~649년 김춘추의 왜국행에 이은 중국행, 당 태종과의 외교를 통해 당복 착용과 당 연호 사용을 약속하고 백제 공격을 위한 원군 약속을 받음). 이에 대해 왜국 조정에서는 신라정토의 주장이 대두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653년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즉 652년, 653년 의자왕대의 대당관계의 악화, 의자왕 13년조의 '왕여왜국통호' 즉 **왜국과의 결호**, 655년 왜국에 있던 신라의 질 미무의 병사가 양국의 관계(나아가 이후의 국제관계)를 시사(암시)하고 있음은 앞서 언급한 그대로이다.

왜국의 백촌강으로의 여정, 나아가 고대한일관계사 이해에 있어, 특히 백제와 왜국의 장기간에 걸친 우호친선에 기초한 부동의 '**절대 동맹**'의 역사 과정에서 차지하는 恒常적이고 안정적인 백제의 대왜 '질'파견 정책의 역할과 의미를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

663년 8월, 백제 부흥 전쟁-제명 여제의 서정(西征)

백제가 멸망한 직후인 660년 9월, 백제에서 온 사자가 도착하여 신라가 당군과 함께 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킨 일, 군신의 다수가 당의 포로가 되었다는 점, 귀실복신·여자인 등의 유신들이 거병하여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한다. 나아가 다음 달 10월에 복신이 왜국에 사자를 보내어 백제가 당에 의해 멸망한 사실과 함께 구원군 파견과 왜국에 체재하고 있던 왕자 여풍장의 송환을 요청, 풍장을 왕위에 앉혀 백제를 부흥하려고 한다.

이에 왜국은 즉시 구원군의 파병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신라뿐만 아니라 당을 적으로 돌린다는 의미가 있다는 이해도 제기되어 있다.(熊谷, 2001) 그 이유로 구원을 요청해 온 백제의 사자로부터 자세한 전황보고가 있었고 귀실복신으로부터는 백명 정도의 당인의 포로도 헌상되었기 때문에 왜국 측도 물론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이해에 대해서는 제명여제의 '출정의 宣'[제명6년<660>10월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의 왜국조정이 실제로 당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전제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이때 제명천황은 60세(일설에는 67세)였다. 국제정세에 대한 상황 파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비판적인 이해도 있으나 노령의 여제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백제와 왜국의 관계가 **특별하고 특수한 것**이었다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앞서 언급한 백제의 '**질(왕족)외교**'의 의미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풍장은 '규해(紉解)'라고도 표기하여 일본서기에 의하면 631년(서명3)에 質로서 來倭했다고 보이나 이 연차는 오류이며, 642년(황극원년)이나 643년에 왜국에 온 교기(翹岐)라는 백제왕자와 동일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래왜 이후 20년 가깝게 왜국에서 생활하게 된다.

풍장(교기)의 20년(혹은 30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친 '質'로서의 왜국 생활은 백촌강으로의 여정에 있어서나 백촌강 전투의 결과에 있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풍장의 도왜에 대해서는 631년 설과 642년설이 존재한다. 특히 황극·제명과 풍장의 관련성은 깊다, 서명조의 래왜라면 부군이 천황이던 시대이고 본인이 황후시대였다. 이 경우라면 630년에서 660년의 약 30년간의 교류가 있었던 셈이다. 만약 황극조의 來倭라면 640-660에 걸친 약 20년 동안의 교류가 있었다. 그 어느 쪽이든 황극·제명천황과는 상당히 깊은 인연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효덕조의 백치 개원 시에 풍장의 존재도 확인된다. 이는 황국·제명조는 물론 효덕조에 있어서도 왜왕권과의 정치적 우호관계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 제명천황이 백제구원군 파견을 신속하게 결정한 배경의 하나로서, 여제 제명이 의욕적으로 실시한 대규모 조영사업 및 에미시 정토 사업에서의 일정한 성과가 나름의 자신감을 갖게 만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熊谷, 2001)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는 이해이다. 왜냐하면, 다음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제명의 백제 구원군 파견 인식은 결국 추고조 단계의 신라정토, 제명조 단계의 에미시 정토의 인식에 머물러 있었다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3)백촌강 전투에서의 패인과 인식

이에 대해서는 당시의 왜국 지배층의 대외인식(국제정세), 백제 구원에 임하는 태도(제명천황의 출진의 변(宣)), 대당인식 등의 문제를 통해 검토하기로 한다. 즉 7세기 초 추고조의 신라정토 사례 및 제명조의 에미시 정토 시와 천지조의 백제구원군 파견 시의 병사 규모(병사수와 선박수)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제명조 당시의 대외인식상의 미비, 특히 당에 대한 정세 파악의 불충분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원군 파견의 직접적인 목적이 對신라전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백제구원군은 어디까지나 신라 공격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당군과의 전투는 상정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결국 전쟁대상으로 상정하지 않았던 당수군과 대결한 백촌강 전투는 그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 패배 원인

지금까지 백촌강 전투에서 왜국이 패배한 이유에 관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지적되었다(鬼頭清明, 森公章, 倉本一宏, 노태돈, 서영교 등).

①당군은 8월17일 백촌강에 도착하여 대기하면서 주변 환경을 숙지하고 전술을 준비한 데 비해, 뒤늦게 도착한 왜의 수군은 기상 조건이나 조수 등에 관한 고려 없이 전투에 들어간 전술적 실책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서기는 이를 <기상>을 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결과가 '연기와 화염이 하늘에 가득하고 바닷물이 모두 붉게 물들었다'고 전하는데 바로 화공이 승패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②당군은 진을 형성하고 일정한 전술에 따라 절도 있는 움직임을 전개한 데 비해 왜국군은 용감하게 돌격하여 단병접전으로 승부를 결정지으려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왜국군의 구성이 상비군이 아니라 지방 호족군 즉 국조군이 중심이라는 점, 따라서 상하의 지휘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한 오합지졸의 군대였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아울러 전·중·후군의 편성을 하고 있으나 이는 수직적인 지휘체통이 아니라 파견된 순서를 말하는 것이며 출전한 장수와 사병의 출신지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소규모 단위의 병사징집, 전략과 전술의 부재 등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백제부흥군 내부에서의 지도부의 반목과 분열, 갈등이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왜국의 파견군과 백제부흥군 사이의 갈등과 불협화음도 지적되고 있다.

④전력의 차이로서 함선의 차이도 주목된다. 당의 수군은 전투를 전제로 구축된 전함이라면 왜국 수군의 배는 '舟'로 표현되는 소형의 준구조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⑤백제와 신라의 육상(지상)전에서의 승패(백제의 패배)가 왜국과 당 수군의 해상전투의 결과(왜국 구원군의 대패)를 규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서영교, 2015).

이상과 같은 백촌강 전투(나아가 백촌강 전쟁)에서의 다양한 패인과 관련해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사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왜국군의 패배와 관련해서는 백제구원군 파견(백촌강 전투)에 있어서의 왜국 측의 인식상의 문제도 경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일차적으로 ①당과의 결전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②신라와의 전투만을 상정한 파견이었다는 점, 그것도 ③추고조의 대신라전의 경험과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아울러 ④제명조의 동북방의 에미시 정토나 肅愼 정도의 상대를 염두에 두고 군사 파병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이상을 요컨대 당시 왜국 조정의 국제정세에 대한 파악이 미비했음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결국, 백촌강에서의 패배, 즉 백제부흥전쟁의 실패는 이미 출발 전부터 예견된 결과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구원군 파견 인식과 패배 원인

제명천황의 백제구원군 파견 인식은 일본서기 제명천황 6년(660) 10월조에 잘 나타나 있다. 즉, 복신이 파견한 백제의 사신이 말하길, “백제국은 멀리 천황의 가호를 의지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다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바라올건대, 백제국에서 천황을 섬기라고 보낸 왕자 풍장 등을 맞아 국주로 삼고자 하니 이를 허가해 주십시오. 운운.”

이에 천황은 다음과 같이詔를 내렸다.

“구원군을 청하는 것은 예전에도 있었다고 들었다.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돕고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것은 고전에도 적혀있다. 백제국이 곤궁하여 우리나라에 의지해 와서 ‘본국은 나라가 망하여 의지할 곳도 부탁할 곳도 없이 창을 베고 자면 쓴맛을 보는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 반드시 구원해 달라’고 멀리서 와서 표를 올렸다. 그 마음을 저버릴 수 없다. 장군들에게 각각 명령하여 여러 길로 함께 군대를 파견하도록 하라. 신속하게 움직여 일제히 사탁(沙喙)에 집결한다면 우두머리 악인을 배어 백제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마땅히 유사들은 모두 잘 준비하여 예를 다하여 왕자를 출발시키도록 하라. 운운”

여기에 당시 왜국조정이 백제 멸망 소식을 접하고 어떠한 입장에서 구원군을 모집하여 파견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한 敗因 ①~④ 가운데, ②와 관련된 내용 즉 싸움의 대상이 신라였다는 점은 다음의 사료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 <사료 5> 백제구원군 파견 인식

제명기 6년(660) 시세조 [欲爲百濟, 將伐新羅]

동 7년(661) 정월조 [西征]

천지기 즉위전기(제명7년8월조) [救於百濟, 仍送兵杖五穀]

이상을 종합하면, 백제구원을 목적으로 한 왜국의 ‘西征’군 파견은 사탁(沙喙) 즉 신라에 집결하여 신라를 정벌하는 것을 최대의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패배 원인-백촌강 전투의 패전 즉 백제부흥책의 실패, 그 원인은?

군사적으로는 상비군이 아닌 지방의 국조군(호족군)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國 단위의 주로 축자국의 병사들이 중심, 야마토왕권의 군사씨족인 모노노베씨와 오오토모씨 일족이 이끄는 모노노베와 오오토모베가 중심이었다는 점, 지역적으로는 九州의 축자국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 시즈오카 駿河國, 동국, 陸奥國 등 일본열도 전 지역에 걸쳐 징발되었다는 점 등이다.

평소의 전투 경험의 차이도 그 요인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백촌강 전투 이전의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에 파견된 왜국의 군사는 백제에 대한 100명, 500명 정도의 원군 파병 이외에는 제명조의 에미시정토에 동원된 동국의 국조군이 중심이 되어 행한 에미시를 상대로 한 전투 경험이 전부라 할 수 있다.

왜국 내에서는 527년의 야마토왕권에 대한 지방세력의 최대규모 반란인 이와이(磐井)의 난 이후 672년의 국내 최대의 내란이라 할 수 있는 임신의 난까지 대규모의 전쟁은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비군에 준하는 지휘계통이 일원화된 군사적 전력 양성의 필요성이 부족했다는 점, 나아가 당시의 국가시스템의 단계가 아직은 唐은 물론 한반도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급한 수준으로 병사 자체가 상비군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종래 왜국의 한반도 파견 병사의 규모는 최대 천명, 기본적으로는 500명 단위이며, 최소 100명 규모였다. 527년의 이와이(磐井)의 난, 금관가야 멸망 시의 소위 '임나복건'을 위한 군대 파견 규모 즉 近江毛野臣이 이끄는 6만 명은 <<일본서기>> 편자의 후대적 과장이라 할 수 있다.

백촌강 전투 참가군의 구성을 치밀하게 분석한 鬼頭清明의 연구 및 <<울령>>의 보주를 참조하면, 기본적으로 전장군과 후장군의 구성은 대보울령 이후의 편제라고 한다.

제명조 에미시정토군과의 대조, 송준조에서 추고조에 걸친 대신라출병군과의 비교를 통해 제명조 당시의 국제인식 및 원정군 파견의 인식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병력수나 배의 규모 등에 대한 비교를 위해 관련 내용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7-송준·추고·황극제명·천지조의 출병 목적과 규모 및 구성>

연도	목적 및 장군의 구성	병사 규모 및 기타
591(송준4)	對신라, 대장군 4인	2万余軍, 축자주둔
600(추고8)	對신라, 대장군 1인, 부장군 1인	万衆, 임나를 위해 擊신라 출병
602(동10)	對신라, 장군 1인	軍衆 2만5천, 擊신라 *축자파견
623(동31)	對신라, 대장군 2인, 부장군 7인	數万衆, 신라 征討 출병
658(제명4)	對에미시, 對숙신	四月阿陪臣<闕名>率船師一百八十艘伐蝦夷。 180척(艘) 是歲。越國守阿部引田臣比羅夫。討肅慎。
659(제명5)	對에미시,	三月是月。遣阿倍臣<闕名>率船師一百八十艘討蝦夷國。 180척(艘)
660(제명6)	對숙신,	三月。遣阿倍臣<闕名>率船師二百艘伐肅慎國。 200척(艘)
661(제명7)	對백제구원, 전장군·후장군 5인	병사 5,000명, 船師 170艘 풍장 위송
662(천지1)	對백제구원, 대장군 1인	2만7천명
663(천지2)	對백제구원, 전·중·후장군	건아 1만명

규모의 차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백제구원전쟁에 대한 왜국 즉 당시의 제명조의 대외인식의 정도를 잘 말해주며, 이는 동시에 백촌강 전투의 전략적 오류로 연결되어 승패의 커다란 갈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명~천지천황이 백제구원을 위해 파견한 병사의 수는 추고조의 신라 정토군의 규모와 거의 비슷하며, 동원된 선사의 수는 에미시 및 숙신 정벌군의 규모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왜국의 백제구원군은 추고조 단계의 신라를 가상의 적으로 상정하고 있었으며, 제명조 단계의 북방에 존재했던-아직 국가체제를 갖추지 못한-에미시 내지 속신 정도의 세력을 정토대상으로 삼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결국, 당시 왜국의 중국 및 한반도, 특히 신라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어쩌면 당군과의 직접적인 전투는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될 정도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극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다. 파견 규모 및 병선 선박의 규모, 지휘한 장군 등의 유사성도 확인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比羅夫의 경우이다.

구체적인 파병 규모는 관련된 한중일 사료가 각각으로 나타나 있다. 新川씨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의 왜군은 배 1척당 병사의 승선 인원이 최대 50명, 대체로 30-40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제2차 파견군 2만7천명은 대신라전을 치르기 위한 파병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나아가 한편으로는 대당전쟁을 치르고 있는 고구려를 일면에서나마 원조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백촌강 전투에 임하는 왜국의 인식 및 자세

우선, 당과 신라,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왜국(일본)에 있어서의 백촌강 전투(전쟁)의 의미를 살펴보면, 당은 최종 목표인 고구려 정토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백제를 멸망시키는 것이었고, 신라는 백제에 대한 원한을 설욕하고 이를 멸망시킴으로써 고구려와의 대항, 더 나아가 통일전쟁의 발판 마련에 있었다. 고구려의 경우는 대당전쟁 수행에 있어 걱정거리인 당의 동맹으로서 고구려의 배후가 되는 신라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의 백제의 존속, 그리고 백제유민들(백제부흥군)의 경우는 말할 나위도 없이 일단 멸망한 고국의 부흥에 있었다.

왜국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전쟁, 대신라전을 전제로 한 전쟁이었다. 만약 백제구원군의 파견이 대당전쟁을 전제로 한 전쟁이라면 너무나도 무모한 전쟁이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같은 시기인 제명조에 행해진 에미시 정토군과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백제구원전쟁 즉 백촌강 전투에 임하는 왜국 측의 인식 정도를 엿볼 수 있다.

천지조 백제구원군 파견상의 인식 정도

동원된 선박수나 병사수 등의 비교와 장군의 인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면, 대당인식의 불철저함이 두드러지고 동시에 전쟁 상대인 대신라인식에 있어서도 종래 백제에 제공한 원군과 동일한 인식 선상에서 구원군을 파견한 것으로 어디까지나 대신라전을 담당하는 것을 제1차적 목표로 삼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당과의 결전을 전제로 한 구원군 파견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무모한 계획 수립 및 수행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흥명조에 임나부흥을 목적으로 근강모야신에게 6만의 병사를 보낸 것이나(물론 이 기사는 사실성을 신빙할 수 없음) 송준조에서 추고조에 걸쳐 신라를 정토하고 견제하기 위해 2만의 대군을 준비시킨 사례를 참고로 하면, 왜국 측의 의도는 제1차적으로는 신라군과 싸움으로써 백제부흥을 지원하고 나아가 부차적으로는 당의 동맹이자 고구려의 배후인 신라를 막음으로써 고구려의 대당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사료상으로도 백제부흥전쟁기에 고구려와 일정한 군사상의 연계가 있었다는 점은 일본서기의 관련 기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山尾, 1989 등).

### 제3장 백촌강 전투(전쟁) 결과-그 영향과 역사적 의의

백촌강 전투(나아가 백촌강 전쟁)의 결과와 관련해 전투 및 전쟁 참가국들의 입장에 서서 그

영향과 역사적 의의 등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국제적 측면과 국내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특히 왜국의 경우는 국내적 측면과 국제적 측면의 양면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 당의 입장

고구려 정토에서 발단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개편 및 재구축의 일환이었다. 660년의 백제 멸망, 그리고 663년의 당 수군의 왜국 수군을 상대로 한 백촌강 전투는 최종적인 고구려 정토,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과정의 일환이었다. 결국 당이 백촌강 전쟁에 참가한 궁극적인 목적이자 제1목표는 고구려 멸망, 고구려 정복이었으며, 그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백제를 먼저 공격한 것이었다.

#### 신라의 입장

삼국통일전쟁사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백제와의 설욕전으로 시작된 한반도 삼국 간의 전쟁은 신라에 의한 三韓一統으로 결착된다. 그 결과로서 고구려와 백제의 다수의 유민이 왜국과 한반도 이외의 지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대 최대의 디아스포라이다. 백제와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부흥전쟁의 실패와 함께 백제, 그리고 뒤따른 고구려의 최종적인 멸망으로 귀결된다.

즉 9월에는 백제부흥군의 거점이었던 주류성이 당군에 항복. 이를 본 백제의 민중은 “주류성이 무너져서는 도리가 없다. 백제의 이름도 오늘로 끝나고 마는 것인가”라고 서로 말했다고 한다. 여풍장은 고구려로 도망하고 주류성에서 빠져나온 왜국의 군선은 禮城(경상남도 남해도? 전라남도 나주·해남?)에 집결, 난을 피한 백제의 장군과 민중을 태우고 귀국 길에 오른다. 그 후 나당연합군의 창끝은 고구려를 향하게 되고 668년 왕도 평양이 함락, 마침내 멸망한다. 일본의 경우는 그 영향과 역사적 의미를 국내적 측면과 국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 <대외적 측면>

##### ①대한반도 인식 등의 문제 왜곡된 신라관 형성의 역사적 배경

대외인식상의 변화 초래 기점으로 작용 즉 한반도(신라)에 대한 악감정 -왜곡되고 굴절된 인식의 첫 단추. 신라 번국관의 원형인 신공황후의 신라복속(삼한정벌)담의 창출-신공 전설 탄생의 배경이자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한 것이 노여제 제명천황이 선두에 선 백제부흥전쟁 즉 신라를 공격하기 위한 ‘西征’이었다.[정토의 주체가 여성(여제와 황후)이라는 점, 서쪽의 신라를 정토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등에서 신공황후의 모델은 제명여제]

②고대 동아시아사적 관점에서 보면, 당·신라·일본이라는 3국 체제의 국제질서 성립이라는 국제질서의 재편이다. 즉 다극체제에서 삼극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로 이어지는 동아시아세계의 원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현구, 2003 등)

#### <국내적 측면>

①대외 위기의식-안보상의 위기의식, 방어체제 구축, 곳곳에 백제식산성(조선식산성)을 축성하고 방인(사키모리)을 배치

②국내적-백촌강 전투에서의 패배는 국내의 지배체제, 국가체제 정비의 필요성 실감하게 하여 천지조의 국내개혁으로 나타난다. 관위제의 개정(26계), 관직제의 개편, 갑자의 선

③올령국가 성립의 대외적 계기로 작용하면서 획기적 전환점을 맞게 된다.

백제망명(왕족과 귀족, 관인 및 일반백성) 집단의 유입-왜국정착과 활동 천지조 및 천무조에서의 활약 근강령제정과 경오년적 작성(670)

④백제왕씨의 탄생과 동이의 소제국 성립

⑤ 불교문화 및 한자문화의 지방 확산

⑥ 백제 커뮤니티의 형성

백촌강 전투의 결과-백촌강 전투(전쟁)의 역사적 의의

왜국의 백제부흥전쟁 즉 백촌강 전쟁(전투)은 어이없는 결과로 끝났지만, 그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왜국의 역사에서 백촌강 전쟁(전투)은 커다란 분수령으로 작용하였다. 여기서는 국제적 측면과 국내적 측면에서 그 일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국제적 측면

왜국의 한반도 대외인식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신라에 대한 멸시관, 적대관의 형성이 그것이며 이는 8세기 대의 번국관으로 자리매김되어 大寶울령에 당=인국, 한반도(신라)=번국으로 규정되게 된다.

백촌강에서의 패전은 5세기 이래 양성된 천하관에 7세기에 확인되는 대국의식의 토대 위에 신공황후의 신라정토(나아가 삼한복속) 설화·전승의 창출로 이어지는데, 그 결정적인 역사적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 바로 노여제 제명의 백제구원군 파견 즉 백촌강 전투에의 참가와 뼈아픈 패배의 경험이다. 신공황후의 모델이 된 실존 인물이 바로 제명천황이었던 것이다. 양자의 공통성으로 여성이라는 점, 西征을 하고 있다는 점, 그 대상이 신라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내적 측면

백촌강 전투의 역사적 의의 가운데 백제멸망 후 왜국에 영구히 정착하게 되는 의자왕의 후예인 백제왕 창성의 존재는 마침내 지통조로부터 백제왕이라는 姓을 하사받게 되어 백제왕씨가 탄생하게 된다. 이 왜국 내의 백제왕씨의 탄생은 일본 울령국가 체제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즉 대내외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백제왕씨의 탄생·성립과 일본울령국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이는 왜소화된 ‘동이의 소제국’ 탄생에 있어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백제왕씨의 탄생과 함께 후에 고구려왕가의 후예인 소나씨 탄생도 마찬가지로 의미이다. 통일 후의 신라가 대당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보덕국을 건국시킨 것과 같은 역사적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고대의 역사에 있어서 울령국가의 성립과정은 3단계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는데, 645년의 다이카개신 후의 개신지조는 0단계, 663년의 백촌강 전투 패전 이후의 천지조가 제1단계, 그리고 672년 임신의 난 이후 성립한 천무·지통조가 제2단계, 701년의 대보울령의 성립을 맞이하는 문무조가 제3단계의 완성 단계라 할 수 있다.

국내체제의 정비

천지조의 국내개혁은 국방의 강화(백제식산성의 구축)로 시작하여 관위제의 개편과 관직제의 정비, 씨족지배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甲子の 宣으로 이어진다.

우선, 왜국의 백촌강 패전 이후의 국내개혁에 대해서는 천지조와 천무조의 관위 및 관제의 정비에서도 확인된다. 천무조의 <兵政官長>(천무4년(675)3월조) 등 많은 관직명이 보이고 있어서 관료제와 밀접한 관사제도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었으며, 천지조에는 태정관의 중추를 구성하는 태정대신과 좌우대신, 여사대부 외에 법관대보(식부대보)·학직두(대학두)가 보이고 있어 일정한 지배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천지조의 ‘甲子の 宣’은 664년(갑자년) 2월에 칭제 중의 황태자 중대형이 행한 제도개혁을 위한 법령으로 그 목적은 전년의 백촌강 패전으로 인한 국내 호족들의 불만을 통제하고 국내 질서의 확립을 의도한 對씨족 정책. ㄱ) 26계의 신관위의 제정, ㄴ) 大氏·小氏·伴造의 氏上 및 ㄷ) 民部·家部를 정한 것이다. ㄱ)은 호족의 관인화를 추진하기 위해, ㄴ) 씨상의 제정은 씨집

단을 지배층의 구성 단위로 하여 서열화를 꾀한 것이며, ㄷ)사유민의 공민화로의 전환을 꾀한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근강령의 제정과 경오년적의 작성

왜국 최초의 전국적 규모의 호적 대장으로 645년 성립한 개신정권이 천명한 공지공민의 원칙이 백촌강 전투의 패배를 계기로 하여 마침내 천지조에 이르러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방의 강화와 천도

당군에 참패를 당한 왜국은 일전하여 국토의 방어체제 강화에 나선다. 패전 이듬해인 664년(천지3)에는 대마, 일기, 축자 등에 방인(防人사키모리), 봉화를 설치하고 축자에는 수성(水城 미즈키)을 구축했다. 방인은 사키=변경과 모리=수비의 의미이며 국경수비대이다. 봉은 봉화를 올려 위급을 알리는 시설이며 양자는 하나의 세트로 기능했다. 수성이란 <<일본서기>>에는 <대연을 쌓아서 물을 저장하고 이름하여 수성이라 했다>고 보인다. 물을 저장한 방비시설이다. 그 유적은 북강현 대재부, 대야성시의 경계 부근에 소재하고 있다. 박다만에서 남방의 축자 평야에 걸친 평지의 가장 좁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전장 약 1.2킬로, 노퍽 약 13미터, 기저부 폭 약 80미터, 깊이 4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해자 유적이 발견되어 안쪽의 취수구에서 토루의 아래에 만든 목통을 통해서 저수되어 있었던 사실이 판명되었다. 토루와 바깥 해자에 의해 내부를 방어한다고 하는 독특한 시설이다.

나아가 665년(천지4)에는 백제의 망명귀족에 명하여 大幸府의 북과 남에 大野, 椽(기이)의 2성을, 長門國에도 1성을 축조하게 하였다. 소위 조선식산성 즉 백제식산성이다. 大野, 椽의 2성은 비상시에 大幸府의 사람들이 비상시에 도망하여 농성할 수 있는 성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日本書紀』卷二七天智天皇四年(六六五)八月조

秋八月。遣達率答怱春初築城於長門國。遣達率億禮福留。達率四比福夫於筑紫國築大野及椽二城。

667년에는 최전선인 대마도에 金田城을 축조한 것을 비롯해 讚岐에 屋嶋성, 야마토에 高安城을 축조하고 대마에서 야마토에 걸친 각지에 방어시설이 배치되었다. 야마토 지역까지 적의 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같은 667년에 왕도를 近江의 大津으로 옮긴 것도 주로 방어상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각종 국내의 국가체제 정비 과정에 망명 백제인들의 활동과 역할이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천지조의 국내개혁 가운데, 近江승 제정이나 庚午年籍의 작성 과정에 백제 도래인들이 간여했음은 천무조의 율령 작업에 신라 학문승들의 존재나 한반도계 도래인들의 참여가 확인되고 있는 점을 전제로 하면, 쉽게 상상이 된다. 실제로 大友황자의 近江조정은 망명 백제귀족 및 문인들로 구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회풍조>>를 통해 확인된다. 아울러, 천지조의 국내제도 개편의 하나인 효덕조 19계 관위제에서 26계 관위제로의 확대 개편은 중하급 호족층을 관인으로 편성하여 권력 기구의 발판을 강화하고자 하는 천지천황의 정치적 의도(鬼頭 <<백촌강>> 173쪽)가 있었음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 관위 및 관직제도의 개편

이 과정에 있어서도 백제의 영향이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法官大輔 임명 기사가 확인되는데, 法官은 백제의 內法佐平에 보이는 法과의 관련성을, 대장성의 大藏을 목간 자료에서는 ‘대량(大椋)’으로도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백제 22部司(내관 10부, 외관12부) 가운데 재정을 담당하는 ‘大椋部’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어 <大椋>과의 관련성이 주목된다.

백촌강 패전 후 왜국에 망명한 백제귀족 및 관인들 가운데 천지조정에 등용되어 다방면에서

활약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인물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8-백촌강 패전 후의 망명 백제인들-신분과 직능 및 왜국의 관위>

	신분 등	인명	비고	
1	佐平(1)	余自信	大錦下 授与, 法官大輔 近江國 蒲生郡으로 천거	
2		沙宅紹明	大錦下 授与, 法官大輔	
3		鬼室集斯	小錦下 授与, 學職頭, 鬼室福信의 아들 近江國 蒲生郡으로 천거	
4	達率(2)	谷那晉首	大山下 授与, 「閑兵法」	
5		木素貴子	大山下 授与, 「閑兵法」	
6		憶礼福留	大山下 授与, 「閑兵法」, 天智4·8 築紫國에 축성	
7		答炆春初	大山下 授与, 「閑兵法」, 天智4·8 長門國에 축성	
8		贊日比子, 贊波羅, 金羅金須	大山下 授与, 「解藥」	
9		鬼室集信	大山下 授与, 「解藥」	
10		德頂上	小山上 授与, 「解藥」	
11		吉大尙	小山上 授与, 「解藥」	
12		許率母	小山上 授与, 「明五經」	
13		角福牟	小山上 授与, 「閑於陰陽」	
14		五十余人	小山下 授与	
15		四比福夫	築紫國에 축성	
16		荊負常	香山連의 조상(祖)	
17		名進	高槻連의 조상(祖)	
18		支母未惠遠	城篠連의 조상(祖)	
19		沙門	詠	樂浪河内の 부, 高丘宿禰比良麻呂의 조부
20		德率	國骨富	國中連公麻呂의 조부
21			吳伎側	吳씨의 조상(祖)
22	曾父佐		農村造의 조상(祖)	
23	釋	義覺	難波 百濟寺에 거주	
24	禪師	弘濟	三谷郡大領인 선조를 따라 來日. 三谷寺 건립	
25	恩率	高難延子	大丘造의 조상(祖)	
26		納比且止	清道連의 조상(祖)	
27	扞率	答他斯智	中野造의 조상(祖)	
28		古都助	古씨의 조상(祖)	
29	백성	남녀 400여인	近江國 神前郡에 거주, 天智4·3 給田	
30		남녀 2,000인	東國에 이주	
31		남녀 700여인	近江國 蒲生郡으로 천거(餘自信, 鬼室集斯 등)	
32		남녀 23인	化來의 僧·俗을 武蔵國에 안치	
33		敬須德那利	甲斐國으로 옮김	
34		남녀 21인	歸化	
35		?	甲斐國 止彌若虫 등 190인의 조상(祖). 당초 攝津 職에 안치, 후에 甲斐國으로 옮김	
36			귀화 백제·고구려인에 「給復終身」	

<<회풍조>> 대우황자조의 백제인들, <<일본서기>> 천지~천무조의 백제승의 존재(도장, 법장, 행심 등)도 주목된다. 이들의 일정한 역할을 무시하고 천지조의 국내개혁-국방상의 방어태세 강화 즉 백제식산성(조선식산성)의 축성은 물론, 근강령 제정과 경오년적 작성, 관위제의 개정

(13계에서 26계로), 관직의 개편(법관, 대장 내장 등 재정 관련 부서의 정비 등)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전사로서 4세기 야마토 국가 탄생 이후의 왜국의 국가형성, 각종 지배 질서의 도입과 운영과정에 있어 5세기, 6세기 7세기에 백제에서 국가 차원에서 파견된 오경박사, 승려, 각종 기술자 등의 존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즉 5세기의 부관제, 6세기의 부민제, 인제, 7세기의 관위제의 성립 및 운영에 문필을 전담하는 백제계 史部집단의 존재가 주체적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 역사서 및 율령의 편찬 등에 관여

주지하는 것처럼 일본의 고대국가는 율령국가로서 완성되는데, 일본에 있어 성문법전으로서의 율령 편찬과정은 663년의 백촌강 전투 패전 이후인 천지조에 개시되었고, 천무-지통조를 통해 본격화 되었다. 즉 근강령(668), 비조정어율령(689)의 편찬을 거쳐 대보율령(701)의 찬정으로 완성된다. 근강령 편찬에 대해서는 그 사실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천지조의 법전편찬이 시도되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천지조에 개시된 법전편찬 사업에 백제멸망 후 왜국에 망명해 온 도래인들이 크게 참여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이들 가운데 사택소명과 허솔모, 귀실집사 등은 백제의 귀족으로 상당히 높은 교양과 학식을 지닌 지식인으로 평가되며, 각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답발춘초 등 병법에 상세하다(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은 다수의 인물들이 大友황자를 수반으로 하는 정권에 가담하였다. 그 외에도 법관, 학직, 의약, 오경, 음양에 조예가 깊은 백제귀족들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학직두에 임명된 귀실집사(귀실복신의 아들). 약에 조예가 깊은 귀실집신도 보이는데 그 일족으로 여겨진다. 그들은 근강국 神前郡(현 시가현 彦根시에서 東近江시)에서 蒲生郡(현 시가현 龍王町, 日野町, 近江八幡시에서 東近江시)에 거주. 석탑사의 한반도식 3층석탑(전 阿育王塔)은 그 유적으로 유명하다.

법관대보에 임명된 사택소명은 천무2년(673)에 사거하는데 <총명하고 지식이 풍부하며 사람들로부터 수재라 칭송되었다. 천황은 놀라 특히 외소자의 위를 내렸으며 나아가 본국(백제)의 대좌평의 위를 하사하였다>라고 특필하고 있다. 천지조는 물론 천무조에서도 그의 존재가 중시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倉本, 2017, 161쪽)

<<회풍조>>의 기사를 통해 大友황자의 近江조정과 천무조 大津황자의 주변에서 활약한 선진의 사상과 기예를 지닌 백제계 도래인과 백제승(도장과 법장), 신라 도래승(행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 지방으로의 불교문화와 한자문화의 보급 및 확산

각 지역 국조군으로 편성되어 백강전투에의 참전과 패배의 경험은 결과적으로 지방으로의 불교문화의 확산을 가져왔다. 즉 백촌강 전투를 계기로 지방호족의 선진문화 수용에 적극적 자세, 그 결과로서 지방에 사원이 건립되고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영이기>>의 귀환병사의 기록이 주목되는데,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절의 건립을 서원하여 백제승 弘濟를 동반해 귀국하고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즉 三谷寺 건립과 백제승 弘濟禪師의 역할을 말해주는데 三次시에 위치한 白鳳시대의 거대가람지인 寺町폐사가 있는데 三谷寺로 이해되고 있다.

나스(那須)국조비의 한자문화의 지방 확산을 보여주는데, 이 비에는 당 측천무후 시대의 연호 永昌(689)를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관동지방의 고즈케(上野)삼비에는 이두식 한자 사용 표기가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 시기로 보아 신라에서 건너간 사람들의 영향으로 이해된다.

### 일본 내 백제인 커뮤니티의 형성

망명백제인들에 대해 생활 기반이 되는 토지의 사여가 이루어진다. 우선, 백제왕족은 難波에 거주했는데 그 지역은 율령제 하의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섭진국 백제군(현 오사카시 生野구, 天王寺區 부근)이었다. 이 백제군은 백제왕 선광의 증손에 해당하는 敬福 대에 이르러 백제왕씨가 본거지를 河內國 交野郡(현 오사카부 枚方시)으로 이주(750년경)하게 되었다. 그 이후의 중세시대의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사료상으로 군내의 씨족은 모두 백제계의 도래씨족이며 백제왕씨를 중심으로 한 세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결국 백제왕씨가 본거지를 이동하면서 백제군의 행정조직이 약체화되어 점차 소멸되기에 이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백제군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737년~740년 경으로 추정되고 있었는데, 平城京跡에서 출토된 長屋王家 목간에서 그 성립 시기를 소급할 수 있게 되었다. 백촌강 전투 패전 후 대규모 백제 왕족 및 귀족들의 망명 시점까지 그 시기가 소급될 가능성이 높다.

목간 자료-百濟郡南里車長百濟部若末呂車三轉米十二斛 <上二石 中十石>  
元年十月十三日 <田辺廣國 八木造意彌萬呂>

목간의 원년은 靈龜 원년인 715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백제군의 성립 시기도 8세기 초까지 소급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목간에 車長으로 나오는 인물이 百濟部の 성(가바네 姓)을 지니고 있다는 점, 田辺씨가 백제계 도래씨족이라는 점을 보면 이 백제군은 문자 그대로 백제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즉 왜국 내 백제 커뮤니티의 형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아울러, 백제군의 南里는 백제군의 향명을 전하고 있는 <<화명유취초>>에 동부향, 남부향, 서부향이 보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목간에 南里(郷)가, 정창원문서 중에 東郷이 확인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방위 명의 里名 혹은 郷名은 멸망 이전 백제의 중앙 및 지방 행정구분인 동서남북중앙으로 구획하는 5부5방5향제의 영향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구역의 명칭은 백제군이 백제 왕족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였다는 점과 동시에 백제의 옛 역사를 왜국에서도 한동안 계승, 지속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 백제사와 백제니사의 존재도 확인

최근의 고고학적 연구성과(大竹, 2021)에 따르면, 왜국 내 백제 커뮤니티의 탄생 및 그 중심점과 밀접하게 관련된 백제왕씨의 씨사인 백제사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이와 쌍을 이루는 백제니사와 섭진국 백제사의 존재가 확인되어 백제인 커뮤니티의 중심 거점으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1996년에서 1997년에 걸친 발굴조사에서 細工谷遺跡의 조사를 통해 「百濟尼」「百尼」「尼寺」 등의 목서토기가 출토되었고, 다른 유구에서 출토된 木簡에는 「上啄尼父南部□□(徳了)王久支」라고 남부라는 지역명(향명)이 확인되었다.

藤澤一夫는 堂ヶ芝麿寺 출토 기와를 분석하여 四天王寺와 관계가 깊은 사원지라는 점, 『太子伝古今目録抄』(嘉祿3年<1227>)에 사천왕사의 별원으로 百濟寺가 기록되어 있는 점, 『和名類聚抄』(承平年間<931~937>)의 摂津国 百濟郡内에 기록된 「東部」「南部」「西部」의 향명이 百濟国の 「五部五巷」제도에 유래하고 있다는 점, 四天王寺의 동쪽에 지금도 「百濟寺」「東部」 등의 小字名(행정구역명)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堂ヶ芝麿寺야말로 摂津国 百濟寺跡이라고 일찍이 추정하였다.

그 전사는 나라현 야마토(아스카) 지역에 今來人이 도래하여 백제계 도래씨족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아야(漢)씨족의 집단거주지역인 今來郡(후의 高市郡) 즉 백제군이 형성된 사례를 참고

로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고시군에는 아야(漢)씨 즉 백제계 도래씨족 이외의 타성은 열에 하나, 둘에 그친다고 전하고 있다. 최초의 백제인 커뮤니티이다.

近江國은 백제구원 전쟁에 직접 참전한 지역이자 구원군을 이끈 장군의 출신지이기도 하다. (新川, 2003) 나아가 이 지역은 백촌강 전투 패전 후에 왜국으로 망명한 백제 유민이 대규모 안치된 지역이다. 즉 근강국 神前郡과 蒲生郡에는 대규모 백제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었다.<sup>16)</sup> 그 흔적이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석탑사의 존재이며, 近江 지역에 거주한 귀실집사와 관련된 귀실신사도 존재하고 있다.

백제멸망 후 기내지역의 새로운 백제 커뮤니티의 형성, 이후에 동국 즉 관동지방에도 백제인의 집단 거주<sup>17)</sup>는 물론 신라군과 고려(고구려)군도 설치된다.

### <백촌강 전투(전쟁)의 의의 정리>

동아시아세계의 국제질서 재편-그 결과로서 당, 일본, 통일신라라는 한중일 삼국체제의 원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국제질서 확인 과정, 신라-삼국통일 과정, 백제-조국부흥전쟁, 왜국-최대의 우방 백제, 369년 국교 성립의 기념물인 칠지도의 증여 이후 멸망에 이르기까지 선진 문물과 기술, 통치제도의 典範이자,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제공해 온 백제의 부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원조. 결과는 패전으로 귀결되었으나 그 代償으로 울령국가 체제로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내의 지배체제 구축의 중요한 명분으로 작용-천지조 국내개혁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는데 특히 당의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甲子の 宣>을 선포함으로써 국내 씨족에 대한 지배정책을 단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백제의 망명 귀족들도 천지10년(671)에 일본의 관위를 수여 받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왜국이 다수의 망명 귀족 및 관인들 각자가 지닌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한반도 인식의 양성-제명천황의 西征은 신공황후 신라복속담(삼한정벌담)의 모델, 모티브로 작용, 이후 대보울령에 번국=신라(한반도)로 규정. 왜국되고 굴절된 <일본서기사관>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악영향

망명 백제인의 대규모 도래와 정착-663년 9월에 최초의 망명 백제인(유민)의 도착. 이후에도 지속됨. 왜국 내의 중심적 거처로서는 주로 難波와 近江, 그리고 東國에 배치

①천지4년(665) [백성남녀사백여인]<근강>, ②천지5년(666) [백제남녀이천여인]<동국>, ③천지8년(669) [남녀칠백여인]<근강>

양 지역에 배치된 백제유민들은 해당 지역의 농지 개발에 총당(胡口墾夫, 1970)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이들의 해당 지역에서의 정착은 동시에 그 지역 사회에 불교나 한자문화의 확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백제군의 설치와 백제왕씨의 탄생(지통조, 의자왕 왕자 선광왕 백제왕씨 사성, 難波 정착, 후에 오사카 북부의 枚方로 이주)

-일본의 소중화 의식과 동이의 소제국 탄생-백제 의자왕의 후예인 선광왕으로 대표되는 왕족은 이후 더욱 왜소화된 중화사상, 즉 ‘동이의 소제국’ 일본의 존재를 보증하는 증거로서 왜국

16) 『日本書紀』卷二七天智天皇四年(六六五)二月是月。勘校百濟國官位階級。仍以佐平福信之功。授鬼室集斯小錦下。〈其本位達率。〉復以百濟百姓男女四百餘人居于近江國神前郡。 및 『日本書紀』卷二七天智天皇八年(六六九)是歲。又以佐平餘自信。佐平鬼室集斯等。男女七百餘人遷居近江國蒲生郡。

17) 『日本書紀』卷二七天智天皇五年(六六六)是冬。(전략)以百濟男女二千餘人居于東國。

에서 대우를 받았다.

-왜국 내 백제왕씨를 중심으로 하는 백제 커뮤니티 탄생-백제왕 선광왕 나니와(難波) 거주(천지3년 664년 3월) 이후.

즉 천지3년(664) 3월, 선광왕 등을 難波에 거주시킴. 선광왕은 의자왕의 왕자(속일본기 경복흥전)로 여풍장의 동생. 왜국에 머물러 있던 왕족은 마침내 백제왕이라는 姓(가바네)을 받고 섭진국 백제군(현 大阪市 天王寺區에서 生野區)에, 이어 하나국 交野郡(현 大阪府 枚方市)에 입주하며 비교적 높은 지위를 유지하였다(覓敏生, 1989).

히라카타시에는 그들이 건립한 백제사와 백제왕신사가 존재, 전자와 관련된 禁野本町유적에서는 50동의 저택 유적과 바둑판 모양의 도로 유구가 검출되었다.

#### <고대 일본의 백제인 커뮤니티>

①아스카 나라현 高市郡[今來郡](東漢씨 집성촌, 타성은 열에 하나, 둘. 於美阿志神社), ②오사카 大阪府羽曳野市 古市[왕인 후예씨족, 西琳寺](西文씨), ③오사카 大阪府羽曳野市野々上 [왕진이 후예, 野中寺](船씨, 葛井씨, 津씨), ④동 藤井寺市[왕진이 일족 白猪<葛井>씨, 葛井寺], ⑤ 오사카 難波 生野區~天王寺區[백제왕씨, 백제사, 백제니사], 오사카후 히라카타(枚方)시[백제왕씨, 백제사, 백제왕신사], ⑥오미 시가현 蒲生郡[鬼室씨 일족, 鬼室神社], 근강 시가현 神前郡 백제망명집단(유민) 거주 石塔寺, ⑦동국 지방 등

#### 맺음말

작금의 한일관계는 유례없는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 역사적 해법을 찾는다고 한다면 백제와 왜국의 외교관계가 그 전범이 될 수 있다.

즉 백제와 왜국은 300년에 걸친 장기간의 외교관계에서 단 한 번도 상호 간에 직접 창끝을 겨누지 않았다는 점, 타국을 위해 총 4만 2천 명의 고귀한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지키고 부흥시키고자 했던 최애(?)의 나라가 바로 한반도의 백제였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백제부흥군에 참여해 원통한 죽음을 맞은 이들의 피눈물이 원혼이자 원수가 되어 신라(더 나아가 한반도)에 대한 증오로 표출되었고, 나아가 일본인들의 왜곡된 타자인식의 원점으로 자리하고 있는 神功전설을 창출하게 만들어 최종적으로는 한반도 멸시관, 번국관으로 고착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왜곡되고 굴절된 대외인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등 龜의 유산이 크게 작동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의 유산 즉 신공신화에 연원하는 소위 <일본서기 사관>이라는 주술로부터의 탈피가 절실하게 요망된다.

이제는 한일 양국의 국민 모두 보다 긍정적인 유산으로서, 663년 왜국이 300여 년 동안 최고의 우호친선국의 관계를 유지해온 백제를 위해 4만 명에 이르는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자 했던 그 정신과 의미를 반추하고 되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문헌

## 1. 연구서

- 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정효운 <<고대 한일 정치교섭사 연구>>, 학연문화사, 1995  
연민수 <<고대한일교류사>> 혜안, 2003  
서영교 <<고대 동아시아 세계대전>> 글항아리, 2015  
김현구 외,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3, 일지사, 2004  
연민수 외, <<역주 일본서기>>3, 동북아역사재단, 2013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일조각, 2003  
전영래 <<백촌강에서 대야성까지>> 신아출판, 1996  
송완범 <<동아시아세계 속의 일본율령국가 연구>> 경인문화사, 2020  
이재석 <<고대 한일관계와 『일본서기』>> 동북아역사재단, 2022  
서천군(주최),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주관), 백강전쟁 1340주년 한중일 국제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백제 부흥 운동과 백강전쟁>>, 2003  
고려대 일본학연구센터, <<고대 한일관계의 현재적 의미와 전망>>, 2004  
石母田正 <<日本の古代國家>> 岩波書店, 1971  
鬼頭清明 <<白村江>> 역사신서33, 教育社, 1981  
森公章 <<白村江 以後>> 講談社選書 132, 1998  
熊谷公男 <<大王から天皇へ>> 講談社 일본의 역사3, 2001  
山尾幸久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1989  
胡口靖夫 <<近江朝と渡來人>> 雄山閣出版, 1970  
西嶋定生 <<日本歴史の國際環境>> 東京大學出版會, 1985  
倉本一宏 <<戰爭の日本古代史>> 講談社 現代新書, 2019  
小島憲之 外 校註 <<日本書紀>>3, 小學館, 1998  
八木充 <<日本古代政治組織の研究>> 塙書房, 1986  
鈴木英夫 <<戰亂の日本史-中央集權國家への道->> 1 第一法規出版, 1988  
金現球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1985  
全榮來 <<百濟滅亡と古代日本>> 雄山閣, 2004  
최은영 <<百濟王氏의 成立と動向に關する研究>> 시가현립대학 박사학위논문, 2017

## 2. 논문

- 卞麟錫 <白江口戰爭을 통해 본 古代 韓日關係의 接點> <<東洋學>> 24, 1994  
윤선태 <羅州 伏岩里 出土 百濟木簡의 判讀과 用途 分析> <<百濟研究>> 56, 2012  
이근우 <백강전투와 대마도> <<동북아문화연구>> 34, 2013  
이재석 <7世紀 後半 百濟復興運動의 路線과 倭國의 選擇> <<百濟研究>> 57, 2013  
서영교 <倭의 百濟 援助와 蘇定方의 平壤城 撤軍> <<대구사학>> 117, 2014  
송완범 <‘白村江싸움’과 倭-東아시아세계의 재편과 관련하여 -> <<한국고대사연구>> 45, 2007  
沈正輔 <白江의 位置에 대하여> <<韓國上古史學報>> 2, 1989  
심정보 <白江에 대한 研究 現況과 問題點> <<百濟文化>> 32, 2003  
정효운 <7세기대의 한일관계연구 -白江口戰에의 왜군파견 동기를 중심으로-> (상, 하), <<고고역사학지>> 5-6, 1990-1991  
김현구 <동아시아세계와 백촌강 전투의 재조명> <<고대 한일관계의 현재적 의미와 전망>>,

2004

- 박재용 <고대 일본의 망명백제관인과 그 후예씨족> <<한일관계사연구>>64, 2019
- 서영교 <백강전투와 신라> <<역사학보>>226, 2015.06
- 서영교 <신당서 일본전에 보이는 唐高宗令出兵援新羅 璽書의 배경> <<역사학보>>237, 2018.03
- 김수태 <백제의 멸망과 당> <<백제연구>>22, 충남대 백제연구소, 1991
- 서정석 <백제 白江의 위치> <<백산학보>>69, 2004
- 韓昇 <일본의 백촌강 출병에 대한 정치적 결정과 군사행동> <<고대 한일관계의 현재적 의미>>(고려대 일본학연구센터 학술발표문), 2004
- 최은영 <고대 일본 도왜계(渡倭系) 씨족 여성의 동향- 백제왕씨(百濟王氏)를 중심으로-><<한일관계사학회 창립30주년 기념 학술대회 여성과 젠더를 통해 본 한일관계>>, 2022
- 줄고 <일본고대사와 동이의 소제국론> <<일본역사연구>>45, 2017
- 줄고 <일본고대국가와 백제계 도래인> <<한일관계사연구>>52, 2015
- 줄고 <왜왕권과 백제·신라의 질> <<일본역사연구>>24, 2006
- 줄고 <한반도 제국과 왜국의 사신외교> <<한일관계사연구>>56, 2017
- 줄고 <고대일본의 국제관계와 대외인식> <<사림>>41, 2012
- 줄고 <왜국의 제3차 건당사와 백제 신라> <<백제연구>>58, 2013
- 줄고 <근대일본에 있어서 신화와 전설의 역사화-기기신화와 신공전설의 실제와 변용-> <<한일관계사연구>>63, 2019
- 줄고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62, 2018.11
- 池内宏 <百濟滅亡後における動乱及び唐羅日三国の關係> <<만선사연구>> 상제2
- 八木充 <百濟の役と民衆> <<國史論叢>>
- 井上秀雄 <白村江の戦い> <<日本古代文化の探究>> 社会思想社, 1974
- 田村圓澄 <百濟救援考><<熊本大學文學會文學部論集>>5, 1981
- 坂元義種 <白村江の戦い> <<歴史讀本>>28-19
- 瀧川政次郎 <劉仁軌傳> <<古代文化>>36-7-9-11
- 井上光貞<大化改新と東アジア> <<岩波講座 日本歴史>>2, 岩波書店, 1975
- 鬼頭清明<白村江の戦いと律令制の成立> <<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 校倉書房, 1976
- 鈴木英夫<百濟救援の役について> <<日本古代の政治と制度>>, 林陸朗還曆記念會, 1985
- 筧敏生 <百濟王姓の成立と日本古代帝国> <<日本史研究>>317, 日本史研究会, 1989
- 坂元義種 <東アジアの國際關係> <<岩波講座 日本通史2 古代1>>, 1993
- 森公章<白村江の戦いをめぐる倭國の外交と戰略> <<東アジアの古代文化>>110, 2002
- 森公章 <東アジアの動亂と倭國> <<戰爭の日本史>>1, 講談社, 2020
- 西嶋定生 <6-8世紀の東アジア> <<岩波講座 日本歴史2 古代2>>, 岩波書店, 1983
- 岸俊男 <防人考>, <<日本古代政治史研究>>, 1966
- 板楠和子<亂後の九州と大和政權>小田富士雄編<<古代を考える 磐井の乱>>, 吉川弘文館, 1991
- 中村修也 <白村江 전투 이후의 일본 사회> <<韓日關係史研究>>36, 2010
- 최은영 <7, 8世紀の百濟系渡來人と日本><<百濟文化>>52, 2015

## 나행주 「고대한일 양국의 현안과 해법-백촌강전쟁의 원인에 대한 재검토」

연민수(전 동북아역사재단)

본 발표는 백촌강전투에 왜국의 파병 배경을 분석하고, 파병의 규모, 시기, 패인 등을 고찰하였다. 나아가 백촌강 전투가 가져온 결과, 왜국내의 영향 및 그 역사적 의의(백제 이주민, 대외인식, 울령국가의 성립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한 것이다. 아직 원고에 일부 미완성된 부분도 있지만, 백촌강 전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논고로서 백촌강 전투의 이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논문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확장하면 단행본으로도 출간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체로 공감하는 내용으로 몇가지 보완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고자 한다.

우선 제목에서 ‘고대한일 양국의 현안과 해법’은 전체주제를 그대로 삽입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백촌강전쟁의 원인’이라는 부제와 다소 어색한 느낌이다. 출간시에는 ‘백촌강전쟁의 쟁점과 현안에 대한 종합적 고찰’ 등 기술내용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고려했으면 한다.

백촌강 전투에서 파경원인론에 대해서는 발표자가 언급했듯이 일본학계에서는 백제를 속국으로 보는 파병론, 고대의 제국주의 정벌론과 같은 설이 주류를 이루었고, 한편으로는 백제멸망으로 문화수용의 차단을 우려한 파병설(鈴木英夫), 일본열도 위기론도 제기되었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응한 다양한 학설이 나왔고, 공감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파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매길수 있을 정도로 복합적이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백제와 왜국간의 역사적 친연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발표자도 언급했듯이 적절한 논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서기에 인용된 일본세기를 보면, 백제가 왜국을 東朝라고 하여 동류의식을 느끼는 기록도 보이고 있다. 당시의 백제의 왜국에 대한 東朝라는 인식은 西朝에 대한 상대적 표현으로 두 왕조간의 강한 유대감, 일체감을 공유하고 상징하는 용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파병의 규모이다. 왜왕권은 몇차에 걸쳐 병력 숫자만 해도 5천명, 2만7천명, 1만명으로 총 5만2천명의 병력이다. 사실 현대전에도 이만한 숫자는 7개 이상의 사단 병력이다. 이를 믿는다면 고대 전쟁사상 최대 해외파병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부분은 발표자도 지적했듯이 일본서기에는 중복 기사가 보이고 있어 좀더 정리된 분석을 요한다. 예를 들면, 『일본서기』 천지 즉위전기(661) 8월,

9월 기사에 풍왕자의 귀국과 파병 기사를 보면, 1개월의 시차를 두고 2번을 파병하는데, 同事重出이다. 특히 천지원년과 2년조에 보이는 파병장군인 阿曇連比羅夫 관련 기사 역시 중복이며 2만7천명과 1만명도 중복된 숫자의 가능성이 높다. 파병기사는 백강전투에 참가한 씨족들의 家傳의 기록을 기초로 한다. 『일본서기』에 편찬에서 주요 기초자료는 각 씨족들이 제출한 씨족지이다. 백촌강전투에 참가한 씨족들의 기억을 담은 가전에는 후예들에 의해 조상의 戰功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중복, 과장된 기록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고대일본의 대외인식 한반도제국에 대한 번국관의 형성도 백촌강전투의 결과물, 즉 8세기에 탄생한 천황제 율령국가의 성립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백제 속국관, 신라에 대한 적시관 내지 번국관도 백제부흥운동에의 파병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백촌강전투의 결과로 초래한 일본고대국가의 변화과정은 실로 다대하며 그 변화의 과정을 추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본 발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중국 미디어에서의 ‘왜구’ 사용법

윤성익(경희대)

## 들어가는 말

### 1. 중화 민족영웅과 침략자 왜구

- 1) 2006년 이후 ‘가정왜구론’을 둘러싼 논쟁
- 2) 중화민족 중심의 역사관과 민족영웅 척계광
  - ① 악비 대 척계광
  - ② 유대유와 척계광 그리고 와씨(瓦氏)부인
  - ③ 척계광의 적 : 일본의 무사·영주

### 2. 중국 대중 매체에서의 왜구

- 1) 중국의 ‘왜구문학’과 그 영향
- 2) 왜구소재 드라마와 영화에서의 왜구(2010년대 이후 작품을 중심으로)
  - ① 작품의 현황 및 특색
  - ② 각 작품에서 묘사되는 왜구 및 관련 사항
- 3) 다큐멘터리 『척계광』(2019)에서의 왜구

끝을 맺으며

## 들어가는 말

한·중·일 삼국 간에는 공통 주제임에도 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로 인해 연구의 방향성이 나 결론에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각국의 역사인식이 직접 반영된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둘러싼 ‘역사 갈등’은 이 문제가 단순히 학술계에서의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역사 갈등’의 해소를 위해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20여 년 전이었다. 이후 일본과 중국 간에서도 ‘중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두 위원회는 각각 그 연구결과물을 내놓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성과」는 ‘역사 갈등’의 해소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채 각국 간의 연구현황 및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sup>18)</sup> 이후에도 민간주도의 공동연구나 국제학술대회 등이 이루어져왔지만 그 「성과」는 ‘공동연구위원회’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또한 새롭게 채택된 일본의 중학역사교과서 중에는 2001년 문제가 되었던 기술내용이 거의 그대로 실려 있는 경우가 확인된다. 현상만 놓고 본다면 20여 년 전과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될 지도 모르는 ‘역사 갈등’을 단지 몇 차례의 공동연구나 학술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너무 부정적으

18) 『第1期「日中歴史共同研究」報告書』(2010년 최종 발표) 중 倭寇에 대한 중·일간의 입장 차이는 王新生, 「十五世紀至十六世紀東亞國際秩序與中日關係」과 村井章介, 「15世紀から16世紀の東アジア國際秩序と日中關係」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로만 폄하해서도 안 된다.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왜구와 관련해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왜구의 주체가 고려인·조선인이었다는 일본에서의 시각이었다. 이에 대해 그 「성과」에서는 왜구의 주체를 일본인(일본열도에 거주하던 사람들)으로 보는 ‘공통 결론’에는 이르렀다.<sup>19)</sup> 물론 고려인·조선인의 참여여부나 그 배후세력(주동세력), 왜구의 목적이나 성격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고 이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연구토의의 장이 마련되어 해당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는 것 등은 장기적으로 ‘역사 갈등’을 해소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구는 한·중·일 각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주요 존재, 혹은 사건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최근 일반인들에게 관심도가 높은 곳은 중국이다. 다만, 왜구 자체에 관심이 많다가보다는 왜구의 침략에 대항한 ‘降倭戰爭’과 이를 승리로 이끈 戚繼光 등 민족영웅의 활약상이 중심이 된다.<sup>20)</sup> 특히 현재의 중국에서 척계광은 전근대시대의 가장 위대한 영웅<sup>21)</sup>이자 애국심을 상징하는 인물<sup>22)</sup>이다. ‘척계광의 降倭情神’은 “中華文化를 구성하는 일부분”이자 “習近平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구성하는 일부분”이라고도 현양될 정도이다.<sup>23)</sup> 이런 상황에서 척계광이 물리친 왜구는 중화민족을 침략해 온 외적으로서의 의미만이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왜구(한국에서도 비슷한 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및 관련된 주요 관심사는 일본에서와는 사뭇 다르다. 중국과 일본에서의 입장 차이는 일반인의 영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중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 참가했던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는 중국의 학자가 일본 측에 대해 ‘왜구의 도덕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추궁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며 “왜구의 다민족적·초국가적 성격에 주목하는 것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sup>24)</sup>

그렇지만, 중국학자의 입장에서도 일본학자들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는 충분하다. 근래 후기왜구와 관련해 『倭寇圖卷』(도쿄대학사료편찬소장)과 『抗倭圖卷』(중국국가박물관장)에 대해 일본과 중국의 공동연구가 이루어지고 다수의 결과물이 발표되었다.<sup>25)</sup> 그 연구 결과 자체는 중국·일본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여지가 거의 없다. 다만, ‘왜구’ 자체의 시각은 여전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일본에서는 “가정 38년 王直의 죽음에 의해 왜구활동이 멈춘 것은 아니었지만 「가정대왜구」는 왕직의 죽음으로써 종언되었다고 여겨지는 일이 많다.”<sup>26)</sup>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왜구에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은 오히려 왕직의 체포와 죽음 이후의 시기이다. 무엇보다 그 시기에 ‘항왜전쟁’을 승리로 이끈 중화민족의 영웅인 척계광이 본격적으로 활약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척계광의 승전 중에서도 잘 알려진, 12(혹은 9)번 싸워 12번

19)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편,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3권(제2분과 일본편)』, 동연구회, 2010, pp.144~145.

20) 중국의 학술논문검색 사이트(CNKI·中国知网)에서 “왜구”를 주제로 검색하면(2023년 9월) 총 1,885의 결과 중 상관주제어 1위는 척계광(106) 1위, 2위 徐浩峰(영화 『倭寇之蹤迹』의 감독, 28), 3위 항왜전쟁(24)이었다.

21) 吴晓娟, 「民族英雄戚继光爱国抗倭史迹述略」, 『兰台世界』 2013-6, p.15.

22) 「<평어근인>(시즌2) 제5회 애국심-고전 속의 지혜」, 国际在线(www.cri.cn) 2021년 4월 20일. <https://korean.cri.cn/20210420/2b783cd5-f7b0-3e68-38f7-511ee626d9dc.html>

23) 冯荣, 「戚继光抗倭与新时代民族精神传承弘扬研究」, 『大学教育』, 广西教育学院, 22-9.

24) 村井章介, 「倭寇とはだれか -十四~十五世紀の朝鮮半島を中心に」, 『東方學』 119, 東方學會, 2010, pp.4~5.)

25) 東京大学史料編纂所 編, 『描かれた倭寇:「倭寇図卷」と「抗倭図卷」』, 吉川弘文館, 2014.

須田牧子 編, 『「倭寇図卷」「抗倭図卷」を読む』, 勉誠出版, 2016.

陈履生 主编, 『抗倭図卷考』, 孔学堂书局出版社, 2020.

26) 東京大学史料編纂所 編, 『描かれた倭寇:「倭寇図卷」と「抗倭図卷」』, 吉川弘文館, 2014, p.80.

승리했다는 台州대첩은 가정 40년(1561)의 일이었다. ‘약탈자’보다는 ‘밀무역자’로의 시각이 강한 일본에 대해 중국의 학자들이 의혹을 제기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인다.

각국의 일반 대중에게 특정 ‘역사 사실(사건·인물)’이 서로 다르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진다면 당연하지만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가?”의 문제는 다소 역사연구의 범주를 벗어나는 영역이겠지만 ‘역사 현안’ 및 ‘역사 갈등’, 그리고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역사관’의 발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기초 작업은 먼저 그 차이를 분명히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왜구’라는 동일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한·중·일 삼국이 갖고 있는 ‘왜구 이미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sup>27)</sup> 차이가 발생한 것은 침략과 피침략,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입장 차이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과거의 역사사실 자체 만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 사실상 한국에서의 왜구이미지는 상대적으로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최근 20여 년 동안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어떤 과정과 어떤 요인으로 현재의 왜구 이미지가 형성되고 일반인들에게 보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왜구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해서도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 1. 중화 민족영웅과 침략자 왜구

### 1) 2006년 이후 ‘가정왜구론’을 둘러싼 논쟁

중국의 왜구연구에 큰 전기가 되었던 것은 1980년대 개혁개방의 실시와 함께 중국 역사학계에서 자본주의 萌芽論이 부각되면서부터이다. 명의 전제주의 체제와 그에서 비롯된 海禁정책을 근대화와의 장애요소로 파악하고 가정시기의 왜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긍정적 측면의 활동으로 보려는 시각이 제기되었다. 왜구와 결탁했던 중국인 밀무역자들에 주목해 가정왜구는 일본인들에 의한 外侵이 아니라 국내문제, 즉 명 내부의 사회경제적 발전 및 계급투쟁의 성격이라는 주장이 펼쳐졌다.<sup>28)</sup> 초기의 대표적 인물인 林仁川·戴裔煊은 왜구를 해금 대 반해금의 투쟁으로 규정했는데<sup>29)</sup> 이런 새로운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특히 樊樹志는 더 나아가 왜구를 ‘세계화’적 시각과 접목해 「倭寇新論」을 제출하고 倭患의 근본적 원인은 “명조의 엄격한 해금정책과 날로 늘어나던 해상무역 사이의 타협할 수 없었던 모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인식하에 그는 왜구를 “中國海商”으로 개칭하기도 했다.<sup>30)</sup>

「왜구신론」은 여러 면에서 일본에서 설명하는 16세기의 ‘후기왜구’와 유사하다. 일본의 연구 경향이 중국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1980년대 이후 왜구를 다민족·탈민족적으로 파악하려는 일본에서의 시각과는 조금 다르다. 「신론」은 어디까지나 명대 상업자본의 성장과 중국

27) 桃木至朗 編,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 巖波書店, 2008, p.89.

28) 伊藤公夫, 「中國歴史學界における嘉靖倭寇史研究の動向と問題點」, 『史學』 53-4. 1984; 李小林·李晟文 主編, 『明史研究略覽』, 天津教育出版社, 1988, pp.205-206; 윤성익, 「21세기 동아시아 국민국가 속에서의 倭寇像」, 『명청사연구』 23, 2005. 참조.

29) 林仁川, 「明代私人海上貿易商人与“倭寇”」, 『中国史研究』 1980-4.

林仁川, 『明末清初私人海上貿易』, 上海, 华东师范大学出版社, 1987.

戴裔煊, 『明代嘉隆间的倭寇海盜与中国資本主义的萌芽』,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82.

30) 樊樹志, 「“倭寇”新論: 以“嘉靖大倭寇”为中心」, 『復旦學報』 2000-1, pp.37~45.

인의 해외진출을 “중국인이 주체였던 왜구”를 통해 설명하는 도리어 극히 민족적 입장에 서있었다.

왜구신론이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그렇다고 전통적인 왜구관이 크게 퇴조한 것은 아니었다. 「신론」과 함께 「구론」의 왜구론이 병립되며 전개되었다.<sup>31)</sup> 왜구가 중국인의 활동이었다는 「신론」은 중국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측면이 많았지만 그 반대 측면도 가지고 있었다. 다음 절에서 논하겠지만 왜구가 외부침략이 아니라 내부 반란의 성격을 지닌 사건이었다면 더 이상 ‘대외항쟁’의 소재가 되지 못한다. 1990년대부터 중국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한 중화민족의 주장과 애국주의 역사교육의 영향은 왜구의 성격규정에도 크게 작용했다. 그 결과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중·고등학교 역사교육 현장에서 왜구는 여전히 ‘일본인의 침략’으로 서술되었고 일반적인 인식 역시 이에 가까웠다.<sup>32)</sup>

한동안 병립하던 「구론」과 「신론」<sup>33)</sup> 사이에 본격적인 논전이 펼쳐지게 된 것은 2005년의 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2005년 1월 上海의 『新民晚报』는 일본 고토(五島)시의 시민들이 기금을 모아 명대 왜구 수령 왕직의 고향인 안휘성 歙县 柘林村에 ‘王氏祖墓’를 건립해 왕직의 공적을 기념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은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며 중국 국내에서 비난의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던 중 2월, 浙江麗水學院·南京師範大學의 두 대학교원이 歙县까지 가서 야밤에 묘비를 파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민족배신자[漢奸]의 묘를 일본인들이 정비하고 비석을 세운 것은 중국인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sup>34)</sup> 이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계기로 명대의 ‘倭患’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역사문제와 현실이 긴밀히 결부되어 언론뿐만 아니라 명대사 전문가가 개입된 토론이 한동안 전개되었다.<sup>35)</sup> 「신론」의 대표자인 樊樹志는 두 대학교원의 행동이 “일종의 無知의 표현이고 편협한 민족주의의 표현”이며, “왕직은 명대 武裝밀무역자인 해적 수령으로 그를 완전히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南炳文은 “가정 이래 조정에서부터 연해의 향촌에 이르기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재된 그렇게 많은 왜구의 죄행과 관련된 역사를 설마 모두 잘못 알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하고 가정왜구 중 일본인이 소수였지만,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眞倭·假倭 양자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다.<sup>36)</sup> 南炳文 주장의 핵심은 소수였지만 왜구활동의 주체는 ‘眞倭’, 즉 일본인이었고 왜구활동도 일본인에 의한 침략이었다

31) 주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陈抗生, 「嘉靖“倭患”探实」, 『江海学刊』 1980-3; 林仁川, 「明代私人海上贸易商人与“倭寇”」, 『中国史研究』 1980-4; 戴裔煊, 「明代嘉靖间的倭寇海盗与中国资本主义的萌芽」,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82; 陈学文, 「明代的海禁与倭寇」, 『中国社会经济史研究』 1983-1; 陈学文, 「论嘉靖时的倭寇问题」, 『文史哲』 1983-5; 田培栋, 「明代后期海外贸易研究: 兼论倭寇性质」, 『北京师院学报(社会科学版)』 1985-3; 李金明, 「试论嘉靖倭患的起因及性质」, 『厦门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1989-1; 聂德宁, 「试论明代中叶徽州海商的兴衰」, 『安徽史学』 1989-3; 晁中辰, 「王直评议」, 『安徽史学』 1989-1; 唐力行, 「论明代徽州海商与中国资本主义萌芽」, 『中国经济史研究』 1990-3; 张声振, 「论明嘉靖中期倭寇的性质」, 『学术研究』 1991-4; 樊树志, 「“倭寇”新论: 以“嘉靖大倭寇”为中心」, 『复旦学报』 2000-1. 范中义, 「论嘉靖年间倭寇的性质」, 『明史研究』 2003-8; 郑樑生, 「私贩引起之倭乱与徐海之灭亡: 1546-1556」, 中国明史学会 等 主编, 『第十届明史国际学术讨论会论文集』, 北京, 人民日报出版社, 2005.

32) 윤성익, 위의 논문.

33) 예를 들어 「구론」을 채택했던 당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교사용지도서에는 중국의 왜구연구에 대한 연구경향을 「학술동태」라는 항목에서 「구론」과 「신론」을 3가지로 정리·소개만 하고 각 주장에 대해 시비를 가리지는 않았다. (윤성익, 위의 논문 참조)

34) 『동아일보 인터넷판』, 2005년 2월 6일자. 『光明日報 인터넷판』, 2005년 2월 2일자.

35) 任世江·何孝荣, 「明代“倭患”问题辨析」, 『历史教学』 2008-9, p.5.

36) 위의 논문.

는 데 있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일본인이 중국에서 왜구 수령 왕직의 묘에 비석을 세우고 공덕을 칭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쪽으로 기운 듯한데<sup>37)</sup> 이런 분위기는 당시 중국의 사회분위기와도 관계가 있었다. 2004년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나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釣魚島 [센가쿠열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반일 정서가 고조된 것이다. 왕직의 묘비를 파괴한 행동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어났다. 이런 반일 정서는 더욱 심각해져서 2005년에는 중국 각지에서 반일 시위가 발생하고 일본 상품 불매운동 등이 펼쳐졌다.

이런 중국 내부의 사정에도 힘을 받아 다시 「구론」, 정확하게는 「쇄신된 구론」이 다시 정론(正論)이 되었다. 사료상으로 왜구 구성원에 중국인이 다수였고 왕직을 대표로 하는 밀무역자 출신의 왜구 지도자가 존재했음은 부정할 수 없었지만, 南炳文의 주장과 같은 논리에서 ‘진왜’가 왜구활동의 주체이며 왜구의 성격은 ‘대외침략’이라는 논지가 이어졌다.<sup>38)</sup> 특히 왜구활동의 핵심 내지 목적은 약탈에 있었다는 점이 부각되었는데, 일본의 해적<sup>39)</sup>상인·浪人·武士가 약탈을 목적으로 무장 침략 집단을 형성한 것이 왜구이고 중국 대륙에서 “덩달아 뛰놀던” 중국 인도 적지 않았지만 그 결정적 역할은 ‘일본해도’에 있었으며<sup>40)</sup>, 진왜가 왜구 약탈의 핵심이며 왜구의 성격을 설명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왜(중국인)의 수가 얼마인지 여부는 ‘진왜에 의한 약탈의 성격’, 결국 ‘왜구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sup>41)</sup> ‘실행주체’의 문제가 강조되었다.

반면 중국인 왜구 두목은 부수적 존재였다는 주장도 덧붙여졌다. 가정 32년(1553) 강남지역을 돌아다니며 약탈활동을 벌이던 蕭顯이 일본인 船主를 보면 ‘머리를 조아렸다(叩頭)’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소현은 “매국노[漢奸]”이자 “앞잡이[奴才]”인 것을 알 수 있다며, 왜구를 이끌고 중국 연해를 겁락했던 매국노 두목의 배후에는 “상전[主者]”이 있어서 겉으로는 그들(한간두목)이 왜구를 파견하고 지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운명은 “상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주장한다.<sup>42)</sup> 왕직에 대해서는<sup>43)</sup> 마쓰라씨의 기록인 『大曲記』를 인용하며 왕직이 거처를 두었던 히라도(平戸)의 지배자 마쓰라 다카노부(松浦隆信, 1529~1599)가 왕직을 이용, 혹은 실질적으로는 고용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되었다.<sup>44)</sup>

37) 李坚, 「王直到底是怎样一个人—专家学者评“嘉靖倭寇”」, 『新民晚报』 2005년 2월 4일.

38) 张声振, 「再论嘉靖中期的倭寇性质-兼与《嘉隆倭寇刍议》-文商榷」, 『社会科学战线』, 2008-1; 任世江·何孝荣, 「明代“倭患”问题辨析」, 『历史教学』 2008-9; 段坤鹏·王波·温艳荣, 「嘉靖年间真假倭问题探析」, 『东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1-12; 宋烜., 「明代倭寇问题辨析」, 『国学学刊』 2013-4; 高超, 「明代嘉靖倭患兴起的原因分析」, 『佳木斯大学社会科学学报』 2014-8; 范中义, 「戚继光在抗倭战争中没“杀过一个日本人”吗」, 『浙江学刊』 2015-2.

39) 중국에서는 보통 ‘海盜’라고 표기한다.

40) 任世江·何孝荣, 「明代“倭患”问题辨析」, 『历史教学』 2008-9, p.61~62.

41) 张声振, 「再论嘉靖中期的倭寇性质-兼与《嘉隆倭寇刍议》-文商榷」, 『社会科学战线』, 2008-1, p.102.

42) 段坤鹏·王波·温艳荣, 「嘉靖年间真假倭问题探析」, 『东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1-12, p.62.

43) ‘현재의 국적법’을 기준으로 보면 왕직이 일본으로 건너가 ‘왕(王)’을 자처할 정도의 세력을 얻은 뒤에는 사실상 일본의 다이묘(大名)가 된 것으로 더 이상 ‘중국인’으로는 볼 수 없고 서해 등의 경우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 “두목은 중국인이 아니다(倭酋不是中国人)”는 지적도 있다.(张声振, 「再论嘉靖中期的倭寇性质-兼与《嘉隆倭寇刍议》-文商榷」, 『社会科学战线』, 2008-1, p.102.)

44) 潘洵, 「论明代中国海商的国际地位」, 『澳门学刊』 2019-4, pp.19~26.

潘洵, 「从身份构成看“嘉靖倭患”的性质」, 『苏州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22-5, pp.73~74.

참고로 潘洵는 『大曲記』의 내용을 인용하며 “他利用了五峰”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王晓秋·大庭修, 『中日文化交流史大系·历史卷』(浙江人民出版社, 1996, p.192)를 재인용한 것이다. 본래 『大曲記』에는 “とりへにして”로 되어있어서 “利用”과는 뉘앙스에 차이가 있다. 참고로 『中日文化交流史

한편, 숫자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소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 왕직·서해 등 왜구와 결탁했던 '중국인 왜구 두목'들이 토벌된 이후에는 오히려 진왜의 수가 많았다는 것이다.<sup>45)</sup> 그 증거로 제시되는 것 중 하나는 다케코시(竹越與三郎)의 『倭寇記』(1938)에 인용된 고노(河野)씨의 家傳<sup>46)</sup>이다. 그 내용의 말미에는 “永祿 6년에 우리들 7黨 도합 1300여 명으로 大明國 平海郡을 공격했을 때의 船備, 왼쪽에 그린다... 이 때의 선박수는 대소 137척으로, 親船 9척, 戰船 28척, 기타 戰士 및 大明國의 浮浪人도 가세해 乘組한 小船도 100여 척 있어서, 총 전사는 상하 1,352명, 별도로 漁士 등 600명이 승조했다고 한다. 그 수에는 大明國의 混賊 등도 2~3백 명이나 편들었던 자가 있었다.”<sup>47)</sup>고 적고 있다. 마지막의 숫자만 보면 왜구 전체의 약 2,000명 중에 중국인은 2~3백 명, 10~15%정도가 된다. 永祿 6년(1563)은 가정 42년인데, 실제로 이때 平海에는 왜구가 여러 차례 침범했고 척계광이 이를 물리치기도 했다.<sup>48)</sup> 이 기록으로만 보면 이 때 왜구의 다수는 일본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토나카이의 대표적 해상세력인 고노씨가 왜구의 주체였다.<sup>49)</sup> 아울러 척계광이 토벌한 왜구도 대부분이 '일본인'이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현재 중국에서 진왜와 가왜, 왜구집단의 형성 및 주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최근 다수의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潘洵의 다음과 같은 설명을 통해 잘 알 수 있다.<sup>50)</sup>

眞倭 : 일본에서 온 武士와 海盜

假倭 : 왕직 등 일본으로 도망쳐 유랑하고 진왜와 결탁해 삭발하고(髡首) 왜복을 입은 중국의 武裝 밀수 집단

從倭 : 진왜·가왜가 침입한 뒤 그 여세를 타고 가입한 연해 奸民·流民 등

결과적으로 “진왜가 없으면 가왜도 없고 종왜도 없으며, 倭患도 없다.”는 한 문장으로 왜구 문제는 정리된다. 겉으로는 진왜가 20~30%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왜환의 핵심세력은 그들이고 책임도 그들에게 있었던 게 된다.

「구론」의 공세와 거센 비판 속에서도 樊樹志는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여전히 「신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신론」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 스스로 “거짓말(謊言)”<sup>51)</sup>이라고 제

大系·历史卷』에서는 해당 문장에 대해 “왕직이 藩주의 허가를 얻어 중국식 거처(住所)를 건축하고 이로부터 중국의 무역선이 끊이질 않았다”고 해설하고 있다.

潘洵, 「试论“后期倭寇”概念中所隐藏的意图」(『乐山师范学院学报』2020-2)에서는 “松浦隆信 등 일본 지방 여러 제후의 조종을 받는 傀儡였을 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45) 段坤鹏·王波·温艳荣, 「嘉靖年间真假倭问题探析」, 『东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1-12, p.62.

范中义, 「戚继光在抗倭战争中没“杀过一个日本人”吗」, 『浙江学刊』 2015-2, p.93~94.

한편, 黄明标, 「明朝女英雄瓦氏夫人的历史考察」(『百色学院学报』2021-3, p.82)에서는 가정 33~34년(1554~1555) 절강지역에서 활동한 왜구집단에 대해 그 중 “약 90%는 일본 낭인·무사, 약 10%는 중국 연해에서 일본으로 도망친 건달·악인(地痞恶人)”이었다고 설명하는데, 딱히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46) 『倭寇記』에는 “小宮山綏介가 佐藤信継의 年記에 의해 기록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와지마(宇和島) 시 미시마신사(三嶋神社) 소장 『豫章記』라고 생각된다.

47) 竹越與三郎, 『倭寇記』, 白揚社, 1938, p.58.

48) 관련 기사 : 明 『世宗實錄』 가정 42년 2월 26일, 4월 13·25일, 5월 3일, 7월 16일, 10월 6일.

49) 『왜구기』의 내용을 통한 이런 취지의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다. 譙枢铭, 「古代上海与日本交往」, 『史林』 1990-2 p.38)

50) 潘洵, 「从身份构成看“嘉靖倭患”的性质」(『苏州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2022-5)의 내용을 요약·리.

51) 郭又惊, 「嘉靖倭寇入侵的谎言」, 『科学大观园』 2014-14.

목을 붙여야할 만큼 입지를 잃었다. 특히 樊樹志는 명대사 연구가로서는 중국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도 왜구문제와 관련해서는 모욕적이라고까지 느껴지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樊樹志의 「신론」은 “일본학자들의 주장을 변별력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인터넷상에서 그를 ‘漢奸 학자’라고 지칭하는 말도 무리는 아니다.”<sup>52)</sup>는 비판은 단지 樊樹志 개인이 아닌, ‘왜구 신론’의 현재<sup>53)</sup>를 잘 보여준다.<sup>54)</sup>

## 2) 중화민족 중심의 역사관과 민족영웅 척계광

1980년대 개혁개방이후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해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민족분쟁 등을 목도한 중국은 ‘민족주의’를 새로운 대안 이데올로기로 삼고자 했다.<sup>55)</sup> ‘중화민족주의’는 사회통합기제로서 한계성이 들어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신해 중화문명에 근거한 새로운 국민적 정체성 창안을 시도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중화문명, 문화의 개념 등에 대한 접근방법을 논의하고 특히 개혁개방 정책과 관련하여 세계문화의 보편성 속에서 중국 문화를 재정립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56개의 민족을 통합한 ‘中華民族’의 개념이 정립되었고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도입을 위한 “상징조작”<sup>56)</sup>의 방안으로 ‘愛國主義’ 및 ‘애국주의 교육’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중화민족주의’를 강화하는 도구로서 ‘애국주의’는 이후 중국의 역사연구 및 역사교육의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sup>57)</sup> ‘애국주의’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행하면서 사회주의 이념을 대체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진행한 국민교육이자 중국인 사이에 고양된 국민 이데올로기였다고 할 수 있다.<sup>58)</sup>

習近平 시대의 중화민족주의 및 애국주의의 내용 역시 이전 시대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뿐더러 더욱 강조·강화되는 느낌이다. 習近平 정권의 핵심 키워드가 된 “중국의 꿈[中國夢]”이 처음 제시, 혹은 언급된 것은 2012년 11월 29일 국가박물관에서 개최된 「부흥의 길(復興之路)」이라는 전시회 참관 뒤, “매 사람마다 이상과 추구가 있고 꿈이 있다. 현재 여러분은 모두

52) 潘洵, 「试论“后期倭寇”概念中所隐藏的意图」, 『乐山师范学院学报』 2020-2, p.94.

참고로 이 논문에서는 일본에서의 ‘후기왜구’ 개념을 비판하면서, “일본학자들은 주체의 변화에 근거해 영파의 난 이후 밀무역자와 대왜구시대의 약탈자들을 연결시켜 그들 사이의 연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정대왜구의 주체가 중국인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이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왜구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여 일본 학자들의 “책임전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사실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p.92)

53) 물론 「신론」이나 왕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李睿, 「明代中叶倭寇问题探析」(『西部学刊』 2022-6, p.132)는 왜구의 약탈과 척계광 등의 왜구 토벌의 공적을 인정하면서도 “이 전쟁은 본질적으로 중국 海商을 중심으로 왜구와 결탁하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反海禁戰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4) 潘洵은 ‘왜구신론’의 모태가 된 일본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야마네(山根幸夫)가 ‘후기왜구’의 주체가 일본인이 아닌 중국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다나카(田中健夫)는 더욱이 약탈을 “밀무역강행”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스스로를 기만하고 남도 속이는 문자유희이다. 일본학자는 일반적인 판단이 있어서 자기 민족의 역사범죄를 인정할 용기가 없는 것 같다.”며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있다.(潘洵, 「从身份构成看“嘉靖倭患”的性质」, 『苏州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22-5, p.70)

55) 조봉래, 「사상적 연원과 시대적 흐름을 통해 본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중화민족주의 강화」, 『민족연구 70호 특집-자민족 중심주의의 현장』, 70, 2017, p.63.

56) 김인희, 「중국의 애국주의교육과 역사허무주의-1988년 〈하상(河殤)의 방영에서 1994년 〈애국주의교육실시강요(愛國主義實施綱要)〉 선포까지-」, 『韓國史學史學報』 38, 2018, p.355.

57) 위의 논문, p.343.

58) 조봉래, p.63.

중국의 꿈[中國夢]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 근대 이래로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이다.”<sup>59)</sup>라는 발언에서였다. 그 전시회는 1840년 아편전쟁 이래 중국인민이 굴욕과 고난 속에서 분투하고 민족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한 다양한 탐색, 특히 중국공산당이 전국의 각 민족과 인민을 영도해 민족독립·인민해방과 국가부강·인민행복을 쟁취한 찬란한 여정을 회고하는 내용이었다.<sup>60)</sup>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몽’에는 아편전쟁 이래 반제·반봉건의 민족·민주 투쟁, 공산주의 혁명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을 거쳐 오늘날 G2에 이르기까지 170년 동안의 지난한 ‘중화민족 부흥’의 열망이 녹아 있다.<sup>61)</sup>

習近平 정권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강화된 애국주의 교육의 내용은 2019년 11월 반포한 「신시대 애국주의 교육 실시 강요(新時代愛國主義教育實施綱要)」<sup>62)</sup>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애국주의는 중화민족의 민족심이자 민족혼이며 중화민족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재산이며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이 민족독립과 존엄성을 수호하는 강력한 정신적 원동력이다.”로 시작하는 「(신)강요」에서 반복해 강조하는 점은 역시 ‘조국 통일’과 ‘민족 단결’이다. 올해(2023년) 6월 26일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애국주의교육법안(초안)」<sup>63)</sup>을 보면 이런 흐름은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국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인 ‘중화민족 단결’에 매우 효과적인 역사소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외침략과 그에 맞선 항쟁과 승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1994년 선포한 「애국주의교육실시강요(愛國主義教育實施綱要)」에는 역사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주제 및 내용으로 “중국인민이 외세 침략과 압박에 반대해 온 역사를 이해하고, 부패한 통치에 반항하고 민족 독립과 해방을 쟁취하여 희생을 무릅쓰고 앞으로 돌진하며 피나는 투쟁을 한 정신과 업적, 특히 중국공산당이 전국 인민을 영도하여 신중국을 건립하고 용감하게 분투한 숭고한 정신과 빛나는 업적을 이해시켜야 한다.”<sup>64)</sup>는 점을 명시했다. 여기서 ‘외세침략’은 비단 근대이후의 침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항전의 역사와 함께 중요시되는 것이 영웅, 더욱 정확히는 ‘民族英雄’이다. 「(신)강요」의 27조는 “영웅을 숭배, 영웅을 학습, 영웅을 수호, 영웅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케 하고 있으며, 「법안(초안)」이 제시하는 9개 방면의 주요 내용에는 중화민족발전사와 더불어 영웅열사와 선진 모범 인물의 사적 및 구현된 민족정신·시대정신을 보급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민족영웅’ 개념은 한국에서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민족영웅’은 “평화·변혁기에 민족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한 인물”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외래 민족의 침략과 압박에 저항하는 투쟁에서 뛰어난 공헌을 한 인물로, 그 중에는 반항투쟁 중 강하고 포악함에 꺼리지 않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도 포괄한다. 이상의 정의는 어떤 민족에게나 적합하고 지역과 역사시간에 구애 받지 않으며, 성공실패, 인물의 크고

59) 『人民日報』 2012년 11월 30일, <http://cpc.people.com.cn/n/2012/1130/c64094-19746089.html>

60) 위와 동일.

61) 김태만,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과 문화강대국의 길」, 『동북아문화연구』 37, 2013, p.6.

62) 中共中央国务院印发『新時代愛國主義教育實施綱要』(2019-11-12)  
[https://www.gov.cn/zhengce/2019-11/12/content\\_5451352.htm](https://www.gov.cn/zhengce/2019-11/12/content_5451352.htm)

63) 「愛國主義教育法草案首次亮相」, 『檢察日報』 2023년 7월 3일  
[https://www.spp.gov.cn/spp/zd gz/202307/t20230703\\_620468.shtml](https://www.spp.gov.cn/spp/zd gz/202307/t20230703_620468.shtml)

「초안」의 대략적 내용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baijiahao.baidu.com/s?id=1770037279073571682&wfr=spider&for=pc>

64) 김인희, p.359.

작은 조건의 제한에 구애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sup>65)</sup> 즉, 좁은 의미의 ‘민족영웅’은 “외래 민족의 침략에 항거한 인물”이라고 짧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현재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민족영웅’의 개념이다.

## ① 악비 대 척계광

2002년,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 고구려사를 둘러싼 문제 및 갈등이 터진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 56개의 민족을 통합한 ‘중화민족’을 주제로 역사관을 재정립하고 역사서술과 역사교육을 추진·강화했던 것에서 기인한다. 중화민족 중심의 역사관은 고구려사의 문제에서 잘 나타났던 것처럼 주변 국가 및 민족들과의 마찰을 빚었지만, 중국 국내에서도 큰 마찰과 논쟁을 불러왔다. 가장 첨예한 문제는 종래의 민족영웅, 특히 대표적인 민족영웅으로 숭상 받던 岳飛의 민족영웅 지위 문제였다.

CCTV의 인기 강연 프로그램인 「百家講壇」에서 “모종의 관점에서 악비는 민족영웅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발언에서 시작된 논란은 2003년부터 사용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악비와 원나라에 항거한 文天祥에 대해 ‘민족영웅’의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들끓었고 학계의 논쟁으로 이어졌다. 漢族의 관점에서 민족영웅이었던 악비나 문천상은 중화민족적 관점에서 보면 민족 내부 간의 항쟁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외래 민족의 침략에 항거한 민족영웅”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sup>66)</sup> ‘민족영웅이 아니다’라는 입장에 많은 비판이 쏟아졌지만, 2003년 역사교과서의 악비와 문천상 관련 내용에서 결국 ‘민족영웅’이 빠졌다. 宋(漢族)과 주변의 민족들이 대립했던 시기를 ‘민족정권 병립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에서도 알 수 있지만, 소수민족 문제를 중시하는 중국정부의 입장에서 과거의 한족 중심 역사관 및 역사서술은 조정될 필요가 있었다.

이렇다보니 “대외침략에 대해 항거”했던 종래의 “민족영웅” 대부분이 그 지위를 잃게 되어버렸다. 근대이후 서양 및 일본의 침략에 항거한 인물들은 문제가 없었지만, 전근대시기의 인물들은 대부분 중화민족의 내부 항쟁에서 활약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왜구, 즉 일본인의 침략을 물리친 척계광은 그대로 민족영웅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2003년 중국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교사교학용서』는 척계광의 ‘威家軍’은 ‘岳家軍’과 싸운 대상이 비교된다면서, “척계광의 항왜투쟁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외래 민족의 침략에 반항하여 승리한 투쟁임과 척계광이 중화민족의 역사상 걸출한 민족영웅임을 명확하게 한다.”<sup>67)</sup>고 지침을 밝히고 있다. 중화민족사에서 척계광은 첫 번째 민족영웅이 된 것이다.<sup>68)</sup>

그러나 민족영웅의 지위를 둘러싼 논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악비의 민족영웅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인터넷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어있는데<sup>69)</sup> 악비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척

65) 「百度百科」 ‘民族英雄 [mín zú yīng xióng]’

[https://baike.baidu.com/item/民族英雄/2431579?fr=ge\\_ala](https://baike.baidu.com/item/民族英雄/2431579?fr=ge_ala)

66) 윤성익,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중국에서의 시각-愛國主義·中華民族主義 教育下에서의 對日本觀과 관련하여-」(『아태연구』 13-2, 2006)를 참조.

67) 人民教育出版社 歷史室 編著, 义务教育课程标准实验教科书『中国历史 七年级下册教师教学用书』, 「第16課 中外的明交往与衝突」.

68) 윤성익, 「21세기 동아시아 국민국가 속에서의 倭寇像」, 『명청사연구』 23, 2005. 참조.

69) 현행 중국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악비의 ‘민족영웅’ 칭호가 복권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는 “민족영웅 척계광”이라고 본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반면, 악비는 초상화 밑의 설명에 “악비의 抗金事迹은 수백 년 이래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며 칭송되어, 사람들은 악비를 민족영웅으로 간주한다.(人们视岳飞为民族英雄)”고 되어있다.(人民

척계광이 중화민족의 ‘첫번째 민족영웅’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듯하다. 척계광에 대한 공격 요소와 근거가 된 것은 「왜구 신론」의 주장 및 “왜구의 다수가 중국인”이라는 점이었다. 왜구가 실은 중국인의 활동, 특히 명조에 대한 항 ‘해금 대 반해금의 투쟁’이었다면 왜구활동은 일종의 ‘민중반란’, 중국식 표현으로는 ‘起義’가 되고 척계광은 이를 토벌한 것이 된다. 중국의 역사관에서 ‘기의’는 정의로운 행동이다. 당연하지만 이를 탄압한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척계광이 싸웠던 상대가 「왜구 신론」에서 말하는 왜구라면 척계광은 민족영웅이 될 수 없을뿐더러 더더군다나 “각 계층 인민을 압박·착취한 봉건 지주 계급과 그 해금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즉 기의)”을 탄압한 죄인이 된다.<sup>70)</sup>

「구론」과 「신론」의 논쟁, 그리고 결과적으로 「구론」이 (공식적으로?) 승리한 것과 척계광을 비롯한 항왜영웅, 항왜전쟁의 선양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현행 중국 역사교과서에는 “척계광이 영도한 항왜전쟁은 반침략전쟁이고 그는 우리나라 역사상 위대한 민족영웅이다.”라고 서술되어있는데, 그 『교사교학용서』에는 “왜구는 우리나라 연해지구에 와서 무장약탈·살상 활동을 하였기에 연해주민의 정상생활과 우리나라 해양방어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심각한 「倭寇之患」을 야기했다. 따라서 척계광 등의 사람이 영도한 항왜투쟁은 정의로운 민족자위 전쟁이며, 외래침략에 반항한 전쟁이다. 척계광이 중화민족의 민족영웅으로써 기려지는 것은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다.(当之无愧)”<sup>71)</sup>고 설명되어있다. 아울러 왕직 등 ‘海寇商人’ 집단에 대해서는 그들이 “명조의 해금이행에 반항한 측면이 있지만, 또한 일본왜구의 入患을 포함하는 일면이 있으며”, 그들을 과대평가하면 안 되는데, “그들의 활동은 자본주의 발전을 촉진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였고, 그들은 전형적인 海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왜구의 소란과 서로 결합해 동남해일대의 경제를 극심하게 파괴하였다.”<sup>72)</sup>고 평가한다. 중화민족의 일원이라도 민족을 분열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은 침략자=왜구일 뿐이다. 이런 인식은 翦近卞이 신장위구르의 분리주의 세력을 왜구에 빗대서 척결의 대상으로 삼았던 예에서도 잘 들어난다.<sup>73)</sup>

「구론」의 설명, 즉 왜구의 주체는 ‘일본인’이고 그들의 활동은 ‘대외침략’이었다는 것은 척계광을 비롯해 ‘항왜영웅’·‘항왜전쟁’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그렇지만, 「구론」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었다. 사료에 명기되어있는 ‘왜구의 다수는 중국인’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여전히 일종의 약점으로 남아있었다.

실제로 “척계광은 99번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수천수만의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역사서를 살살이 뒤져보니 도리어 척계광이 일본인을 한명이라도 죽였다는 기록은 찾기 못했다. 그가 죽인 것은 모두 중국인이다. 그러나 그는 도리어 민족영웅이 되었고 심지어 사람들은 악비와 문천상과 비교하며 더 위대하다고 말한다.”<sup>74)</sup>는 상당히 노골적인 비판이 있었다. 여기에 크게 반응을 보인 사람은 『明代倭寇史略』(2004, 공저)과 『戚继光传』(2003)을 비롯한 다수의 척계광

教育出版社, 『普通高中教科书 历史 必修 中外历史纲要(上)』, 人民教育出版社, 2019, p.52) 중학교 교과서에도 「생각해볼 문제[问题思考]」란에 이와 동일한 내용을 적은 뒤 “사람들은 왜 악비를 존중하고 그리워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人民教育出版社, 『义务教育教科书 中国历史 七年级 下册』, 人民教育出版社, 2021, p.40) “민족영웅 척계광”과는 분명히 다른 어조이다.

70) 段坤鹏·王波·温艳荣, 「嘉靖年间真假倭问题探析」, 『东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1-12, p.61.

71) 人民教育出版社, 『教师教学用书 中国历史 七年级下册』, 人民教育出版社, 2017, p.205.

72) 위의 책, p.190.

73) 「‘왜구에서 보물로’...신장 교화 끝낸 시진핑의 자신감」, 『한국일보』 2022년 7월 17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1713580004974?did=NA>

74) 单之蔷, 「大海, 为何没有拨动浙人的心弦?」, 『中国国家地理』 2012-2, p.22.

관련 서적의 저자인 範中義였다.<sup>75)</sup> 그는 「척계광은 항왜전쟁에서 “한명의 일본인도 죽이지” 않았습니까?(戚继光在抗倭战争中没“杀过一个日本人”吗)」<sup>76)</sup>라는 글을 통해 반격했다.

“최근 일부 학자들은 잡지에 발표한 문장에서 공개적으로 항왜전쟁이 반침략전쟁이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척계광이 외적의 침입에 맞서 싸운 전쟁에서 불후의 공훈을 세운 것을 부정했습니다.”로 시작하는 이 글에서 그는 사료를 근거로 척계광이 ‘일본인을 죽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잠시 언급되었던 平海衛의 대첩에서는 도리어 “한명의 중국인도 죽이지 않았고 그가 죽인 것은 모두 일본인”이었다고 『명실록』 등의 기록을 인용하며 주장한다.<sup>77)</sup> 척계광의 승전 상황을 열거한 뒤 그는 “가정 35년(1556) 7월 寧紹臺 參將으로 부임하여 가정 43년(1564) 2월의 蔡丕嶺 싸움까지 7년 반 동안 ‘합계 80여 전에서 전승’을 거두었는데, 매 전투에서 참획한 것은 모두 ‘진왜’이며, 매 전쟁에서 죽인 것이 전부 중국인은 아니다. 특히 가정 42~3년에 이르러서는 그가 죽인 것은 거의 모두 ‘진왜’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고 척계광은 “악비·문천상과 달리 그는 漢민족의 민족영웅일 뿐만 아니라 중화민족의 민족영웅이기 때문에 더 위대해 보인다.”<sup>78)</sup>고 악비·문천상과의 차별적 위상을 강조했다.<sup>79)</sup>

1절에서 언급했던 왜구의 구성원에 대한 새로운 주장, 즉 왕직 사망 후의 ‘가정왜구 후반기’에 진왜=일본인이 다수였다는 설명은 이와 같이 더욱 완벽한 민족영웅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항왜영웅이 무찌른 적은 일본인 침략자여야 여러 면에서 정당성이 강화된다. 사료상으로는 명확하게 진왜가 적었던 1555년 이전의 왜구에 대해서 딱히 근거도 없이 진왜가 더 많았다는 무리한 설명이 덧붙여지는 현상<sup>80)</sup>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덧붙여서 생각해봐야할 점이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척계광이 본격적으로 활약한 시기의 왜구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다. 또한 앞서 소개한 고노(河野)씨의 家傳 외에 적기는 하지만 일본인이 주체가 되어 중국에서 약탈활동-즉 왜구-을 했다는 기록이 있지만<sup>81)</sup> 이런 기록들이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볼 수 없다. 1945년 이전 해외발전의 선구자로서 왜구를 서술할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이다. 상황이 뒤바뀌어 ‘일본인의 침략’으로 왜구를 설명할 때 이들 사료가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아울러 현재 일본에서 왜구에 대해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중국학자들의 목소리에도 한번쯤은 귀기울여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75) 참고로 范中义, 『戚继光评传』(南京大学出版社, 2004)에 대한 한 서평의 제목은 “애국주의 전통은 영원히 빛난다.”(魏艾民, 「爱国主义传统永放光彩-范中义《戚继光评传》评介」, 『政工学刊』, 1998-10)였다.

76) 范中义, 「戚继光在抗倭战争中没“杀过一个日本人”吗」, 『浙江学刊』 2015-2.

77) 위의 논문, p.92.

『세종실록』 가정 42년 4월 24일에, 척계광이 유대유 등과 평해위에서 왜적을 물리치고 2,200여를 참수했다는 기록이 있다. 范中义는 이때의 2,200명이 모두 ‘眞倭’, 즉 일본인이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 증거로 삼는 것은 俞大猷의 『正氣堂集』에서의 내용이다. 다만 『正氣堂集』의 내용으로 평해위의 왜구 2,200명이 모두 진왜였다고 설명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78) 위의 논문, p.94.

79) 중국사학회 전회장 张海鹏이 주편을 담당한 南京出版社의 『抵御外侮中华英豪传奇丛书』(전10책, 2016)는 총서의 제목처럼 “중국 역사상 각 시기에 외모(外侮;외국으로부터 받은 모멸)를 방어한 영웅 호걸을 청소년들에게 알리기 위해” 출판된 이야기 독본이다. 이 책에서 시기가 가장 앞선 인물, 즉 중국 역사상 첫 번째 영웅은 척계광(『抗倭名将(戚继光)』)이다.

80) 黄明标, 「明朝女英雄瓦氏夫人的历史考察」(『百色学院学报』 2021-3, p.82. 주24) 참조.

81) 윤성익, 『명대 왜구의 연구』, 경인문화사, 2007, pp.84~88.

## ② 유대유와 척계광, 그리고 와씨(瓦氏)부인

가정왜구에 대응한 항왜전쟁에서 큰 공적을 세운 인물이 척계광 만은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왕직을 투항시킨 뒤 처형하고 徐海집단을 내분시켜 토벌했던 胡宗憲, 척계광 못지않게 여러 승전을 거둔 俞大猷와 같은 인물이 있다. 그렇지만 이들 인물은 ‘민족영웅’으로 척계광 만큼 현양되지 않아왔다.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가정왜구의 평정과 관련해 호종헌의 공적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그는 이미 당대부터 권신 嚴嵩 父子와 그의 수하격인 趙文華-두 명 모두 『明史』 「佞臣傳」에 들어가 있다-와 관련 되어있으며 비난받았고 결국 이 때문에 자살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sup>82)</sup> 『명사』에는 “권모술수(權術)가 많았고 功名을 좋아했다.”<sup>83)</sup>고 되어있는데, 그 외에도 재물의 횡령·낭비나 도덕적 해이 등의 행실은 항왜의 공적을 덮는데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백리로 유명한 海瑞의 청렴결백함은 호종헌의 탐욕과 무도함에 대비되어 호종헌의 평판을 더욱 낮추는데 한몫했다.<sup>84)</sup>

이런 평판은 명·청대의 문학작품에도 반영되었다. 명·청대 소설·희곡은 모두 40여 편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호종헌이 서해를 회유하고 결국 살해하는 내용과 관련 있다.<sup>85)</sup> 서해의 연인 王翠翹가 주인공이라서 더욱 그랬겠지만, 이들 작품에서 호종헌은 ‘신의를 저버린 小人’과 같이 부정적으로 묘사되었다.<sup>86)</sup>

이처럼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호종헌이었기 때문에 비록 ‘항왜’와 관련해서는 공적을 인정하면서도 민족영웅으로 적극적으로 추켜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척계광의 선배격인 유대유는 왜구토벌에 척계광 못지않은 공적을 거두어 민간에서는 “俞龍威虎”<sup>87)</sup>로 불릴 정도로 척계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장으로 당시부터 평판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척계광보다 높이 평가되기도 했다.<sup>88)</sup> 척가군에 대해 그가 이끄는 군대는 俞家軍으로 불렸고 문장실력도 뛰어나 퇴직 후에는 조정으로부터 「昭代儒將」의 편액을 내려 받았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언제부터인지 척계광에 비해 유대유는 덜 알려지게 되었다.<sup>89)</sup> 아울러 百度에서 ‘俞大猷’를 검색하면 상관어(주제)에 “유대유는 왜 민족영웅이 아닌가(俞大猷为什么不是民族英雄)”가 있을 정도로 악비만큼은 아니지만 그의 민족영웅 지위는 논란거리가 되어있

82) ‘항왜’와 관련된 다른 사람의 공적도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는 비판도 받는다. 왜구연구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호종헌은 『주해도편(籌海圖編)』의 편자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본래의 저자인 정약증(鄭若曾)-호종헌의 막료였다-의 공을 가로챈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호종헌 편찬 『주해도편』’이 간행된 것은 그가 죽은 뒤 그의 후손에 의한 것으로 호종헌 자신의 책임은 아니다.

83) 『명사』 「열전」 92.

84) 李逢迅, 「抗倭英雄的悲哀-演胡宗宪有感」, 『文化月刊』 2017-05 참조.

85) 郭尔雅, 「从东亚学视域看日本的倭寇史研究及倭寇文学」, 『社会科学研究』 2020-2, p.31.

86) 郭尔雅, 「倭寇史核心人物徐海与倭寇题材文学-从明清小说到当代中日文学的比较分析」, 『东北亚外语研究』 2022-3, p.97

87) 赵英·冯媛媛, 「“南倭北虏”时代危机背景下的制胜思想探要-以俞大猷对戚继光的影响为中心」, 『管子学刊』 2020-2, p.54.

88) 『명사』 「열전」 100. “譚綸嘗與書曰, ‘節制精明, 公不如綸. 信賞必罰, 公不如威. 精悍馳騁, 公不如劉. 然此皆小知, 而公則甚大受.’ 威謂威繼光, 劉謂劉顯也... 贊曰, 世宗朝, 老成宿將以俞大猷為稱首, 而數奇屢躓.”

“유룡척호(俞龍威虎)”도 중국의 민간고사 “용호상쟁(龍虎相爭)”에서는 결국 ‘용’이 승리하기 때문에 유대유가 척계광보다 앞선다고 해석되기도 한다.(冰马, 「历史人物传记的主观性·客观性与表现力-以曾纪鑫《抗倭名将俞大猷》为思考起点」, 『传记文学』 2023-6, p.151)

89) 孙永庆, 「还原历史遮蔽人物的探索-读曾纪鑫的《抗倭名将俞大猷》」, 『福建乡土』 2021-2, p.62

다.

유대유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가1급작가인 曾紀鑫의 『抗倭名将俞大猷』(宁波出版社, 2020)를 계기로 다시 관심이 모아졌다. 曾紀鑫은 유대유가 문무 양면을 모두 갖춘 인물로 “명대 300년간 그에 필적할 인물은 王陽明 뿐이다.”<sup>90)</sup>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 1) 『籌海圖編』은 호종헌의 공적을 과장하고 호종헌의 모함을 받았던 유대유에게는 인식했다.
- 2)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친 『戚少保年譜耆編』의 편찬자는 척계광의 장자인 戚祚國 등 자손들로 척계광에 대해서는 과분한 칭찬을 하면서도 유대유와 관련해서는 종종 소홀하거나 과소평가했다.
- 3) 유대유는 동남지역의 항왜와 북방토벌 외에도 湖南·廣東·江西·海南 등의 임지를 전전하며 安南을 정벌하고 농민폭동을 여러 차례 진압했는데, 해당 지역의 黎族·苗族·壯族·瑶族 등 소수민족 기의에 대해 혹은 토벌해 섬멸하거나 혹은 초무해 주모자를 처벌하고 教化를 베풀었다. 유대유의 폭동을 평정한 행위는 자연히 농민기의를 압제한 “망나니(劊子手)”로 간주되어 폄하되고 탄압되었다.
- 4) 학교 교재에서 항왜를 다루면서 유대유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겉핥기만 한다. 학생들은 유대유의 항왜공적을 알 수 없었고 대대로 서서히 은폐되었다.<sup>91)</sup>

위의 내용 속에서 유대유가 중화민족의 영웅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도 알 수 있다. 바로 세 번째의 사실 때문이다. 농민기의 및 소수민족에의 탄압은 사회주의 역사관뿐만 아니라 중화민족 역사관에서도 치명적인 결점이다. 曾紀鑫은 유대유를 왕양명과 비교하며 크게 평가했지만, 우연인지 두 사람은 과거 왕양명이 “농민기의 진압의 망나니(劊子手)”·“소수민족기의 진압의 망나니”<sup>92)</sup>라고 불리며 크게 비난받았던 점에서도 닮아있다. 왕양명의 이른바 「三征」 중 正德 13년(1518)의 민변 진압, 특히 가정 7년(1528) 廣西의 瑶·壯族 기의의 진압은 그의 사상인 “心學”조차도 부정될 만큼 크게 비난받았다.<sup>93)</sup>

척계광도 왜구가 평정된 뒤에는 북방의 몽골족-중화민족의 하나- 평정에도 공을 세웠는데, 그것은 외래침략에 대한 방어 전쟁이었기 때문에 내부의 기의, 특히 소수민족 기의와는 큰 차이가 있다. 비록 중화민족의 영웅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없다고 해도 악비의 杭鎡이나 문천상의 抗元은 외래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자국민(漢族)을 보호한 ‘정의로운 행동’으로 평가되지만,<sup>94)</sup> 중국의 현재 역사관에서 유대유의 소수민족 기의 진압은 ‘정의로운 행동’으로 인정될 수 없다. ‘기의 진압’에 대한 비난이 너무 ‘현재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며 유대유의 행위를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는 두둔<sup>95)</sup>도 이 점을 해소하기는 어렵다.<sup>96)</sup>

90) 黃文虎, 「抗倭名将俞大猷-读历史人物传记《抗倭名将俞大猷》」, 『书屋』, 2021-5, p.62.

91) 孙永庆, p.62.

92) 余怀彦, 『良知之道:王阳明的五百年』, 中国友谊出版公司, 2016, 제1장 참조.

93) 庄宁, 「王阳明的反革命两手及其“心”学-揭露王阳明镇压广西瑶·壮族人民起义的罪恶面目」, 『历史研究』 1975-4.

治勋·志坚, 「王阳明的“心学”和他镇压农民起义的反革命“事功”」, 『南京大学学报:哲学·人文科学·社会科学』 1976-1.

庄宁의 글에서는 왕양명에 대해 수차례 반복하며 “劊子手”라고 비난하고 있다.

94) 人民教育出版社, 『教师教学用书 中国历史 七年级下册』, 人民教育出版社, 2017. 악비 관련 : p.110·111·112, 문천상 관련 : p.145.

95) 冰马, p.151.

96) 人民教育出版社, 『义务教育教科书 中国历史 七年级 下册』(人民教育出版社, 2021, p.74)에는 척계광의 이름만 서술하면서 “그는 우리 나하 역사상 한명의 위대한 민족영웅”으로 되어있고, 人民教育出版社

유대유의 약점과 대비되어 항왜영웅으로 주목되는 인물은 와씨부인(瓦氏夫人, 1496?~1555?6?)이다. 와씨부인은 廣西의 田州府 土官인 岑猛의 처로 소수민족인 壯族이다. 1554년(가정 33) 왜구의 침입에 대응해 명군은 각 지역의 병사를 모집했는데 田州의 세습 토사 岑大壽·岑大祿 형제는 나이가 어려 증조모인 와씨부인이 그들을 대신해 사졸 6,000여 명을 이끌고 출정해 절강 일대에서 왜구토벌에 일조했다. 유대유의 지휘 하에서 활약하기도 했는데, 명조에서는 그녀의 공을 인정해 ‘二品夫人’에 봉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寶髻<sup>97)</sup>將軍” “石柱女將軍”으로 칭송했다.<sup>98)</sup> 물란으로 잘 알려진 花木蘭 이야기를 민간에 확산시킨 것으로 알려진 徐渭(한때 호종헌의 막하에 있었다)의 희곡 『雌木蘭替父從軍』은 와씨부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sup>99)</sup>

‘소수민족 여성’으로 외래의 침략에 활약한 와씨부인은 중화민족주의 및 애국주의에 걸 맞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와씨부인과 관련된 연구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고<sup>100)</sup> TV드라마<sup>101)</sup>나 장극의 민족극(壯劇 『瓦氏夫人』)으로 제작되는 등 중국의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져 있었는데 특히 2014년부터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sup>102)</sup> 그 이유는 역시 중국에서의 중화민족 및 애국주의 강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習近平이 말한 “中國夢은 민족의 꿈(夢)이고 또한 매 중국인의 꿈이다.”라는 것과 연결 지어 와씨부인을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민족정신을 전달 하고... 가족·사회·국가의 화합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며 중국민족의 조화로운 사회건설과 민족몽 실현에 적극적 공헌을 했다.”<sup>103)</sup>고 평가하는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와씨부인이 참가한 항왜전쟁은 ‘중화민족’이 외족의 침략에 맞서 싸운 애국전쟁으로, 중화 자

社, 『普通高中教科书 历史 必修 中外历史纲要(上)』(人民教育出版社, 2019, p.74)에는 “民族英雄 戚繼光”에 대해 “抗倭將領 俞大猷”로 되어있다.

97) 중국 고대 부녀자가 튼 상투의 일종. 즉 ‘여성’을 의미.

98) 와씨부인의 항왜활동에 대해서는 黃明标, 「明朝女英雄瓦氏夫人的历史考察」, 『百色学院学报』 2021-3을 참조.

99) 吳孝斌, 「花木蘭与瓦氏夫人」, 『史海钩沉』 2022-8.

100) 覃彩銓·黃明标 主编, 『瓦氏夫人论集』, 广西人民出版社, 1992.

黃明标, 『瓦氏夫人研究』, 广西民族出版社, 2008.

101) 2008년 자치구 성립 50주년을 기념해 ‘壯民族英雄’ 와씨부인의 TV드라마가 제작·방영되었다.

「电视连续剧《瓦氏夫人》展示壯族精神」, 『广西日报』 2008년 5월 5일.

<http://www.gxcounty.com/society/kjww/20080505/34832.html>

102) CNKI에서 ‘瓦氏夫人’으로 검색하면 총78건 중 절반가량인 36건이 2014년 이후의 것이다.

2014년 이후의 주요 논저는 다음과 같다.

黃明标, 『瓦氏夫人抗倭故事歌影译注』, 广西民族出版社, 2022.

黃中习·溫穗君, 「基于《瓦氏夫人研究》的瓦氏夫人年谱大事记」, 『名作欣赏』 2022-27; 李瑜玲, 「承袭

制度与地方习俗: 明代女土司瓦氏夫人研究」, 『遵义师范学院学报』, 2021-10; 韦颖琛, 「瓦氏夫人抗

倭: 若有战, 召必往」, 『中国民族报』, 2021년 07월 27일; 黃明标, 「明朝女英雄瓦氏夫人的历史考察」,

『百色学院学报』 2021-3; 歐冬春·何湘桂·邓芸芸, 「壯族瓦氏夫人民间故事的文本变迁及内涵演变」,

『牡丹』. 2020-8; 韦美兵, 「试论明代抗倭壯族英雄瓦氏夫人」, 『中国民族博览』 2019-10; 韦晓康·张延

庆·胡雪凤·唐曲·黃家勇, 「从瓦氏夫人抗倭探析广西狼兵武术」, 『百色学院学报』 2019-1; 陆照德, 「

广西岑氏土司: 一个家族的传奇」, 『文史春秋』, 2018-1; 杜晓杰, 「民族叙事的世界意义-以壯族《瓦氏夫

人》为中心的探讨」, 『名作欣赏』 2018-10; 陈金文·孙梦梅, 「壯族瓦氏夫人传说的口述史价值」, 『河池

学院学报』 2017-8; 马明达, 「抗倭英雄瓦氏夫人」, 『少林与太极』 2015-12; 李红香·李中麒, 「彝族女

土司奢香夫人研究概述-兼与秦良玉·瓦氏夫人之比较」, 『人文世界』 2015; 秦炜棋, 「管窥瓦氏夫人尚武

思想发展历程」, 『百色学院学报』 2015-5; 陈文俊, 「历史成因: 瓦氏夫人崇拜研究之二」, 『桂林师范高

等专科学校学报』 2015-4; 陆锋锐, 「刍议瓦氏夫人抗倭中途班师回田之因」, 『山东农业工程学院学报』

2015-2; 陆锋锐, 「壯文化视阈下的瓦氏夫人优秀品质成因分析」, 『广西教育学院学报』, 2015-1; 陆锋

锐·陈鹰, 「明代广西土司瓦氏夫人政治才能初论」, 『兰台世界』 2014-36; 陆锋锐, 「漫谈壯族女杰瓦氏

夫人对社会的几点贡献」, 『黑龙江史志』 2014-8; 陆锋锐, 「试论瓦氏夫人的勇武精神」, 『广西教育学院

学报』 2014-4; 陆锋锐, 「民族梦: 壯族女英雄瓦氏夫人精神内核新论」, 『柳州师专学报』 2014-2.

103) 陆锋锐, 「民族梦: 壯族女英雄瓦氏夫人精神内核新论」, 『柳州师专学报』 2014-2, p.57.

녀들의 강렬한 애국주의와 민족단결 정신을 반영한다.”<sup>104)</sup> “田州는 광서의 외딴 소수민족 지역이지만, 국가가 외침을 당해 조정의 명령만 있으면 즉시 변경으로 출병하는 ‘忠靖報國’이라는 애국전통이 있는 곳이다.”<sup>105)</sup> 등과 같은 언설은 너무나도 현재적 관점이지만 왜 와씨부인이 현재 각광을 받는지 잘 보여준다. 2019년 9월 習近平은 전국민족단결진보표창대회(全國民族團結進步表彰大會)에서 중화민족의 단결을 강조하며, “중국의 위대한 정신은 각 민족이 공동으로 육성한 것”으로 역사상 끊임없이 “중화민족의 특질과 품성을 주입하여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위대한 민족정신을 공동으로 주조했다.”고 하고 역사상의 미담으로 王昭君의 出塞, 文成公主의 進藏, 涼州會盟, 와씨부인의 항왜, 토르구트(土爾扈特)의 萬里東歸, 시버족(錫伯族)의 萬里戍邊 등을 예로 들었다.<sup>106)</sup> 習近平이 예로 든 사건들은 와씨부인을 제외하고는 변경의 소수민족과 중원의 민족이 화합하거나 귀순·통합과 관련된 것들이다. 한족과 소수민족이 힘을 합쳐 하나의 ‘중화민족’으로써 외래민족의 침략에 항거한 전근대의 사건은 항왜전쟁이 거의 유일하고 이 때문에 와씨부인은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된다. 현재 중국에서 척계광 이외에 가장 뜨거운 ‘항왜영웅’은 와씨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sup>107)</sup> 중화민족의 단결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현재의 중국에서 한족과 소수민족이 연합한, 외침에 대한 저항운동은 더욱더 중시될 것이고 새로운 사례·인물도 발굴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단순히 한 인물·한 가문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민족영웅에 대한 찬양”이며, 한 집안의 영예가 아니라 “(그 인물이 속한) 소수민족의 영예이자 동시에 중화민족의 영예”<sup>108)</sup>가 되기 때문이다.

### ③ 척계광의 적 : 일본의 영주·무사

전기왜구에 대해 보통 ‘왜구는 일본인 주체의 활동’이라고 인식되지만, 어떤 일본인이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가정왜구에 대해 중국에서 ‘일본인 주체의 활동’이라는 「구론」이 우세해졌지만, 그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일본의 어떤 사람들이 왜구가 되었는가? 활동의 실체 혹은 배후세력은 누구였나? 에 대해서도 다소 독특한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후기왜구의 구성원에 대한 일본에서의 설명은 “후기왜구의 실태는 母語나 民族, 출신지를 달리하는 사람이 雜居聯合한 해상집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109)</sup>와 같이 주로 “왜구는 다민족집단”이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또한 중국의 밀무역상인들의 동향을 중심으로 왜구를 서술하는 경향이 강하다보니 ‘眞倭’의 문제, 어떤 일본의 사람이 왜구가 되었는가?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 1945년 이전, 대륙침략과 연관시켜 왜구를 ‘일본인 해외진출의 선례’로 보고 후기왜구의 주체를 일본인으로 서술할 때는 적극적으로 (일본의)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밝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왜구의 주체에 대한 일본에서의 설명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했다. 일본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근대부터 戰中期에 이르기까지 규슈지역 不逞의 무리(혹은 邊民), 海賊을 왜구의 주체(즉

104) 吳孝斌, 「花木兰与瓦氏夫人」, 『史海钩沉』 2022-8, p.22.

105) 黃明標, 明朝女英雄瓦氏夫人的歷史考察, 『百色學院學報』 2021-3, p.77

106) 「習近平在全國民族團結進步表彰大會上的講話」(2019年9月27日)

『光明日報』 2019년 9월 28일. <https://m.gmw.cn/baijia/2019-09/28/33195424.html>

107) CNKI에서 ‘降倭’의 검색 결과에 대한 연관주제어 1위는 척계광(90), 2위는 항왜전쟁(36), 3위가 와씨부인(28)이었다. 호종헌(18)·유대유(14)와 비교해 월등한 수이다.

108) 韋美兵, 「試述抗击倭寇的韋氏祖孫四代土官」, 『中國民族博覽』, 2020-2, p.85.

109) 桃木至朗 編,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 岩波書店, 2008, p.86.

眞倭)라고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國民이라고 변하는데 때로는 ‘商人’·‘豪傑’·‘八幡船’이 언급되기도 했다.<sup>110)</sup> 그 중 발생 초기 왜구를 ‘사무역상인’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sup>111)</sup> 거기에 일본의 혼란기, 즉 전기왜구 때는 남북조시대, 후기왜구는 전국시대의 혼란 속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무사”, 즉 “浪人”들이 왜구에 참여했다는 설명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sup>112)</sup> 또한 해적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오늘날의 海軍과 같은 것이며 결국에는 ‘일본의 무사’였고<sup>113)</sup> “남의 눈을 피하는 海賊이 아니라 四國·九州·中國의 지방정권이 공공연히 출동한 것이다.”<sup>114)</sup> 라고 하여 왜구의 배후, 혹은 실제 파견자를 일본의 지방 유력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戰後에 이런 주장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특히 후기왜구는 일본과 중국의 사무역상인, 혹은 海民들 사이의 교류를 통해 형성된 집단으로 보는 인식이 강해졌다. “(중국인 상인을) 중심으로 중국해를 둘러싼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역자들이 결집한 집단, 이것이 왜구의 실체로 되어간 것이다.”<sup>115)</sup>는 설명과 같이 사무역 활동을 왜구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자연스럽게 무장집단·약탈자로서의 왜구이미지는 약화되었다.<sup>116)</sup>

과거 중국에서도 왜구는 ‘일본의 海盜’로 규정되는 것이 보통이었다.<sup>117)</sup> 현재 중국의 백과사전 등에서 왜구를 정의할 때도 “일본의 해도”<sup>118)</sup>라고 되어있다.<sup>119)</sup> 그런데 1980년대에 「왜구신론」이 제기된 이후 학자에 따라서는 일본의 “파산한 농민”이 海寇가 되었고 이들은 중국인의 인도 하에 중국 연해로 가서 약탈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sup>120)</sup>도 나오게 되었다. ‘농민’과 ‘약탈’을 말하면서도 왜구활동이 비권력층, 혹은 권력층에 압박을 받던 피억압민이 주체가 된 행동이었다는 견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은 일본에서 ‘후기왜구’의 활동을 기본적으로 비권력층의 다양한 사람들에 의한 교류의 결과로 보는 것과 닮아있다.

진왜가 왜구활동의 주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본국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바다를 건너게 된 피억압민이라면 반침략전쟁으로서의 항왜전쟁과 항왜영웅이 갖는 의의가 다소 퇴색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는 『공산당선언』의 문구에서 잘 나타나듯이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민족이나 국가보다 프롤레타리아 인터내셔널에 더 큰 비중을 둔다.<sup>121)</sup> 일본의 봉건영주에게 압박을 받은 일본의 농민, 혹은 해민이 명조의 압박에 저항한 중국의 사무역상인들과 연합한 것이 왜구라면 이것은 마치 과거 역사에서의 ‘인터내셔널’과 같은 것이 된다. 당연하겠지만 마르크스주의를 기조로 하는 중국에서 이런 왜구에 ‘침략성’을 부각시키기는 어렵다. 북

110) 윤성익, 「戰前·戰中期 日本에서의 倭寇像 構築」, 『한일관계사연구』 31, 2008, pp.223~225.  
 111) 辻善之助, 『國史參照地圖備考』, 金港堂書籍, 1928, p.112.  
 112) 윤성익, 「帝國 日本의 中國侵略과 倭寇像의 變用」, 『인문학연구』 29, 2015 참조.  
 113) 大山覺威, 「倭寇物語」, 『文藝春秋』 1927년 8월호.  
 114) 竹越與三郎, 『三叉小品』, 立命館出版部, 1940, pp.118~119.  
 115) 村井章介, 『海から見た戦国日本』, ちくま新書, 1997, p.30.  
 116) 윤성익, 「21세기 동아시아 국민국가 속에서의 倭寇像」, 『명청사연구』 23, 2005. 참조.  
 117) 윤성익, 『명대 왜구의 연구』, 경인문화사, 2007, pp.3~4.  
 118) 예) 倭寇 : 14-16세기 여러 차례 조선과 우리나라 연해를 소요·겁략한 日本海盜. 항일전쟁시기 또한 일본침략자를 왜구라고 칭했다.(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 編, 『现代汉语词典』(7판), 商务印书馆, 2021.)  
 119) 참고로 올해 중국의 대표적인 사전인 『新华字典』(商务印书馆)의 신판에 ‘倭寇’ 항목이 삭제되었다고 알려져 인터넷을 중심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잘못된 소식’이라고 출판사가 해명하고 언론기관에도 보도되었지만, 여기에 ‘애국주의’ 문제가 개입되어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현재 중국에서 애국주의와 왜구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실례라고 할 수 있다.  
 관련 기사 「新版新华字典删除“倭寇”? 假消息」, 『长江日报』 2023년 6월 27일; 「新版《新华字典》删除“倭寇”一词? 出版社回应」, 『济南时报』 2023년 6월 28일; 「《新华字典》删除“倭寇”? 情绪不能凌驾于事实之上」, 『中国青年网(中国青年报)』 2023년 6월 30일.  
 120) 李金明, 『明代海外贸易史』,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0, p.100.  
 121) 진덕규, 「마르크스주의의 민족관과 민족주의 인식논리」, 『國際政治論叢』 23, 1983, pp.44~46.

한에서 ‘봉건영주와 결탁한 상업자본’을 왜구의 발생배경, 혹은 실행주체로 보는 것도 이런 문제와 관련 있다.<sup>122)</sup>

앞에서 소개했던 「쇄신된 구론」에서 왜구의 주체를 眞倭라고 하면서 일본의 봉건제후·지방영주가 배후에 있었다거나 혹은 직접 파견했다는 주장이 강화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潘洵은 매우 독특한 주장을 한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그는 진왜-가왜-종왜를 구분하고 “가정왜환은 진왜의 침략으로 촉발된 사회대동란으로 표면적으로는 명조의 ‘奸民’이 주를 이루었지만”, “실제로는 일본 지방봉건주의 조정을 받고 무사집단이 직접 참여한, 재물을 약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회대동란이었다.”<sup>123)</sup>고 결론을 내린다. 그는 “진왜”에 파산한 농민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진왜”를 다시 “有名眞倭賊首”와 “眞倭從賊”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유명진왜적수”는 고급무사나 대소봉건영주, “진왜종적”은 일반 평무사나 파산농민을 지칭한다고 주장한다.<sup>124)</sup> “有名眞倭賊首”는 『주해도편』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 것인데, 그가 이것을 고급무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有名”이다. 일본은 무사계층이어야만 姓氏<sup>125)</sup>를 가질 수 있었고 일반 백성은 단지 이름[名字]만 있고 성씨가 없는데, “有名”은 성씨를 가진 무사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름을 가진” 倭賊首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큰 의문이다. 사료에 기록된 일본인 왜구 두목으로는 서해의 副將으로 유명한 辛五郎(혹은 新五郎)를 비롯해 ‘高贈烏魯美他郎’<sup>126)</sup>, ‘種島の夷助才門, 즉 助五郎’·‘薩摩夥長掃部’·‘日向彦太郎’·‘和泉細屋’<sup>127)</sup> 등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성씨가 없다는 점이다.<sup>128)</sup> 이것은 그동안 왜구에 참여했던 일본인의 신분이 높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어왔는데, 潘洵도 이런 사람들은 ‘野島小夷’-일본 주변 小島の 농민-라고 하여 “有名眞倭賊首”와 분리했다.<sup>129)</sup> 사료에 기록된 진왜의 두목 중 가장 신분이 높았다고 생각되는 辛五郎조차 성씨가 없는 데 과연 어떤 사람이 성씨를 가진 고급무사라고 할 수 있을까?

앞 절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왜구의 배후나 실행 주체가 진왜나 혹은 일본의 지방영주였다는 주장에는 어느 정도의 사료가 근거로 제시된다. 일본에서도 왕직과 松浦隆信·大内義隆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는 추정한다.<sup>130)</sup> 그렇지만, 왕직 등 왜구의 두목과 일본의 지방영주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료는 아직 없다. 반면, 중국의 망명자, 즉 사무역자들이 ‘勇悍한 倭奴’를 부린다<sup>131)</sup>라든지 소현 집단이 활동하던 가정 34년의 왜구에 대해 “그중 진왜는 10분의 3에 불과한데 고용하고 모집해(雇募) 온 것이다.”<sup>132)</sup>라는 등 진왜와 가왜에

122) 윤성익, 「北韓의 倭寇觀」, 『東國史學』 46, 2009. 참조.

123) 潘洵, 「从身份构成看“嘉靖倭患”的性质」, 『苏州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22-5, p.74.

124) 潘洵, 「从身份构成看“嘉靖倭患”的性质」, 『苏州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22-5, p.70~71.

125) 논문의 본문에는 “일본어로는 “名字” 혹은 “苗字”라고 한다”는 설명이 붙어있다.

126) 『籌海圖編』 권5 「浙江倭變紀」, 嘉靖 34년 8월. ‘高贈烏魯美他郎’가 1명인지 ‘高贈’과 ‘烏魯美他郎’ 인지는 불명.

127) 田中健夫, 『倭寇-海の歴史』, 教育社, 1982, p.147.

128) 『日本一鑑』에는 가정 24년 왕직이 일본에 도항한 뒤 雙嶼에 돌아올 때 “博多津倭助才門” 등 3명과 동행했다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 중국에서는 ‘博多津’·‘倭助’·‘才門’의 3명으로 보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博多津의 倭助才門”이라고 이해된다.(田中健夫, 『倭寇-海の歴史』, 教育社, 1982, p.133)

129) 潘洵, 「从身份构成看“嘉靖倭患”的性质」, 『苏州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22-5, p.74.

130) 米谷均, 「後期倭寇から朝鮮侵略へ」, 『天下統一と朝鮮侵略』, 吉川弘文館, 2003, pp.140~141. 桃木至朗 編,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 岩波書店, 2008, p.88.

131) 王世貞 撰, 「倭志」, 『御倭史料匯編 制1冊』, 全国图书馆文献缩微复制中心, 2004, p.3.

132) 王士稟 撰, 『皇明馭倭錄』 권8 「再答倭情 諭一 嘉靖34年5月17日」, 『御倭史料匯編 制3冊』, 全国图书馆文献缩微复制中心, 2004, p.276.

대한 정반대의 관계를 말해주는 사료들이 많다. 즉 앞에서와 같은 주장은 전체 왜구를 설명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영주의 관계는 몰라도 왜구에 무사가 참여했다는 주장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구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왜구 사건 중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가정 34년(1555) 60~70명의 왜구가 江蘇·浙江·安徽를 돌아다니며 80여 일 동안 수천 명의 군민을 살상한 사건에서는 12차례의 명군과의 싸움에서 마지막에 전멸을 당하기 전까지 패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딱 1번인데 모든 전투에서 병력의 수로는 압도적으로 왜구의 수가 적었다.<sup>133)</sup> 명군이 속절없이 패배한 이유로는 병력 부족·전력의 저하·방어시설의 미비를 들 수 있겠지만<sup>134)</sup> 기본적으로는 왜구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다.

강했던 이유는 이들이 싸움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 즉 무사였기 때문으로 그 귀결된다. 왜구 1명에게 명군의 병사들이 槍을 모아 찔렀는데, 왜구가 칼을 한번 휘두르자 십여 개의 창이 모두 부러졌다<sup>135)</sup>는 무협영화에나 나올 법한 모습이나, 척계광이 『紀效新書』에서 ‘長刀’를 “이것은 왜가 중국을 침범할 때부터 있었다. 그들이 이를 가지고 휘둘러 춤추며 번쩍거리고 뛰어 들어오면 우리 병사들은 이미 용기를 잃어 버렸다.”<sup>136)</sup>고 설명하고 그것을 익히는 방법(習法)은 “이것은 倭夷의 原本인데 辛酉年<sup>137)</sup> 진중에서 얻었다.”<sup>138)</sup>고 한 것을 보면 왜구가 長刀, 즉 일본도에 능숙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전투의 모습을 보면 陣法을 사용하는 등 왜구가 전투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부채를 들고 지휘하는 왜구 두목(倭酋)의 모습은 일본 전국시대의 지휘관을 연상케 한다.<sup>139)</sup>

‘고급무사’나 ‘지방영주’급은 아니더라도 전투에 능했던 일본의 무사들이 왜구에 참여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바다의 무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세토나이카이나 壱岐·松浦 지역의 海賊衆이 후기왜구와 같은 종류의 행동, 혹은 連携했었음이 거의 확실하다는 일본의 견해<sup>140)</sup>도 어느 정도 이를 긍정하는 것이다.

다만, 중국에서는 무사에 대해 간혹 오해하는 것 같다. 앞에서 간혹 언급되었는데, 중국에서는 왜구를 이룬 구성원을 말하며 ‘武士’·‘浪人’을 병칭하는 경우가 많다.<sup>141)</sup> 範中義조차도 “가정 연간에 연해를 겁락한 진왜는 國王·名主와 밀접히 연계한 商人·浪人·武士 등으로 구성되었다.”<sup>142)</sup>고 쓰고 있다. 浪人과 武士를 병칭하는 이유는 서술자가 이들이 별개의 존재라고 생

133) 예를 들어 9월, 5,000여 명의 명군이 세 갈래로 나뉘어 왜의 소굴을 공격했는데, 왜 200여 명이 이를 迎擊하자 모두 흩어져 도망갔다고 한다.(王万盈, 「明代倭乱与倭寇恐慌探蹟」, 『社会科学战线』, 2016-10, p.105) 이 왜구집단의 戰果만 놓고 보면 “세계 軍事史 상에서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芮赵凯, 「嘉靖“大倭寇” 初期明廷海防困境研究-以“倭寇南京”事件为例」, 『苏州文博论从』 2021-12, p.85)

134) 芮赵凯, 「嘉靖“大倭寇” 初期明廷海防困境研究-以“倭寇南京”事件为例」, 『苏州文博论从』 2021-12 참조.

135) 采九德, 『倭变事略』, 가정 34년 5월 초4일.

136) 척계광, 『기효신서』, 권4 ‘장도해(長刀解)’, 대한전통무학회 편역, 『무예문헌자료집성』, 국립민속박물관, 2004, p.304.

137) 가정 40년(1561). 이해의 태주(台州)대첩에서 왜구 천여 명을 섬멸하고 칼(刀)·총 등 병장기를 3,870여 개 노획했다고 한다.

(范中义, 「戚继光在抗倭战争中没“杀过一个日本人”吗」, 『浙江学刊』 2015-2, p.90)

138) 위의 책, p.306.

139) 윤성익, 『명대 왜구의 연구』, 경인문화사, 2007, pp.151~158.

140) 桃木至朗 編, 『海域アジア史研究入門』, 岩波書店, 2008, p.88.

141) 譙枢铭, 「古代上海与日本交往」, 『史林』 1990-2 p.38; 段坤鹏·王波·温艳荣, 「嘉靖年间真假倭问题探析」, 『东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11-12, p.61; 韦美兵, 「试述抗击倭寇的韦氏祖孙四代土官」, 『中国民族博览』, 2020-2, p.84; 黄明标, 「明朝女英雄瓦氏夫人的历史考察」, 『百色学院学报』 2021-3, p.82.

각해서일 것이다. 보통 일본 전국시대의 浪人이라면 “主家を 스스로 떠나거나 혹은 잃은 武士”<sup>143)</sup>를 떠올리게 된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왜구를 말할 때의 浪人은 이와 달라 보인다. ‘浪人’에는 ‘浮浪人’의 의미도 있으니 이쪽일 수도 있겠지만 사용례를 보면 ‘부랑인’의 의미는 아니라고 보인다. 潘洵은 ‘落魄武士’라는 용어를 쓰며 “전쟁에서 패배한 무사는 원래의 영지를 잃고 생활의 터전을 상실했다. 이에 그들은 탈바꿈해 海盜倭寇가 되어 창끝을 중국으로 향했다.”<sup>144)</sup>라고 설명한다. 이 설명만 보면 ‘落魄武士’란 ‘浪人’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潘洵은 ‘浪人’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정리되지 않은 용어나 개념의 사용은 혼란<sup>145)</sup>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척계광 항왜』에 대한 중학교 역사교육의 한 교학안은 “무사는 일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단지 봉건영주에게 의지해 따랐다. 만약 봉건영주가 전쟁에서 패하면 생존을 위해 일부의 무사는 海上과 연해에서 약탈에 종사하는 海盜가 되었다.”고 무사가 왜구가 되는 과정을 소개한 뒤, “학생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일본의 무사를 소개하고 『무사와 칼』의 사진을 내보여 무사가 큰 싸움을 잘 한다는 것을 알리고, 그 다음 소수의 무사가 다수의 명군을 이길 수 있었던 밑바탕을 설명한다.”<sup>146)</sup>는 교수법을 제시한다. 이 교학안에서 설명하는 ‘왜구가 된 武士’는 潘洵의 ‘落魄武士’나 ‘浪人’과 같다. 후술할 영화나 드라마에서의 왜구 묘사에 이와 비슷한 혼란이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 2. 중국 대중 매체에서의 왜구

### 1) 중국의 ‘왜구문학’과 그 영향

가정시기의 왜란은 중국 동남지역의 사회·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해당 지역 사람들에게 “중국인은 호랑이처럼 왜를 두려워한다(唐人畏倭如虎)”는 “倭寇恐慌”의 심리가 형성되었다.<sup>147)</sup> 그 단적인 예 중 하나가 민중의 심리를 전해주는 童謠인데, 왜구 활동이 극심했던 寧波 지역에서는 “倭倭來, 洞洞來, 阿拉寶貝睏覺來.”와 같은 자장가가 만들어졌다.<sup>148)</sup> 또한 명·청대에는 ‘抗倭童謠’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의 동요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동요에는 척계광이 백성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갈망이 들어있기도 했다.<sup>149)</sup> 왜구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분노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런 동요와 이야기<sup>150)</sup>는 일반인들에게 ‘침략자로서의 왜구’ 이미지를 기억

142) 范中義·全晰綱, 『明代倭寇史略』, 中華書局, 2004, p.24.

아울러 그는 여기서의 ‘商人’은 순수한 상인이 아니라 ‘海盜 겸 商人’이라고 보충 설명한다.

143) 小学館, 『デジタル大辞泉』(인터넷 판), “浪人”(https://kotobank.jp/word/浪人-152523)

144) 潘洵, 「从身份构成看“嘉靖倭患”的性质」, 『苏州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2022-5, p.71.

145) 이 무렵 일본 전국시대의 지방영주에 대해 중국에서는 종종 ‘藩’·‘藩主’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 에도시대의 지배기구를 의미하는 역사용어로서의 ‘藩(han)’이 아니라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영지나 지방 세력에 대해 사용하는 일반용어이다.

146) 郑艺惠, 『《戚继光抗倭》片段教学案例』, 『新课程(中学)』2014-12.

147) 王万盈, 『明代倭乱与倭寇恐慌探赜』, 『社会科学战线』, 2016-10, p.106.

148) 위의 논문, p.107.

149) 韩丽梅, 『明清抗倭童谣的传播价值』, 『青年记者』2015-11, p.95.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동요가 있다. “天皇皇, 地皇皇, 莫惊我家小儿郎, 倭倭来, 不要慌, 我有威爷会抵挡.”

150) 대표적인 이야기로 들 수 있는 것이 ‘烈女’와 관련된 고사이다. 절강지역에는 왜구와 관련된 열녀의 이야기가 15편 전하는데, 그 중 1편은 영락연간의 일이고 나머지 14편은 모두 가정연간의 왜구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특히 가정 35년(1556)이 가장 많다.(邹贇韬·李广志, 『明代东南海疆倭乱记忆中的

하고 전승하는데 일조하였다.

특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왜구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들이다. 왜구 소재 문학작품은 왜구가 활동했던 시기부터 여러 참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게 의해 창작되기도 했다.<sup>151)</sup> 문학작품 중에서도 일반 서민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소설-희곡 작품이다. 주지하듯이 명·청 시대 서민문화의 발달을 상징하는 것이 소설이다. 당시의 소설은 일반인의 오락거리이면서 한편으로는 지식을 공유케 하는 일종의 미디어와 같은 역할을 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정시기 왜구’를 소재로 한 명·청시대의 소설·희곡은 모두 40여 편<sup>152)</sup>인데 그 중 대표적인 소설작품은 다음 표와 같다.<sup>153)</sup>

작품명	작자	성립시기
『續艷異編』의 『王翹兒』	王世貞 (1526~1590)	만력연간(1573~1620)
『威南塘剿平倭寇志傳』	미상	만력연간(1573~1620)
『型世言』 제7회 『胡總制巧用華棣卿王翠翹死報徐明山』	陸人龍	송정시기(1628~1644?)
『西湖二集』 권34 『胡少保平倭記』	周清原	명말 송정연간(1628~1644)
『醉醒石』 제5회 『矢熱血世勳報國全孤祀烈婦捐軀』	東魯古狂生 등	명말·청초
『鴛鴦針』의 『打關節生死結冤家做人情始終全佛法』	華陽散人	명말
『玉蟾記』	崔象川 (*通元子)	광서 원년(1875)
『金雲翹傳』	靑心才人	순치·강희연간
『綠野仙踪』	李百川 (1719~1771)	건륭 27년(1762)
*『古今小說』(『喻世明言』) 권18 『楊八老越國奇逢』	馮夢龍 (1574~1646)	만력 48년(1620)

표1> 가정시기 왜구 문제를 반영한 명·청시기의 소설<sup>154)</sup>

위의 작품 중 『楊八老越國奇逢』의 무대는 원말로 되어있지만, 내용에서 다루는 왜구 및 사건들은 가정왜구를 모티브로 한 것이다.<sup>155)</sup> 특히 포로로 잡힌 중국인이 假倭가 되는 과정이나

烈女故事-以浙江方志书写为中心」, 『浙江海洋大学学报(人文科学版)』 2018-6, p.7)

151) 邵金金·梁韶娜, 「论茅坤抗倭文学创作」, 『陝西理工学院学报(社会科学版)』 2014-2; 吴汉平, 「论归有光的抗倭文学创作」, 『文学教育』 2022-9 참조.

152) 郭尔雅, 「从东亚学视域看日本的倭寇史研究及倭寇文学」, 『社会科学研究』 2020-2, p.31.  
遊佐 徹는 明清古典戲曲作品을 조사해 모두 32편의 ‘왜구희곡’을 발견했다. 지방희곡 작품까지 조사한다면 더 많은 작품의 발견도 예상된다.(遊佐 徹, 「倭寇戲曲作品あらずし-明清古典戲曲版-」, 『文化共生学研究』 19, 岡山大学大学院社会文化科学研究科, 2020)

153) 刘晓婷, 「明嘉靖时期的倭寇及嘉靖倭寇题材小说研究」, 『中国古代小说戏剧研究』 10, 2014; 遊佐 徹, 「小説に描かれた倭寇-明清「倭寇小説」概論」, 須田牧子 編 『「倭寇図巻」と「抗倭図巻」をよむ』 勉誠出版, 2016 참조.

154) 刘晓婷, 「明嘉靖时期的倭寇及嘉靖倭寇题材小说研究」, 『中国古代小说戏剧研究』 10, 2014, p.93의 표를 옮김. \*‘성립시기’의 ‘年間’·‘時期’는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함.  
※ 『楊八老越國奇逢』는 추가 기재.

155) 『楊八老越國奇逢』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  
刘涛, 「“真倭”与“假倭”文本书写背后的故事-冯梦龙《杨八老越国奇逢》创作过程考」, 『区域文化与古代

왜구의 전술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있는데 주인공인 楊八老도 실재 인물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한다.<sup>156)</sup> 이 소설에도 가정왜구로 인한 민중의 공포와 원한이 잘 묘사되어있다.<sup>157)</sup>

이와 같은 작품은 시간이 흘러 가정왜구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졌을 때 과거의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한편,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 왜구를 다시 정의하게끔 하는데 큰 작용을 했다. 즉, 임진왜란-만력왜구-로 잊혀졌던 ‘왜의 침략’이 다시 일깨워졌을 때 가정왜구를 소재로 한 서적의 판매와 유포는 사회전반에 가정왜구와 만력왜구를 동일한 ‘일본인의 침략’으로 인식토록 하였다.<sup>158)</sup>

그런데 시대의 흐름과 함께 왜구는 다시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났다. 특히 남명정권의 士人들은 일본으로의 원병요청을 위해 왜구문제에 관해 “집단 기억상실”을 택해 왜구 및 일본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일부 해소시켰다.<sup>159)</sup> 많은 사람들에게 왜구사건은 잊혀 지거나 더 이상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게 되었고 실제 왜구사건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나 영웅 전기는 격감했다. 왜구의 발생도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작가의 창작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왜구를 제대로 묘사하지 않게 되었다. 소설 창작의 의도도 왜구 자체가 아니라 ‘才子佳人’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왜구는 들러리에 불과했다.<sup>160)</sup>

왜구소설의 절반가량은 호종헌이 서해를 誘殺했던 역사사건을 배경으로 하지만, 이야기의 중심은 주인공인 王翠翹의 파란만장한 삶에 있다. 그 중 가장 유명하고 주변 국가에도 많은 영향을 준 靑心才人の 『金雲翹傳』은 명대 문인들에게는 단순히 ‘왜구의 우두머리’에 불과했던 서해를 용감무쌍하고 의리를 중시하는 ‘초아의 영웅(草莽英雄)’으로까지 만들었다.<sup>161)</sup> 그러나 이것이 왜구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서해의 영웅화와 왕취교의 의거’는 명 관리들의 부패와 무능, 나약함과 간교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명·청시대 지식인들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sup>162)</sup>

따라서 왜구를 영웅화하는 현대 일본의 ‘왜구문학’<sup>163)</sup>과는 차이가 있다.<sup>164)</sup> 기본적으로 침략과

---

『文学研究集刊』 2020-2

潘兴, 「《杨八老越国奇逢》考论」, 『汉字文化』 2022-16.

遊佐 徹, 「馮夢龍と倭寇物語(下)―「楊八老越国奇逢」を中心に―」, 『岡山大学大学院社会文化科学研究科紀要』 54, 2022.

156) 刘涛, 「“真倭”与“假倭”文本书写背后的故事-冯梦龙《杨八老越国奇逢》创作过程考」, 『区域文化与古代文学研究集刊』 2020-2. 참조.

157) 王万盈, 「明代倭乱与倭寇恐慌探赜」, 『社会科学战线』, 2016-10, p.107.

158) 吴大昕, 『海商·海盜·倭-明代嘉靖大倭寇的形象』, 科学出版社, 2020, pp.106~107.

159) 刘晓东, 『“倭寇”与明代的东亚秩序』, 中华书局, 2019, 「第四章 明末清初“日本乞师”叙事中的“倭寇”记忆-以南明隆武朝周崔芝乞师日本之争为中心」 참조.

160) 郭尔雅, 「从东亚学视域看日本的倭寇史研究及倭寇文学」, 『社会科学研究』 2020-2, p.32.

161) 郭尔雅, 「倭寇史核心人物徐海与倭寇题材文学-从明清小说到当代中日文学的比较分析」, 『东北亚外语研究』 2022-3, p.97.

최용철, 「「왕취교고사(王翠翹故事)의 변천과 「금운교전(金雲翹傳)의 작품 분석」, 『중국어문논총』 16, 중국어문연구회, 1999, pp.317~319.

162) 郭尔雅, 「倭寇史核心人物徐海与倭寇题材文学-从明清小说到当代中日文学的比较分析」, 『东北亚外语研究』 2022-3, p.99.

163) 郭尔雅·王向远, 「东亚海域的倭寇与贼商-南条范夫《海贼商人》的经济化倾向与审美化描写」, 『华夏文化论坛』 2019-1, p.276.

164) 郭尔雅은 일본 작가들이 국가주의적 입장에서 왜구 및 왜구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하고 왕직·서해 등 ‘중국인 왜구 두목’이 두 국가의 문학작품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명·청 소설이 주를 이루는 중국에서는 왕직이 주로 일본과 작당해 살상과 약탈, 부녀자를 능욕하는 왜구 두목으로 묘사되는 반면, 일본의 현대 소설에서는 “왜구왕”이라는 오명을 씻어주고 성품과 행실이 아름다운 “仁義志士”로 묘사된다고 한다.(郭尔雅, 「“倭寇文学”中王直形象的历史与想象-以泷口康彦《倭寇王秘闻》为中心」, 『中国语言文学研究』 2019-2) 반면

반침략의 시각, 즉 왜구침입의 잔학함과 중국인민의 항왜투쟁을 반영한다는 것이 중국 왜구문학의 주요 모티브이다. 그리고 이것은 명·청시대의 소설·희곡이나 현대의 문학작품 모두에 해당한다.<sup>165)</sup> 청대에 무관심해졌던 왜구가 근대 일본의 침략과 함께 다시 되살아난 것이다.<sup>166)</sup> 1930년대의 중국 교과서에는 왜구에 대한 고사와 함께 “척장군이여 경은 지금 세상사를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시작하는 「弔戚將軍」이 실렸다.<sup>167)</sup> 당시 일본에서는 이것을 “排日 기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는 민족교육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중국 각지에서는 ‘항왜’의식의 고취를 위해 척계광의 사당이 곳곳에 건립되었다. 척계광이 왜구를 물리치는 내용의 문학작품은 다시 각광을 받게 되었고 또 반대로 그런 작품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 2) 왜구소재 드라마와 영화에서의 왜구(2010년대 이후 작품을 중심으로)

### ① 작품의 현황 및 특색

현대 중국의 왜구문학·문예는 왜구를 소재로 한 영화·드라마가 위주로 1970년대 이후 홍콩과 중국대륙에서 관련 작품이 제작되었는데, 근대이후의 ‘抗日’을 소재로 한 영화·드라마가 대거 제작되어 인기를 얻었던 것과도 관계있다.<sup>168)</sup> ‘항왜 영화·드라마’의 출현과 존재의의 역시 항일 영화·드라마의 그것과 일치하는데, 외래침략에 대한 비판과 중국 軍民이 외래침략에 용감하게 저항한 것을 찬양하여 주류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고 국민의 애국주의 정신을 배양하기 위함이다.<sup>169)</sup>

다만, 중국대륙에 비해 홍콩·타이완은 조금 다른 성향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중국문단에서 무협소설가金庸과 쌍벽을 이룬다고 일컬어지는 타이완의 역사소설가高陽(1922~)의 『草莽英雄』(1981)은 서해를 주인공으로 하는데, 큰 줄거리는 명·청소설과 동일하지만 사회비판적인 요소가 없이 서해의 영웅화에 치중하는 등 왜구를 영웅시하는 일본의 왜구문학과의 유사하다고 지적된다.<sup>170)</sup> 타이완과 홍콩의 역사학자들이 일본의 연구경향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일본 현대 소설이 당시 홍콩과 타이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할 때 高陽의 『草莽英雄』도 일본에서의 왜구서술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sup>171)</sup>

---

서해는 왕취교와 관련해 중국에서 긍정적으로 연출하는 것에 반해 일본에서는 서해를 폄훼하는 태도를 보인다(郭尔雅, 「倭寇史核心人物徐海与倭寇题材文学—从明清小说到当代中日文学的比较分析」, 『东北亚外语研究』 2022-3)며 양자를 비교하고 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왕취교 “互市派”였던 것에 대해 서해는 “掠奪派”였다는 점이다.(앞의 논문, p.95)

165) 郭尔雅, 「从东亚学视域看日本的倭寇史研究及倭寇文学」, 『社会科学研究』 2020-2, p.32.

166) 참고로 일본침략자의 의미로 중국에서 사용되는 “东洋鬼子”·“日本鬼子”의 ‘鬼子’는 왜구의 약탈과 침략으로 인한 민중의 심리에서 유래된 용어라는 주장도 있다.(韩丽梅, 「明清抗倭童谣的传播价值」, 『青年记者』 2015-11, p.95)

167) 東亜經濟調査局 訳編, 『支那国定排日読本』, 東亜經濟調査局, 1931, pp.10~12.

168) 2013년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매년 200편 이상의 항일 영화·드라마가 제작된다고 한다. 「Special Report:Why China's film makers love to hate Japan」, 『REUTERS』 2013년 5월 26 일. <https://www.reuters.com/article/us-china-japan-specialreport-idUSBRE94O0CJ20130525>

169) 郭尔雅, 「从东亚学视域看日本的倭寇史研究及倭寇文学」, 『社会科学研究』 2020-2, p.32.

170) 앞의 논문, pp.32~33.

171) 郭尔雅, 「倭寇史核心人物徐海与倭寇题材文学—从明清小说到当代中日文学的比较分析」, 『东北亚外

이런 영향 및 중국과 홍콩·타이완 사이의 인식차이는 영화·드라마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중국(타이완·홍콩포함)에서 제작된 왜구 관련 영화·드라마는 표 2>와 같다. 그 중 1960·70년대 홍콩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인 胡金銓(King Hu, 1932~1997)의 『忠烈圖(The Valiant Ones)』(1975)는 가정 27년(1548) 朱統과 俞大猷가 雙嶼를 괴멸시킨 사건이 배경이다. 역사 사실과 같이 이때의 왜구(밀무역집단) 두목으로는 許棟이 등장하는데 그와 연합한 일본인 두목, 아울러 최후의 보스로 ‘博多津’이라는 인물을 만들었다. ‘博多津’은 각주111)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 일본인의 이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한 창작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 보면 복장이나 분장이 영성하지만<sup>172)</sup> 『倭寇圖卷』의 왜구복장을 참고하고 假倭의 숫자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왜구를 묘사했다고 한다. 여기서 등장하는 왜구는 일본에서 말하는 후기왜구에 가까워 보인다.

최후의 보스가 ‘일본인 왜구=眞倭’이고 영화에서 전하는 메시지도 왜구의 침입에 맞선 이름 없는 영웅의 활약과 희생을 통한 ‘애국·애족’ 정신의 현양과 고취에 있었지만<sup>173)</sup> 결과적으로 주인공인 伍繼元 부부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주환은 모함당해 자살하고 유대유는 강등당하는 비극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결말을 맞는다. 더군다나 가정대왜구는 이 사건이후 본격화한다. 이런 점들은 항왜전쟁의 최종적 승리를 묘사하는 그 뒤의 작품들과는 대비된다. 이름이 남겨지지 않은 영웅들의 희생을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들은 그런 희생이 발판이 되어 항왜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忠烈圖』는 조금 다르다.

『忠烈圖』에서는 왜구와 명의 관리·환관들이 내통하여 좀처럼 진압되지 않는 상황을 묘사하는데, 이 내용은 결말과도 연결된다. 즉, 왜환의 발생과 확대는 명 관리들의 부패·무능에 있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忠烈圖』는 명·청소설의 주제의식을 충실히 계승한다고 할 수 있다. 왜구의 침략과 그 참혹한 피해를 알리며 스크린 밖의 대중에게 安危를 일깨워주는 경종의 의미도 있는 것이다.<sup>174)</sup>

『忠烈圖』의 메시지 및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은 당시 정세와 관계가 있다. 1970년 주일미국대사관은 류큐열도가 1972년 일본에 ‘귀환’한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釣漁島(센카쿠열도)가 포함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홍콩에서 먼저 釣漁島를 지키자는 학생운동이 발생하고 1971년에는 타이완 대학생들의 시위가 발생했다. 그리고 1972년 미·일의 “오키나와 귀환” 과정 중에 釣漁島에 부속된 두 섬을 미군이 계속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음이 알려졌다. 이런 사회·국제 배경 속에 영화가 제작된 것이다.<sup>175)</sup>

그 이후의 작품들도 당시의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釣漁島 영유권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데, “미일의 중국 영토와 주권 침해는 전 세계 중국인들의 강한 분노를 일으켰고 동시에 명대의 왜란, 갑오해전(청일전쟁), 항일전쟁과 같은 중요한 역사적 기억을 촉발시켰으며, 대부분의 왜란영화는 이러한 정치적 배경에서 준비되어 제작”되었다.<sup>176)</sup> 釣漁島 문제 및 중국의 반일운동이 격화되었던 시기와 ‘항왜극’의 제작·공개시기가 겹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抗倭名臣 호종헌’이 편찬한 『籌海圖編』의 「沿海山沙圖」에 釣漁島가 들어가 있고

语研究』2022-3, p.100.

172) 홍금보가 분한 博多津은 가부키배우와 같은 분장을 하고 있다.

173) 陈晓宇, 「儒家思想视域下的胡金銓武侠电影研究」, 『影视』2021-2, pp.96~97.

174) 杜梁·聂伟, 「《荡寇风云》:夹缝英雄的历史传奇与地缘影像书写」, 『电影新作』2017-3, p.100.

175) 晴川·万思蔚, 「在历史记忆建构与娱乐兼顾之间徘徊—近五十年明代倭乱题材影视剧综论」, 『电影文學』2019-16, p.8

『百度百科』「忠烈图」[https://baike.baidu.com/item/忠烈图?fromModule=lemma\\_search-box](https://baike.baidu.com/item/忠烈图?fromModule=lemma_search-box)

176) 晴川·万思蔚, 「在历史记忆建构与娱乐兼顾之间徘徊—近五十年明代倭乱题材影视剧综论」, 『电影文學』2019-16, p.8.

이곳을 척계광이 항왜의 방어선으로 삼았다는 주장<sup>177)</sup>은 좋은 역사적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이들 작품들은 역사를 복원하고 침략자와 항일영웅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민족역사의 기억과 인지적 계보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sup>178)</sup>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 및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한편, “일본의 중국에 대한 야심이 오래되었으나 항상 실패”했다는 역사적 경고를 내지 교훈을 깨우치는 효과도 있다.<sup>179)</sup> 그렇지만 상업화와 오락화의 영향으로 대부분이 액션·무협극으로 만들어져 역사적 현실성이 결여되거나 역사성을 희석시키기는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제작지	편명(별제)	연도	형식	감독	출연
香港	战神滩	1973	영화	王羽	龙飞·王羽·田野 등
香港	忠烈图	1975	영화	胡金铨	白鹰·乔宏·徐枫·元彪·洪金宝 등
台湾	戚继光	1979	영화	丁重	孟飞·樊梅生·柯俊雄·王莫愁
大陆	东瀛游侠	1991	영화	张鑫炎	于海·靳德茂·于荣光·杨丽青
大陆	少林武王	2002	TV극(27집)	刘家成 吴家骅	吴京·法提麦·雅琦·计春华·于承惠
大陆	刺寇 (“江南平寇记”)	2007	영화	李玉	徐小龙·洪天明·车永莉
大陆	新忠烈图	2007	영화	刘新	吴奇隆·黄奕·元华等
大陆	抗倭恩仇录	2009	영화	司小冬	王冰·商容
香港	少林僧兵	2009	TV극(34집)	李惠民	洪金宝·崔林·李铭顺·李曼
大陆	少林寺传奇	2010	TV극(120집)	都晓	鲍国安·李渊·谢苗
大陆	戚继光英雄传	2012	애니메이션		
大陆	千洞岛抗倭记	2012	영화	吴樾	吴樾·苗雅宁·施艳飞
大陆	南少林荡倭英豪	2013	TV극(48집)	林楠	张正阳·张磊·张帆·张晋 등
大陆	抗倭奇侠传 (“大明抗倭记”)	2014	TV극(35집)	曹华	谢苗·金珈·白雨·文江 등
大陆	戚继光	2014	애니메이션	李严	朱业等
大陆	抗倭英雄戚继光	2015	TV극(30집)	李惠民	朱晓渔·李立群·颜丹晨·于荣光
大陆	倭寇的踪迹 <sup>180)</sup>	2015	영화	徐浩峰	于承惠·宋洋·赵圆圆
大陆	荡寇风云	2017	영화	陈嘉上	赵文卓·洪金宝 等
大陆	戚继光*	2019	다큐멘터리 (5집)		
大陆	少林寺十八罗汉	2019	IP영화	张著麟 李希杰	谢苗·谷尚蔚·徐绍航
大陆	大明奇将之荆楚剑 义 <sup>181)</sup>	2023	IP영화	朱迅	李明轩·崔真真·詹妮 等

표2> 1970년대 이후 왜구를 소재로 한 중국의 영화·드라마<sup>182)</sup>

177) 朱巍, 「历史上的钓鱼岛:戚继光曾作为抗倭防线」, 『中国故事』 2012-9, pp.12~13.

178) 晴川·万思蔚, 「在历史记忆建构与娱乐兼顾之间徘徊—近五十年来明代倭乱题材影视剧综论」, 『电影文学』 2019-16, p.9.

179) 앞의 논문, p.12.

180) 徐浩峰 감독의 『倭寇的踪迹』(한글제목:무사 4대 문파와의 혈투, The Sword Identity)은 제목과 달리 왜구가 등장하지는 않는다. 주인공의 무기-長刀-가 왜구의 무기(일본도)로 오해받는 일에서 연유하는데, 알고 보니 주인공은 척계광의 호위무사였고 무기는 일본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抗倭刀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왜구와는 직접 관계없지만 일본도의 위력과 왜구가 刀法에 뛰어났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다는 점에서 ‘왜구관련 영화’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181) 젊은 시절의 유대유를 주인공으로 한 사극무협영화. “애국주의 정서가 짙은 무협영화”라는 평이 있는데, 해적이거나 왜구와의 전투 등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한다.

182) 万晴川·万思蔚, 「在历史记忆建构与娱乐兼顾之间徘徊—近五十年来明代倭乱题材影视剧综论」, 『电

2020년 중국 국가방송총국 사무국은 「주요 방송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제작 및 방영에 관한 통지」<sup>183)</sup>에서 항일전쟁 승리 75주년,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등을 맞이해 “각급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제작 및 방송 기관은 习近平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를 견지하고 정치적 입지 제고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며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중점 작품의 창작을 가속화하고 관련 작품의 편성과 방송을 늘리도록”하고 특히 애국심을 소재로 한 작품의 편성과 방영에 힘쓰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방송총국은 그동안 제작된 애국주의 다큐멘터리 및 애니메이션 중 우수작품 16편을 선정해 이들 작품을 적극적으로 편성·방송하도록 했는데, 2014년 제작의 애니메이션 『척계광』이 선정되었다. 그에 앞서 2019년에는 「신중국 성립 70주년을 경축하여 방영을 추천하는 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목록에 애니메이션 『척계광』(2014)과 다큐멘터리 『척계광』(2019)이 각각 선정되었다.

블록버스터급으로 제작된 『蕩寇風雲』(풍운대전·God of War, 2017)도 “항일전쟁시기에 이른 바 무사도 정신을 답습한 일본군대는 “대동아공영” 구호의 엄폐 하에 국가통치자가 지휘·시행한 왜구행위에 다름 아니다. 盧溝橋 사변 80주년을 맞아 『탕구풍운』이 민족의 고난에 대해 재차 강조한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강렬한 경고의 의미를 구비하고 있다.”<sup>184)</sup>고 평가되는 것처럼 현재 중국에서 척계광 및 항왜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애국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올해(2023년) 초 악비와 관련된 영화 『滿江紅』이 다시 한 번 중국사회에 애국주의 열풍을 불러 일으켰고<sup>185)</sup> 『특수부대 전랑2[戰狼Ⅱ]』(2017)는 ‘戰狼外交’라는 용어를 만들어낼<sup>186)</sup> 정도로 중국에서 매스미디어가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얼마 전(2023년 6월) 중국영화인협회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영화인 직업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애국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민족정신과 개혁·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시대정신을 고양하고, 중국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며 중국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중국의 가치를 전파하겠다고 다짐했다.”<sup>187)</sup> 현재 중국의 이러한 분위기를 보면 매스미디어와 애국주의의 밀접한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왜구에 대한 중국 학계에서의 설명은 중국의 내부사정 및 사회상황을 반영해왔다. 일반대중을 상대로 한 영화·드라마 등에 묘사되는 왜구는 역사적 사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겠지만 앞서와 같은 강한 목적성(애국주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알고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해보기 위해 그동안의 작품들 속에서 왜구가 어떻게 그려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하 ‘왜구 구론’이 정론화 되고 ‘중국몽’이 제기된 시기 이후에 제작되었던 작품을 중심으로

影文學』 2019-16, pp.7~8의 표를 일부 수정·보완.

183) 「国家广播电视总局办公厅关于做好重点广播电视节目·纪录片·动画片创作播出工作的通知」(2020년 8월 4일) [http://www.nrta.gov.cn/art/2020/8/4/art\\_113\\_52355.html](http://www.nrta.gov.cn/art/2020/8/4/art_113_52355.html)

184) 杜梁·聂伟, 「《荡寇风云》:夹缝英雄的历史传奇与地缘影像书写」, 『电影新作』 2017-3, p.102.

185) 「[월드리포트] 시 읊고 동상 때리고…중 극장가 휩쓴 ‘애국주의」 『SBS뉴스』 2023년 2월 6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69342](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69342)

186) 안영은, 「<전랑(戰狼)2>연구:주선울영화(主旋律電影)에서 블록버스터급 신주류영화(新主流電影大作)로」, 『중국연구』, 82, 2020, p.59.

참고로 『전랑2』가 내세운 슬로건은 “우리 중화를 범하는 자는 멀리 떨어져있어도 반드시 응징한다. (犯我中華者, 雖遠必誅)”였다.

187) 「애국주의 中영화계 “사회주의 가치관 드높일 것”...윤리강령 마련」, 『연합뉴스』 2023년 6월 9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9065600083>

각 작품에서 왜구가 어떤 존재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

## ② 각 작품에서 묘사되는 왜구 및 관련 내용

### ㉑ 『抗倭恩仇錄』

실존 인물인 吳時來(1527~1590)<sup>188)</sup>를 주인공으로 가정 34년(1555) 台州 松江府의 방어전을 소재로 한다.

영화 시작 시 “명조 가정연간, 조정은 부패해 뇌물수수가 성행하였는데 中華民族은 역사상 가장 엄중한 외환을 맞이한다.” “일본국내 전쟁 중 궤멸(潰敗)한 무사와 낭인은 기회를 틈타 중국의 불법상인과 결탁해 강대한 海盜집단을 조성해 대거 우리의 동남연해를 침략했다.”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면서 평화로운 마을을 습격해 살인을 저지르는 왜구의 모습이 묘사된다.

『百度百科』의 영화 소개에는 “16세기 중·후반 일본 서남부의 다이묘(大名)와 海盜가 국내 전란으로 패망해, 패망한 무사와 낭인이 부대를 결성하고 중국 불법 상인들과 결탁하여 중국 동남해안을 침략했는데, 이를 ‘왜구’라고 한다.”<sup>189)</sup>고 되어있지만 영화에서 시종 왜구를 지휘하는 것은 일본인(?)이고 중국인 왜구(假倭)가 어떤 역할인지는 알 수 없다.

Cast에는 왜구의 최고 지도자 이름이 佐藤一夫(Zuo Tengyifu), 그 외 왜구 인물로 宋井(Song Jing), 山立本(Shan Liben)로 되어있다. 극중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각 인물의 이름도 일본식으로는 호칭되지 않는다.

전투 시에 왜구 지도자들은 일본식 갑옷(?)을 착용하는데, 일반 왜구는 갑옷을 착용하지 않고 일본식 복장(에도시대 복장에 가깝다)의 모습이다. 또한 왜구의 진중에는 일본 여성이 유희를 돕고 일본풍의 장식이 되어있다.

왜구 최고 지도자를 부를 때의 호칭은 “將軍閣下”인데, 이들이 일본의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참고로 후반에는 와씨부인도 등장해 狼兵을 지휘하며 송강 방어전에서 큰 활약을 펼친다.

영화는 전투에서 희생된 사람의 무덤에서 그들을 기리는 것으로 끝을 맺는데, “抗倭英雄”이라는 묘비명은 이 영화의 내용과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 ㉒ 『少林僧兵』

소림사 및 소림사와 관련된 인물은 중국영화의 단골 소재인데, 소림사의 승려가 항왜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은 역사 기록에 남아있으므로 완전한 허구는 아니다.<sup>190)</sup> 또한 유대유가 소림사에서 棍法을 배웠다는, 즉 소림사의 제자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기 때문에 소림사는 여러 면에서 항왜활동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림사 승려들의 항왜활동은 민간의 이름 없는 영웅들의 활동과 희생이라는 면이 있어서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데도 좋은 소재가 된다.<sup>191)</sup>

188) 『明史』 「열전」 권98.

189) [https://baike.baidu.com/item/抗倭恩仇录/2794146?fr=ge\\_ala](https://baike.baidu.com/item/抗倭恩仇录/2794146?fr=ge_ala)

190) 梁永杰, 「明代嘉靖年间少林僧兵沿海抗倭考述」, 『兰台世界』 2013-8 참조.

191) 가정 33년(1554) 蕭顯이 이끄는 왜구가 浙江의 吳淞江에 침입했을 때 僉使 任公環이 民兵 300명과 僧兵 80명을 이끌고 왜구와 접전을 벌였는데 지원병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 21명의 승병이 희생되었다.(梁永杰, 「明代嘉靖年间少林僧兵沿海抗倭考述」, 『兰台世界』 2013-8, p.28)

TV 드라마 『少林僧兵』의 스토리를 한 줄로 말한다면 “소림승병이 척계광을 도와 왜구의 침략을 막아낸다.”고 할 수 있지만, 왜구와 관련된 부분은 다소 복잡하고 특별한 인물관계를 만들어내어 이야기는 꽤 예측불허로 전개된다.

척계광·유대유 등이 등장하지만 어렸을 때 왜구에게 부모를 잃고 소림사에 들어간 두 명의 소림사 승려가 주인공격이다. 최대의 敵役은 바로 왕직인데, 주인공 중 한명의 친아버지라는 설정이다. 왕직은 악역이기는 하지만 다소 긍정적인 면도 묘사되는데, 엄송 부자의 거짓과 변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왜구의 두목이 되어 밀무역과 약탈을 하게 된 것처럼 비추어진다. 왕직에 대해 “憂國憂民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한다.

왕직은 “해적은 내가 뜻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말하기도 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유로운 互市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식 관원이 되려고 한다. 뇌물을 받치며 엄송 부자에게 접근해 관원이 되려하지만 그의 시도는 좌절된다.

왜구에는 일본인 두목(佐佐木)도 존재한다. 왕직과 일본인 두목과의 관계는 대등해보이기는 해도 대부분은 왕직이 주도적인 관계에 있다. 왜구들은 기본적으로는 “일본인”인데 무사 혹은 해적처럼 묘사된다. 두목 외에는 특별히 갑옷 같은 것을 착용하지는 않는데 왜구들이 간혹 일본어를 사용하는 장면이 있다. 드라마의 중반에는 왜구가 포르투갈인에게 조총과 佛朗機를 구입해 전력을 강화하는 모습도 묘사된다.

소림사 승려의 활약과 희생으로 마지막 격전에서 척계광은 승리를 거둔다. 전투에 패한 왕직은 쓸쓸이 일본으로 도망가는 것으로 드라마의 주요 이야기는 끝나고 소림사 승병들을 기리는 장면과 함께 “그 이후 척계광·유대유·호종헌이 공동으로 중국 연해에서 왜구를 몰아내 항왜 민족영웅이 되고 청사에 이름을 올렸다.”는 내레이션이 흐른다.

보통의 항왜극이라면 이런 감동스러운 장면으로 끝났을 법한데, 이 드라마에서 진짜로 전하려는 메시지가 더해진다.

노년의 척계광이 소림사를 방문해 왜구와의 전투에서 불구가 된 승려와 대화를 나누면서 “비록 지금은 왜구가 이미 우리 국가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은 아직 호시탐탐... 만약 다시 전쟁이 발생한다면 너는 또 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 질문은 아마도 방송을 보고 있는 중국의 시청자를 향한 것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 드라마에서는 척계광을 비롯해 다수의 실제 역사인물이 등장하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왕직이 일본으로 도피하기 전 척계광은 아직 山東에 있었고 浙江에 부임하는 것은 가정 34년(1555)이기 때문에 왕직(혹은 왕직이 이끄는 왜구)과 대결하는 것은 사실과 많은 차이가 있다.

### ㊤ 『南少林蕩倭英豪』

가정 29년(1550) 福建에 왜구가 침입했을 때 서로 헤어지게 된 林씨 삼형제가 겪는 (비극적?) 운명을 그린 영화이다. 삼형제 중 첫째와 셋째는 승병에게 구출되어 남소림에 맡겨지고 둘째는 왜구에 끌려간 뒤 왜구의 수령 三枝圖田의 양자가 되어 三枝亂歩로 개명한다. 三枝亂歩는 검술이 뛰어나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나중에는 양아버지인 三枝圖田을 죽이고 왜구의 수장에 까지 오른다.

시대적 배경과 전쟁 장면의 박진감을 살리기 위해 촬영장을 세우고 소품, 의상 등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특히 왜구의 갑옷에는 상당한 비용을 들였다고 한다. 왜구는 보통 ‘왜병’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일종의 군대로 표현되었는데, 일반 왜병의 복장과 장비의 복원은 소홀한 부분이 많다.

왜구 두목인 三枝圖田를 비롯해 直江措·直江源, 上杉長野, 柴羽利信, 足利義石, ‘왜구 제일 검객(倭寇第一劍客)’으로 불리는 上泉重次, 여성으로는 足利富子 등 일본인으로 설정된 인물이 다수 등장한다. 왜구의 수뇌부 인물들을 부하들이 부를 때는 이름 밑에 ‘將軍’을 붙이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각 인명을 일본어로 어떻게 읽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영화는 이른바 무협영화로 왜구는 단순히 이야기의 배경으로만 이용된다. 실제인물은 등장하지 않고 왜구가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등도 알 수 없다. 다만, 왜구의 모습은 해적이거나 도적이 아닌 군대로서의 모습인데 이 점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에서는 왜구가 단순히 도적이 아닌 ‘일본의 군대’·‘군인’이었다는 시각도 강하기 때문이다.<sup>192)</sup>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왜군’이나 장군으로 불리는 왜군 지도자들의 모습은 왜구의 침략성을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sup>193)</sup>

### ㉔ 척계광에 대한 애니메이션 : 『戚繼光英雄傳』(2012)과 『戚繼光』(2014)

『戚繼光英雄傳』(2012)은 척계광이 浙江 寧紹의 參將이었던 때를 중심으로 한 내용인데, 척계광이 “외적을 물리치고 용감하게 싸우며 나라를 지키는 역사를 보여주고”, 척계광이 주둔해 지켰던 “臨山衛의 풍부한 역사와 인문자원을 발굴하여 위대한 애국주의 정신을 고취한다.”<sup>194)</sup>는 영화소개와는 달리 영성한 애니메이션과 내용 때문에 큰 비난을 받았던 작품이다. 중국을 침략하는 왜구의 모습도 어딘가 매우 이상해 보인다.

반면, 2014년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戚繼光』은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CCTV의 작품 소개에서는 “애니메이션 『척계광』은 명 가정 연간 척계광이 이끄는 척가군이... 新河·臺州·福建 등지를 전전하며 왜적을 소탕하는 영웅고사이다. 척계광이 이상과 포부를 가진 열혈 청년에서 일편단심(赤胆忠心)하며 천하를 품은(心懷天下) 민족영웅으로 성장하는 전설적인 여정은 개인의 성공일 뿐 아니라 중화민족 대외항쟁의 용기와 역량의 표현이기도 하다.”<sup>195)</sup>라고 되어있다.

1화의 시작은 일본 전국시대 및 왜구 침략의 정황을 설명한다. 일본에서 패망한 무사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는 모습이 내레이션과 함께 묘사된다. 이후 왜구가 상륙해 방화·약탈 행동을 하고 마을 사람들을 잡아간다. 이 때 “吉田·小川”라는 왜구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을 지휘하는 배 위에서 뒷짐을 지고 있는 베일에 싸인 ‘진짜 두목’의 정체는 나중에 밝혀진다. 9집에서는 전후의 내용 설명 없이 ‘五峰船主’가 처형되는 장면이 나온다. 처형당하는 ‘五峰船主’의 모습은 일본인의 형상·복장을 하고 있다. 정황상 왕직의 처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 “平吉峰이 새로운 五峰船主가 되어 (복수를 위해) 마을을 피로 씻기로 결정한다.”는 것을

192) 王万盈, 「明代倭乱与倭寇恐慌探赜」, 『社会科学战线』, 2016-10, p.109.

세계적 석학인 레이 황(중국어명:黄仁宇)의 동일한 견해는 중국에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레이 황 저, 박상이 역, 『1587(만력 15년) 아무 일도 없었던 해』, 가지않은길, 1997, pp.238~259.

193) 중국에서도 영화와 드라마에서 명군과 왜구의 충돌을 중일 양국의 정규군의 대결로 확장시켜 묘사하는 것은 “현실정치의 영향과 민족감정에 의해 유도된 문학적 허구”라고 보기도 한다.

(万晴川·万思蔚, 「在历史记忆建构与娱乐兼顾之间徘徊—近五十年来明代倭乱题材影视剧综论」, 『电影文學』 2019-16, p.9)

194) [https://baike.baidu.com/item/戚繼光英雄傳/7084233?fr=ge\\_ala](https://baike.baidu.com/item/戚繼光英雄傳/7084233?fr=ge_ala)

195) <https://tv.cctv.cn/2015/01/07/VIDA1420610259628656.shtml>

보면 ‘五峰船主’는 일종의 지위처럼 사용되는 것이고 특정인-왕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본편에서도 왕직이라는 인명은 등장하지 않는다.

마지막 편의 제목은 「仙游의 결전」으로 실제 역사에서는 가정 43년(1564)의 일이었다. 그런데, 척계광은 가정 44년(1565) 유대유와 함께 뱃길을 토벌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仙游의 결전이 마지막 抗倭전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구의 두목은 松浦隆介로 그는 화포를 갖춘 군대를 직접 지휘하며 척계광과 싸운다. 참고로 왜구들은 그를 ‘松浦大人’이라고 부른다.

접전 끝에 척계광이 왜구를 물리친 뒤 본편이 끝난다. 그 후 척계광의 시를 읊은 뒤 항왜전쟁에서의 공적 등을 소개한다. 마지막 문구인 “(척계광은) 걸출한 애국장령이며 민족영웅이다.”로 끝을 맺는다.

이 작품에서는 일본인의 침략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인지 假倭나 從倭가 나오지 않고 松浦隆介를 왜구의 두목, 실행자로 설정하는데, 이것은 松浦隆信를 모델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왕직과 松浦隆信의 관계에 대한 중국에서의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 영화 『千洞島抗倭記』와 드라마 『抗倭奇俠傳(抗倭奇俠)-大明抗倭記』

이 두 작품은 왜구를 소재로 한 무협극으로 민간인에 의한 항왜활동과 희생, 그리고 승리로 마무리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척계광 등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만 역사 고증 등은 허술하고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특히 왜구 및 왜구 두목의 설정 근거도 알 수 없다.

『千洞島抗倭記』는 가정 40년(1561) 왜구가 浙江 연안의 千洞島를 점거하고 주변을 지나가는 상선 등을 약탈한다는 설정 하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왜구는 화포와 조총을 장비하고 있는데, 복장만 보아서 어떤 집단(해적? 무사?)인지 조차 알기 어렵다. 왜구의 두목의 이름은 Cast에 “齋藤元直(Saito Yuzi)”로 되어있다.

『抗倭奇俠傳』의 왜구 혹은 일본병의 묘사는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다. 호종헌·유대유·척계광 등 주요 항왜장령이 등장하지만 왕직 등 역사에 기록된 왜구 수장은 나오지 않는다. 왜구의 수장으로는 肥源一朗, 肥原次郎의 형제가 등장하는데, 이들 역시 일본의 어느 지역에서 온 어느 정도 지위의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들이 왜구-일본병을 지휘하는 모습이나 복장 등을 보면 무사 내지 영주를 염두에 둔 설정임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주인공들의 최대의 적인 ‘九如法王’은 중원의 무림을 장악하기 위해 왜구와 결탁하고 이에 대해 肥源은 명의 땅을 침략해 점령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다는 점이다. 항왜극에서 왜구를 지방영주가 이끄는 일본의 군대로 설정하는 경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 이 드라마는 무협드라마임에도 왜구의 침략목적을 ‘영토의 점령’으로 설정해 왜구의 침략성을 더욱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 ㊦ 드라마 『抗倭英雄戚繼光』(2015)

『抗倭英雄戚繼光』은 척계광의 소년기에서 시작해 항왜전쟁에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본격 역사극이다. 비교적 사실에 충실하고 대규모 전투장면과 해전이 재현되는 등 기존의 항왜를 소재로 한 무협드라마들과는 많은 차별성을 보여준다. 2017년 제11회 전국

TV프로덕션(电视制片业) TV드라마 우수작품상을 수상하는 등 중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역사수업의 부교재<sup>196)</sup>로도 추천되고 있다.

호종헌·유대유·譚綸 등의 실제 항왜장령과 王直·徐海·蕭顯 등 역사에 기록된 중국인 왜구두목도 다수 등장하는데, 척계광의 상대역이자 왜구 최고의 두목으로는 長谷勘助라는 가공의 인물이 등장한다. 長谷은 일본인 배우(三浦研一)가 담당했는데, 극중에서도 종종 일본어를 사용한다.

이야기는 가정 2년(1523) 일본의 左京兆大夫(大内義興)와 右京兆大夫(細川晴元)의 조공단이 충돌한 영파의 난을 언급하면서 시작한다. 왜구의 발생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의 혼란시기, 각지 봉건영주가 잔혹하게 착취하고(殘酷剝削)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일본의 파산한 농민, 실직한 관리, 실업한 유민, 戰敗한 무사 등이 각지 영주의 지지 하에 분분히 해외를 향해 出路를 구했다. 연속된 다년의 왜구의禍는 가정연간에 전대미문의 高峯에 도달했다.”는 내레이션으로 설명한다.

‘海盜’로 표현되는 왕직은 일본으로 가 ‘倭酋’ 長谷勘助와 동맹을 맺는다. 왕직 일행은 長谷에게 다소 뻣뻣한(?) 자세를 취하는데, 명의 海防을 돌파하고자 그에게 재물을 주는 대신 일본의 무사와 낭인을 청한다. 이에 대해 長谷은 자신들의 목적 역시 교역(조공)을 거부하는 명조의 海防 돌파가 목표라며 왕직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長谷은 왕직에게 우리는 “主와 客이 아니라 친구(朋友)”, “우리의 적은 朱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보통 왕직과 관계된 일본 지방영주나 지역은 애니메이션 『척계광』에서와 같이 ‘松浦’가 언급되는데, 이 드라마의 長谷勘助는 자신의 領國을 “豊後藩”이라고 말하므로 이 인물의 모델이 松浦隆信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豊後라면 大友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소개할 다큐멘터리 『威繼光』(2019)의 내용에서처럼 大友씨가 왜구의 실제 실행자라는 견해에서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왕직과 長谷은 동등한 관계였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에서의 주적은 長谷이다. 주요 전투에서 왜구를 지휘하는 것은 長谷이고 마지막 해전에서 長谷을 물리치는 것으로 항왜전쟁의 승리를 장식한다. 왕직 이외의 서해나 소현과 같은 유명한 왜구 두목들도 모두 長谷의 수하로서 행동한다.

왜구의 묘사 중 조금 이상한 점은 長谷 등 왜구의 수뇌들은 일본식 갑옷을 착용하는데, 일반 왜병들은 승병을 연상시키는 복장이라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왜구들은 많은 면에서 지방의 영주가 이끄는 일본의 군대로 보인다.

왜구와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왕직 등 사무역자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 부분이다. 왕직이 호종헌의 회유로 귀순한 뒤 그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가 되던 중 옥중의 왕직을 척계광이 방문해 그와 대화를 나눈다.(물론 픽션이다.) 이 때 왕직은 자신은 본래 ‘良民’인데 명조가 海商들의 생사는 무시하고 해금정책을 시행해 어쩔 수 없이...라고 변명하는데 이에 대해 척계광은 그의 논리를 설파하고 “당신은 우리 중화의 자식이 아니라 주인을 버린 개일 뿐!”이라고 단죄한다.

이 장면은 왜구에 참여한 사무역자들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왜구 신론』에 대한 비판·부정의 의미도 담고 있다. 반복해 말하지만, 왜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척계광의 민족영웅 지위를 훼손할 수 있다.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연출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드라마는 다음과 같은 내레이션으로 막을 내린다.

“월나라 때부터 200년간 왜란이 이어졌지만, 문무장관이 몸을 바쳐 민족 단결을 이루고 마치

196) 人民教育出版社, 『教师教学用书 中国历史 七年级下册』, 人民教育出版社, 2017, p.207.

막으로 침략한 왜구를 조국 땅에서 쫓아내 왜란을 깨끗이 종결짓는다. 척계광은 왜구를 소탕해 왜란을 종결하고 북방의 국경을 공고히 하였다. 척계광은 평생 조국에 충성하며 뜻을 굽히지 않은 중화 민족 불후의 민족영웅이다.”

이 두 문장에는 왜구 및 척계광에 대한 현재 중국의 (공식적?) 입장이 함축되어 있다.

## ㉔ 『蕩寇風雲』 - 한글제목 : 풍운대전 God Of War(战神戚继光)

블록버스터급 영화인 『蕩寇風雲』은 제작단계부터 큰 관심을 받았는데, 당초 예정된 제목은 『전쟁의 신 척계광(战神戚继光)』이었던 것 같다.<sup>197)</sup> 감독인 陳嘉上은 영화의 목적이 “더 많은 젊은이들이 민족 영웅 척계광과 중국의 역사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sup>198)</sup>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척계광은 중국 역사상 저명한 항왜대장으로, 중국은 지금까지 수많은 민족영웅이 있었는데 척계광은 바로 그 한 사람이다. 캡틴 아메리카나 아이언 맨과 같은 할리우드 인물들과 비교해 우리 민족영웅은 피와 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찾을 수 있는 역사 사적을 가지고 있다.”<sup>199)</sup>며 할리우드 영화에서의 ‘영웅’과 차별화했다. 또한 영웅이 개봉했던 2017년 단오절 연휴에 할리우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5』와 『蕩寇風雲』이 흥행경쟁을 하게 되자 할리우드 영화 대 중국영화의 대결이라는 은유로 “해적의 침입”과 “영웅의 방어”라는 도식이 형성되기도 했다.<sup>200)</sup>

감독 陳嘉上은 영화를 준비하며 척계광의 고향 및 척가군의 모든 전장을 답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역사가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sup>201)</sup> 특히 왜구-일본군에 대한 연출에도 이전의 중국영화-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해 ‘일본인 왜구(왜병과 낭인)’의 주요 배역은 모두 일본인 배우들이 담당했고 구로사와 감독의 『란(亂)』(1985)으로 미국 아카데미상 의상디자인상을 수상한 와다 에미(和田惠美,ワダ・エミ)를 기용해 왜구의 복장을 재현했다. 이 때문에 영화에 등장하는 왜구, 정확히는 왜병의 모습은 일본 영화나 드라마에 못지않다. 또한 상대인 왜구를 희화화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악인으로 묘사하지 않은 것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97) 관련기사 <https://www.163.com/ent/article/B71VSDIH000300B1.html>

“척계광은 중국 역사에서 귀가 번쩍 뜨이는 이름을 중화민족이 외부의 침략에 저항하는 용기와 힘을 상징하는 인물로 후세 사람들은 이를 필승무패의 ‘전신’이라고 불렀다.”

198) 『蕩寇風雲』制作团队揭秘 国际视角传承民族精神, 『1905电影网』2017년 5월 28일.

199) 『蕩寇風雲』震撼上映 导演陈嘉上郑州谈片, 『河南日报』2017년 6월 2일.

200) 杜梁·聂伟, 『蕩寇風雲』:夹缝英雄的历史传奇与地缘影像书写, 『电影新作』2017-3, p.102.

201) 영화의 역사고문은 南京사범대학 교수인 鄒波로, 그는 2010년 7월 방영된 CCTV의 『百家讲坛』에서 『大明名臣—抗倭英雄戚继光』(전14집)을 강연했는데,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CCTV에서는 해당 방송에 대해 “鄒波는 척계광의 군사적 업적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설명하고 척계광의 항일영웅으로서의 역사적 평가를 다시 부여했다. 더불어 그 비장한 역사 속의 민족감을 되새기고 강렬한 애국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소개하고 있다.

(<http://kejiao.cntv.cn//C20903/clippage/index.shtml>)

그는 강연의 마지막에 척계광에 대해 “척계광, 이 민족영웅을 부르짖는 것은, 척계광, 이 민족의 중추(脊梁)를 부르짖는 것이고, 척계광, 우리 중화민족의 역경에 굴하지 않는 튼튼한 기둥(中流砥柱)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국가가 극심한 재난을 마주했을 때, 민족이 극심한 재난을 당했을 때, 또한 혹은 우리들이 기대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시기를 맞아, 누가 생각하지 않고 누가 그리워하지 않으며, 누가 척계광, 이 민족영웅을 부르짖지 않겠습니까?”라고 강조한다. 그 뒤 항일전쟁기의 인물들과 척계광은 모두 “민족의 국혼(國魂)”이라고 강조하고 시청자들에게 영원히 항왜영웅 척계광을 그리워하자는 말로 강연을 끝마친다.(YouTube, ‘CCTV百家讲官方频道’ 「抗倭英雄—戚继光(十四) 将星陨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화의 시작은 배경을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명 가정연간, 조정의 해금으로 지방관부가 부패하여 연해왜구가 봉기했는데, 그 중에는 왜구의 수령으로 인식되는 安徽人 왕직이 누차 연해를 침범했다.

가정 36년, 절강총독 호종헌이 왕직의 투항을 설복해 왜구의 환을 덜고자했는데,

어찌 알았으랴? 왕직은 곧 杭州에서 巡按史 王本固에 의해 구금되었다.

왜구는 항복하지 않고 도리어 도처에서 일을 일으키고 절강 연해를 공격했다.

이때 왕직의 양아들 毛海峰은 1천명이 넘는 왜구부대와 절강의 岑港를 점거했다.”

내레이션의 내용처럼 영화에서는 척계광의 첫 승전(정확하게는 浙江에서의 첫 승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岑港의 전투와 최대 승전인 台州대첩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다만, 내레이션의 내용과는 달리 왜구를 실제로 지휘하는 인물은 모해봉이 아니라 熊澤(Kumasawa)<sup>202</sup>이다. 구마사와는 지략과 전술이 뛰어난 노련한 장수로 묘사되는데, 그가 와카(若)라고 부르는(다른 사람들은 보통 와카사마라고 호칭한다.) 山川(Yamagawa)가 신분으로는 상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야마가와와 구마사와를 ‘스승님(師匠)’이라고 부른다. 영화 본 편에서도 그렇고 Cast 표에서도 일본인은 성만 밝혀져 있다.

왜구의 정체는 초반에 밝혀지는데, 모해봉이 구마사와에게 “왜 내지로 공격하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松浦 대인”의 말을 잊었는가? 라며 ‘松浦(모해봉은 중국어 발음으로, 구로사와는 마쓰우라라고 말한다)’라는 이름을 들먹인다. 이에 대해 구마사와는 일본어로 “왕직님[도노]의 마쓰우라변에의 공적은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마쓰우라의 도노에 대해 여기서는 말하면 안 된다. 우리는 왜구이며 도적이니... 두령은 왕직님[도노]이다.”라고 대답한다. 또한 구마사와는 “우리가 마쓰우라변이라는 것이 명군에 알려지면 마쓰우라변이 위험해진다. 여기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왜구여야 한다.”는 말도 한다.

이런 왜구의 설정은 앞에서도 몇 차례 언급한 왕직과 松浦隆信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와카’라고 불리는 젊은 주군이 왜 야마가와(山川)인지는 알 수 없다. 오우치(大内)라는 인물이 있기는 하지만 부장정도의 역할이다.

왜구의 구성에 대해서는 잠항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 유대유(홍금보 분)와 척계광(조문탁 분)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유 : 적병 가운데 대부분은 해금으로 인해 왕직에게 의탁한 漢人이다.

척 : 당신의 말은 우리가 공격한 게 왜구가 아니라는 것인가요?

유 : 또 낭인이 있지.

유 : 그렇지만 가장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배치된 한 무리의 精良한 倭兵이야.

척 : 왜병?!

대부분이 漢인이었다는 말에 척계광이 놀라는 것은 그가 왜구의 정체를 제대로 몰랐다는 것이 된다. 그리고 유대유의 말을 통해 진왜는 왜병(무사)과 낭인으로 구분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다만, 실제 역사에서는 잠항의 왜구를 주도했던 것은 모해봉이었다.<sup>203</sup>

202) 일본인명의 영문표기는 영화의 Cast 표에 의거함.

203) 『명 세종실록』 가정 38년(1559) 5월 12일, “福建浯嶼倭始開洋去, 此前舟山寇隨王直, 至岑港者也屯

그러나, 모해봉 등 漢人은 영화에서 그다지 존재감이 없다. 특히 전반부의 잠항 싸움에서는 모해봉과 그의 수하들이 때때로 등장하지만, 그 이후에는 줄곧 구마사와가 지휘하는 왜구와 명군의 대결이 그려진다. 유대유의 말이라면 수적으로는 가장 적은 것이 ‘왜병’이지만, 이들이 왜구를 실제로는 주도하는 게 된다. 혹은 왕직의 죽음(영화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이후에는 진왜의 수가 더 많았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다. 여하튼 영화 포스터의 “2만 왜구에 맞선 명의 3천 군대”라는 문구에서 ‘2만의 왜구’는 영화에서 묘사되는 장면만을 보면 모두 ‘진왜’인 것처럼 생각될 수밖에 없다.

무사와 낭인의 차이는 왜구 수뇌부(무사)들의 대사를 통해서 잘 나타난다. 구마사와는 무사와 낭인은 다르다며, 우리(무사)의 목적은 재물을 얻어 그것을 통해 무기를 구하고, 우리 번(마쓰우라)이 천하통일을 하기 위해서이며, 낭인은 단지 ‘여자와 돈’ 때문이라고 말한다.

낭인들은 왜병에 비해 규율도 없고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그들 스스로 “여자와 돈이 전부”이고 “돈을 벌어서 집에 가서 술이나 마시는 게” 목적인 것처럼 말한다. 그런데 낭인들의 대장인 小幡(Kohata)가 “나는 진짜 무사가 되고 싶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를 통해 생각해보면 이 영화에서의 낭인은 ‘패망한 무사’와는 다른 부류가 된다. 앞 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무사와 낭인을 완전히 별개의 존재처럼 서술하는 중국에서의 경향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영화는 불타는 왜선에 홀로 남은 구마사와가 척계강 등과 대결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맞는다. 그 직전 구마사와는 야마가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며 (마쓰우라 도노에게) “우리 마쓰우라 번은 두 번 다시 이런 야심(중국어로는 ‘妄想’)을 갖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척계광은 구마사와에게 이름을 묻지만 구마사와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만 “왜구”라고 답한 뒤 자결한다.

구마사와의 마지막 말은 ‘헛된 망상을 가지고 중국을 침략하지 말라’는 의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반대로 왜구가 왜 중국을 침입했는가? 에 대한 의문점도 남긴다. 영화의 초반에 그들-마쓰우라의 군대-의 목적은 중국에서 재물을 얻어 그것으로 무기를 구매한다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그 이후 태주를 비롯한 각지를 공격해 점령하려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 가정 37년(1558) 잠항에서의 패배부터 가정 40년(1561) 태주대첩까지 (물론 영화에서의 내용이지만) 계속 중국에 머물러있는 점도 설명되지 않는다. 이것은 왜구가 단순한 도적이 아닌 일본의 군대라는 견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반면 구마사와가 자신들의 정체-마쓰우라번-가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하고,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진왜, 특히 신분이 높은 무사계급 왜구 두목들의 이름이 왜 역사 기록에 남지 않았는가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무사들이 명에를 중요하게 여겨서 포로로 잡히는 것보다는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들의 이름이 중국의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중국학자의 주장을 적용한 것으로도 보인다.

## ㉠ 『少林寺十八羅漢』

소림사 시리즈의 첫 번째 IP영화 『少林寺十八羅漢』는 소림승의 희생 속에서 관군과 일반백성이 힘을 합쳐 왜구를 무찌른다는 전형적인 항왜영화이다. “역사의 실제(眞實) 사건을 근거로 개편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영화가 시작되는데, 곧이어 내레이션으로 “가정 31년 왜구가 중국

涸嶼，且經年至是乃遷其毛海峯者，復移眾南巖，建屋而居。”

杭州만에 상륙하여 모두 복상해 浙江을 쓸어버렸다. 安徽·江蘇는 무인지경에 들어간 듯했다. 왜구가 이르는 곳은 살육과 약탈 등 온갖 만행이 저질러졌다. 연안백성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조정은 격문을 반포했고 소림승려는 그 호소에 응했다.”라는 설명이 이어진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사실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무렵의 왜구는 일반적으로 ‘소수의 진왜+다수의 가왜’라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이었지만 이 영화에서는 진왜, 그것도 ‘일본의 군대’를 연상시키는 왜구만 등장한다. 왜구의 두목으로는 小西藤·小西信 의 쌍둥이 형제(信은 초반에 소림승려에게 죽는다), 宮本一郎 라는 무사도를 중시하는 무장, 그 외에 난자도 등장한다.

왜구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고, 일본식의 복장을 하고 있다. 최대의 적인, 왜구 두목 小西藤은 “연해 일대에서 가장 용맹하고 날쌔 왜구의 두목으로, 그는 야심이 매우 커서 별명이 曹操”라고 불린다.

이 영화에서도 낭인(극 중에서는 野武士라고 부른다)이 존재하는데, 정규병과는 갑옷과 투구와 같은 복장에 차이가 있다. 『蕩寇風雲』에 비해서는 왜구의 모습이나 장비 등에 고증이 부족하지만 다른 영화-드라마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다.

이 영화에서도 왜구는 일본의 군대처럼 묘사되지만 그들의 출신지나 중국에 와서 살육과 약탈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는 설명이 없다.

### 3) 다큐멘터리 『척계광(戚繼光)』(2019)에서의 왜구

절강 위성방송(浙江卫视)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척계광』은 총 5편, 각 25분으로 구성되어있다.<sup>204)</sup> 각 편의 제목은 「참장(參將)」·「왜환(倭患)」·「신병(新兵)」·「철군(鐵軍)」·「전신(戰神)」이다. 방송국 홈페이지의 관련 기사는 “희망이 있는 민족은 영웅이 없을 수 없다.(一个有希望的民族不能没有英雄)”<sup>205)</sup>는 문장으로 시작하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sup>206)</sup> 2019년 신중국 성립 70주년을 경축하는 다큐멘터리(庆祝新中国成立70周年纪录片展播片目)에 입선하는 등 여러 상을 수상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내에서의 평가도 높다.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중국 국내의 관련 유적지는 물론 일본·한국에서도 촬영하였고 무엇보다 중국·일본·한국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담았다.(한국에서는 이영 교수님이 출연) 특히 역사 고문들에게 자문을 구해 TV각본을 반복해서 수정했다고 한다. 다만, 역사 고문으로 위촉되었던 사람은 範中義(中国人民解放军 军事科学院 研究员)와 王珏(中国人民解放军 军事科学院 中国历代军事思想研究室 副主任)이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왜구의 「구론」과 「신론」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있을 지는 명확했다.

제1편에서 왜구의 의미에 대해 먼저 “일본인의 侵襲”을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많은 왜구에는 일본 국내의 戰敗한 落魄 武士가 있었는데, (그들은) 산을 의거해 賊이 되고 바다에 나가 盜가 되어” 동아시아에서 학살과 파괴를 자행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런 실례로 가정 34년(1555) 60~70명의 왜구가 南京을 공격하는 등 강남지역 일대를 휘젓고 다녔던 사건을 다룬

204) YouTube의 절강위성TV 채널인 「中国浙江卫视官方频道(Zhejiang STV Official Channel)」에 전편이 공개되어있다.

205) 2015년 9월 2일, 중국인민 항일전쟁승리 7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이 했던 연설 문구이다.

206) 「纪录片《戚继光》的全新视野：一个有希望的民族不能没有英雄」, 『浙江卫视』 2019년 10월 14일.

<https://baijiahao.baidu.com/s?id=1647336844073930482&wfr=spider&for=pc>

다.

척계광이 상대한 왜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제2편 「왜환(倭患)」에서 다루고 있다. 2편의 초반에는 “명조 중후기 일본은 엄중한 내란에 빠져들고 왜구의 약탈 규모 또한 점점 확대되었다. 또한 海盜商人·무사·낭인으로 구성된 무장침략집단을 형성했다.”라고 설명하고 도쿄대 사료편찬소 소장 『倭寇圖卷』의 소개 후 이 그림을 통해 근래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다며 일본의 가계 도시오(鹿毛敏夫) 나고야대학 교수가 ‘왜구의 실제’에 대해 말한다.

그는 왜구의 “진정한 주인”에 대해 오우치 요시나가(大内義長)와 오토모 요시시게(大友義鎮, 宗麟)가 중국으로 遣明船을 파견했는데, 『항왜도권』에 그려진 왜구의 “幕後主使”가 오토모 소린이 된다고 설명한다.(이 부분은 가계 도시오의 말과 내레이션이 섞여 있다.)

그리고, 그는 “지방정치를 행하던 지배자 하에서 조직되었던 “바다의 무사”의 집단이 16세기 왜구의 실제입니다. 가정대왜구라고 일컬어진 1550년 전후, 왜구가 가장 영향력이 강했던 시대의 일본 측 구성원의 톱이 오우치와 오토모씨라는 다이묘입니다.”라는 꽤 놀랄만한 발언을 한다. “왜구의 실체는 일본의 다이묘가 파견한 무사 집단”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가계 도시오의 말은 왜구가 단순한 해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일본의 전문 학자가 인정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런데 문제는 가계 도시오(鹿毛敏夫)의 관련논저<sup>207)</sup>에서 그가 직접 발언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먼저 오우치·오토모씨와 왜구에 대해 그가 서술한 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大内義長가) 독자적으로 견명선을 꾸리고 있었는데, 그 통교가 명조에 공인받는다면 전혀 다른 흐름이 생길 가능성도 있었다. 물론, 입공을 인정받지 못하면 밀무역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 이후의 견명선은 후기왜구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게다.”

“그들은 왕직과 행동을 함께 하는 일종의 왜구집단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특히 홍치 3년의 [오토모씨의 使僧] 德陽·善妙 등은 그 후 舟山の 峯港에서 공방전을 전개해 선박이 불태워졌지만 놀랍게도 그 곳에서 새로운 배를 건조, 福建省 浯嶼로 이동해 밀무역을 행하고... 이 倭寇의 견명선단은 근년 「弘治四年」이라는 旗號의 존재가 판명난 『왜구도권』의 모티브가 되었을 가능성조차 지적되고 있다.”<sup>208)</sup>

“『명 세종실록』·『日本一鑑』이나 일본에 잔존하는 일명교섭관계의 사료에 의하면 이 기간에 수 차례에 걸쳐 중국에 渡航船을 파견해 대규모로 倭寇의 活動을 행한 것은 일본의 전국 다이묘 大内義長와 大友義鎮에 의한 파견선단이었다. 「巨舟」를 조종하고 「弘治」년 서명의 증서를 첨부한 「日本国王之印」 印影을 사용하며 조공을 청해온 그들의 선단은 명의 해방담당자에게 큰 위협이었다. 실제로, 조공이 거절된 순간부터 그들은 倭寇의 勢力으로서의 실상을 나타내 연안경비가 허술한 지역에 들어가 王直 등과 결탁해 밀무역활동을 행하고 또한 상거래가 막혔을 때는 강탈행위에 이르렀다.”<sup>209)</sup>

207) 鹿毛敏夫, 『抗倭図卷』·『倭寇図卷』と大内義長・大友義鎮, 『東京大学史料編纂所研究紀要』 23, 2013-3; 「コラム 大内・大友氏の「弘治」遣明船」, 『描かれた倭寇 「倭寇図卷」と「抗倭図卷」』, 東京大学史料編纂所編, 吉川弘文館, 2014; 『戦国大名大友氏の館と権力』, 吉川弘文館, 2018; 『戦国大名の海外交易』勉誠出版 2019.

208) 鹿毛敏夫, 『戦国大名大友氏の館と権力』, 吉川弘文館, 2018, pp.263~265.

209) 鹿毛敏夫, 『抗倭図卷』·『倭寇図卷』と大内義長・大友義鎮, 『東京大学史料編纂所研究紀要』 23, 2013-3, p.301.

위의 내용 중 마지막 문단은 “大内義長와 大友義鎮가 왜구를 파견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게 도시오는 어디까지나 ‘왜구적 활동’이라고 할 뿐이다. 일본의 「후기왜구」의 개념에서 왜구와 왜구적 활동은 차이가 있다. 가게는 다나카 다케오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한다. “조공선 이외의 외국선은 모두 밀무역선 즉 왜구로 취급하는 중국 측의 상식에 서서보면, 不知火海의 渡唐船은 일본 측에서는 비록 그것을 보통의 통상무역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도 중국 측에게는 틀림없는 왜구선이었다.” 그리고 같은 취지에서 “그(왕직)에 동행해 입항했던 大友義鎮의 선단도 명정부로부터는 해적선단의 일당(틀림없는 왜구)으로서 취급받았던 것이다. 그것을 교묘하게 회피해 華南지역에서 상거래를 행하려고 하는 이 선단의 모습이야 말로 16세기 왜구 조직실체의 一端 그 자체나 다름없다.”라고 말한다.<sup>210)</sup>

가게가 말하는 왜구는 중국의 「구론」에서 부정하는 다나카 다케오 등이 말해왔던 ‘후기왜구’의 개념이다. 그의 논저에 서술된 내용과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분명히 큰 온도차가 있다. “지방정치를 행하던 지배자 하에서 조직되었던 “바다의 무사”의 집단이 16세기 왜구의 실체”라는 발언과 관련 있는 논저의 내용도 『왜구도권』에 묘사된 「弘治」 遣明船과 관련된 설명<sup>211)</sup>일 뿐 중국에서 ‘약탈활동에 종사하던 왜구’ 전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다큐멘터리에서의 발언은 어떻게 된 것일까? 중국의 한 네티즌이 그 내용에 반박하며 쓴 글이 있는데, 그 제목이 힌트가 될 것 같다.

“鹿毛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까? 동영상은 『단장취의(斷章取義: 문장의 일부를 끊어 저자의 본의와는 달리 제멋대로 사용하는 일)하는 수작을 얼마나 더 부릴 겁니까?』라는 문제를 검해서 논하는 것은 토의할 가치가 있습니다.”<sup>212)</sup>

## 끝을 맺으며

2015년 ‘항일전쟁 승리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河南理工大学 음악학원이 주도해 음악극 『抗倭英雄威繼光』이 창작되어 그해 9월 두 차례 공연했다. 그 뒤 이 작품은 중국 교육부의 대학 오리지널 문화 홍보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각 대학을 순회하며 공연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sup>213)</sup> ‘항일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인물이 왜 척계광인가라는 점은 본문에서 여러 차례 보아왔으므로 굳이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음악극에서 왜구가 어떻게 그려졌을까도 충분히 상상 가능하겠지만 본고의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제1막에 나오는 「늑대의 자백(狼的自白)」 가사를 통해 왜구의 모습을 확인해보자.

“내 동지는 너무 작고 주위는 거친 파도, 나는 大海 위에서 일어났다 누웠다 밤낮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오직 중국만이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다. 땅은 광활하고 재보가 널려있다. 나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거니는 꿈을 꾸다.”

210) 앞의 논문, p.300.

211) 앞의 논문, pp.300~304.

212) 「鹿毛先生真的这么说了么? 兼论视频《断章取义的把戏, 还要玩多久.》中值得商榷之处」  
<https://www.bilibili.com/read/cv14533167/>

213) 沈佳丽, 「浅析原创大型情景清唱剧《抗倭英雄威继光》的艺术特色」, 『音乐时空』2021 참조.

이 가사에는 극도로 표현되는 왜구는 중국영토를 침략하려는 비할 바 없는 열망과 유쾌한 듯이 보이는 감정이 잘 드러나 있다. 이윽고 이어지는 장면은 왜구의 약탈과 잔인한 만행, 그리고 안타깝게 희생되는 백성들의 모습이다.<sup>214)</sup>

이 음악극이 기획된 계기 및 목적, 내용, 그리고 평가를 종합해보면 현재 중국의 매스미디어에서 왜구가 어떤 필요성에서 어떻게 소비되는 지를 잘 알 수 있다. 왜구는 ‘침략자’로서 부동의 가치를 갖는다. 「왜구 신문」에서 제기하는 다른 가치·의의는 현재 중국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침략자로서의 왜구를 더욱 강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일부 중국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왜구는 일본의 유력자가 파견한 ‘군대(정규군)’라는 관점이다. 침략자를 어렵게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를 거둔다는 항왜극에서 ‘강한 왜구’·‘강한 침략자’의 존재는 그 의미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물론 이런 설정 및 설명은 모순을 낳기도 한다. 사료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런 예나 관련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력자(다이묘?)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중국에 와서 무엇을 하려는 것이었을까? 라는 합리적인 답변을 제시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침략자를 물리쳤다는 것에만 집중해서인지 이런 의문이나 모순점 등은 중국에서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전통적인 사회주의 가치관에서 본다면 역시 모순된 “소수(眞倭)가 주체”였다는 시각에 그다지 비판이 제기되지 않는 것도 왜구는 어디까지나 ‘일본인의 침략’이어야 한다는 결정사항이 무엇보다 우선되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현재 중국의 왜구관과 1945년 이전 (중국을 침략하던) 일본의 왜구관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대륙진출은 중국의 입장에서 역으로 표현하면 대륙침략이 된다. 목적은 반대이겠지만 왜구의 진출=침략을 강조하려는 자세는 동일하다. 결국 1945년 이전의 일본에서 왜구의 주체를 소수이지만 일본인, 특히 무사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현재 중국에서의 주장은 거의 일치한다. 지방의 영주가 왜구 파견의 배후라는 주장도 양쪽 모두 동일하고, 왜구로부터 식민지배의 선구성을 구했던 것은 말만 조금 바꾸면 영토를 빼앗아 지배하려고 했던 왜구의 침략성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다른 점이라면 살인·약탈 등 ‘나쁜 행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정도인 것 같다.<sup>215)</sup>

물론 과거 일본에서도 그랬지만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구론」과 같은 시각으로 왜구를 보는 것은 아니다. 「왜구 신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전통적인 중국 내부의 시각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사적 혹은 세계사적 시각으로 왜구를 파악해야한다는 지적<sup>216)</sup>도 있다. 과거의 상황을 돌아보면 중국 혹은 그 외의 환경변화로 현재 중국에서의 왜구론이 또 다시 변화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중국의 왜구론을 살펴다보면 한 계통으로 정리가 잘 안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예를 들면 ‘명대왜구’에 만력왜구-임진왜란도 포함시키는 경우<sup>217)</sup>가 있는가하면 그렇게 해서는

214) 앞의 논문 참조.

215) 윤성익, 「戰前·戰中期 日本에서의 倭寇像 構築」, 『한일관계사연구』 31, 2008 및 「帝國 日本의 中國侵略과 倭寇像의 變用」, 『인문학연구』 29, 2015 참조.

216) 郭尔雅, 「“倭寇文学”中王直形象的历史与想象—以泷口康彦《倭寇王秘闻》为中心」, 『中国语言文学研究』 2019, p.199.

戴昇, 「商人·盟主·倭寇: 王直不同形象分析」, 『经济社会史评论』 2019-1, p.70.

郭尔雅, 「从东亚学视域看日本的倭寇史研究及倭寇文学」, 『社会科学研究』 2020, p.31

陈贤波, 「吴大昕:《海商·海盗·倭—明代嘉靖大倭寇的形象》」, 『海交史研究』 2021-3, pp.120~121.

특히 최근 출간된 두 서적도 동아시아사적 시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刘晓东, 『倭寇与明代的东亚秩序』, 中华书局, 2019; 吴大昕, 『海商·海盗·倭—明代嘉靖大倭寇的形象』, 科学出版社, 2022)

절대 안 된다는 사람도 있다.<sup>218)</sup> 사람이 많으면 의견도 많은 게 당연하지만, 이렇다보니 무비판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나타난다. 앞서 보았지만 중국에서는 일본 학자의 견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이루어지지만 중국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과 없이 그대로 들여와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과 일본 간에서는 아직도 첨예한 ‘조선인 왜구’ 문제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번 논고를 준비하며 왜구에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도 있었고 또는 조선인이나 포르투갈인도 참여했다는 일본의 서적에서 많이 보던 문구가 언어만 중국어로 바뀌어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를 몇 번인가 볼 수 있었다.<sup>219)</sup>

여전히 일본 학계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다른 이유일 수도 있다. 올해(2023년) 초 세간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ChatGPT에 물었던 답변 때문이다. 東海의 표기문제,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양쪽 입장을 어느 정도 공평하게 대답하기에, 혹시나 해서 “What were the members of the Japanese pirates?(왜구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있었나?)”라고 물었더니 그 대답은 다음과 같은 문단으로 시작했다.

The members of Japanese pirate groups, or Wokou, were typically a mix of Japanese, Chinese, and Korean sailors. These sailors were often impoverished and turned to piracy as a means of supplementing their income.

(일본 해적 집단 혹은 왜구의 구성원들은 전형적으로 일본인, 중국인 그리고 한국인 선원들이 섞여 있었다. 이들 선원들은 종종 가난했고 그들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적질에 의존했다.)

사실 답변에 전체적으로는 엉터리 내용이 많았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ChatGPT의 한계성과 문제점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AI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반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즉 ChatGPT가 활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조선인이 왜구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반면, 그것을 부정하는 논리의 정보는 없었거나 부족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된 것이다. ‘東海 표기문제’,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그렇지 않은 것은 정보의 양이 그만큼 충분했기 때문일 것이다.

ChatGPT가 가진 지식의 수준은 사회일반에서 획득할 수 있는 평균 이상으로 평가된다. 결국 현 세계의 일반인들이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정보의 세계’에서는 ‘조선인 왜구론’의 주장이 훨씬 우세한 상태라는 게 된다. 즉 중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왜곡된 상황의 조정, 여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提高 등은 연구자 개인이나 학계의 역량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217) 芮赵凯, 「嘉靖“大倭寇”初期明廷海防困境研究-以“倭寇南京”事件为例」, 『苏州文博论丛』 2021-12, p.83에서는 명대 왜구의 분기를 3기로 잡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전기 : 홍무·영락연간의 왜구, 중기 : 가정연간의 왜구, 후기 : 만력연간의 “임진왜란”으로 나눈다고 되어있다.

范中義·全晰綱, 『明代倭寇史略』, 中華書局, 2004에도 隆慶後의 倭患에 「抗倭援朝戰爭」, 즉 임진왜란을 포함해 서술하고 있다.

218) 예를 들면, 潘洵, 「试论“后期倭寇”概念中所隐藏的意图」, 『乐山师范学院学报』 2020-2.

참고로 그는 일본 학자들이 의도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전쟁을 ‘후기왜구’에 포함시켰다고 비판하는데.(p.93) 이것은 潘洵의 오해이다.

219) 高超, 「明代嘉靖倭患兴起的原因分析」, 『佳木斯大学社会科学学报』 2014-8, p.132.

任世江·何孝荣, 「明代“倭患”问题辨析」, 『历史教学』 2008-9, p.11.

**중국 미디어에서의 '왜구' 사용법(윤성익, 경희대)**

이 훈(한림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본 논문의 의의>

본 발표는 역사학적 관점에서 본 왜구의 본질 자체에 대한 검토라기보다는, '왜구 이미지'의 형성과 보급 배경 및 경로에 대한 검토이다. 따라서 어떤 영역으로 정의할지 모르겠지만, 논지의 전개나 검토 방법론 자체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다. 단 그동안 역사학 주제로만 알고 있었던 '왜구'가 정치적 의도나 사용법에 따라 그 실체나 내용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 한 신선한 충격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역사적 관점에서 '왜구'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새삼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의문사항>

발표자가 머리말의 마지막 부분에서 '왜구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다고 했기에, 읽으면서 궁금했던 다음의 2가지를 질문해 보고자 한다.

**1. 본문의 전개를 보면, 주로 중국과 일본에서의 왜구 연구가 비교 언급되고 있는데, 한국측 연구에서 보는 왜구 연구의 기본적인 관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왜구' 연구는 1980~1990년대에 걸쳐, 일본측 연구자(高橋公明, 荒野泰典, 村井章介 등)들이 <일본 중심 동아시아 세계상>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가권력을 상대화하는 주제로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즉 국가권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곳을 '지방' 대신 '지역'으로, 해상활동을 하는 바다를 '해양' 대신 '해역'이라는 역사 용어로 표현하면서, '1국사(자국사)'적 관점 대신, 국가권력이 닿지 않는 '경계'(村井)에서 중국의 '해금'을 피해 '다국적·다차원' 관점에서의 교류 내지 '잡거'(荒野)를 알 수 있는 주제로 왜구 연구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일본측의 왜구 연구에서는 왜구의 침략성은 별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에 비해 중국의 경우, 본 발표로 보자면, 정부가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 왜구의 침략성과 이에 대한 저항(항일)을 지향하면서 개인적인 영웅상(척계광)이 창조되고 있는 인상을 받았다.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왜구에 대한 담론의 내용은 다르지만 분명한 방향성은 있는 것 같다. 이에 비해 한국측의 왜구 연구는 한국사에서의 어떤 담론보다는 개인적인 연구성과가 확대되었다는 인상이 강하다.

따라서, 한국측 왜구 연구에서 더 추구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2. 왜구 활동은 중국이나 조선의 '해금'과 무관하지 않을텐데, 16세기 조선의 해안가 도서지역에 대한 통제 내지는 법제화는 어느 정도였나?**

**3. 발표자가 생각하는 '왜구'의 본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상)**



근세 한일관계의 현안과 해법  
- 『정한위략(征韓偉略)』과 임진전쟁 -

김문자 (상명대)

들어가며

근세 한일관계를 언급할 때 ‘임진전쟁’ ‘통신사’ ‘왜관’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이다. 이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 평가에 대해서 양국 학계에는 많은 논쟁이 있다. 먼저 임진전쟁의 경우는 전쟁의 명칭과 발생 원인, 전쟁 이후의 국교 재개 문제 등, 통신사의 경우는 통신 사행의 명칭, 통신사의 시대구분, 통신사 단절에 대한 재평가 등이 있다. 왜관의 경우는 왜관의 실태 및 운영 방법(약조 해석문제), 왜관 내외의 건물 문제, 왜관 무역 및 인식 등이 주된 논제였다. 본 발표에서는 임진전쟁을 중심으로 관련된 세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임진전쟁은 우리에게 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침략의 상처가 남아있고, 침략의 장본인인 히데요시는 증오의 대상이며,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이미지가 한국인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다. 이와 같은 히데요시에 대한 이미지는 일본관의 원형이 되었고, 한일 갈등의 상징적인 표상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이 전쟁을 기억하기 위해 현판, 비석, 서적, 문화유적 안내문에 거의 빠짐없이 전쟁 피해 문구가 각인되어 있다.<sup>220)</sup> 그러나 이처럼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한 원인 등 전쟁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것도 사실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 침략주의 풍조에 맞추어서 이 전쟁을 ‘국위를 선양한 쾌거’로 취급하면서 침략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였다. 전후 이러한 노골적인 의식은 사라졌지만, 전쟁의 원인과 피해를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고 이 전쟁을 히데요시에 의한 ‘조선출병’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처럼 임진전쟁은 한일양국 사이에 가장 큰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건이며, 양국의 우호를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임진전쟁의 최근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고, 에도 말기 1831년 간행되어 이후 임진전쟁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가와구치 조쥬(川口長孺)의 『정한위략(征韓偉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sup>221)</sup>

명치유신을 전후한 시기 일본은 국방과 군사적 대응의 일환으로 조선과 임진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때 일본 지식인들의 전쟁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정한위략』이라 할 수 있다.

『정한위략』은 당시 ‘정통’으로 여겨졌던 史籍·軍記類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조선·명 등 해외 문헌을 상호 대조하면서 그 출전을 기록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서술을 하였다. 당시 임진전쟁 관련 문헌과 자료는 전쟁 참가자의 견문담이나 조선군기물 혹은 상업출판물인 통속

220) 김문자, 「전쟁과 평화의 근세 한일관계」, 『기억의 전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176쪽. 예를 들어 임진전쟁에 대한 한국 대중의 관심은 최근 상영된 영화 <명량>(2014, 관람자 17,615,959명)과 <한산>(2022년, 관람자 7,265,209명)의 관람 수를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221) 본 발표에 활용된 『정한위략』은 일본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본을 이용하였다(和22504, 5(1~5)). 최근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에서 『군사문헌번역자료 정한위략(征韓偉略)』이 2022년 발간되었다. 『정한위략』에 대한 서지적인 내용은 최관·김시덕, 『임진왜란 관련 일본 문헌 해제』, 도서출판 문, 2010, 402~403쪽을 참조하였다.

소설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과장된 기술과 참전 무장들의 현창을 위해 기록된 것이 적지 않았고, 단편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부류의 자료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여 작성된 것이 『정한위략』이다. 이 책은 1586년(天正 14)년부터 1598년(慶長 3년)에 이르기까지의 외교·전쟁 상황을 한문으로 정리하였고, 히데요시의 外征을 ‘偉業’으로 찬양하면서 조선침략을 높게 평가한 것이 특징이다.<sup>222)</sup>

한편 이 책의 기술방식은 일본에 근대 실증적인 방법론이 도입되면서 근대사학에 계승되었다. 아울러서 『정한위략』에서 언급된 임진전쟁 관련 줄거리는 이후 답습되면서 히데요시 및 임진전쟁의 표상이 만들어졌다. 서양세력을 물리치고 주변 국가를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근대 역사학자들에게 『정한위략』은 대외침략의 선구적인 문헌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전쟁 명칭과 발생 원인을 간단히 살펴보고, 『정한위략(征韓偉略)』에 나타난 임진전쟁의 발발 배경, 일본군의 점령정책에 대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전쟁의 명칭

전쟁에 대한 양국의 인식 차이는 임진전쟁을 부르는 명칭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壬辰倭亂’, 일본에서는 ‘文祿·慶長の 役’ 중국에서는 ‘萬曆朝鮮役’ ‘降倭援助’라 칭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조선은 이 전쟁을 ‘壬辰年の 倭賊’ ‘壬辰之亂’ 등으로 표현하다가, 17세기에 ‘임진왜란’으로 부르면서 정착되어 갔다(『광해군실록』 『선조수정실록』).<sup>223)</sup> 이후 『燃藜室記述』(壬辰倭亂大駕西狩)과 『芝峯類說』에서도 ‘임진왜란’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한말의 교과서나 일제시대에는 ‘임진난’으로, 1946년 김성철의 『조선역사』에서는 ‘임진왜란’ ‘정유재란’이란 용어가 등장하면서 학술용어로 정착되었다.<sup>224)</sup>

일본의 경우 전쟁 당시의 기록이나 문서에는 ‘가라이리(唐入り)’, ‘高麗陣’, ‘朝鮮陣’으로, 에도 시대에는 ‘征韓’ ‘朝鮮征伐’이 일반적인 명칭이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조선을 식민지화 할 대상으로 생각하여 이 전쟁을 ‘조선정벌’로 보려는 시각이 한층 강해졌다. 특히 메이지 시대에는 ‘황위를 해외에 떨쳤다’는 입장에서 히데요시의 ‘조선정벌’을 ‘정의의 전쟁’으로 인식했고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는 ‘조선정벌’이라는 명칭 대신 ‘분로쿠·게이초(文祿·慶長)의 役’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다.

‘분로쿠·게이초’란 당시 일본 연호로서 지금까지도 이 명칭은 역사 교과서나 일반인 대상의 역사서 등에 많이 쓰이고 있고, 현재는 히데요시에 의한 ‘조선출병’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쟁이 명칭이 이처럼 다양했던 배경에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조선침략 또는 히데요시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전쟁 명칭과 관련해서 가와니시 유야(川西裕也)가 기존 통설과는 다른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다. 즉 그는 “1904~05년의 러일전쟁을 거쳐 1910년의 한일 합방이 실현되자 … 지금까지 적으로 보았던 조선인이 일본의 동포가 되었기 때문에 … ‘征伐’이나 ‘征韓’이라는 표현을 회피하고 ‘文祿·慶長の 役’이라는 호칭이 정착되었다”고 하는 통설에 대해 재검토를 제안하였다.<sup>225)</sup>

222) 이러한 경향은 근대 시기 노골적으로 드러났지만 이미 에도 후기에 선구적으로 히데요시를 재평가하는 역사서를 출간한 것이다. 김광욱, 「근대일본의 豊臣秀吉·임진왜란에 대한 인식」, 『역사와 경계』 64, 2007, 210~216. 中野等, 「文祿·慶長の 役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3권, 2010, 245~246쪽.

223) 최영창, 「임진왜란을 바라보는 한국이 시각」, 『SGRA REPORT』 86, 2019, 1쪽.

224) 하우봉,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서의 임진전쟁」, 『한일관계사연구』 39, 2011, 334~337쪽.

다시 말해서 가와니시는 1894년에 이미 ‘文祿·慶長 朝鮮役’ (北豊山人) 제목의 서적에서 보이는 것처럼 당시에 ‘文祿·慶長の 役’ 명칭이 자주 쓰였으며, 무엇보다도 이 전쟁의 목적이 ‘征明’이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이라는 지명을 피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征韓’ ‘朝鮮征伐’이라는 용어 대신 ‘豊太閤征外’ 또는 ‘文祿·慶長の 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파악했다. 즉 당시 전쟁을 ‘조선정벌’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오히려 이 전쟁을 일으킨 히데요시의 의도를 ‘과소’ 평가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오히려 ‘文祿·慶長の 役’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가와니시는 “‘内地(일본국내)」의 연구자들이 한일병합을 계기로 한국인에 대한 ‘인정’을 배려해서 ‘文祿·慶長の 役’ 호칭을 사용하려는 풍조가 있었다고 보는 통설에 찬동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226)</sup> 그리고 이 전쟁의 명칭 보급에 일본사 교과서가 중요한 역할 담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이 문제가 단순히 호칭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창씨개명과 내선 일체와도 연동되어 ‘文祿·慶長の 役’이라는 명칭이 관례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했으나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최근 이 전쟁을 새롭게 ‘동아시아 삼국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전쟁 명칭을 ‘임진전쟁’이라 부르는 경향이 전문 분야를 불문하고 한·일 양국의 젊은 연구자들 사이에 논의되고 사용되고 있다.<sup>227)</sup>

필자도 최근까지 ‘임진왜란’이란 명칭을 주로 사용했다.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통용되어 온 용어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6세기 동아시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으며, 전쟁이 삼국은 물론 류큐, 여진족, 포르투갈, 남방지역까지 확대되었던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전쟁의 규모 및 영향이 컸고, 일국사적·민족사적인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이전과 다른 명칭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쟁’이라는 용어가 근대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정유년에 발생한 정유재란의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은 있지만, 삼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지역을 황폐화시킨 국가 간의 전쟁을 ‘왜란’이란 용어에 국한한다는 것은 이 전쟁의 본질을 벗어난 것으로 생각된다.<sup>228)</sup>

이 전쟁을 약탈적 성격을 띤 국가적 규모의 왜구의 침입으로 본다면 임진왜란이나 壬辰倭禍라는 명칭이 적당하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침략이란 본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일본’이라는 국호가 있음에도 ‘倭’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멸시와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국에서 ‘임진왜란’이라는 이 명칭이 흔들림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 전쟁을 국난극복사 측면에서 바라보는 풍조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sup>229)</sup>

225) 정구복, 「壬辰倭亂の歴史的意味-壬辰倭亂に對する韓·日兩國の歴史認識」, 『日韓歴史共同研究報告書』, 第1期 第2分科, 韓日歴史共同研究委員會, 511~512쪽. 김문자, 「임진왜란에 대한 일본의 시각 변천」, 『역사비평』 46, 1999, 313쪽. 川西裕也, 「文祿·慶長の役呼稱の再検討」, 『韓國朝鮮文化研究』 21, 2022, 64~65쪽.

226) 川西裕也, 위의 논문, 83쪽.

227) 정두희·이경순 역음,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이 책은 김문자監역·小幡倫裕譯, 『壬辰戰爭-16世紀日·朝·明の國際戰爭』, 明石書店, 2008년으로 번역되면서 책 제목이 ‘임진전쟁’으로 수정되었다.

228) 박재광, 「임진왜란 연구의 현황과 과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 5, 2005, 63~69쪽. 하우봉, 위의 논문, 334~357쪽. 김강식, 「壬辰倭亂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각」, 『지역과 역사』 38, 부경역사연구소, 2016, 37~40쪽. 김경록, 「임진왜란 연구의 회고와 제안」, 『군사』 100, 2016, 109~115쪽. 한명기, 「‘난동’, ‘정벌’, ‘원조’를 넘어-임진왜란을 부르는 동아시아 공통의 용어를 위하여」, 『역사비평』, 2008.

229) 이 점에 대해 하우봉은 일본에 대한 전통적인 비하 의식과 함께 일제의 강점에 대한 적개심, 해방 후에도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청산을 하지 않은 일본의 자세에 대한 비판적 의식 등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하우봉, 앞의 논문, 337쪽.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전쟁의 성격을 국제적 전쟁으로 보려는 시각이 한일양국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2020년 11월 '임진전쟁연구회'가 발족되어 '協働型アジア研究の據點形成'을 목표로 연구 활동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물로 『壬辰戰爭と東アジア-秀吉の對外侵攻の衝撃』이 출간되어 임진전쟁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포함해서 사료연구, 임진전쟁과 관련한 대외접촉과 교섭에 관한 연구, 임진전쟁에 대한 기록 및 기억에 관한 연구등을 정리 발표했다.<sup>230)</sup>

동시에 한국 학계에서는 임진전쟁 관련 박사학위 논문과 단행본이 다수 출간되었다. 예를 들어 김한신 『임진전쟁기 柳成龍의 군사·외교활동 연구』, 김준배 『일본 문헌 속의 이순신 표상(表象) 연구』, 조인희 『임진왜란기 조선의 대외교섭과 조일 국교 회복에 대한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전쟁에 대한 호칭은 물론 유성룡과 이순신이라는 대표 인물을 소재로 전쟁 중의 군사·외교 활동을 밝혔고, 전쟁이 끝난 이후 국교 회복 문제에 대해서 주목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이다.

또한 2020년 들어와서 임진전쟁 관련 단행본과 사료를 역주한 작업은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sup>231)</sup> 우선 김영진 『임진왜란, 2년 전쟁 12년 논쟁』, 김문자 『임진전쟁과 도요토미 정권』, 이계황 『임진왜란- 동아시아 국제전쟁』, 구병진의 「명나라의 임진전쟁 『경략복국요편(經略復國要編)』」(1~5), 김경록 『조선중기 한중군사관계사』를 들 수 있다.<sup>232)</sup> 국제정치적인 차원에서 한·중·일 삼국의 전면전을 담은 내용에서부터 명 관련 자료의 역주·소개, 그리고 일본의 연구 성과를 전반적으로 정리·비판한 부분까지 다양한 시각의 실증적인 연구가 발표되었다.<sup>233)</sup>

## 2. 전쟁의 발생 원인

현재까지도 임진전쟁의 원인 또는 배경에 대해서는 諸說이 분분하다. 한국에서 임진전쟁 원인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히데요시의 개인적인 명예욕과 공명심'과 '국내 평정과 통일 과정에서 발생한 다이묘들과 무사들의 남아도는 무력을 외부로 전환하여 불만을 해소하려는 방안'으로 이해되고 있다.<sup>234)</sup> 즉 그 원인을 히데요시 개인의 성향을 강조하거나 또는 히데요시 정권

230) 川西裕也·中尾道子·木村拓, 『壬辰戰爭と東アジア-秀吉の對外侵攻の衝撃』, 東京大學出版部, 2023.  
 231) 김한신, 『임진전쟁기 柳成龍의 군사·외교활동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한국사학과 박사논문, 2020. 김준배, 『일본 문헌 속의 이순신 표상(表象)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중일어문학과, 2020. 조인희, 『임진왜란기 조선의 대외교섭과 조일 국교 회복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2.  
 232) 김영진, 『임진왜란, 2년 전쟁 12년 논쟁』,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1. 김문자, 『임진전쟁과 도요토미 정권』, 경인문화사, 2021(서평, 김경태, 「국제관계의 구조 속에서 임진전쟁을 재조명하다- 김문자저, 『임진전쟁과 도요토미 정권』-」, 『軍史』 120, 2021, 225~242쪽. 서평, 윤병남, 「임진전쟁의 천착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임진전쟁상의 구축- 김문자저, 『임진전쟁과 도요토미 정권』, 『日本歴史研究』 56, 2021, 203~211쪽). 이계황, 『임진왜란- 동아시아 국제전쟁』, 해안, 2023(서평, 김경태, 「한국의 임진왜란 연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이계황저, 『임진왜란- 동아시아 국제전쟁』, 『역사학보』, 258, 2023, 277~287쪽). 구병진외, 「명나라의 임진전쟁 『경략복국요편(經略復國要編)』」(1~5), 국립진주박물관, 2021(서평, 박민수/김영진, 「임진왜란을 보는 '새로운' 창 -『經略復國要編』의 재조명과 사례 분석-」, 『軍史』 127, 2023, 35~75쪽). 김경록, 『조선중기 한중군사관계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22(서평, 홍성화,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통해서 본 조선 중기와 임진왜란- 김경록저, 『조선중기 한중군사관계사』, 『지역과 역사』 51, 2022, 207~515쪽.  
 233) 이외에도 이계황, 『인물로 보는 일본역사 4, 도요토미 히데요시』, 살림, 2019. 이수열, 「'바다의 역사'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론: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韓日關係史研究』 75, 2022, 99~135쪽도 참고할 만하다.  
 234) 이형석, 『壬辰戰亂史』 1-3, 壬辰戰亂史刊行委員會, 1974. 한우근, 「임진왜란 원인에 대한 검토-豊臣秀吉의 전쟁 도발 원인에 대하여」, 『역사학보』 1, 1952, 99~112쪽.

의 내부모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전쟁 발발의 배경에 대해서 ‘히데요시의 사전 준비 없이 행해진 망상’으로 도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과연 히데요시는 국제전쟁을 일으키면서 사전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히데요시의 ‘망상’이라는 표현만으로 7년간의 엄청난 전쟁의 비극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전쟁 발발의 배경을 살펴보자.

우선 박수철은 히데요시의 ‘공명설(공명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명예, 심리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며 경제적으로 사할이 걸린 문제임)’과 ‘영토확장설’을 결합한 설을 주장하고 있다.<sup>235)</sup> 이계황은 한국학계에서 전쟁 원인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빈약하다고 전제하면서 “히데요시 정권 구조는 외부와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領國 지배권을 강화해 가던 전국 다이묘 정권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이 정권은 압도적인 우위의 영지와 군사력 미확보, 다이묘들을 통제할 제도의 부재 등으로 말미암아 외부에 긴장 관계가 필요했고, 그로 말미암아 조선을 침략했다”고 파악했다.<sup>236)</sup> 그의 주장은 결국 정권의 모순을 외부로 돌린 것이라는 이론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전국 대명 및 도쿠가와 정권과의 차이를 염두해 두고 전쟁 발발의 원인을 고찰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필자는 히데요시가 전쟁이라는 군사적인 긴장 조건 속에서 군역 동원을 통해 자신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 했던 것을 핵심으로 봤다.<sup>237)</sup> 그 이면에는 전국동란 시기를 거치면서 무력으로 일본 국내를 장악한 히데요시가 일본의 ‘무위’를 과시하면서 자신의 공명심과 명예욕을 높이려 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동시에 명과 조선을 포함한 대외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日輪(태양)의 아들’, ‘신국사상’을 결부시켜 침략의 정당성을 만들어 갔던 것이다. 따라서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킨 배경은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집권적인 권력을 편성하여 ‘무위’를 바탕으로 한 히데요시 자신의 공명심과 명예욕 ‘영토확장’과 ‘무역확대’라는 목적이 전황과 맞물리면서 변화되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임진 전쟁의 발생 및 원인에 대한 연구가 에도시기부터 왕성하게 이루어져 왔다. 자세한 내용은 기타지마 만지(北島万次)의 연구가 참고 되는데,<sup>238)</sup> 일본의 연구 동향은 전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쟁이 발발했다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 여기에 ‘감합무역 부활설’과 ‘영토확장설’이 양자택일적으로 주장되어 왔던 시절도 있었으나, 이후에는 히데요시의 대외 인식과 대외 통상 측면에서 전쟁 발발 배경을 보려는 시각이 대두되었다.<sup>239)</sup>

최근 주목되는 견해로는 ‘유럽 세력에 대한 일본의 저항이 결국 아시아 침략을 초래했다’는 히라가와 신(平川 新)의 연구와 1592년 5월 히데요시가 보냈던 ‘삼국분할구상’과 관련된 17개 조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의 연구를 들 수 있다.<sup>240)</sup> 동시에 히데요시

235) 박수철, 「15·16세기 일본의 전국시대와 도요토미 정권-‘임진왜란’의 재검토」,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역사학회 엮음, 2006, 일조각, 207~211쪽.

236) 이계황, 「한국과 일본학계의 임진왜란 원인론에 대하여」,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권, 2010, 83~87쪽. (후에 『임진왜란-동아시아 국제전쟁』, 혜안, 2023 참고)

237) 김문자, 위의 책, 22쪽.

238) 김문자·손승철 엮음, 「임진왜란에 관한 일본의 역사인식」, 『北島万次, 임진왜란연구의 재조명』, 경인문화사, 2019, 37~60쪽.

239) 전술한 것처럼 ‘감합무역 부활설’과 ‘영토 확장설’이라는 고전적인 내용으로 전쟁 발발의 원인을 설명해 왔다. 여기에 대외 무역론, 동아시아 지역사, 히데요시 정권의 모순과 특질, 막번체제의 성립 과정 중의 한 단계로 임진전쟁 (또는 전쟁 발발 배경)을 고찰하려 했던 것이 일본 학계의 연구 동향이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수용하면서도 최근에는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여러 배경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쟁 발생 원인을 살펴보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240) 平川 新, 「豊臣秀吉の朝鮮出兵をめぐる最近の論議」, 『通説を見直す - 16~19世紀の日本』, 清文堂, 2015.

가 국내 다이묘를 대상으로 전쟁 선포를 언제 했는지 그 시기에 대해서도 논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호리 신(堀新)은 히데요시가 ‘가라이리(唐入り)’를 선언한 시기와 이것이 실제로 현실화되기까지의 과정을 검토하였다.<sup>241)</sup>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데, 필자는 선교사들의 기록에 히데요시의 명 정복 의도가 그의 명예심과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서술된 점을 주목하고 싶다. 전쟁 발발 전후 히데요시가 발급한 문서를 통해서 임진전쟁을 일으킨 궁극적인 목표가 조선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2차 침략도 전세가 불리해지자 강화협상을 통해서 조선의 부산, 경상도 남부 지역만이라도 확보해서 무역 거점을 확보하여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은 국내 전국 통일의 일환으로서 조선까지도 그 범주에 포함시켜 전쟁이라는 군사적인 긴장 조건 속에서 군역 동원을 통해 자신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 했던 것이다.

### 3. 『정한위략』에서 보이는 임진전쟁

에도막부 말기 임진전쟁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문헌은 『정한위략』이다. 이것은 미토번(水戸藩)에서 만든 역사편찬소 쇼고칸(彰考館)의 편수 총재였던 가와구치 조쥬(川口長孺)가 1831년에 편찬한 것이다.<sup>242)</sup> 총 5권 5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86년(天正 14)년부터 1598년(慶長 3년)까지 19세기 전반기에 편찬된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임진전쟁 통사로서 조선침략에 대해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sup>243)</sup>

18세기 후반부터 러시아의 남하로 시작된 서양세력의 접근에 따라 일본의 위기 의식은 고조되었다. 이러한 대외적 위기론에 대한 방어책으로 대두된 것이 海防論이었고, 근대국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서 국방과 군사적 긴장감이 고양되자 조선과 임진전쟁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sup>244)</sup> 일본의 무위를 강조하는 미토학적 역사관에 입각한 가와구치 조쥬는 당시 일본의 급변하는 대외적인 위기 속에서 히데요시 및 임진전쟁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책을 발간한 것이다. 즉 해외관련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싶었던 그는 기존의 군학자가 편찬한 軍書는 단편적이고 제한된 주제만 정리되어 있다고 보고 이런 종류의 문헌들은 배제하고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던 것이다.<sup>245)</sup>

同, 「スペインとポルトガルの日本征服論をめぐって」, 『歴史評論』 815, 2018. 박경수, 「イエズ스會の日本「武力征伐論」について-高瀬・平川研究の批判的検討」, 『歴史』, 133, 東北史學會. 松方冬子, 「世界の中の近世日本史をどう描くか-平川新『戦国日本と大航海時代』に寄せて」, 『洋學』, 27, 2020. 村井章介, 「秀吉の世界征服構想と「女の領域」」, 『立正史學』 125, 2019, 18~26쪽. 이외에도 遠藤珠紀, 「新たな山中長書状写 豊臣秀吉の「唐入り」構想」, 『古文書研究』 93, 2022. 히데요시의 서장 변화를 통해서 그가 명 정복 구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기 시작한 연구도 있다. 小野恭一, 「豊臣秀吉自筆書状にみる明国征服構想の変化」, 『黎明館調査研究報告』, 34, 2022.

241) 堀新, 「豊臣秀吉の「唐入り」構想, その成立と現實化」, 『立正史學』 125, 2019, 56~60쪽.

242) 가와구치 조쥬(川口長孺)는 제 9대 미토 번주였던 도쿠가와 나리아키라(徳川齊昭)시기의 쇼코칸 총재였으며 미토번의 3대 저술가 가운데 하나로 일컬어지는 사람이었다. 『대일본사』 편찬에 참가하였고 총재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쇼코칸의 방대한 문헌을 열람할 수 있어서 『정한위략』은 이러한 배경에서 저술된 것이다.

243) 권①은 1586년~1592년 5월, 권②는 1592년 6월~1593년 1월, 권③은 1593년 2월~1593년 12월, 권④는 1594년 1월~1597년 7월, 권⑤는 1597년 7월 ~1598년 12월로 구성되어 있다.

244) 『정한위략』의 발간 배경에 대해서는 노영구, 「『정한위략』에 나타난 일본의 임진왜란 海戰 이해」, 『이순신연구논총』, 22, 2014, 5~11쪽. 김준배, 「19세기 일본 임진왜란 문헌 속의 이순신-『정한위략』과 『일본외사』를 중심으로」, 『이순신연구논총』, 31, 2019, 170~172쪽 참조.

245) 예를 들어 흥미 본위의 상업출판물 기사를 배제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大閤記』이었다.

『정한위략』은 일본의 史籍·軍記類(『黑田家記』 『豊臣秀吉譜』 등)와 『寛永諸家系圖傳』 『藩翰譜』와 같은 系圖類, 문인들의 문집류(하야시 라잔, 아라이 하쿠세키 등), 수필 등을 활용하였다.<sup>246)</sup> 명의 경우에는 『明史』 『明史記事本末』 『武備要略』 등 이전의 임진왜란 문헌에서 거의 이용된 적이 없는 자료도 다수 인용되고 있다. 조선의 경우에는 류성룡의 『懲毖錄』 『隱峯野史別錄』을 많이 이용하였다.<sup>247)</sup> 이처럼 임진전쟁 관련 사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기록류를 기본 사료로 적절하게 인용하면서 사료 비판과 실증적인 부분을 높였던 것이다.

이처럼 광범위한 자료를 인용하여 임진전쟁 관련 선행문헌을 편년체로 편성하고 출전을 기록하였다는 점과 조선·명의 해외 문헌을 상호 대조하면서 실증적인 부분을 강조하여 戰史를 편찬했기 때문에 『정한위략』은 역사서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헌은 매우 권위 있는 저술로 취급되었고,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사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sup>248)</sup>

특히 이 문헌은 상업적 목적으로 출판한 것이 아니고 가문과 소수의 관계자만 보기 위해 작성된 서적이지만, 그의 손자 대에 간행되어 일본에 널리 퍼지게 되면서 역사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근대의 역사학은 가와구치 주조가 기술했던 줄거리를 전거(典據)로 해서, 여기에 새로운 시각을 추가하거나 혹은 비판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책을 섭취해 나갔다.<sup>249)</sup>

이 문헌은 “豊太閤의 조선정벌은 우리 일본의 武威를 외국에 떨친 盛舉로서 國史를 편수하는 자가 考究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漢土·朝鮮의 書, 日本 諸家の 秘策을 인용하여 추호의 私感도 더하지 않았으며, 年月·地理를 推考하고, 사실의 경과·功의 實否를 考證했다. 조선정벌의 實錄이다.” 라고 홍보되었다.<sup>250)</sup>

이처럼 『정한위략』의 집필 목적이 임진전쟁 당시 일본군의 압도적인 승리를 주장하고 강력한 일본 중심주의를 내세우면서, 히데요시의 침략을 ‘征韓偉業’으로 평가한 것은 큰 착오이며 이 책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다. 즉 일본군의 우세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중국 문헌을 사용하였고, 전쟁 원인을 조선에서 찾으려고 할 때는 조선 측 자료를 본문과 세주에 인용하면서 자기 견해를 교묘하게 왜곡, 주장한 부분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 문헌에서 임진전쟁의 발발 배경과 히데요시에 대한 평가, 일본군의 점령정책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자.

## (1) 임진전쟁의 배경

『정한위략』은 1586년부터 1598년까지 임진전쟁 시기의 외교·전쟁 상황을 한문으로 정리하였다. 그 내용은 (1)무로마치 시기의 조일관계, (2)히데요시가 對馬島 소씨(宗氏)에게 조선 복속 교섭을 명령한 경위, (3)1차 침략과 주요 전투 내용(평양성·벽제관·진주성 전투) (4)일·명강화교섭의 전반적인 과정과 파탄, (5) 2차 침략과 울산성 전투 및 철수 과정 등으로 구성되었

246) 이하 『정한위략』에 대한 서지적인 내용은 최관·김시덕, 『임진왜란 관련 일본 문헌 해제』, 도서출판 문, 2010, 402~403쪽과 김시덕, 『일본의 대외 전쟁』, 열린책들, 2016, 271~295쪽 참조. 中野等, 「文祿·慶長の 役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3권, 2010, 245~246쪽 참조.

247) 가와구치는 류성룡의 『懲毖錄』에 대해서 상대화하고 비판적이었다. 정치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었던 안방준의 『은봉야사별록』을 오히려 많이 이용하였다. 이와 반대로 김성일에 대해서는 통신사 서계의 회신 문구로 논쟁이 있었을 때 ‘말이 매우 간절하여 훌륭한 사신이다’ 라든가 ‘(히데요시가) 지난달에 사신으로 왔던 김성일 등은 죽이지 말라’라고 하면서 김성일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류성룡과는 대조적이다. 『정한위략』 1편 19년 신묘 봄 기사, 1편 20년 문록 원년 임진 4월 5일 기사

248) 김시덕, 위의 책, 271~295쪽.

249) 김준배, 위의 논문, 166~168쪽. 대표적인 예로서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의 저명한 『근세일본국민사』의 편찬 형식을 들 수 있다.

250) 이 문헌이 간행될 당시 광고문 참고. 中野等, 위의 논문, 245쪽 재인용.

다. 전쟁 발발 배경은 1편과 4편에 집중되어 있다.

제1편에는 전술한 것처럼 무로마치 시기의 조일관계 이외에도, 1587년 정월 沙乙背同의 죽도사건, 1590년 황윤길 김성일 통신사의 왕래와 서계문제, 조선 침략전의 군 배치도, 한성까지 공략한 과정과 선조의 이동 동선 등이 상세하게 언급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590년 통신사의 답서에 “히데요시 자신은 태양의 아들이며, 직접 명에 들어가 일본의 풍속으로 400여 주를 바꾸고 억만년 동안 帝都의 政化를 베풀려고 한다”.<sup>251)</sup> 또한 히데요시가 자신의 아들이 죽자 “옛부터 漢土는 우리를 자주 침략하였는데, 우리는 신공왕후 이래 크게 거병한 이후, 외국 정벌을 한 적이 잠잠하여 들은 바가 없다.....나는 명을 침입하여 대신에 황제가 되련다....먼저 군대를 보내 조선을 정벌하여 조선을 복종시키고, 조선으로 선봉을 삼고자 한다(생략)”.<sup>252)</sup>

위의 내용을 통해 전쟁의 원인을 알 수 있다. 즉 에도시대(堀正意와 林羅山)부터 제기되어 왔던 ‘히데요시의 아들의 죽음설’과 ‘신공왕후의 삼한정벌처럼 해외에 무위를 떨치겠다’고 서술한 부분이다. 즉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국내 통일의 여세를 해외로 전가하려 했던 상황이 적혀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가와구치 조슈가 細注를 통해서 ‘감합무역설’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인 것이다. 그는 본문 내용과는 별도로 “명이 히데요시의 감합선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과 20만 명의 병력을 외국에 보내면서 어찌 감합요구를 하는데 그쳤겠는가” 라고 강조하고 있다.<sup>253)</sup> 즉 단순히 무역재개를 위해서 20만 명이나 동원해 전쟁일 일으켰다는 설을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591년(天正19) 겐소와 김성일의 대화 속에서 “明主(明皇帝)가 우리 사신과 소통하지 않으므로 히데요시 노하여 군사를 일으키고자 하니, 귀국이 사정을 잘 전달하면 우리 백성도 전쟁의 노고를 면한다” 라든가 “히데요시가 빨리 명나라에 들어가 황제가 될 것이다”라고 한 부분은 흥미롭다.<sup>254)</sup> 즉 명황제를 ‘明主’표현하고 히데요시 자신이 ‘明皇帝’가 되고 싶다는 내용과 ‘조선이 번신(藩臣)으로서 도로를 막고 있다’는 표현이다.

이것은 히데요시의 전쟁 목적이 명확하게 ‘명정복’에 있었고 ‘明主’ ‘明皇帝’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본과 명은 대등한 관계이고, 자신의 가명(佳名)을 삼국에 드날리고 후세에 남기려는 공명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 본다.

한편 『정한위략』에는 히데요시가 나고야로 출발하기 직전의 상황이 서술되어 있다. 즉 히데요시는 입조(入朝)하여 “신이 이전에 奏를 올려 명나라와 조선에 병사를 보내어 그 땅을 평정하여 우리 판도에 넣겠다고 하였다. 금일 신이 출발에 즈음하여 천하의 사무와 경사의 警衛에 이르자 히데쓰구(秀次)가 통섭하고 있으므로 법령이 엄밀하여 천황께서는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sup>255)</sup>

여기서 『정한위략』은 히데요시의 1차 전쟁이 신공왕후의 삼한정벌처럼 해외에 무위를 떨치고 명·조선의 영토 확장에 목적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구치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

251) 『정한위략』 1편 18년 경인 12월 기사.

252) 『정한위략』 1편 19년 신묘 6월 기사

253) 『정한위략』 1편 18년 경인 12월 기사. 『征伐記』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 가와구치는 설명이 틀려 택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254) 『정한위략』 1편 19년 신묘 기사

255) 『정한위략』 1편 20년 문록 원년 임진 3월 23일 기사. 이 날짜와 관련해서 25일 또는 26일 가능성도 있다고 세주를 달고 있음.

침하기 위해 ‘감함무역설’을 부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정한위략』 4편에는 3년 반 넘게 진행되어 온 일명강화교섭의 파탄 과정이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2차 전쟁의 발발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1596년 9월 2일 히데요시는 후시미성에서 명 사신을 만나고 3일에는 향연을 베풀면서 명주(명황제)의 새서(璽書)를 읽게 하였다. 이때 금인과 고문(誥文), 유문(諭文)의 낭독이 있었으며 이것을 다 듣고 난 뒤 히데요시가 대노하면서 “내가 일본의 왕이 되고자 했으면 어찌 저들의 힘을 빌렸겠는가? 그들이 나를 일본 국왕에 책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나” 라고 반문하였다. 이에 대해 承兌가 간하여 말하기를 “중국 문명은 諸國보다 우수하였으므로, 제국이 책봉을 받는 것은 예전부터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전하의 위덕이 서쪽 지역까지 뻗었기에 특별히 책사를 봉한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컨대 책사를 포상하시고 답서를 주어 영원히 함께 通好하여 후세에 나라의 榮華를 남기십시오”<sup>256)</sup>

여기서 주목할 것은 책봉의 의미와 답서의 작성, 그리고 ‘通好’부분이다. 이 중에서도 “통호를 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2차 전쟁의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즉 承兌의 요구에 대해 히데요시는 “조선과 강화는 결단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테라사와 마사나리(寺澤正成)를 통해 謝表를 보내고 있다. 그 내용은 조선을 문책하는 글이었는데 “전년에 사신이 왔는데, 명나라의 사정을 비밀로 하였다. 그것이 죄의 하나이다. 지난날 심유경이 요청하여 두 왕자를 돌려보냈는데 속히 들어와 사례하지 않았고, 명나라의 사신이 오면서 천박한 사신을 데리고 온 것이 두 죄의 두 번째이다. 우리 일본과 명나라가 강화를 하는데 조선으로 인해 뒤집은 경력이 여러 해인 것이 그 죄의 세 번째이다”라고 하였다.<sup>257)</sup>

다시 말해서 히데요시는 책봉사 이종성의 도망사건을 조선이 전달하지 않은 점과 조선의 두 왕자가 사례하지 않은 점을 핑계 삼아 다시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은 『정한위략』에서는 지금까지 통설로 알려져 온 정유재란의 발발 원인으로 ‘히데요시의 일본 국왕 임명’거부설이나 ‘조선 왕자의 내일’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고문(誥文), 유문(諭文)을 찢으면서 대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과 다른 서술을 하고 있다. 가와구치는 細注에서 “朝川鼎이 말하기를, ‘고문(誥文)’의 원본이 지금 구산후(龜山侯)의 저택에 소장되어 있다. 큰 쪽의 비단을 사용하였는데, 큰 글자로 써서 1행에 4자이다. ‘만력 십사년 월일에 만들었다(萬曆十四年造)’라는 8자가 베짜기로 이루어졌다. 유문(諭文)은 심유경이 가지고 왔는데 부분(副本)이다. 지금 平戶侯 저택에 소장되어 있다”라고 하였다.<sup>258)</sup>

즉 2차 전쟁 발발의 원인을 외면적으로는 ‘조선왕자가 來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면서도 히데요시가 본인을 일본국왕으로 임명하여 고문과 유문을 찢었다고 하는 통설은 언급하지 않고 각기 남아있는 유물의 소장지를 서술하고 있다. 그의 의도는 에도시대 유학자·병학자·경세들이 과장·날조해서 만들어낸 히데요시와 책봉사와의 파탄 과정을 부정하고 본인의 저서가 실증적인 기록이라는 입증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가와구치는 『정한위략』에 고문(誥文), 유문(諭文)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정한위략』에서는 히데요시가 2차 전쟁을 감행하기 직전에 기요마사와 조선침략을 논의하는 과정이 적혀있다.

256) 『정한위략』 4편 경장 원년 병신 9월 3일 기사

257) 『정한위략』 4편 경장 원년 병신 9월 9일 기사

258) 상동. 이와 관련해서 誥文은 현재 오사카 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년도는 ‘만력 23년 정월 21일’로 되어있다. 諭文은 宮內廳 書陵部에 소장되어 있다.

“기요마사와 유키나가를 선봉으로 삼는다. 주고쿠(中國)와 규슈의 諸君은 바다를 건너 삼한을 탕평하라. 도고쿠(東國)와 호고쿠(北陸), 기나이(畿內)의 무리들은 후시미성을 수축하고 군사로 토목사업을 함께 일으키겠다”.<sup>259)</sup>

위의 사실을 보면 히데요시는 전쟁을 통해 후시미와 오사카 도시를 정비하면서 군수물자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쪽 지역 지배를 강화하여 일본열도 전역에 자신의 지배 강화를 도모하려는 구상이 보인다.<sup>260)</sup> 다시 말해서 잇단 패전과 휴전 상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일본군을 주둔시키고 전쟁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일본열도 전역의 지배를 강화할 목적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다. 『정한위략』은 히데요시의 2차 전쟁 목적이 ‘通好’와 군사적인 긴장 조건 속에서 군역 동원을 통해 자신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 부분을 시사해 준 점에 대해 주목할 만하다.

## (2) 일본의 점령정책

일본군의 점령정책과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민중들의 실태가 『정한위략』에 단편적이지만 언급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군은 국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禁制나 오키테(掟)를 이용하여 점령정책을 시행했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있었다. 최근 오타 히데하루(太田秀春)가 조선 현지에 들어간 일본 諸將들이 일본 국내와는 다른 상황에 당혹해 하면서도 ‘榜文’을 게시하거나 ‘대리자’를 파견하고, ‘察(식량과 교환되거나 혹은 세금납부 조건으로 교부되는 것)’이라는 형식을 만들어서 지역지배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밝혔다.<sup>261)</sup> 이와 관련해서 『정한위략』을 통해 일본군이 시행한 점령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1)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와 소 요시토시(宗義智)가 1592년 4월 22일 인동성에 들어와서 내걸었던 ‘榜文’이다. 내용은 “백성으로 도산(逃散)한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오라. 남자는 농사짓고, 여자는 길쌈을 하여 四民이 각기 편안하게 본업을 수행하라. 우리 일본군으로 조선 백성들의 본업을 방해하는 방법을 행한 자는 반드시 벌을 주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sup>262)</sup>

2) (1592년) 5월 21일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가신이 히데요시의 명을 받들어 도성 신민들에게 示諭하기를 “근래 조선의 정치가 가혹하고 법령이 번다하여 사민이 그 할 바를 잃어버렸다. 내가 비록 불민하지만 장차 경내에 선정을 펼쳐 도탄에서 민생을 구하고자 한다. 문무관료로 먼저 복종하는 자는 그 기량에 따라 직책을 주고, 나중에 하는 자는 벌을 주고 사면하지 않을 것이다. 농민과 상인들이 빨리 옛집으로 돌아오면, 각기 자기의 직업을 닦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sup>263)</sup>

259) 『정한위략』 4편 경장 원년 병신 9월 기사. 가토 기요마사에 대해 “武才가 아주 뛰어나 자주 훌륭한 공을 세웠다. 임진년부터 국경을 넘은 이후 이익과 욕심을 탐하지 않고, 용렬하고 잡스러운 것을 불쾌해하며 히데요시의 일을 받들었으니, 실로 마음이 분명한 장부의 위엄이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에 반해 고니시 유키나가에 대해서는 “고집이 세므로 자주 간하였는데 유키나가는 따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군대가 패할 것이 염려된다”고 평하였다. 이러한 두 사람에게 평가는 기요마사의 무용을 추앙하는 근거가 되어 근대 이후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정한위략』 2편. 계사2년 2월 7일 기사.

260) 曾根勇二, 「임진왜란기의 일본 열도 동향 - 군사대국 일본으로의 길」, 『임진왜란 제 7주갑 국제학술대회 국제전쟁으로서의 임진왜란』, 한국학 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2012, 246~248쪽.

261) 太田秀春, 「정유재란중 일본군의 점령정책-전라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일공동연구 정유재란사』, 조원래 외, (재)임진정유동북아평화재단, 2018, 532~533쪽.

262) 『정한위략』 1편 20년 문록 원년 임진 4월 22일 기사

263) 『정한위략』 1편 20년 문록 원년 임진 5월 21일 기사 (『서정일기』 인용)

3) 조선의 士民으로 왕성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병으로 징발되고 있었는데 제장들이 모두 그들이 명나라의 병사들과 합하여 도로를 막을 것을 걱정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였다. 고바야가와 다카카게(小早川隆景)는 “諸軍 보졸들은 그 반은 조선인이 반인데 만약 조선인을 의심하여, 특히 城中의 사민이 아니라고 하여 모두 죽인다면 무엇으로 전투를 할 것인가?”<sup>264)</sup>

4) (1597년) 7월 20일 전주성 전투에서 승리한 나베시마 가쓰시게(鍋島勝茂)는 전라도 지역에 주둔하였다. 이때 일본군의 식량이 궁핍해지자 가쓰시게는 ‘방문’을 내면서 “주민들이 우리 일본군을 침략자로 의심하는데, 우리 진영으로 와서 ‘牌’를 받아서 ‘信標’로 삼아라. 그러면 생명을 보전하고 편한히 거주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sup>265)</sup> 그러자 사람들이 되짚을 가져오면 패를 주어 교환하니, 원근의 백성들이 보고 들고 하여 크게 모였다. 그리하여 하루에 쌀 2천여 석을 얻음으로써 병사들을 구제하였다.<sup>266)</sup>

5) (1597년) 9월 남원과 전주가 함락되어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을 일본군이 점령하였다. 이때 일본의 제장들이 논의해서 경상도는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 전라도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통괄하도록 하였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榜’을 걸었는데 “도피한 사람들은 향리로 돌아가서 농사에 힘써라. 도망치거나 숨어서 나오지 않는 자는 형벌을 처한다. 우리 일본군이 인민을 해치면, 흉포자로 여겨 고소하는 것을 허락한다.”<sup>267)</sup>

일본군이 제시한 몇 가지 ‘榜文’ 등 회유책을 보면, 조선에 건너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 하루빨리 明을 공격해야 하는 사정 때문에 조선을 신속하게 지배하려 했던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할 경우 (1)(5)처럼 ‘일본군의 처벌’까지 내세우면서 점령정책을 시행하려 했던 점은 흥미롭다( 다른 ‘榜文’에는 일본군의 처벌 여부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조선의 문무관료들에 대한 회유책과 일본군이 한성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일본군 중에 조선의 사민들이 편성되어 있다”는 언급은 조선사료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내용이라 주목할 만하다. 전쟁이 발발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한성지역의 사민들이 일본군의 보졸로 편성되어 있었고, 군병 부족으로 조선인을 흡수했다는 당시 일반인들의 실상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한위략』에는 왜성 주변의 조선인들의 상황도 서술되어 있다.

1593년 5월 초경에 일본군은 해변에 나누어 주둔하였다.(16~18소?) 모두 산에 의지하고 바다가 붙은 곳에 성을 쌓고 참호를 파도록 하였다. 주둔하면서 씨를 뿌려 오래도록 머무를 계책으로 삼았으므로, 바다를 건너가는 것에는 수급하지 않았다”고 하였다.<sup>268)</sup> 여기에 가와구치는 세주에 “조선의 항복한 백성들이 倭陣(왜성) 사이의 땅에서 耕種하여 바치도록 함으로써, 앉아서 조선을 곤경하게 만드는 계책으로 삼았다. 서생포의 왜진은 大城이고.....기장의 진영은 기요마사가 駐劄하였고, 병력이 수만 명이였다.....죽도에는 조선의 항복한 백성이 거주하는데 왜진은 대성으로 병력은 만 명 가량이다. 안골포 왜진은 소성이고, 조선사람이 많다. 웅기포 왜진은 대성으로 조선사람이 많다. 포로가 된 조선사람들이 둔전을 경작한다.<sup>269)</sup>

264) 상동. 가와구치 조주는 細注에서 일본군이 한성에서 철수한 시기에 대해 논쟁이 있으나 『명사』와 『흑전가기』를 근거로 18일이라 정하였다.

265) 『정한위략』 5편, 경장 2년 8월 21일 기사

266) 상동. 식량의 구체적인 분량까지 나타난 경우는 드문 경우로 인용하였다.

267) 『정한위략』 5편, 慶長 2년 정유 9월 기사. ‘榜文’을 보고 일본군에 협조하는 조선인들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牌’ 또는 ‘信標’를 교부하고 그 생명을 보장하는 주로 식량과 교환되거나 혹은 세금납부 조건으로 교부되었던 것이다. 특히 나오시게는 농업과 양잠을 권했다고 가와구치는 細注에 기록하였다.

268) 『정한위략』 3편, 2년 계사 5월 초하루 기사

왜성은 7년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전쟁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왜성은 최전선이자 사회경제적으로 주변 지역과 관련성을 가지면서 모였던 장소였다. 遷住, 傍, 啓諭의 조치에 대해 조선인들이 저항하여 일본군의 지배가 결코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겠지만, 왜성 주변의 사람들은 반대로 이들에 협조하면서 일상을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 사료에서는 일본 측에 가담했다는 의미에서 ‘부역’ ‘부왜’ ‘순왜’라고 표현했는데, 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하자 사민들도 자신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의 하나로 일본군의 정책에 응하여 거주지로 돌아온 자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 발발 직후부터 일본군에 협조한 사민들의 존재와 왜성 주변에서 공생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회현상은 당시 전쟁의 실상이었으며, 왜성이 문화교류와 문화전파의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정한위략』은 그런 의미에서 조선자료에서 접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 활용할 수 있는 문헌이라 할 수 있겠다.

## 나오며

### -향후 연구 제안-

에도막부 초기에는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을 비판하는 자세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후기로 가면 임진전쟁이 마무리 되면서 에도 200년이라는 ‘평화시기’ 토대가 만들었다는 평가가 생겨났다. 에도시기 지식인들은 중후기에 접어들면서 ‘침략자’에서 대륙진출의 ‘선구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변화해 갔다.<sup>270)</sup> 이러한 흐름은 근대 시기까지 이어졌고 최근까지도 ‘입신출세의 영웅’이며 상업도시 오사카와 교토 지역의 부흥의 토대를 만든 인물로 긍정적인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히데요시와 임진전쟁에 대한 기억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러한 기억의 전환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는 데 일조하였던 에도말기 『정한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한위략』의 마지막 부분에는 『明史』 『兩朝平壤錄』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 하고 있다.<sup>271)</sup>

“임진년으로부터 7년간 명나라는 군사 수십만을 잃었다, 흩어진 군량은 수백만이다. 조선과 더불어 명은 승산이 없는 데까지 다다랐다. 히데요시가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수 있었다. 조선은 잔인하게 파괴되어 천리가 고요하고 쓸쓸하였다. 明主(명 천황)가 이연에게 훈유하여 말하기를, “왕이 비록 옛것으로 돌아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 만드는 것과 같다. 시든 것을 거두고 황폐해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데 힘을 다하여도 배로 어려울 것이다. 와신상담해야 마땅하다. 이전의 치욕을 잊지 말라”라고 하였다.

도쇼구(이에야스)는 무기를 보관하고 쓰지 않으며 학문을 닦았다.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이웃 나라와 사이좋게 지냈다. 위엄과 덕망이 깊고 넓게 미쳐서, 멀리 있는 사람이 손임으로 왔다. 조선과 聘禮를 새롭게 닦고, 대대로 끊이지 않았다. 일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어서 책으로 펴내니, 먼 지방을 편안히 하는 방략이라고 할 만하다.”

269) 상동. 가와구치 주효는 細注에 성의 규모와 포로가 된 조선인들이 둔전을 경작하면서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거나 군량을 충당하고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적고 있다. 『정한위략』, 상동.

270) 김문자, 「에도시대 豐臣秀吉에 대한 인식」, 『중앙사론』 46, 2017, 297~309쪽.

271) 『정한위략』 5편 3년 무술 11월 기사

위의 내용은 명측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조선의 무례함을 벌하고 명나라를 정복하겠다는 히데요시의 의도는 그의 죽음에 의해서 중단되었고, 이는 일본의 패전이 아니며 오히려 명의 피해가 상당하였고 조선이 무능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의 집필 목적은 임진전쟁 당시 일본군의 우세와 무위를 주장하면서 조선을 정벌하기에 마땅한 국가로 취급하였다. 당연히 히데요시에 대한 비판은 일체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야스는 전쟁 이후 덕을 갖추고 막부를 세워 이웃 나라인 조선과 통신하면서 덕치의 상징적인 인물로 그려냈다.

결국 『정한위략』은 ‘중국, 조선, 일본 삼국의 자료를 고증한 역사서’라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중적이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면서 본인들의 대외 팽창정책의 정당성을 근거로 삼은 문헌이다. 또한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과 서술이라는 명분으로 이러한 편찬 자세는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나 나카무라 에이코(中村榮孝), 참모본부의 『日本戰史 朝鮮役』 등에 그대로 계승되어 히데요시의 위업을 평가하는 계보로 이어져갔다. 다시 말해서 일본에 근대 실증적인 방법론이 도입되면서 『정한위략』에서 언급된 임진전쟁 관련 줄거리는 이후 답습되면서 히데요시 및 임진전쟁의 표상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끝으로 근세 한일관계의 현안과 해법, 그중에서 임진전쟁과 관련해서 보다 종합적인 연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한 가지 언급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임진전쟁이 발생한 동아시아 지역의 변동에 주목하면서 임진전쟁을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포괄적인 시각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200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충분한 연구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전쟁이 삼국은 물론 류큐, 여진족, 포르투갈, 남방지역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던 사실과 전쟁의 규모 및 영향이 컸고, 일국사적·민족사적인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이 전쟁을 국제관계, 대외관계 속에서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 단독의 진행하기는 어려운 작업이므로 학회나 연구소의 공동 프로젝트로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근세 한일관계의 현안과 해법 - 『정한위략(征韓偉略)』과 임진전쟁 - 토론문

조인희(한국국학진흥원)

해당 발표문은 가와구치 조주(川口長孺)의 저서 『정한위략(征韓偉略)』의 서술을 중심으로 임진전쟁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발표자는 1장의 전쟁의 명칭, 2장의 전쟁의 발생의 원인 두 개 장을 통하여 기존의 연구를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인용을 통하여 3장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발표문에 서술되어 있듯, 『정한위략』에 드러난 히데요시의 위업을 평가하는 인식은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나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 참모본부의 『日本戰史 朝鮮役』 등으로 이어지며 일제의 대외 팽창정책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막부 말, 근현대 일본의 임진전쟁 인식과 관련하여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한, 일 양국 간의 인식차가 커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해당 주제는 근세 한일관계의 현안과 해법이라는 타이틀에 매우 적합한 개별 주제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발표문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1) 2차 침략(정유재란)의 발발 원인 및 강화 협상 추이와 관련된 질문(6쪽)

발표자는 2장 끝 부분(6쪽)에서 “2차 침략도 전세가 불리해지자 강화협상을 통해서 조선의 부산, 경상도 남부 지역만이라도 확보해서 무역 거점을 확보하여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은 국내 전국 통일의 일환으로서 조선까지도 그 범주에 포함시켜 전쟁이라는 군사적인 긴장 조건 속에서 군역 동원을 통해 자신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 했던 것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술은 정유재란의 원인 및 강화 협상과 관련하여 발표자의 시각이 잘 드러난 주장이며, 발표자의 예전 논고(김문자, 「임진왜란 연구의 제 문제 -임진·정유재란 발발 원인에 대한 재검토-」, 『한일관계사연구』 67, 2020)부터 반복된 주장이기도 합니다.

헌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발표자는 이 주장에 대하여 사료 인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침략(정유재란) 시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무역 구상이 당대의 사료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증될 수 있다면 위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 2) 전쟁 초기(1592년)와 2차 침략(정유재란) 시기 일본군의 점령정책을 동일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10쪽)

발표자는 10쪽에서 일본군의 점령정책을 논의하면서 『정한위략』의 서술을 다수 인용하여 논지를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된 내용의 시기를 보면 임진전쟁 초기와 2차 침략 시기(정유재란)가 구분 없이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진전쟁 초기와 2차 침략(정유재란) 시기를 보면 일본군의 점령 정책에 있어 공통점(조선인의 환주를 적극 장려 등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쟁의 규모나 양상, 전쟁 목적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일본군의 점령 정책을 논하고자 한다면, 전쟁의 전체적 양상의 변화를 개관한 이후, 어느 정도 시기를 구분하여(예) 전쟁 초기 / 1593년의 명군 이여송 참전 이후 강화교섭기 / 정유재란 전쟁 초기 / 1598년 초 울산 전투 이후 등등)으로 각 시기별 일본군 점령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시대순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점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 3) 발표자의 『정한위략』 관련 서술에서 드러나는 히데요시 인식의 연속성에 대한 질문

12쪽의 “에도시기 지식인들은 중후기에 접어들면서 ‘침략자’에서 대륙진출의 ‘선구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변화해 갔다. 이러한 흐름은 근대 시기까지 이어졌고 최근까지도 ‘입신출세의 영웅’이며 상업도시 오사카와 교토 지역의 부흥의 토대를 만든 인물로 긍정적인 평가하고 있다”는 서술이나,

13쪽의 결국 『정한위략』은 ‘중국, 조선, 일본 삼국의 자료를 고증한 역사서’라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중적이고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면서 본인들의 대외 팽창정책의 정당성을 근거로 삼은 문헌이다. 또한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과 서술이라는 명분으로 이러한 편찬 자세는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나 나카무라 에이코(中村榮孝), 참모본부의 『日本戰史 朝鮮役』 등에 그대로 계승되어 히데요시의 위업을 평가하는 계보로 이어져갔다.

라는 서술에서 알 수 있는 발표자는 에도시기 중후기 이후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히데요시 인식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한위략』의 저술 시기와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나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가 활동한 시기와는 최소 80~100년이 떨어져 있으며 『정한위략』이 작성된 시기는 아직 일본에 근대 역사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이었습니다.

또한 10쪽 각주 40번)에 서술된 고니시와 가토에 대한 서술 내용을 보면, 『정한위략』에는 소위 “도쿠가와 사관”도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정한위략』에서 근현대 일본역사학으로 이루어진 흐름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히데요시 인식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함께 논증될 수 있다면, 논의 내용이 한층 더 풍부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기타) 中村榮孝는 나카무라 히데타카로 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일까요?

## 변혁기(1867-1888년) 한일관계와 표류민 송환의 변화

현명철(서울대)

- I. 머리말
- II. 전통적 체제에서의 표류민 송환
- III. 과도기의 표류민 송환
- IV. 조일수호조규 체제에서의 표류민 송환
- V. 맺음말

### I. 머리말

흔히 근세 통신사의교로 대표되는 우호 친선의 한일관계가 단절되고 조일수호조규가 맺어지면서 침략과 저항이라는 근대 외교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역사는 긴 호흡에서 연속적으로 살펴볼 때 이해하기 더욱 쉽다. 아울러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관성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본 발표는 전통적 외교 관계에서 근대 외교 관계에 이르기까지 한일관계사를 연속적으로 조망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표류민 송환의 변화를 실증하고자 한다.

변혁기 한일관계사, 특히 표류민 송환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할 때, 필자는 다음과 같이 시기를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제1단계는 1872년 9월까지의 시기이다. 일본의 개국과 메이지 정부의 성립, 그리고 폐번치현이 있었지만, 쓰시마번의 존속으로 인하여 아직은 전통적 외교관계가 유지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전통적 표류민 송환이 변함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872년 9월, 하나부사에 의해 왜관사무를 외무성이 완전히 접수하고 세견선과 서계를 폐지하면서 전통적 표류민 송환에 변화가 나타난다.

제2단계는 1872년 9월부터 1876년 조일수호조규가 맺어지게 될 때까지의 과도기이다. ‘왜관침탈’ 혹은 ‘왜관강점’이라는 표현으로 과도기를 한일관계의 단절로 이해하는 연구가 있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 이 시기에도 표류민이 송환되고 있었다. 비록 외교적 갈등이 있었지만 인도적 관점에서 표류민 송환이 더 중시되고 지속되고 있었던 것은 양국이 서로 단교를 원하지 않았기에 전쟁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주목해야 한다. 이 시기에 왜관은 유지되고 있었으며 외교, 무역, 표류민 송환 등에 변화가 주목된다.

제3단계는 조일수호조규와 수호조규부록 및 통상장정(무역규칙)으로 새로운 외교-무역 관계가 성립되기 시작하는 1876년의 이후의 일이다. 이 시기의 표류민 송환에 변화가 보인다.

본 발표는 『동래부계록』과 『관수일기』에 나타난 표류민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두 편

의 졸고<sup>272)</sup>를 종합하고 시야를 넓혀 전체를 조망하고자 한 것이다.

## II. 전통적 표류민 송환의 지속

왜관에 왕정복고와 무진전쟁의 소식이 공개적으로 전해진 것은 1868년 3월 17일의 일이다. 즉 15일 표류민 호송선<sup>273)</sup>(大神丸)과 가선<sup>274)</sup>(瑜加丸)이 입항하여 쓰시마에 표착한 천성표민 8명을 송환하였는데, 이 배편으로 왕정복고와 무진전쟁의 소식을 관내에 알리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다. 왜관 관수 반누이도노스케(番縫殿介)는 3월 17일 관내 무사들을 모두 집결시켜서 위 소식을 공포하고 명령서를 읽도록 하였다. 하지만 전통적 외교 관계는 쓰시마를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였고 정식 서한을 통해 외교 관계 교섭에 대한 연락이 오지 않는 한, 달라질 일은 없었다. 이 상황은 1872년 9월까지 변함없이 지속된다.

### 1. 조선에 표착한 일본 표류민의 송환

조선에 표착한 일본 표류민들이 어떻게 송환되었을가에 대한 연구는 예상외로 드물다. 일본에서 이케우치사토시[池内敏]가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중에서 잠깐 언급하였고, 뒤이어 그는 1819년 충남 서천군 비인현에 표착하였던 사쓰마인 야스다 요시카타[安田義方]의 일기 『薩摩藩士朝鮮漂流日記』<sup>275)</sup>를 발간하여 일본인의 송환 과정을 표류민의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게 제공하였다. 이 책은 최근 국내에서도 번역되었으며,<sup>276)</sup> 이를 바탕으로 일본 무사 계급이 표류하였을 때의 접대에 관심을 보인 연구<sup>277)</sup>도 있다. 하지만 조선 사료를 바탕으로 일본 표류민 송환을 언급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다행히 『동래부계록』을 보면 수많은 일본 표류민을 송환한 기록이 있다. 이 기록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일반적인 일본 표류민의 송환 모습과 그 변화 과정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조선에 표착(漂着)한 일본 표류민은 쓰시마[對馬] 선박이 부산 왜관을 오가다가 표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노인(路引)을 소지한 세견선이나 비선이 왜관으로 오는 도중에 발생하는 표류이다. 북으로 표류한 경우에는 좌수영 소속 간비오봉 봉수대에서 발견하여 보고하면, 주로 무지포에 정박시키고, 부산진에서 별차와 소통사를 파견하여 그 지역 지방관과 문정을 하고 식량과 떨감을 지급하여 보호한다. 그 후, 경상좌수영 전선장의 영호(領護)하에 기장의 주사대장(舟師代將)이 오륙도까지 호송하여 부산진 전선장(혹은 개운포만호)에게 넘겨주면 그들이 호송장이 되어 왜관으로 호송한다. 한편, 남으로 표류한 경우에는 다대진 소속 응봉 봉군이 발견하여 계속 선박을 추적하면서 연락하고 주로 지세포에 정박을 유인하였으며, 표착 지역 지방관이 왜학 통사를 통해 문정을 하고 이를 부산진으로 알림과 동시에 왜관으로 호송하는 시스템이었다. 위 상황은 매우 빈번한 표착의 상황이지만 본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272) 졸고, 「메이지 초기 송환 표류민 사례연구」(한국학논총 50집) 2018.08 국민대학교

「조일수호조규와 표류민 송환의 변화」(공존의 인간학 5집), 2021. 02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 연구소,

273) 호송선에는 표차사가 질인(質人)으로 표민을 태우고 도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74) 가선(駕船)은 표류민을 승선시킨 배이다. 위 상황에서 호송선에 1명, 가선에 7명의 표민이 승선하였다.

275) 池内敏 『薩摩藩士朝鮮漂流日記』、講談社選書メチエ、2009년

276) 이근우, 김운미 역, 『조선표류일기』, 소명출판, 2020년

277) 심민정 「『朝鮮漂流日記』에 나타난 표류 왜인 호송과 접대 실태」(『한일관계사연구』70, 2020년)

또한 일본인이 조선에 표착하였지만, 선박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선박을 수리할 수 있을 경우는, 표착지의 지방관이 문정을 거쳐 선박 수리를 지원하여 표착지에서 바로 출발시키고 문정 내용을 동래부로 보고하였다. 대부분의 일본 표류 선박이 이에 해당하지만 이는 시대적 변화가 보이지 않으므로 역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본고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노인을 소지하지 않은 쓰시마 외의 선박으로, 파선하여 자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이다. 노인을 소지하지 않은 일본 선박은 해적으로 취급한다고 원칙을 천명하였지만, 표류한 표류민을 보호하고 송환하는 것은 한일 양국의 우호를 상징하는 중요한 외교 행위였다. 이때는 표착지에서 문정을 통해 일본인임이 확인되면 조선 수군의 보고 및 지시 체계를 이용하여 부산으로 호송하였다. 부산의 우암포에 정박시킨후 식량과 보급품을 지급하여 보호하면서 예조의 입송서계가 내려오면 쓰시마의 선박으로 송환하는 시스템이었다. 시기 단계에 따른 변화가 부산에 도착한 후 귀환할 때까지의 모습에서 뚜렷이 나타나므로 여기에 주의하며 살펴보자.

조선 정부의 보고 문서인 『동래부계록』에는 일본 표민이 조선에 표착한 기록이 보인다. 대부분 선박을 수리하여 표착지에서 출항하였다는 보고이다. 파선표민의 경우는 1867년 8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안예주(安藝州) 상인 7명이 흥해군 곡강진에, 에츠젠(越前) 상인이 청하현 송라포에 표착한 일이 있었고, 1871년 3월 26일, 제주도 명월포에 표착한 사쓰마 상인 10명의 표착을 들 수 있다.

1871년 3월 26일 제주에 표착하였던 사쓰마[薩摩] 표민의 사례를 들어 전통적 송환의 모습을 설명해 보자.

<사례1> 1871년 3월 26일, 제주 명월포(明月浦) 근처에 일본 사쓰마 선척이 파선 표착하였고, 지역 사람들이 작은 배를 보내어 일본인 10명을 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사쓰마[薩摩]주 가고시마[鹿兒島]지역 사람들로 가고시마에서 구치에라부시마[口永良部島]로 가서 공물로 사탕 869통 초석 400립, 사무역용으로 염저육 5항(缸) 등을 싣고 동년(1871) 3월 11일 본토(가고시마)를 향하여 출발하였으나 12일 폭풍우로 선구가 부러져 표류하여 제주 명월포까지 와서 26일 구조된 것입니다. 표실되고 남은 물품들을 수습하였지만 배(音羽丸)는 파선이 심각하여 표민의 뜻에 따라 소각하였으며, 4월 1일 말에 태워서 제주 관아로 호송하였습니다. 제주 관아에서 식량과 의복을 공급하고 보호하다가 5월 23일 항구로 이동하여 25일 제주목 선척에 승선하여 5월 27일 출항하였습니다.

위 사쓰마 표민들은 6월 13일 방답진-성두포를 거쳐서 경상 관내로 건너왔습니다. 영호차원(領護差員)으로 녹도만호, 지로차원(指路差員)으로 회녕포만호, 좌수영왜학이 나아가 평산으로 영예(領曳)하여, 남해현 선박에 표류민과 물품을 옮겨 싣고 식사와 의복을 지급하여 숙박하였습니다. 14일 남해현 선박이 출항하여 미조항진과 사랑진을 거쳐 공수포(公須浦) 전양에서 숙박하고, 15일 고성부선박으로 옮겨 출발하여 거제 야소포 전양에서 숙박하고, 16일 영호차원 당진만호, 지로차원 옥포만호가 인수하여 거제선으로 옮겨 수호하였습니다. 17일 출발하여 한산 앞바다에서 가배랑-울포(栗浦)를 거쳐 구조라포에서 지세포만호가 인수하여 숙박하였습니다. 18일 출발하여 지세포에서 2일 숙박하고, 20일 출발하여 천정보만호에게 인계하고 숙박하였으며 웅천현 선박으로 옮겨왔습니다. 21일 출발하여 다대진 영호장이 인수하여 숙박하고 22일 개운포만호에게 인계하여 설문 내양에 정박하게 하였습니다. 부산진 선박으로 표류민과 물품을 옮기고 웅천선박과 양차원(당진, 옥포만호) 및 왜학(좌수영)은 귀환하였습니다. 25일 훈도 안동준이 설문 내양에 정박한 표류민을 찾아 문정하여 위 사항을 확인하고, 문정 수본과 표류

민의 신상명세를 작성한 성책을 의정부와 삼군부에 상송하여 보고합니다. 표류민에게는 정박 중 매일 식사를 제공하고 출발시에는 1인당 도해량미 10두와 옷감으로 공목1필씩 지급하겠습니다.<sup>278)</sup> (날짜는 음력)

보고 내용이 상세하므로 당시 상황을 복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5월27일 제주를 출발하여 6월 13일 방답진에 도착하기까지의 경로는 위 사료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아마 전라좌수영에서의 보고에 자세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확인하지 못하였다. 경상도 관내에 들어온 다음의 항로는 자세히 보고하고 있다. 즉, 6월 13일 방답진을 출발하여 경상도 남해 관내로 들어와 평산에 도착하여 경상도 수군에게 인수인계된 이후 22일 설문 내양에 도착하기까지 9일간, 남해현 선박(평산→공수포)-고성부 선박(고성부→야소포)-거제현 선박(야소포→천성보)-웅천현 선박(천성보→설문내양)으로 네 차례 갈아타고 경계구역이 바뀔 때마다 수호 담당이 교체되면서 호송되고 있음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군사훈련을 방불하는 호송작전을 연상하게 한다. 지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도1 : 경상도 관내의 호송로, 굵은 숙박지>



주목되는 점은 부산에 도착한 후 귀환할 때까지의 모습이다. 설문 내양에 정박시키고 나서 부산진 선박으로 옮겨서 식량을 제공하고 예조의 입송서계가 올때까지 기다린다. 입송서계가 도착하면 세견선이 이들을 태워 쓰시마로 떠났으며 떠날 때에 도해량미와 옷감을 지급하였음은 전통적 표민 송환시스템에서 중요한 일이었다. 원래는 우암포<sup>279)</sup>에 정박시키는 것이 상례였는데 설문내양으로 장소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그 이유에 대해 『동래부계록』에는 우암포에 정박시켰을 때, 어채와 수호왜(왜관에서 우암포에 파견된 금도왜)에 대한 보상, 임시 거처 마련, 궤연(饋宴)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많았는데, 훈도 안동준이 유례(謬例)를 고치고자 설문 내양으로 이끌었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 왜관에서도 그들을 관리하기 쉽게 되었고, 왜관 내의 가옥을 사용할 수 있어서 백성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니 큰 업적이라고 동래부사가 훈도 안동준의 포상을 품의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sup>280)</sup> 반면, 왜관의 쓰시

278) 『동래부계록8』 同治10(1871)년 6월 7일조, 6월25일조, 6월26일조

279) 부산 남구 우암로 근처

마인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혼도가 이를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고 왜인들이 개혁을 입에 올리고 있었던 상황을 들 수 있다. 업무 간소화와 비용 절감안은 전통사회에서도 관리들의 화두였고 실제 1871년 6월 개혁안이 혼도에 의해 시행되고 있었음은 흥미롭다. 위 표민들은 예조의 입송서계가 도착하자 연회를 받고 왜관 관수와 협의하여 9월 7일 2특송사 1호선으로 환귀하였다.<sup>281)</sup> 6월 25일 부산에 도착하고서도 70여일이 지난 후 귀환하는 것이다. 평소보다 오래 걸린 경우이지만, 전통적 송환절차에 필요한 시간이었다. 표류민을 송환받은 일본의 다이묘(여기서는 사쓰마번주)는 표민송환에 대한 감사서계(예조의 입송서계에 대한 답서)와 선물을 보내었다.<sup>282)</sup>

## 2. 일본에 표착한 조선표류민의 송환

기유약조 하에서 일본에 표착한 조선 표류민의 송환에 관한 연구<sup>283)</sup>는 적지 않다. 전통적 송환에 대해서는 사례를 생략하고, 기존 연구를 간략히 정리하여 송환 과정을 서술하고자 한다.

일본 에도막부는 각지에 표착한 표류민들을 나가사키로 보내어 문정을 하고 송환하였다. 중국인은 실패를 소지한 중국 무역선을 통해 송환하였으며, 조선 표류민은 쓰시마로 보내었다. 쓰시마에서는 영래차왜를 임명하고 표민영래서계를 작성하여 영래차왜선에 안내인(質人)을, 표민차기선(혹은 표민본선)에 표류민을 싣고 왜관으로 보내었다. 왜관에 도착한 표민은 1대관이 담당하여 문정을 하였고, 관수왜가 지켜보는 중에 임판에게 인계하였다. 임판은 표민을 받고 표민 인수증을 주었다. 흥미로운 것은 제주표민의 경우, 일본에서 해남, 강진 혹은 진도표민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는 일이 많았는데 표민 인수증에는 그대로 해남, 강진, 진도등 표민의 진술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해 주었다는 점이다. 외교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배려라고 생각한다. 표민은 별차를 따라 부산진에 가서 조사를 받았으며 그후 동래부로 이송되었다. 동래부는 표민을 인수하고 문정을 거쳐서 식량을 지급하고 원적지로 보내었다. 표민을 데리고 온 영래차왜는 '표차사'라 하여 조선으로부터 향접위관의 접대를 받았다. 표차사는 '도금도왜' 급으로 인정받았다. 조선은 표차사를 55일간 접대를 하였으며 하선다례, 하선연(봉진연), 예단다례(御返翰), 상선연을 베풀어 연향과 예단을 지급하였다. 이 기간 안에 표차왜가 가져온 영래(순부)서계에 대한 답서가 내려온다. 답서는 예단다례일에 전달되며 영래차왜는 귀국하게 된

280) 前漂倭之留泊牛巖浦也、海陸民之魚菜供饋守護倭之五日交替且假家看造與捧招饋宴等許多弊端、常所痛歎是在如中、今此薩摩州漂倭十名所載船回到臣府境時、訓導安東峻欲革謬例、同船使之留泊于設門內洋繼又公幹子、彼館仍今住接於館中是白如可、今番書契下來後不逾時月即令入送俾除許久淹留之費者、此是交隣後創有之一大更張也、苟非平日見孚於彼類則、豈可痛革幾百年謬例快裒一邑民瘼瘼乎、當該訓導合施別般酬勞之典是白乎矣、事係干恩臣不敢仰請爲白去乎令廟堂稟旨分付爲白只爲

281) 『동래부계록8』 同治10(1871)년 9월8일조.

282) 반드시 보내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감사서계가 도착하는 사례를 자주 발견할 수 있다.

283) 주목되는 연구로는 池内敏,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 臨川書店, 1998

이훈, 『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 국학자료원, 2000

- ,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 연구』, 국학자료원, 2001

- , 「'표류'를 통해서 본 근대 한일관계-송환 절차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23, 2003

정성일, 『전라도와 일본-조선시대 해난 사고 분석』(『경인한일관계연구 총서 54』), 경인문화사, 2013

- , 「표류민 송환 체제를 통해 본 근현대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 17, 2002, 59~115쪽

- , 「근대 조선과 일본의 해난 구조제도와 국제관계」, 『동북아역사논총』 28, 2010

현명철, 「메이지 초기 송환 표류민 사례 연구」, 『한국학논총50』, 국민대, 2018년 등이 있다. 이 논문

은 최근 해양수산부 해양문화연구총서02, 『동아시아의 표류』(2020년) 에도 실려있다.

다. 표민 송환에 대한 보상은 넉넉하였으며 차선(借船)으로 표류민을 송환한 경우에는 ‘가선즉가미(駕船則價米)’라하여 비용을 더 지급하였다. 영래서계에 대한 회답서계는 평화교린을 유지하는 중요한 틀이었다.

참고로 이상 메이지 정부의 성립인 1868년에서 1872년 9월 이전까지 송환된 표류민은 34건 185명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전통적 송환 절차를 밟았다. 『동래부 기록』에는 1869년부터 1873년까지 문정 결과가 전부 존재하여 출신지 성명 나이, 직업과 표류과정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Ⅲ. 과도기(1872-1876)의 표민 송환

1872년 9월, 외무성은 왜관 사무를 장악하고, 세건선을 폐지하였으며 서계를 폐지하였다. 이는 일방적 결정이었으므로 이에 대해 동래부는 접대의 이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고 임관을 왜관에서 철수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에 표착한 일본인은 어떻게 송환되었으며 일본에 표착한 조선 표류민의 송환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 1. 조선에 표착한 일본표류민의 송환

1873년 5월의 사례를 보자.

<사례2> 1873년 음력 5월 24일, 사쓰마 가고시마[鹿兒島] 사람 9명과 사체 1구가 제주도 대정현에 표착하였습니다. 이들 10명은 무역을 위해 쌀과 콩 차를 가지고 유구국 나하[那覇]에 이르러 이를 팔고, 유구국이 사쓰마에 공납하는 흑당 407통, 울금 1500근과 공문서 등을 싣고 5월 18일 가고시마로 향하다가 20일 폭우로 표류하기 시작하여, 24일 이곳에 표착한 것입니다. 배는 전파되었으며 일행 중 1명은 익사하였고 주민들이 표류민을 구하였고, 사체도 수습하였습니다. 25일 표류민의 뜻에 따라 익사자를 매장하고 남은 물품을 수습하였습니다. 5월 28일 이들은 표착지를 출발하여 6월1일 제주관아에 도착하였으며, 머물다가 8월 25일 부산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제주도 대정현에 표착하였던 사쓰마인 9명을 호송하는 배가 방담진에서 출항한다는 연락을 받고 9월 12일 경상도 영호차원(녹도만호)과 지로차원(회령포만호), 좌수영 왜학이 나아가 평산포로 유인하였습니다. 그후 남해현 선박으로 사람과 물품을 옮기고 식사와 의복을 제공하여 숙박시키고, 13일 출발하여 미조항진을 거쳐 사랑포에서 숙박하고, 고성부선으로 옮겼으며, 14일 출발하여 당포-삼천진-치소포에 이르러 거제부선으로 옮겨 숙박시켰습니다. 15일 출발하여 가배량-울포-구조라포에 이르러 숙박하고, 16일 옥포-조라포-장목포-천성보에 이르러 숙박하고 웅천현선으로 옮겼습니다. 17일 출발하여 가덕진-김해부에서 숙박하고, 18일 다대진 호송장 서평포 만호의 호송으로 관소에 도착하였다. 훈도와 별차가 문정을 하였으며, 표민들을 관수왜에게 넘기고 표민들이 귀환할 때까지 식사를 제공하고 출발시에는 1인당 도해량미 10두와 의복용으로 목면 1필을 관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기유약조체제가 붕괴되었으므로) 위 표민을 입송하는 서계는 필요가 없습니다. 표민의 이름과 문정 내용을 성책으로 하여 훈도의 수본으로 의정부와 삼군부에 보고합니다.<sup>284)</sup>

위의 <사례2>를 1871년도의 <사례1>과 비교 정리해 보자. 우선 제주에 표착하여 제주관아

284) 『동래부기록8』 同治12(1873)년 9월 23일조.

에서 머무르다가 제주에서 출발하는 과정에 차이점은 없다. 그리고 제주를 출발하여 방답진에 이르는 과정이 사료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 동일하며, 평산에서 경상도 수군에 인계되어 남해현 선박- 고성부 선박- 거제부 선박 - 웅천현 선박으로 갈아타면서 수호 담당이 경계구역마다 교체되는 호송과정도 차이가 없다.

주목되는 차이는 첫째, 다대진 호송장이 부산진에 인계하지 않고 바로 관왜(왜관에 있는 외무성 관료)에게 인계한다는 점이다. 이는 임소가 철수하고 왜관이 기능을 상실하였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둘째, 왜관에 인계하고 난 다음에 관왜(왜관의 외무관리)를 통해 출항시까지 표류민의 식사를 제공하고, 또한 출항시에는 옷감과 도해량미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관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우호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파악된다. 이 지원은 왜관의 외무 관리들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셋째, 인계하고 난 다음 귀환 때까지 걸린 시간이 현격히 줄었다는 점이다. 그들 표류민은 10월 4일 비선으로 왜관을 출발하여 환귀하고 있음<sup>285)</sup>을 보면 입송서계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귀환하기 때문이라 이해된다. 즉 왜관에 도착한 지 12일 만에 귀국할 수 있었던 것이 전통적 송환에 비해 큰 차이로 다가온다. 이는 송환 비용의 절감은 물론 표류민의 입장에서도 매우 다행한 일이었을 것이다. 예조에서 보내는 입송서계가 없기에 훗날 감사서계나 선물을 보내었다는 기록도 찾을 수 없다.

서계의 발송이 일방적으로 금지되어 전통적 외교가 붕괴된 과도기에는, 양국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였지만 표류민 송환은 오히려 인도적인 견지에서 유지 발전되고 있음은 주목해야 한다.

## 2. 과도기(1872-1876) 일본에 표착한 조선 표민 송환

1872년 9월, 외무성은 왜관 사무를 접수하고 쓰시마인들을 강제로 귀국시켰다. 이로 기유약조 체제의 기본 틀이 붕괴되는데, 붕괴의 중요한 요소는 도서를 사용한 서계를 보내지 않겠다는 외무성의 결정에서 나타났다. 표민송환도 표민 영래서계가 없어졌기에 표차사(표민영래차왜)가 존재할 수 없었고, 영래선(표민영래차왜선)이라는 명칭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다. 세견선 역시 노인과 서계가 없으므로 존재할 수 없었다. 1872년 9월, 하나부사가 데려온 영암표민(9명)과 제주표민(4명)이 그 첫 케이스였다. 이 경우 접대에 대해 동래부의 보고를 보면

차왜가 없고 서계가 없으니 연향을 베푸는 것이나 잡물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히 논할 일이 없습니다.<sup>286)</sup>

라고 곤란을 표하고 있다. 결국 접대 없이 표민은 임관이 인수하였다.

그후, 조선은 접대를 받기 위해서는 서계를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하였지만, 당시 왜관의 외무 관리는 표류민 송환을 무기로 직접교섭, 임관의 취관과 회담 등을 요구하였다. 임관은 임소에서 철수하였고 소통사를 통해 왜관을 관리하게 하였는데 임관의 뜻은 확고하였다. 서계가 없으면 접대를 할 수 없고 입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관은 접대소의 기능을 갖기에 반드시 서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1873년 3월의 표류민 송환 모습을 살펴보자.

### <사례3>

1873년 양력 1월 2일, 쓰시마에 표착하였던 남해 표류민 3명이 송환되었다. 왜관의 외무성 관리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표류민 송환의 전례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들은 표민 순부 서계

285) 『동래부기록8』 同治12(1873)년 10월 5일조.

286) 『동래부기록』1872년 9월 20일 조.

가 없으면 임관이 입관할 이유가 없다는 조선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임관이 입관하여야 표류민을 송환하겠다고 버티어 송환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월 5일, 비바람이 강하여 왜관의 건물이 파괴되고 선창이 부서지는 피해가 있었는데 이때 대구어를 판매하기 위해 고성에서 부산포로 가던 7인승 배가 선창 석축에 부딪혀 난파되어 왜관 구성원(외무관리)들이 이들 중 6명을 구조하였다. 1월 6일 소통사들이 입관하여 구조에 감사를 표하고 그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왜관 외무성 관리(특히 오쿠요시노리)는 임관 입관을 요구하며 인계를 거절하였다. 이는 표류민 송환을 통해 임관의 입관을 요청하고자 하였던 모리야마 시게루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소통사들은 구조한 사람들을 돌려주는데 임관은 아무 관련이 없으며 이를 동래부사에게 보고하면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달래었으나 외무성 관리는 이를 거절하였다. 소통사들은 가능한 동래부에 보고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불가능하였고, 또 수문장이 부산진에 보고하면 동래부에도 알려질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이를 동래부에 보고하였다. 8일 소통사들이 다시 입관하여 동래부사의 말을 전하며,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법이 있으며 왜관지는 우리나라의 땅이다.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 백성이 난파한 것을 왜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병이 없어도 만일 병이난다면 왜관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라고 경고의 뜻을 전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대마도 주재 히로쓰는 조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여 구조된 사람들을 즉시 돌려보내는 것을 외무성에 건의하였지만 답을 듣지 못하였다. 『외교사무서』6-238). 역류 상황이 40여일 지속되었고 표류민과 난민의 불만은 커졌다. 2월 17일, 드디어 남해 표류민 3명과 선창 근처에서 난파한 난민 6명이 함께 왜관을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2월 17일(음력 1월19)자 동래부 기록에는 남해 표류민 3명(김갑일, 곽재일, 곽도치)가 송환되었음이 보고된다.<sup>287)</sup>

위 사례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로 보인다. 특히 동래부의 보고에서 왜관이 난민을 억류하였다거나 표류민을 송환하지 않고 40여일간 억류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당일 입항하여 송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적 문제로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동래부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진다. 이후 왜관의 외무관료는 대관소가 아닌 항구에서, 임관이 아닌 소통사에게 표민을 인계해 주는 대단히 간략한 송환을 행하였고, 소통사는 임관의 명을 받아 왜관을 관리하고 외무관리들과 대화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이 모습이 과도기 표류민 송환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고정화되었다. 외교의 상호주의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일까. 조선이 일본 표류 선박 수리를 지방 관아에서 도와주고 일본 표류민이 출항할 때까지 식사를 제공하고 출항시에 옷감과 쌀을 주어 보내고 있는 것과 일본 외무성이 조선 표류민 선박 수리를 공비(公費)로 처리하는 것은 주목된다. 표류민 선박 수리비나 송환비용(특히 차선 비용)은 기존에는 표차왜에 대한 접대를 통해 조선이 넉넉하게 지불하였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 외무 관리들의 불만이 표출되기도 하여,<sup>288)</sup> 일시 표민선 수리 비용을 표류민에게 청구한 경우도 있었지만(1873년 4월 입항 표류민), 결국 태정관의 지시에 따라 선박 수리비를 환불하였다. 1873년 7월에는 태정관1105호에 의해 표류민이 구태어 나가사키로 호송할 필요가 없이 쓰시마로 바로 보내어도 된다고 규정되었다.<sup>289)</sup> 과도기 조선 표류민

287) 『동래부기록』8, 1873년 1월 19일자.

288) 현명철, 위 논문, 1873년 4월에 송환된 사례 참고, pp200.

289) 태정관 1105호

갑호 : 조선국 표류민은 모두 나가사키로 보낸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를 바꾸어 나가사키에 가까운 지역은 나가사키로, 대마도가 가까운 지역에서는 대마도 출장소로 보낸다.

을호 : 조선국 표류민도 청국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한 규정을 바꾸어 조선 선박은 해당지역 관청이

송환기간은 송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이유와 선박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상당히 단축되었다. (전통적 단계 평균 10개월, 과도기 평균 3개월).

전통적 외교 시스템이 붕괴된 과도기에 표류민이 송환되고 있었다는 점은 강조되어야 한다. 아울러 표민 사무를 접수한 외무성도 과거보다 더욱 두터운 보호를 지시하고 있음<sup>290)</sup>도 주목된다. 왜냐하면 외교적 갈등과 별개로 인도적 관점에서 표류민 송환이 지속되었던 것은 양국의 위기관리와 전쟁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주목되며 왜관을 유지하고 명분을 얻기 위해서도 표류민 보호는 더욱 강화된 측면이 보인다. 동래부의 입장에서도 조선표류민을 받아들이거나 일본 표류민을 송환하기 위해서 왜관의 존재가 필요했음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다시 외교 무역이 재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갈등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인다. 동래부는 선창을 수리하거나 객사를 수리할 때 왜관에 술과 안주를 보내는 등 ‘전통적 관례로 복귀한다면 우호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음’을 과시하곤 하였다.

참고로 1872년 9월 위의 영암표민 9명, 제주표민 4명등 13명이 송환된 후, 1873년에는 남해표민3명에 이어 의주표민 4명과 시체3구, 강진표민 6명, 제주 정의표민 11명, 경기1명, 평안도 삼화표민 4명, 제주정의표민 3명, 영광표민 5명 등 8건 45명의 표류민을 선창에서 소통사가 인수하고 인수증을 발급하는, 과도기의 송환 모습을 『동래부계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부담하여 호송하도록 한다.

290)

## IV. 조일수호조규 이후의 표류민 송환

### 1. 조일수호조규 이후 조선에 표착한 일본 표류민 송환 사례

「조일수호조규」가 맺어지고 난 후, 표류민 송환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자. 우선 「조일수호조규부록」 제1관은 각 항구에 주재하는 일본인 관리관이 일본국 선박이 파선하였을 경우, 긴급히 지방관에게 알려 일본인이 해당 지역(표착지)으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sup>291)</sup> 또, 「조일수호조규」 제6관에도 표류민이 자비로 배를 수리하고 물품을 구하도록 한 내용이 있다.<sup>292)</sup>

위 두 조항을 보면, 관수(관리관)의 역할이 능동적으로 바뀐 것이 주목된다. 관리관이 지방관의 도움을 얻어 직접 표착지로 가서 표류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다. 조항을 깊이 읽으면, 과거에는 일본 선박이 표착한 사실을 조선이 알려주거나 왜관에 호송하여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관리관이 먼저 표착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개항장의 지방관에게 알려 구조에 관한 협조를 구하겠다는 내용으로도 읽힌다. 문맥으로만 보면 상당한 변화가 보인다.

그런데 실제 사례에서 이러한 변화가 바로 나타날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표류민은 보통 파선을 동반한 구호의 대상이며 비용을 지급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당시 표류한 배가 전신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위 조약 내용은 원칙적인 선언, 혹은 당시 표류민 구호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언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당시 한일관계에서는 일본인 관리관이 일본인이 표류하였다는 사실을 먼저 알 수 없었을 것이며, 표류한 일본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사례를 살펴보자.

조약 체결 후 약 7년이 지난 1883년 7월 18일 울산 화엄포에 표착한 이시카와현 상인 9명과 시체2구 및 1887년 2월 2일 거제 지세포에 표착한 나가사키현 쓰시마 상인 6명의 송환 모습이 사료에 보인다. 여기서는 1887년 거제 지세포에 표착한 표류민을 사례로 살펴보자.

#### <사례4> 지세포에 표착한 일본 표류민의 송환

2월 2일 유시 지세포 뒤 험한 산길에 일본인 6명이 젖은 옷을 입고 발견되어 백성들이 놀라 관아로 데리고 갔는데 바람과 파도에 놀라고 지쳐서 인사불성이었다. 4일 옥포 역학 함현관(咸賢觀)과 통사 하경수(河敬守), 거제부사 대리 좌수 신영위(幸英位)가 찾아가 문정하였다. 선주 다케다[武田友助]가 말하기를 ‘우리는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주 상현군 사스나[佐須奈]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소유하고 있었던 하치반마루[八幡丸]에 행상차 가재목 23개, 판자 38립, 흑탄 204포, 소목 50겹(迭), 등을 싣고 지난 정월 30일 부산을 향하여 사스나를 출발하였는데 동북풍을 맞아 나아가지 못하고 닻을 내려서 이틀 밤낮을 보내었으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금월 2일 저녁 무렵 파도로 배가 파손되어 가지고 있었던 물품을 표실하고 6명이 판자에 의지하여 표류하였습니다. 다행히 지세포 관민이 죽을 주어 가까스로 소생하게 되었으니 부산항으로 보내주시어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표인들의 식사는 관례에 따라 거제부에서 지급하였고, 수호를 위해 역학 및 통사가 남았다. 표실물 중 가재목 10

291) 조일수호조규부록 1관 : ‘각 항구에 주재하는 일본국 인민과 관리관은 조선국 연해 지방에서 일본국의 여러 선박이 파선되면 긴급해지면 지방관에게 알리고 해당 지역의 연로를 거쳐 갈 수 있다.’

292) 조일수호조규 6관 : ‘(일본 선박이 표류한 경우 배를 수선하고 시탄을 구할 수 있다). 그 지방에서 공급한 비용은 반드시 선주가 배상해야 한다.’

개, 소목 4첩, 흑탄 9포 등을 수습하였다. 16일 표민 6명과 회수한 표실물을 2척의 거제부선에 적재하고, 지세포 만호가 초참 영호차원이 되어, 옥포 역학과 함께 이들을 호송하기 시작하였다. 천성보에서 숙박하고 웅천현 선박으로 옮겨서 17일 출발하여 김해부에서 2박하고 다대진 2전선장에게 교부하여 왜관에 도착하였다. 왜관 역학 李濬守가 문정하여 옥포역학의 문정 내용과 동일함을 보고하고 왜관(대리총영사)에게 인계하였다. 표류민의 성명과 나이 물품 등을 성책으로 작성하여 의정부 내무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보고하였다.<sup>293)</sup>

조약이 맺어지고 11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역시 조일수호조규 이전의 기존 관례와 별 차이를 느낄 수가 없다. 남으로 표류한 경우 그 지역 지방관이 역학을 통해 문정을 하고 이를 부산진으로 알림과 동시에 왜관으로 호송하는 시스템이 여전히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성보에서 웅천현 선박으로 옮겨 호송하고 있는 것도 변함이 없다. 조일수호조규 6관의 '선주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은 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변화된 점은, 과도기까지도 유지되었던 표류민에 대한 출발시까지의 식사제공과 도해량미 및 의자목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즉 표류민을 왜관(대리총영사)에게 넘겨줌으로 모든 송환업무가 종결되는 모습이다. 또, 보고가 의정부내무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sup>294)</sup>으로 올라가는 것이 시대의 차이를 느끼게 해 준다. 표류민 송환이 간략해지고 합리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조일수호조규 이후 일본에 표착한 조선 표류민 송환 사례

「조일수호조규」가 맺어진 후에 표류민 송환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동래부계록9.10』을 보면 16회 27건 169명의 표류민 송환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사례는 표류민 송환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 1) 비선과 표민본선을 통한 송환

1884년 2월 16일자 『동래부계록』의 보고를 정리해 보자.

<사례5> 1884년 2월 15일, 향령산 봉군이 배 2척이 영해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하여, 초탐장 제2전선장 金履喆이 맞이하니 1척은 일본 비선으로 우리 표류민이 타고 있고, 또 1척은 표류민 본선이어서 왜관에 領付하였습니다. 역학 洪裕鉉이 문정을 하고 수분을 보내왔는데 비선에는 강진표민 8명과 일본인 사공1인 격군5명 하대왜1명이 타고 있었으며, 항해공증과 서리총영사에 보내는 서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선 사공이 말하기를 '귀국 표류민을 영래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표민 본선에 가서 문정하니 제주표민 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비선 표민(강진표민 8명-아동 포함)을 문정하니, 선주 鄭贊汝외 7명이 균청소속 1파삼선을 수리하기 위해 흥양에 가서 목재를 사서 신고 작년 11월 29일 회선하려고 할 때 여아(7세)가 외가에 돌아간다고 동승하여 발선하였는데, 북풍으로 표류하기 시작하여 목재를 버리고 사투하다가 12월 5일 일본국 나가사키현 靑方村에 표착하였습니다. 초9일 차기선으로 三井樂村에 이른 즉, 제주표민 11명이 있어서 서로 만났으며, 금년 정월1일 출발하여 24일 쓰시마 부중에

293) 『동래부계록9』 光緒13(1887)년 2월 21일조.

294)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일기』 : 1883년(고종 20) 8월 1일부터 1895년 윤 5월 2일에 이르는 약 12년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도착, 2월 3일 출발하여 11일 대풍소에 도착하였다가 13일 출발하여 15일 부산관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중략) 문정 후 해관으로 압송하였고 부산진에서 다시 취조를 한 후, (중략) 표류민 성명과 나이 및 거주지를 성책으로 만들어 표류민을 동래부로 보내왔습니다. 표류민은 의복과 양식을 주어 원적지로 이문을 발송하고 보내었습니다. 위 표민의 성명과 나이 거주지 성책을 의정부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상송합니다.<sup>295)</sup>

표민이 비선으로 송환되는 상황은 1872년 9월 이후 관례가 되었음은 언급한 바와 같다.<sup>296)</sup> 즉 표민영래서계가 금지된 이후 ‘표민영래선’이라는 명칭이 사라졌고, 표민은 비선(정확히는 비선 노인을 소지한 선박)을 통해 송환되었다. 따라서 위 송환 사례는 과도기에 이미 성립된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도[五島]의 아오가타[靑方村]에 표착하였지만 나가사키를 경유하지 않고 송환되고 있는 것도 과도기인 1873년 7월 태정관1105호에 의해 규정된 것이며, 조일수호조규로 인해 바뀐 부분이 아니다.

이전과 다른 점은 첫째, 비선노인이 ‘항해공증’으로 바뀐 것이다. 조일수호조규의 체결로 조선이 쓰시마에 주었던 도서(도장)를 돌려받음으로 양국 간에 입항증명서 역할을 하였던 ‘노인(路引)’은 역사상에서 사라졌다. 무역규칙 제1칙을 보면 상선의 입항은 일본국 인민관리관이 발행한 ‘항해공증’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sup>297)</sup> 이제는 ‘항해공증’이 입항 증명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항해공증은 해관에 제출하는 것이지만, 입항단계에서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해안 경비를 담당하는 부산진의 입장에서는 또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둘째로는 ‘해관’의 존재이다. 해관은 관세의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지만, 표류민 송환에서는 옛날 임소의 역할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1883년 해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표류민을 해관에서 인수한 것으로 판단된다.<sup>298)</sup> 표류민을 해관에서 인수하고 부산진으로 보낸 것은 과도기 푸대접이라고 생각했던 표민 인수 절차가 오히려 정상적으로 규범화 되는 변화이다. 다음 차이는 ‘관수왜 서신’이 ‘서리총영사 서신’으로 바뀐 것 정도이다.

## 2) 표민 본선이 스스로 귀국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표류해 온 일본 선박은 스스로 귀환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지만, 일본에 표류한 우리 선박이 스스로 귀환한 것은 처음이어서 흥미롭다. 그 이전에 표민이 스스로 귀환하지 못하였던 것은 쓰시마의 표민 송환권이 매우 강고하였음을 보여준다. 1884년 2월 18일자 를 보면,

<사례6> 1884년 2월 17일, 표민본선이 입항하였습니다. 문정을 하니 선주 高用文을 비롯 제주목 좌면 금녕리 거주민 8명은, 제주목 소속 1파삼선을 타고 지난해 6월 29일 상업차 제주를 출발하여 7월 20일 동래 부산항에 입항하여, 부산 재류 일본상인 히라야마[平山]에게 700

295) 『동래부계록10』 光緒10(1884)년 2월 16일조

296) 졸고 「메이지 초기 송환 표류민 사례연구」(『한국학논총50』, 2018년 국민대)

297) 무역규칙 1칙 : 일본국 상선이 조선국 개항장에 입항할 때에는 일본국 인민관리관이 발급한 증서를 조선국 관청에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증서는 선주가 소지한 일본국 선적의 항해를 공증하는 서류로 입항일에서 출항일까지 관리관에게 교부한다. 관리관은 각 서류를 접수하였다는 증표를 교부한다. 선주는 정박 중 이 증서를 조선국 관청에 제출하여 일본국 상선임을 증명한다. 이때 선주는 기록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98) 해관 운영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 총세무사를 통해 각항 세무사(해관장)에게 지시하는 것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 각항 감리를 통해 세무사에게 지시하는 이원적인 체계였다. 해관에 대한 감리의 영향력은 해관의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로 제한적이었다.

냥을 빌려서 남촌면 감만포(戡蠻浦)에서 숙박하고 미역(靑藷) 300석을 600냥에 매입하였습니다. 8월15일 발선하여 10월7일 충청도 은진 논산도에서 청과 300석을 발매하고 850냥을 받아 양미 20석, 태 40석을 820냥에 구입하고 11월 14일 발선하여 부산항으로 향하다가 12월 18일 거제부근에서 서북풍을 만나 배가 부서지고 곡물을 다 바다에 던지고 표류하였습니다. 12월 21일 나가토[長門]州 유다마[湯玉浦<sup>299</sup>]에 표착. 배를 수선하고, 올 정월 9일 일본인 인솔하에 본선으로 출발 2월 8일 대마도 대풍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일본인은 떠나고 우리 표민 본선만 15일 출발하여 17일 부산항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sup>300</sup>

일본 상인에게 돈을 빌려서 상업을 하였다는 내용에서 일본어가 능통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일본어에 능통한 제주 상인이 일본에 표착하여 유창한 일본어로 배를 수리하고 일본인의 도움으로 쓰시마 대풍소까지 안내를 받고 스스로의 힘으로 귀환한 것으로 보인다. 쓰시마에서 가까운 유다마[湯玉]에 표착하였기에 배를 수선하고 바로 쓰시마 대풍소<sup>301</sup>까지 안내를 받아 이동할 수 있었다. 안내자는 아마도 일본 관리일 것이다. 같은 행정구역(나가사키 현)이기에 대풍소까지 안내한 후, 잘 가라고 길을 알려주고 보내는 모습을 복원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송환 비용이 적게 들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본에 표류한 우리 선박이 이런 형태로 귀환한 것은 처음이어서 흥미롭다. 또한 쓰시마 부종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풍소로 향하였다는 것도 주목된다. 표류한지 한달만에 귀환하였으므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귀환이라고 할 수 있다.

### 3) 표민선에 다른 표민을 함께 태우고 호송인이 따라오는 경우

1884년 윤5월의 사례는 해남표민선에 영암표민을 함께 태우고 호송인이 동승하여 부산항까지 호송한 경우이다. 기유약조가 생명력을 갖고 있을 때에는 해남표민본선과 영암표민 차기선이 각각의 영래선과 함께 4척으로 구성되어 왔을 것이며, 과도기에는 해남표민 본선과 영암표민을 태운 비선으로 2척이 왔을 터이었다. 표민 본선에 다른 지역에 표착한 표민을 태우고 호송인이 따라온 경우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 송환 비용이 절감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례7> 1884년 윤5월 15일, 표민선 1척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배에는 해남표민10명과 영암표민 2명, 그리고 호송 일본인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남표민을 문정하니 그들 10명은 지난해(1883년) 충청도 원산도에서 새로 3파삼선을 800량에 구입하여 11월 3일 발선하여 10일 진도 앞바다에 이르렀으나 서북풍으로 표류, 21일 사쓰마 가고시마 구치에라부[口永良部]에 표착하여, 배를 수리하고 머무르다가 금년 (1884년) 5월 5일 승선, 13일 나가사키 부중에 도착하였고, 거기에는 영암 파선표민 2명이 있어서 함께 배에 태웠으며 17일 출발하여 일본인 영호하에 이달(윤5월) 10일 쓰시마 대풍소에 도착 13일 출발, 금(15)일 부산관에 도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영암표민을 문정하니 그들은 균역청 소속 반파 삼선을 타고 3인이 어업을 하다가 올 4월 23일 서북풍으로 표류, 30일 나가사키현 고도[五島]에 표착. 5월 1일 1인이 병으로 죽어서 매장하고, 둘만 12일 일본 배에 타고 나가사키 부중으로 이동하니 해남표민 10명이 뒤이어 본선으로 도착하여 17일 함께 해남표민선을 타고 출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sup>302</sup>

299) 지금 山口県 下関市 豊浦町 湯玉驛 부근

300) 『동래부계록10』 光緒10(1884)년 2월 18일조.

301) 대풍소는 佐須奈 지역에 있었다. 여기에 셋쇼(關所)도 함께 있었다.

302) 『동래부계록10』 光緒10(1884)년 윤5월 16일조.

가고시마 구치에라부에 표착한 해남표민 10명과 고도[五島]에 표착한 영암표민 2명이 각기 나가사키로 향하였고 나가사키에서 합류하여 대풍소를 거쳐 부산항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 경우 五島에 표착한 영암표민은 배가 없기 때문에 나가사키로 보내졌으며, 가고시마 표착 해남표민은 귀환 경유지이므로 나가사키에 정박한 것이라고 보인다. 영암표민은 오도에서 쓰시마를 거쳐서 비선으로 송환하거나 나가사키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상선에 태워 송환할 수 있었다. 아마도 화륜선에 태워 송환하려고 나가사키로 보냈는데 마침 해남표민선이 도착하여 동승시켰던 것 같다. 송환하는 편에서는 훨씬 비용이 절감되었을 것이고 표류민도 하루속히 귀국을 원하였을 터이므로 이러한 송환이 성립된 것으로 생각된다. 표민을 호송한 일본인은 나가사키현의 관리로 판단되며, 쓰시마도 고도(五島)도 나가사키현 부속 도서였다. 당시 부산항에는 나가사키를 왕래하는 화륜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위 호송인은 귀로에는 화륜선을 이용하여 나가사키로 돌아가는 데에 큰 불편이 없었다. 호송인이 표류민선에 동승한 사례로 특이한 사례이다.

#### 4) 화륜선(상선)을 통한 송환

이는 조일수호조규 이후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송환의 모습이다. 표류민을 나가사키로 보내어서 나가사키에서 부산을 거쳐 인천이나 원산으로 향하는 화륜선에 표류민을 송환하는 모습이다. 즉 1884년 8월 28일 『동래부기록』에는,

<사례8> 27일 兩帆 화륜선 1척에 표류민 3명이 도착하였습니다. 선주 니시오 준[西尾純]이 표류민 3명과 항해공증 및 총영사에게 보내는 서한을 지참하여 말하기를 원산항 상인들의 물품을 수송하는 선박으로 이달 25일 나가사키를 출발하면서 귀국 표민 3명을 태우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표민 선주 姜明汝를 문정하니 제주목 좌면 우도리 거주민으로 8월 6일 떼배(槎船)로 고기를 잡다가 표류 15일 기타마쓰라[北松浦]에 표착하였으며, 17일 일본배를 타고 출발하여 23일 나가사키 부중에 도착하여 머물다가, 위 화륜선을 타고 25일 출발 27일 부산관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문정 후 해관에 압송하였습니다.<sup>303)</sup>

나가사키에서 부산항으로 향하는 상선이 많아짐에 따라서 표민을 나가사키로 보내면 나가사키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상선에 태워서 송환하는 방법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앞으로 표류민 송환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된다.

#### 5) 표류민이 일본 선박(비선)을 임대하여 귀환

특이한 사례로 표류민이 스스로 선박을 임대하여 귀환하는 모습도 보인다.

<사례9> 1887년 12월 17일, 비선이 표류민 13명을 태우고 왔습니다. 표류민이 비용 78냥을 지불하고 배를 임대하였다고 합니다. 선주 鄭致瑞를 문정하니, 10명은 진주목 남면 거주민, 균청 소속 2파삼선으로 감목관용 물자를 사기 위해 색리 張文有등 3인에게 30냥에 배를 빌려주었습니다. 올 12월 3일 13명이 출발하여 6일 부산포에 도착 광목 10필, 色繪 7필을 구입하고 7일 출발하여 진주로 가는 중 8일 가덕도 앞바다에서 표류하였습니다. 10일 저녁에

303) 『동래부기록10』 光緒10(1884)년 8월 28일조.

사스나[佐須奈]에 표착하였습니다. 배는 소각하고 비선을 78냥에 대여하여 16일 출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문정후 해관으로 압송하였습니다.<sup>304)</sup>

라고 보고하고 있다. 1887년 12월 78냥에 배(비선)를 빌려서 자력으로 귀환하는 표류민이 모습이다. 쓰시마 대풍소에 가까운 곳에 표류하였기 때문에 쉽게 배를 빌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상 「조일수호조규」이후, 일본에 표착한 조선 표류민들의 송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매우 다양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표류민들이 송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규정에 구애되지 않고 송환되는 모습은 근대적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즉, 표류본선이 스스로의 힘으로 귀환하는 경우, 비선을 임대하여 귀환하는 경우, 표민본선에 다른 표민을 싣고 호송관리가 동승하여 송환하는 경우, 조선으로 향하는 화륜선(상선)으로 송환하는 경우 등 기존의 송환 방법과는 다른 다양한 송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해관이 설치되어 임소의 역할을 대신하여 표민을 인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V. 맺음말

이상 변혁기 한일관계와 표류민 송환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 작업은 그동안 단절적으로 파악되어온 한일관계사상을 재검토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하였다. 표류민 송환의 변화를 전통적 단계-과도기-조일수호조규 이후로 연속성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치 외교적 변화와 더불어 ‘비용 절감’ 혹은 ‘합리적 송환’이라는 관점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표류민 송환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송환은 예조의 입송서계와 대마주의 표민영래서계를 갖춘 외교 의례를 동반한 모습이었기에 표류민은 송환되기까지 많은 시일을 기다려야 하였다.

과도기에 들어 입송서계와 영래서계가 없어졌다. 양국은 모두 외교적 단절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표민 송환은 계속되었다. 일본 표류민의 경우 입송서계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부산에 도착하여 출항하기까지 배편이 확보되면 바로 출항하였는데, 조선은 관례에 따라 출항할 때까지 식비를 제공하고 출항시에 의자목과 도해량미를 제공하여 외교적 비판을 피하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외무성도 송환 비용을 전혀 받을 수 없음을 이해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을 계속하였다. 또한 선박 수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등 외교적 비판을 피하고자 하였음은 조선과 동일하다. 이 시기에는 접대가 중지되었고 선창에서 소통사가 인수하였음이 특징이다.

조일수호조규의 체결로 표민 송환 절차는 더욱 간결하게 되었다. 조선에 표착한 일본 표류민의 경우는 왜관 관리관에게 넘겨줌으로 송환 절차를 완료하였다.

한편,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의 송환은 자유로워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표류민이 스스로 선박을 수리하고 귀환하는 경우, (나)표민 본선에 타곳에 표류한 표민을 동승시켜서 호송하는 경우, (다) 파선된 표류민을 나가사키로 보내어 그곳에서 조선으로 향하는 화륜선(상선)에 의뢰하여 송환하는 경우, (라)표류민이 선박을 소각하고 비선을 임대하여 귀환하는 경우 등이 보인다. 일본 주재 한국 공관이 세워져 주일 한국공관이 표류민을 구호하고 본국으로 송환하게 되면 완전히 근대적 송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끝>

304) 『동래부기록9』 光緒13(1887)년 12월 18일조.



## 「변혁기(1867-1888년) 한일관계와 표류민 송환의 변화」에 대한 토론문

김영미(국민대)

본 발표는 전통적 외교 관계에서 근대 외교 관계에 이르기까지의, 이른바 ‘관계의 연속성’을 조망하기 위한 목적에서 변혁기 한일관계와 표류민 송환의 변화 과정을 규명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계를 1) 1872년 9월까지의 전통적 외교관계가 유지되는 시기 2) 1872년 9월부터 1876년 조일수호조규가 맺어지게 될 때까지의 과도기 3) 조일수호조규와 수호조규부록 및 통상장정(무역규칙)으로 새로운 외교-무역 관계가 성립되기 시작하는 1876년 이후의, 총 3단계로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발표자의 이러한 시도는 『동래부계록』과 『관수일기』의 표류민 관련 사례 분석으로 기발표한 논고 두 편에 이어지는 것으로, 더욱 심도 있게 고찰을 수행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법적으로 한일관계사에서 근세의 우호 친선 관계가 단절된 후 조일수호조규 체결로 침략과 저항의 근대 외교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기존 연구의 틀을 지양하고 표류민 송환 문제를 통해 확장된 시야를 모색한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의 입장에서 본 발표의 내용에 특히 주목되는 점은 두 가지 측면이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 외교 시스템이 붕괴된 과도기에 표류민이 송환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를 “외교적 갈등과 별개로 인도적 관점에서 표류민 송환이 지속되었던 것은 양국의 위기관리와 전쟁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주목되며 왜관을 유지하고 명분을 얻기 위해서도 표류민 보호는 더욱 강화된 측면이 보인다(9쪽)”라고 설명한 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조일수호조규 이후에 나타난 표류민 송환의 변화에 대해 절차의 간소화나 비용 절감 혹은 합리적 송환으로 관점을 제시한 점입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변혁기 한일관계사에서 외교적 갈등과 관계의 단절성이 강조되던 인식의 틀을 벗어나 표류민 송환 문제에서 드러난 그 이면의 정치를 부각시킨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요컨대 표면적 갈등과는 달리 외교적 단절을 원하지 않았던 양국의 다층적 외교사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발표의 의의를 재차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아닌 토론자의 짧은 식견으로 다음과 같은 대략적이고 단편적인 질문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조일수호조규 이후에 나타난 표류민 송환의 변화에 관련해 본고에서는 ‘절차의 간소화나 비용 절감 혹은 합리적 송환 방식’과 같은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문맥상 ‘근대적 송환’이라는 서술과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근대적 송환’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와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뜻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개념적 정의나 발표자가 특별히 규정하고자 한 의미가 있다면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전통적 외교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에도 피치 못할 사정이나 여건상 절차의 간소화나 비용 절감 등과 같은 기존의 관례에서 벗어난 행태의 표류민 송환 사례가 사료에서 확인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확인되는 사례가 있다면 전통적 외교관계에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동래부계록』과 『관수일기』 외 표류민 사례를 보완할 수 있는 사료가 존재하는지도 추가 질문도 드립니다.

2. 발표자는 본 발표가 2018년과 2021년에 기발표한 두 편의 논고를 종합하고 시야를 넓혀 변혁기 한일관계사를 조망하기 위한 것으로 의의를 부여하였습니다만, 그간의 연구 과정에서 발표자의 견해가 어떤 측면에서 보완(혹은 보강)되었는지에 관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발표한 두 편의 논고 및 본 발표의 주제와 관련해서 발표자가 주목하는 한일 양국의 연구 경향이나 성과들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현대 한일 양국의 현안과 해법

## -일본의 안보체제 강화와 헌법문제-

유지아 (원광대학교)

<목 차>
I. 머리말
II. 제1기: 걸프전과 국제평화(PKO)협력법 공포
III. 제2기: 911테러와 유사법제(有事法制) 제정
IV. 제3기: 3·11 동일본대지진과 국가안보기본법안 제정
V. 맺음말

### I. 머리말

1989년부터 2019년까지의 헤이세이(平成) 30년은 ‘실패의 시대’로 평가된다.<sup>305)</sup> 쇼와(昭和)가 끝나고 헤이세이가 시작된 전환점은 한신·아와지 대지진(阪神·淡路大震災)과 오움진리교사건, 자사연립정권(自社と連立政権)<sup>306)</sup>이 움직이기 시작한 1995년이다. 이 해는 역사 사실을 편리하게 해석하려는 ‘역사수정주의’가 발호하여 일본 ‘전후 민주주의’의 종언과 함께 정치의 우경화가 시작된 시점이기도 하다. 흔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헤이세이 시대에는 여러 분야에서 실패가 반복되었다. 특히 네 번의 쇼크와 함께 동북아는 위기에 봉착했고, 이 위기는 다시 일본의 상황을 악화시켜 헤이세이 시대는 단계적인 쇠퇴과정을 걸었다. 네 번의 쇼크를 정리하면, 첫 번째 쇼크는 1989년에 정점을 찍었던 버블경제의 붕괴이고, 두 번째 쇼크는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오움진리교사건이다. 그리고 세 번째 쇼크는 2001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9.11 동시다발 테러와 이후 국제정세의 불안정화이며, 네 번째 쇼크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 사고이다.<sup>307)</sup> 이처럼 일본의 헤이세이 시대는 네 번의 쇼크와 동북아 위기가 맞물리면서 안보체제에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하고자 했다.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은 전쟁, 테러, 자연재해, 주식시장 붕괴 같은 총체적인 대규모 충격을 받아 대중의 방향 감각이 상실된 틈을 이용해 정부가 경제적 쇼크요법을 밀어붙인 사례들을 집약했다.<sup>308)</sup> 클라인은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프리드먼이 현시대 자본주의의 묘책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클라인은 프리드먼이 “실제이든 아니면 인식이든 간에, 오직 위기만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낸다. 위기가 발생하면 이제껏 밀려났던 사상에 근거한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과

305) 吉見俊哉, 『平成時代』, 岩波新書, 2019.; 原武史, 『平成の終焉: 退位と天皇・皇后』, 岩波新書, 2019.; 保阪正康, 『平成史』, 平凡社, 2020.

306) 1994년 6월 30일부터 1998년 6월까지의 자유민주당-일본사회당(1996년 1월 19일 이후는 사회민주당)-신당 사きが게(新党さきがけ)에 의한 연립정권이다. 사회당과 사きが게의 ‘자사정권구상’에 자민당이 가세하는 형태로 ‘자사공동정권구상’이 나와 자사연립정권이 성립되었다. 사회당과 사きが게 및 자민당을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가 주도하는 정권으로 전후 정치의 55년 체제에 종지부를 찍은 정권이었다.

307) 吉見俊哉, 『平成時代』, 21쪽.

308)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 『쇼크 독트린』, (김소희 역), 살림비즈, 2008.

거에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했던 일들이 오히려 불가피해진다”는 논리를 지적하고 있다.<sup>309)</sup> 그는 원리주의적 자본주의는 항상 대참사를 필요로 해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프리드먼의 위기나 재해에 편승하려는 사고방식을 ‘쇼크 독트린’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처럼 대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는 자유무역의 과격한 개혁을 도입할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일반 대중을 공포에 빠뜨리는 교묘한 의도가 나타난다. 그리고 대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는 항상 방대한 공공자산의 민간으로의 이전, 부유층과 빈곤층 격차의 확대, 그리고 안전보장에 대한 제한없는 예산확충을 정당화하는 호전적 내셔널리즘의 고양이다. 냉전붕괴 후 이데올로기로 인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테러나 소규모 지역분쟁, 대재해 등 보다 다양한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 참사편승형 자본주의가 그러하듯 현재 동북아시아 특히 일본에서 이러한 참사에 가장 편승하는 부분은 안보정책일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이래 평화국가라는 위선 속에 좌우정치가 다른 꿈을 꾸며 그 현실은 그저 미국의 패권구도 아래 기지 역할을 해왔다.<sup>310)</sup> 아베가 개헌을 하려 했어도 끝내 되지 못했던 이유도 평화국가를 둘러싼 정치와 일본 시민들의 생각이 패전 이후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형이 변화한 시점이 헤이세이 시기라 할 수 있다. 동북아의 위기와 일본의 안보가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일본은 보다 구체적인 안보체제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헤이세이 시대에 안보위기와 관련한 대참사를 중심으로 일본의 안보정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헤이세이를 3시기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제1기는 1991년 걸프전과 지역분쟁 시기, 제2기는 2001년 911과 테러시대, 제3기는 2011년 311동일본대지진과 재해이다. 헤이세이 30년은 10년에 한 번씩 큰 위기에 직면하면서 일본은 안보정책을 수정해 나갔다. 그리고 현재 레이와 시대는 미중전쟁과 2019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일본의 안보정책이 또 다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결국 레이와 시대는 헤이세이 시대에 낳은 정책과 이념을 이어가는 과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 이념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 분석하기 위해 헤이세이의 정책전환 과정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고찰할 것이다.

## II. 제1기: 걸프전과 국제평화(PKO)협력법 공포

1980년대에 들어서면 군사 중심의 국가안전보장 개념이 북유럽을 중심으로 동서간의 긴장완화를 목표로 한 ‘공통의 안전보장’ 개념으로 바뀌었다. 일본에 이에 맞추어 냉전의 종결을 전후로 하여 경제안전보장을 중심으로 한 ‘종합안전보장(総合安全保障)’을 내놓았다. 종합안전보장이란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정에 필요한 경제·식량·에너지 등의 과제를 종합적인 전략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군사적 위협 및 이를 위한 방위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안전보장의 정의는 결코 획일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다양한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에토는 “국가의 안보를 고려할 때 목표로서 단순히 다른 나라로부터의 군사적 침략에 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넓게 경제 등 다른 분야의 목표도 안보와 관련하여 고도의 중요한 국가목표로 내걸고, 나아가 그러한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군사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비군사적 요소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309)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 『쇼크 독트린』, 15쪽.

310) 남기정, 『기지국가의 탄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참조

정책(행동)원리”라고 정의하고 있다.<sup>311)</sup> 오늘날에는 환경문제 등도 과제에 추가되어 보다 다각적인 시야에서 안전보장이 검토되고 있다.

전후 일본에서는 이러한 기본자세 속에서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내각 때 종합안전보장 연구를 위한 연구회가 설치되어 검토 결과를 정부에 상정함으로써 이후 일본의 안전보장에서의 기본방침으로 정식화되었다. 오히라 내각에 이은 스즈키 요시유키(鈴木善幸) 내각에서 1980년 12월 내각에 국방회의와는 별도의 조직으로서 내각관방장관을 주재자로 하는 9대 신<sup>312)</sup>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합안전보장관계 각료회의를 설치하여 2004년 9월까지 운영하였다. (단 1990년 9월 이후에는 개최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은 여전히 국가안전보장을 전제로 한 군사적인 요소를 강화한 정책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PKO법안이다. 1950년대 수에즈 운하를 둘러싸고 영국, 프랑스, 이집트가 군사적인 대립을 하던 중, 1956년에 레스터 피어슨(Lester Pearson) 캐나다 외무부장관이 UN의 평화유지군(제1차국연긴급군)을 파견하여 ‘수에즈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피어슨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1962년에 PKO가 설립되어 국제정치에서 평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당시 PKO는 “UN이 분쟁지역이라고 상정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및 회복을 도와주기 위한 활동으로 군사요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강제력은 수반하지 않고 분쟁당사자의 합의와 협력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라고 합의한 상태에서 출발했다.<sup>313)</sup> 지금도 ‘전통적 PKO’라는 개념으로 핵심은 ‘강제력을 동반하지 않고 분쟁당사자의 합의와 협력’에 있다.

이러한 PKO의 성격이 크게 변화한 것은 냉전의 종식이다. 1992년에 부트로스 갈리(Boutros Boutros-Ghali) UN사무총장은 평화를 위한 과제를 제출하고 유엔이 폭력적인 충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제시했다. 그는 이 과제에서 분쟁 처리의 단계를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 평화창출(peacemaking), 평화유지(peacekeeping), 분쟁 후의 평화재건(post-conflict peace-buildings)으로 분류하여, 종래의 PKO와 달리 분쟁당사자의 한쪽만이 라도 요청이 있으면 UN이 PKO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314)</sup> 냉전종식은 전쟁형태를 변화시켜 분쟁처리형태의 PKO가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PKO의 활동도 여전히 정치 및 대국과의 관련으로 인해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1992년 6월 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PKO 협력법 심의를 시작했다. PKO 협력법의 핵심은 인적 협력, 즉 ‘군대의 파병’이다. 그 배경에는 당시 1990년 걸프전에서 ‘돈은 내지만 사람은 내지 않는다’는 일본의 태도에 외국 특히 미국으로부터 비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서도 걸프전에서 130억 달러가 넘는 지원금을 다국적군을 위해 지출하였으나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인식도 컸다. 실제로 걸프전 이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걸프만의 위기가 한창일 때 일본국내에서 ‘국연평화협력법안’심의를 둘러싸고 인도적인 협력을 위해 자위대 의무관의 파견조차도 불가능한 분위기였다.<sup>315)</sup> 그 이유는 국제분쟁에 군사적 관여를 금하는 헌법 제9조 때문이다. 그러나 걸프전 이후 PKO협력법안이 다시 상

311) 衛藤藩吉・山本吉宣著, 『総合安保と未来の選択』, 講談社, 1991年, 72쪽.

312) 국방회의는 현재 국가안정보장회의라고 하며, 首相, 官房長官, 外務大臣, 防衛大臣이 참가하는 ‘4대신회합’이다. 국방회의와 별도로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9대신회합’은 4대신회합 이외에 総務大臣, 財務大臣, 經濟産業大臣, 国土交通大臣, 国家公安委員長이 참가한다.

313) United Nations, *The blue helmets: a review of United Nations Peacekeeping*, 2<sup>nd</sup> ed, 1990, 4쪽.

314) 古関彰一, 『安全保障とは何か-国家から人間へ』, 岩波書店, 2013, 192쪽.

315) 添谷芳秀, 「日本のPKO政策: 政治環境の構図」, 『法学研究: 法律·政治·社会』 Vol.73(慶應義塾大学法学研究会), 2000, 118쪽.

정되어 심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군국주의의 부활’이라며 일본사회당, 일본공산당, 사회민주연합 등이 강경하게 반대했고 사회당도 대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찬성하는 자민당, 공명당, 민사당의 3당에서 가결의 의지를 보이자, 사회당이 반대를 표명하면서 사회당 137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그리고 6월 6일 자정에 참의원 본회의가 개최되어 사회, 공산 양당이 제출한 참의원 운영 위원장의 해임 결의안 심의가 행해졌다. 이 의안의 표결은 PKO 협력법안 반대측이 투표함까지 극단적으로 천천히 걷는 ‘우보 전술(牛歩戰術)’에 의해 대폭 지연되었다. 보통은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11시간 반 이상 걸리면서 반대파의 강한 저항 자세로 밤샘 심의가 3일 내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회당이 8일밤에 우보 전술의 중지를 결단하여 6월 9일 오전 1시 57분에 PKO 협력법안은 드디어 통과되었다. 결국 1992년 6월 15일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국제평화협력법)’이 통과되고, 6월 19일 공포되어 8월 10일에 시행되었다.<sup>316)</sup>

그럼에도 여전히 평화주의적 입장에서 저항의 목소리는 강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헌법 제9조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 헌법해석을 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PKO 협력법안이 각의에서 결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자 당시 국방장관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법안에 기초하여 참가할 경우에는 ①무기의 사용은 우리나라 요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방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할 것, 또 ②분쟁당사자 간의 정전합의가 무산되는 등에 의해 평화유지대가 무력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해당 평화유지대에 참가하여 활동하는 전제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전제가 회복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참가한 부대의 파견을 종료할 것 등의 전제를 설정하고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헌법 제9조에서 금지하는 ‘무력의 행사’를 한다는 평가를 받을 일은 없다.<sup>317)</sup>

이 담화와 함께 PKO 협력법에 5원칙 즉, ①분쟁당사자 간의 정전 합의, ②해당 PKO 실시와 일본의 참가에 대한 분쟁당사자와 수용하는 나라의 동의, ③해당 PKO의 중립적인 입장 엄수, ④상기 1.2중 하나라도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경우, 업무의 중단, 요원 및 부대의 철수, ⑤요원의 생명 등 방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무기 사용 등의 전제 조건을 같이 넣었다.<sup>318)</sup> 이처럼 일본은 PKO 참가가 헌법 제9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해석을 통해 합헌성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2001년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PKO 협력법을 개정했다. 지금까지의 국제평화협력업무 실시 경험 등을 토대로 ‘이른바 PKF(평화유지대) 본체업무 동결해제’, ‘무기사용에 의한 방위대상 확대’ 및 ‘자위대법 제95조 적용제외 해제’의 3가지가 그것이다.<sup>319)</sup>

기존에 일본이 실시한 캄보디아나 골란고원, 구 자이르(현 콩고민주공화국) 파견 당시, 자위대 부대는 인원 수송이나 각종 연락 조정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파견한 자위대

316) [https://www2.nhk.or.jp/archives/movies/?id=D0009030726\\_00000](https://www2.nhk.or.jp/archives/movies/?id=D0009030726_00000) 1992년6월 國際平和協力法 (PKO法) 公布 (2023.8.15.검색)

317) 朝雲新聞社編集総局, 『防衛ハンドブック〈平成10年版〉』, 朝雲新聞社, 1998, 584-589쪽.

318) 神余隆博, 『國際平和協力入門』, 有斐閣選書, 1995, 193쪽,

319) 2001년12월 PKO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公布

가 타국의 PKO 요원이나 유엔 직원, NGO와 동일한 장소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다른 PKO 업무와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제평화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자위관 등이 실시하는 활동의 양태나 장소, 어떤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행동을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등의 실태를 고려하여 어떠한 범위가 방위의 대상으로서 적당한지 검토한 국제평화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자위관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자기 관리 아래 들어간 자’의 생명 또는 신체 방어를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파견국에서 국제평화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자위관에 대해 자위대법 제95조<sup>320)</sup>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자위대의 무기 등을 방호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유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감안하면 파견지국에서 자위대법 제95조를 적용하더라도 사태를 혼란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한편, 무기 등의 파괴·탈취를 간과함으로써 대원의 긴급사태 대응능력 저하나 치안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sup>321)</sup>

결국, PKO 협력법을 실시한 지 10년만에 헌법 제9조의 금지조항을 지킨다는 전제 조건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물론, 업무, 무기사용 등의 규제조치를 모두 철폐했다. 이처럼 일본은 전후 정치과정에서 헌법 제9조의 합헌성 확대 및 자위대의 군대로서의 위상 정착을 착실히 진행했으며, 헤이세이의 제1기에 해당하는 1990년대에 자위대의 해외파병까지 완성했던 것이다.

### Ⅲ. 제2기: 911테러와 유사법제(有事法制) 제정

냉전 종식 이후 10년이 지난 2000년에 접어들면서 점차 20세기의 전쟁 양상이었던 총력전<sup>322)</sup>은 가고 911테러를 기점으로 ‘테러전쟁’이라 불리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 테러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미국의 부시정권도 발령한 국가긴급권(긴급사태법)이다. 일반적으로 주요국가의 국가긴급권을 분류할 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분류하는데, 대륙법계는 프랑스와 독일이 대표적이고, 영미법계는 영국과 미국이 대표적이다. 우선 프랑스에서 본격적인 국가긴급권 제도는 1814년의 헌장 제14조에 “국왕은 법률의 집행 및 국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칙 또는 명령을 발한다”고 규정하고, 국왕이 국가의 안전을 위해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프랑스는 영국의 마샬·로를 계수하여, 합위 상태(l'état de siège)로 제도화하였다. 합위상태란 전쟁 또는 국내의 무장 반란 등에 있어서, 실력에 의해 국내의 치안 또는 질서가 혼란한 때에 일반 행정권(특히 경찰권)을 군대에 이관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제도이다.<sup>323)</sup> 이처럼 국가긴급권의 대통령의 비상대권조항은 그 요건과 내용이 지치게

320) 제95조 자위관은 자위대의 무기, 탄약, 화약, 선박, 항공기, 차량, 유선전기통신설비, 무선설비 또는 액체연료(이하 "무기 등"이라 한다)를 직무상 경호함에 있어 사람 또는 무기 등을 방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태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36조 또는 제3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321) [https://www.cao.go.jp/pko/pko\\_j/data/law/law\\_data04.html](https://www.cao.go.jp/pko/pko_j/data/law/law_data04.html) 내각부 ‘國際平和協力法の一部改正(平成13年12月)について’(2023.8.14.검색)

322) 총력전(總力戰)은 독일장군 에리히 루덴도르프(Erich Friedrich Wilhelm Ludendorff) 장군이 1935년에 출판한 제1차 세계대전 회고록에서 토탈러 크리크(totaler krieg)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등장했다. 전체전쟁(全體戰爭)이라고도 하는데, 국가가 전쟁 수행에 대해 가지는 국력을 총동원하여 싸우는 형태의 전쟁을 말한다.

323) 백운철, 「미국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2014, 187쪽.

막연하고 대통령의 긴급권행사에 대한 통제가 극히 미약함으로 인하여 해석하기에 따라서 입법·행정은 물론이고, 사법영역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남용의 위험성은 항상 잠재하고 있다. 즉, 국가긴급권은 자유의 옹호를 위함과 동시에 자유의 억압을 위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도 헌법에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비상시의 대처에 관해서는, 약간의 침략 등의 경우에 인신보호영장(Writ of Habeas Corpus)의 정지(헌법 제1조 제9절 2항)나 비상시의 대통령에 의한 의회소집(제2조 3절)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sup>324)</sup> 그러나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은 국가적인 위기 시에 긴급사태 대응에 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911이후 미국에서는 임전태세처럼 단순히 '전쟁'뿐만 아니라 나아가 '예방전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선점론이 새로운 관심을 얻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는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의 대량살상무기 배치를 막기 위해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2년 6월 1일 부시 대통령은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미국의 우위에 도전하는 것은 불량국가가 위협과 군사공격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라고 말했다.<sup>325)</sup> 이 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전에는 전쟁을 일으키려면 막대한 자원과 시간이 필요했지만, 기술력과 테러리스트의 야만성이 결합됨으로써 전대미문의 공격이 거의 아무런 경고도 없이 찾아올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에 당시 미국의 결정권자들은 사담의 대량살상무기가 테러집단들에게 주어질 수 있고 국가의 안보가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2002년 9월 20일에 공표한 미국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잠재적인' 공격자에 의해서도 초래되는 '잠재적인' 해를 고려하면 과거처럼 반응적으로 행동해서는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는 것, 적이 우리를 먼저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록 적의 공격시나 장소가 불확실하더라도 자기방어를 위해 선제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논하고 있다.<sup>326)</sup> 결국, 미국의회는 2002년 10월에 미국 대통령이 사담 정권에 대항하여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공동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라크 정보 위원회는 2005년 보고서에서 핵무기나 생물학적 무기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많은 비평가들은 9.11 공격의 보복 가능성을 근거로 하여, 이라크 침공에 대한 행정부의 진정한 의도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한편, 일본은 '국가긴급권이란 전쟁 내란 공황 대규모 자연재해 등 평시 통치기구로는 대처할 수 없는 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권력이 입헌적 헌법질서를 일시 정지하고 비상조치를 취할 권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327)</sup> 그리고 역사적으로 대일본제국헌법에서 긴급사태의 비상조치로서 ①긴급칙령 제정권(8조), ②계엄선고의 대권(14조), 비상대권(31조), ④긴급재정조치권(70조)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행헌법에서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sup>328)</sup> 따라서 일본에서는 현행헌법이 제정되던 시기부터 국가긴급권에 관한 규정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불문(不文)인 국가긴급권을 인정해야 하

324) 앞의 논문, 189-190쪽.

325)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2/06/20020601-3.html> White House, "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ashington, DC, December, 2002)

326) <http://www.whitehouse.gov/nsc/nss.html>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327) 芦部信喜, 『憲法(新版)』, 岩波書店, 1997, 337쪽.

328) 安全保障及び国際協力等に関する調査小委員会, 「『非常事態と憲法(国民保護法制を含む)』に関する基礎的資料」, 『衆憲資第 45 号』, 平成 16年 3月 25日の参考資料,

는가 아닌가를 놓고 견해 대립이 있었다.

즉,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不文의 原理'라는 견해<sup>329)</sup>가 있는 한편, 국가긴급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구체제 유물의 불식이라는 부정적인 측면과 평화주의 및 민주주의로 일관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입장에서 현행헌법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부존재의 의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sup>330)</sup>가 부딪쳤다. 그리고 국가긴급권에 관한 규정의 부존재를 법의 미비라고 보는 입장에서, 헌법주의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권력자에 의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상사태에 명확한 실체적 및 절차적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sup>331)</sup> 한편 긴급권 조항의 부존재는 권력 남용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또 헌법정치 운용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건전한 상식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상식에 의해서도 극복할 수 없는 긴급사태의 발생은 헌법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의 부정을 헌법안에 명기하는 것은 '헌법의 자살'이라는 견해가 있다.<sup>332)</sup>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개별법에서 경찰법상의 '긴급사태'(71조·74조), 재해대책 기본법상의 '재해 긴급사태'(105조·106조), 자위대법상의 '방위출동'(76조), '치안출동'(78조·81조) 등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조치가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조치와 국가긴급권과의 관계에 대해 국가의 '불문의 원리'로 규정하고, 국가긴급권이 인정된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와 국가긴급권을 연계하여 긴급사태에서 행정권한을 법적으로 강화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와 현행헌법은 국가긴급권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에서 이 조치들은 경찰이나 자위대의 활동을 집중·강화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지, 헌법질서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sup>333)</sup>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냉전이 종결됨에 따라 지역분쟁의 다발, 테러나 대량파괴무기 확산 등 국제정세의 변화가 나타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이나 괴선박 사건 등이 발생하자, 2001년 1월에 모리 총리가 시정 방침 연설에서 유사연구의 법제화를 언급했다. 그리고 2001년 911테러 발발 다음 해인 2002년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유사법제 정비를 천명하고, 같은 해 정기국회에 '안전보장회의설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安全保障會議設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무력공격사태에 있어서 우리나라 평화와 독립, 국가 및 국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안(武力攻撃事態における我が国の平和と独立並びに国及び国民の安全の確保に関する法律案)' 및 '자위대법 및 방위청 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自衛隊法及び防衛庁の職員の給与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이 제출했다. 이에 심의를 거쳐 무력공격의 우려와 예측의 구별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지적을 바탕으로 '무력공격사태 등'으로 하는 등 수정과 보완을 거쳐 '무력공격사태 등 대처법'이 2003년 6월에 성립되었다.<sup>334)</sup>

무력공격사태 등 대처법 21조는 사태대처법제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으로 하고, '사태대처 법제는 국제적 무력분쟁에서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적확한 실시를 확보한 것이어야 한다', '정부는 사태 대처 법제 정비에 있어서 대처조치에 대해 그 내용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정부는 무력공격 사태 등에 대한 대처에서 국민의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22조에는 정비되어야

329) 佐藤幸治, 『憲法(第三版)』, 青林書院, 1991.

330) 小林直樹, 「緊急権—立憲体制と危機政府の問題」, 『日本国憲法体系』1卷, 1961.

331) 岩間昭道, 「非常事態と法」, (現代憲法学会編, 『現代国家と憲法の原理』), 1983.

332) 田中二郎, 「憲法改正の諸問題」, 『法学協会雑誌』67, 卷1号, 1950.

333) 伊藤正巳, 『憲法[新版]』, 弘文堂, 1992, 613쪽.

334) 安全保障及び国際協力等に関する調査小委員会, 「『非常事態と憲法(国民保護法制を含む)』に関する基礎的資料」, 『衆憲資第45号』, 平成16年3月25日の参考資料, 6쪽.

할 사태대처법제의 내용으 ①국민의 생명 등 보호, 국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국민 보호를 위한 법제), ②자위대의 행동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 등 ③미군의 행동을 원활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하기 위한 조치의 3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03년 6월 27일 동법 24조에 규정된 ‘국민보호법제정비본부’가 설치되어 국민보호법제의 입안·정비 작업 외에 인터넷을 통한 국민인가 등의 의견 청취나 지방공공단체·관계 민간기관 등을 위한 설명회 등을 개최했다.<sup>335)</sup> 일본 정부는 2004년 3월 9일에 ‘무력공격 사태 등에서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안’ 등 유사관련 7개 법안과 3개 조약 승인안을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때까지 성립된 무력공격사태 등 대처법 등을 포함하여 법률·법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1> 무력공격사태 등 대처법 등을 포함하여 유사관련 법률·법안의 개요

법 안	개 요
무력공격사태 등에서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안(국민보호법안)	무력공격사태 등에서 무력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무력공격이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책무, 국민의 협력, 주민의 피난에 관한 조치, 피난주민 등의 구원에 관한 조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무력공격사태 등에서 미합중국 군대의 행동에 수반하여 일본이 실시할 조치에 관한 법률안	무력공격 사태 등에서 미일안보조약에 따라 일본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세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미합중국 군대의 행동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위한 조치 및 그 밖의 해당 행동에 수반하여 일본이 실시할 조치 등을 정한다.
무력공격사태 등에서 특정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안	무력공격 사태 등에서 특정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관해 종합적인 조정을 도모하고, 대처조치 등의 적확하고 신속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침의 책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	국제적인 무력분쟁에서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에 규정된 중대한 위반 행위를 처벌한다.
무력공격사태에서 외국 군용품 등의 해상운송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무력공격 사태 시, 일본 영해 또는 일본 주변 공해에서 외국 군용품 등의 해상수송을 규제하기 위해 방위출동 명령을 받은 해상자위대 부대가 실시하는 정선검사(停船検査) 및 회항조치의 절차와 방위청에 설치한 외국 군용품심판소에서의 심판절차 등을 정한다.
무력사태에서 포로 등의 취급에 관한 법률안	무력공격사태에서 포로 등의 구속, 억류 및 그 밖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자위대 행동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실시와 1949년 제네바 협약 및 기타 포로 등의 취급과 관련된 국제인도법의 적확한 실시를 확보한다.
자위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일본 자위대와 미합중국 군대 사이의 후방 지원, 물품 또는 역무(서비스)의 상호 제공에 관한 일본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ACSA) 개정에 따라서 자위대법상 필요한 개정을 실시한다. <sup>336)</sup>
1949년 8월 12일 제네바 협약의 국제적인 무력분쟁 희생자 보호에 관한 추가 의정서(의정서 I) 승인안	제네바 제조약은 ‘육지 상병자(傷病者) 대우’, ‘해상 상병자 대우’, ‘포로 조약’, ‘문민보호조약’의 4개 조약으로 1949년 채택되었다. 1977년 추가 의정서는 일반 주민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추가 의정서 I에서는 국제적 무력분쟁에 대해 제네바 제조약의 내용을 보완·확충하여, 분쟁 희생자 보호, 해적 수단·전투 방법의 규제 등을 정했다.
1949년 8월 12일 제네바 협약의 비국제적 무력분쟁 희생자 보호에 관한 추가	제네바 제조약 공통 제3조의 내용을 보완·확충하여, 비국제적 무력분쟁과 관련하여 분쟁 희생자 보호, 전투방법 규제 등을 정했다.

335) 安全保障及び国際協力等に関する調査小委員会, 앞의 문서, 8쪽.

의정서(의정서Ⅱ) 승인안	
일본 자위대와 미합중국 군대 사이의 후방 지원, 물품 또는 역무 상호 제공에 관한 일본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을 개정하는 협정(개정 ACSA)	ACSA : 자위대와 미군 사이에 물품·역무(서비스)를 상호 제공하는 틀(제공 조건, 결제 절차)을 정하는 협정(1996년 체결, 1999년 일부 개정)이지만 현행 일·미 ACSA는 미국이 일본 이외의 나라와 맺고 있는 ACSA와 달리 적용 범위를 ①공동훈련, ②PKO, 인도적 국제구호활동, ③주변사태 시의 활동에 한정하고 있다.

참고: 『朝日新聞』 2004.2.25. 법안의 설명자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사법제는 무력사태 즉 전쟁과 유사한 무력사태가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법률로 헌법 9조가 방기한 교전권을 둘러싼 개별적 자위권의 시비 혹은 국민(외국인을 포함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 제한을 둘러싼 우려 때문에 반대 의견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헌법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합헌성 논란이 있다. 일본 공산당, 사회민주당, 신좌익, 반전평화단체와 노동조합 등은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의 국방에 기여한다고 할 수 없다, 무력공격이 예측되는 상황으로 실제 공격을 받지 않아도 발동가능하기 때문에 주일미군이 선제공격을 감행한 것만으로도 유사법제의 속박을 받는다는 것이다.<sup>337)</sup> 이러한 의견에 대해 유사법제를 발의할 당시 후쿠다 관방장관이 “무력공격사태에 대한 대처 및 이에 관한 법제 정비는 당연히 헌법의 범주 안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구 헌법하의 계엄령이나 징병제의 제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헌법 9조에 관한 기존 정부의 사고방식, 이것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단언하면서 정부를 대변했다.<sup>33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법제는 방위대신이 공격을 예상한 것만으로 토지나 사람, 물건의 강제수용이 가능하고, 강제수용한 성과를 미군 등 외국군에 제공하는 제한도 명문화되지 않았으며, 일본 정부도 제공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미군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한 전쟁 때문에 일본 국민 개인의 재산권이나 기본적 인권을 크게 제약받을 수 있다. 엄밀히 말해, 유사법제의 진짜 목적은 전시체제에 민관이 동원되는 것으로, 일단 유사시 공격이나 재해 유무에 관계없이 많은 공공서비스나 민간기업보다 자위대·미군 우선으로 정책이 실시되어 일상생활이 전시상황과 유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IV. 제3기: 3·11 동일본대지진과 국가안보기본법안 제정

동일본대지진(東日本大震災)은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경 산리쿠 앞바다(三陸沖)의 깊이 24km를 진원으로 매그니튜드 9.0의 규모로 발생한 지진이다. 지진에 이어 거대한 쓰나미가 이와테현 미야코시(岩手県 宮古市) 부근에서 38.9m 높이로 일어 일본에서는 1896년의 메이지 산리쿠 지진(明治三陸地震)을 뛰어넘는 규모였다. 인적 피해는 사망자 15,424명, 실종자 7,931명, 부상자 5,367명이며, 피해액은 GDP 대비 3.4%~5.3%라고 추정하고 있다. 1995년 1

336) 이 법률안에 따라 일본은 자위대법 일부 개정(2003년 6월)을 통해 방위 출동 명령을 받은 자위대 그 임무를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방위출동 시 및 방위출동 명령 전에 필요한 행동 및 권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했다. 구체적으로는 ①방위출동 시 물자수용 등 규정 정비, ②방위 출동명령 전 방위시설 구축규정 신설, ③방위출동 시 긴급통행규정 신설, ④자위대법 103조에 근거한 물자 보관 명령 위반자 등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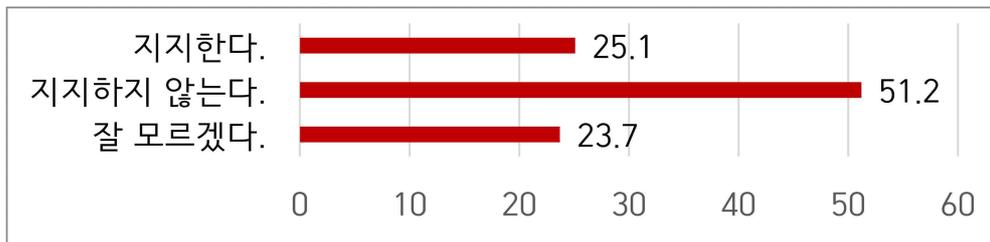
337) 『東京新聞』 2003년 4월 5일, “有事法制適用 米先制攻撃で石破長官『可能』”

338) 平成 14年(2002) 5월 9일 衆·事態特委 福田官房長官答弁

월 17일의 한신 아와지 대지진(阪神・淡路大震災, 매그니튜드 7.3) 때는 사망자가 6,434명이었으며, 1923년 9월 1일 간토 대지진(関東大震災, 매그니튜드 7.9)의 사망자·실종자는 105,385명이었다. 그러나 동일본 지진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거대해일의 영향으로 모든 교류전원이 상실되어 원자로의 노심이 녹는 상황(炉心溶融)이나 수소 폭발의 위험성이 발생하여 피폭 문제 등 복합한 재해의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3·11 동일본대지진 후의 일본 정치는 911 테러 후의 미국 정치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대전환을 야기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우선 어떤 국가사회든 대재앙이 있을 때는 안으로 방어 자세로 들어가는 것이 역사적인 수순이다. 일본도 '3·11 대지진 패닉'에 빠져 좀처럼 정치 등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 사고 이후에는 더욱 내재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론조사를 봐도 자기 보신에 나서는 정치인 행정관을 혐오하고는 있지만 총선 등 실질적인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2> 당신은 간 나오토 연립내각을 지지합니까? (%)<sup>339)</sup>



※조사일:2011.4.9.·10(토·일), 조사방법:무작위추출(全国125地点), 대상:1000人(유효회답률 59.0%)

<표-2>에 나타난 것처럼 당시 수상이었던 간 나오토(菅直人)에 대한 지지율을 확연하게 떨어지고, 비난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그러나 이에 비해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자민당 32.4%, 민주당 24.2%, 공명당 3.9%로 명확하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간 나오토는 지진재해를 계기로 국회의 파행을 해소하고 부흥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민당에 대연립내각을 타진했으나 불발되었다. 그리고 2011년 3월에 치러진 통일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자 민주당 내에서 '간 내리기'가 추진되어 결국 8월 30일에 내각총사직했다.<sup>340)</sup> 이처럼 동일본대지진 이후 정치계에서는 민주당의 자멸로 인해 강한 인지도를 가진 정치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2011년 11월 27일에 치러진 오사카부지사선거·오사카시장선거에서, 오사카 유신회(大阪維新の会) 간사장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郎)가 오사카부 지사로, 당 대표 하시모토 도오루(橋下徹)가 오사카 시장에 각각 처음으로 당선됐다. 이에 다음 해 9월에 있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의욕을 보이던 아베는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유신의 약진을 예상하고 유신과의 파이프를 강화해 당내 구심력을 높이고자 했다. 보수세력 결집을 내세우는 마쓰이 등 간부들도 아베의 접근은 유신당세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sup>341)</sup> 그리고 아베는 9월 26일의 총재선거에서 결선투표의 역전으로 선출되어, 사임한 총재가 다시 재선되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었다.<sup>342)</sup>

339) [https://www.tv-asahi.co.jp/hst\\_archive/poll/201104/index.html](https://www.tv-asahi.co.jp/hst_archive/poll/201104/index.html) (2023.8.17.검색)

340) <http://sankei.jp.msn.com/politics/news/110411/stt11041103010000-n1.htm> “小沢氏「菅降ろし」でゴースインカ 小沢派決起へ(1/2ページ)”. MSN産経ニュース(産経新聞). (2011年4月11日).

341) “小野甲太郎「安倍元首相、久々に注目 維新と関係密、自民総裁選影響も」『朝日新聞』2012年8月21日付朝刊

342) “自民総裁選:安倍晋三元首相が新総裁に”. 『毎日新聞』2012年9月26日

한편, 동일본대지진 이후 자위대는 창립 이후 일찍이 찾아볼 수 없는 규모로 재해파견을 실행했다. 최초로 육해공자위대를 통합한 재해파견부대인 재통합임무부대·동북(災統合任務部隊-東北, JTF-TH)를 편성하여 최대 약 10만 8천명을 동원하여 인명구조, 행방불명자 수색, 재해민의 생활원호, 인프라 복구 등에 주력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 자위대에 대한 이미지와 위상은 매우 높아졌다. 내각부가 2012년에 실시한 ‘자위대·방위문제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는 97.7%가 이번 자위대의 재해파견에 대해 평가한다고 답했고, 자위대 그 자체에 대한 인상도 좋다가 91.7%로 2009년도 조사때보다 10.8% 증가했다.<sup>343)</sup> 특히 이 여론조사에서 자위대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에 재해 파견이 79.2%로 가장 높았고, 이하 국가안전 확보(주변해·공역에서의 안전 확보, 도서지역에 대한 공격 대응 등)(60.9%), 국내 치안유지(49.8%), 탄도미사일 공격대응(40.2%) 등이 뒤를 이었다. 자위대에 대한 임무수행에서 ‘국가안전 확보(주변해공역에서의 안전 확보, 도서지역에 대한 공격 대응 등)’의 비율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은 국가위기에 직면하여, 실질적인 정치에 대한 관심 저하와 자위대에 대한 이미지가 상승 효과를 바탕으로 2012년 7월에 국가안보기본법안을 제정하였다. 이는 현대판 국가총동원법(1938년 4월 제정)이라 할 수 있다. 각 조항을 살펴보면, 제3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2항에 국가는 교육, 과학기술, 건설, 운송, 통신 그 외 내정 각 분야에 있어 안보상 필요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여기에 담겨진 일본정부의 의도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의 총력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이다.<sup>344)</sup> 그리고 제5조(법제상 조치 등)에는 정부는 본 법에서 정하는 시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상 및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것은 집단적 자위권의 전면 해금, 해외에서 전투행위를 용인하는 법정비를 촉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8조(자위대)에서 외부에서 군사적 수단에 의한 직접 또는 간접 침략 그 외의 위협에 대해 자국을 방위하기 위해 육군, 해상, 항공자위대를 보유한다. 그리고 2항에 자위대는 국제 법규 및 확립된 국제관례에 의해 엄격한 문민 통제 하에서 행동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 제9조가 명시한 군사력 보유 금지, 국가 교전권 불인정에 대해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동법을 근거 규정으로 군사력 보유 금지를 규정하는 현행헌법을 파괴하는 결과이며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sup>345)</sup>

이와 함께 일본은 2013년에 국가안보보장회의(NSC)를 설치했다. 이는 일본의 외교방위에 관한 정보의 일원적 관리와 지도를 하는 기관으로, 과거 전시체제에서大本營이 수행했던 외교·방위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뿐만 아니라 2015년 9월 19일에 아베는 안보관련법(평화안전법제)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었다.<sup>346)</sup> 안보관련법은 10개의 개정안을 일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2> 일본의 안전보장법제

343) <https://survey.gov-online.go.jp/h29/h29-bouei/index.html> 내각부 “自衛隊・防衛問題に関する世論調査” (2023.8.17.검색)

344) 瀨藤厚 『反阿倍式積極の平和主義論』, 凱風社, 2014, 274쪽.

345) 유지아, 「일본 평화헌법의 공동화(空洞化)와 자위대」, 『일본사상』 Vol.37, 2019, 80쪽.

346) 유지아, 앞의 논문, 81쪽.

구 분	내 용
① 자위대법	주요 개정법률
② 국제평화협력법	자위대의 후방지원 강화
③ 중요영향사태법	‘주변사태…’에서 ‘중요영향사태가 발생한 경우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법’으로 변경
④ 선박검사활동법	‘주변사태…’에서 ‘중요영향사태 등이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선박검사활동법’으로 변경
⑤ 사태대처법	‘무력공격사태 등…’에서 ‘무력공격사태 등과 존립위기사태가 발생한 경우 일본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와 국민의 안전확보에 관한 법’으로 변경
⑥ 미군행동관련 조치법	무력공격사태 등…’에서 ‘무력공격사태 등과 존립위기사태가 발생한 경우 미국 등 군대행동에 수반한 일본의 실시조치법’으로 변경
⑦ 특정공공시설이용법	일본 내 특정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법률
⑧ 해상수송규제법	‘무력공격사태 등…’에서 ‘무력공격사태와 존립위기사태가 발생한 경우 외국군용품 등 해상수송규제에 관한 법률’로 변경
⑨ 포로취급법	‘무력공격사태…’에서 ‘무력공격사태와 존립위기사태가 발생한 경우 포로 등 취급에 관한 법률’로 변경
⑩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심의사항의 추가

※內閣官房([https://www.cas.go.jp/jp/gaiyou/jimu/housei\\_seibi.html](https://www.cas.go.jp/jp/gaiyou/jimu/housei_seibi.html)) 「平和安全法制等の整備について」를 참조하여 작성.

안전보장법제는 제1차 아베 내각이 성립된 2006년부터 거론되었다. 당시 아베 내각은 안전보장법제에 대한 검토를 위해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2008년 6월 24일 제1차 결과물을 내각에 제출하였다(일본수상관저, 2008, 제1차 안전보장법적기반재구축에관한간담회보고서). 그러나 아베 내각이 무너진 후 성립된 자민당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내각에서는 결과물의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결상태로 남아있었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이 성립되었고, 아베 내각은 다시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더욱 확충한 2차 결과물을 2014년 5월 15일에 제출하였다(일본수상관저, 2014, 제2차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 내각은 2차 결과물에 바탕을 둔 ‘국가존립의 유지와 국민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안전보장법제의 정비’라는 결정을 내렸다(일본내각관방, 2014, 국가존립의 유지와 국민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안전보장법제의 정비). 2014년 12월 24일 제3차 아베 내각이 성립하자, 안전보장법제를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미국과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였다(외무성, 2015, 미일방위협력지침). 그리고 2015년 5월 15일 아베 내각은 안전보장법제를 국회에 제출하였고, 9월 19일 법안을 통과시켰다.<sup>347)</sup>

일본의 안보관련법은 10개의 개정안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위험을 상정하고 있지 않고 애매한 내용의 법안이다. 그래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타국군대의 전쟁지원 등

347) 유지아, 앞의 논문, 81-82쪽.

에 대한 제한이 없어 아베 정권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전쟁에 참전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안보관련법은 헌법의 법적 안정성을 잃고 전후 일본이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전쟁을 방기한 국가에서 선제공격도 가능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V. 맺음말

1989년 1월 7일 오전 6시 33분 쇼와 천황이 사망하고 황태자였던 아키히토 친왕이 제125대 천황으로 즉위하면서 원호를 헤이세이(平成)이라고 정했다. 헤이세이는 ‘나라 안팎, 천지 모두 평화가 달성된다’는 뜻이다.<sup>348)</sup> 오부치 내각관방장관은 기존에 원호를 발표할 때에는 라디오에서는 한자 분위기를 전하지 못하여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헤이세이는 텔레비전 생방송을 통해 ‘신시대의 기대감이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이처럼 헤이세이의 시작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무수한 피해를 감당하며 살았던 일본인들에게 64년간의 쇼와를 끝내는 의미뿐만 아니라, ‘평화를 이룬다’는 뜻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 그 자체였다. 그러나 30년의 헤이세이가 끝나 현재 일본은 헤이세이 시대를 실패의 시대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크겠지만, ‘평화를 이룬다’는 헤이세이의 기본 개념을 생각하면 전후 일본 국민들이 지켜온 평화헌법의 공동화 즉 유명무실화가 더욱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지난 2022년 2월 16일에 일본 기시다 내각(岸田内閣)은 아베 내각이 2013년에 제정한 ‘국방의 기본방침’을 폐지하고 새롭게 ‘국가안전보장전략(国家安全保障戦略)’을 제정했다. 레이와 시대의 정책을 상징하는 조지라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 일본의 주변국에서도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 및 급격한 군비증강,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등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의 책정과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일본은 패전 후, 평화헌법에도 불구하고 냉전 격화와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역코스’를 단행하고, 때에 따라서 일본국 헌법 제9조의 해석을 통한 개헌을 시도했다. 이는 전쟁을 위한 전력과 교전권을 방기한다는 헌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패전 후 일본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헌법개정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점차 전쟁으로 나아가는 길을 걸어왔다.

특히 헤이세이 시대는 3기에 걸쳐 안보관련 법안을 제정하여 평화헌법의 공동화는 물론 자위대의 해외파병까지 가능하게 했다. 즉, 제1기는 걸프만전쟁 이후 PKO협력법안을 통해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가능하게 했고, 제2기는 911 테러 이후 주변사태법과 유사시 긴급법을 통해 일본의 위기상황에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에는 안보에 대한 광범위한 개념을 적용하여 국가안전보장법을 제정하여 위기상황시 일본국민 및 재산의 국가동원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비단 헤이세이만의 특징이기보다는 헌법 제9조를 공동화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는 전후 일본 위정자들의 정책에 불과하다. 그 결정체가 2022년 12월 16일에 기시다 내각이 결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 안전보장전략은 패전 후 일본이 고수해온 안보정책의 두 축인 헌법 제9조와 미일 안전보장 정책과는 차원이 다른 획기적인 것이다. 전략의 골자는 일본이 침공을 받았을 때 적

348) “新元号は「平成へいせい」一月八日から施行”『産経新聞』1989年1月7日.

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보유하고, 5년 뒤에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린다는 정책으로 명실상부한 군사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처럼 일본은 쇼와, 헤이세이를 거쳐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부상해왔다. 현재 다시 국가간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시기에 일본은 국제사회공헌이라는 명목으로 더욱 군사국가로의 정책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후에도 일본의 안보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朝雲新聞社編集総局, 『防衛ハンドブック〈平成10年版〉』, 朝雲新聞社, 1998.  
芦部信喜, 『憲法(新版)』, 岩波書店, 1997  
伊藤正巳, 『憲法[新版]』, 弘文堂, 1992.  
岩間昭道, 「非常事態と法」, (現代憲法学会編, 『現代国家と憲法の原理』), 1983.  
衛藤藩吉・山本吉宣著, 『総合安保と未来の選択』, 講談社, 1991.  
額纈厚, 『反阿倍式積極的平和主義論』, 凱風社, 2014,  
小林直樹, 「緊急権一立憲体制と危機政府の問題」, 『日本国憲法体系』 1卷, 1961.  
古関彰一, 『安全保障とは何か-国家から人間へ』, 岩波書店, 2013.  
佐藤幸治, 『憲法(第三版)』, 青林書院, 1991.  
神余隆博, 『国際平和協力入門』, 有斐閣選書, 1995.  
添谷芳秀, 「日本のPKO政策: 政治環境の構図」, 『法学研究: 法律・政治・社会』 Vol.73((慶應義塾大学法学研究会), 2000.  
田中二郎, 「憲法改正の諸問題」, 『法学協会雑誌』 67, 卷1号, 1950.  
原武史, 『平成の終焉: 退位と天皇・皇后』, 岩波新書, 2019.  
保阪正康, 『平成史』, 平凡社, 2020.  
吉見俊哉, 『平成時代』, 岩波新書, 2019.  
United Nations, *The blue helmets: a review of United Nations Peacekeeping, 2<sup>nd</sup> ed*, 1990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 『쇼크 독트린』, (김소희 역), 살림비즈, 2008.  
남기정, 『기지국가의 탄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백운철, 「미국의 국가긴급권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2014.  
유지아, 「일본 평화헌법의 공동화(空洞化)와 자위대」, 『일본사상』 Vol.37, 2019.

## [토론문]

### 유지아, 『현대 한일 양국의 현안과 해법 -일본의 안보체제 강화와 헌법문제-』 김동명(국민대)

이 글은 현대 일본에서 국내외 위기 상황을 계기로 전개된 안보 정책의 성격을 헌법과 관련해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헤이세이(平成) 시대(1989-2019년)를 1991년 걸프전과 지역분쟁 시기(제1기), 2001년 9.11(테러)와 테러시기(제2기), 2011년 3.11동일본대지진과 재해시기(제3기) 등 3시기로 나누어 고찰했다. 나아가 최근의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시기에 관해 전망했다. 각 시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1992년 걸프전 이후 제정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PKO협력법)은 국제적인 인적 협력, 즉 군대의 해외파병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는 국제 분쟁에 군사적 관여를 금하는 헌법 제9조를 위반한 것임에도 일본 정부는 헌법해석을 통해 합헌성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2001년에 유엔 중심의 국제평화에 유효 적절하게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PKO협력법을 개정하여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물론, 업무, 무기사용 등의 규제조치를 모두 철폐했다. 이로써 헌법 제9조의 합헌성을 확대하고 자위대의 군대로서의 위상을 정착시킨 것이다.

둘째, 9.11테러 다음 해인 2002년 심의가 시작되어 2003년과 2004년에 제정된 ‘무력공격 사태 등에서의 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안’ 등 일련의 유사법제(有事法制)는 현행 헌법에 국가긴급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유사한 무력사태가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법률이다. 이는 교전권을 방기한 헌법 9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외국인을 포함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헌법의 범주 안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단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시체제에 민관이 동원되어 자위대·미군 우선 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전시상황과 유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3.11 동일본대지진 다음 해인 2012년 7월에 ‘국가안보기본법안’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의 총력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특히 제8조(자위대)에서 외부의 위협에 대해 자국을 방위하기 위해 육군, 해상, 항공자위대를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9조가 명시한 군사력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2013년 외교방위에 관한 정보의 일원적 관리와 지도를 목적으로 국가안보보장회의(NSC)를 설치했으며 2015년에는 ‘안보관련법(평화안전법제)’을 제정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었다.

넷째,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주변국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 및 급격한 군비증강,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등의 움직임을 이유로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제정했다. 이는 그동안 일본이 고수해온 안보 정책의 두 축 -헌법 제9조와 미일안전보

장 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차원의 것이다. 즉, 일본이 침공을 받았을 때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보유하고, 방위비의 증액(5년 후 국내총생산의 2% 이상)으로 명실상부한 군사국가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략히 정리하면, 일본은 헤이세이 시대에 들어와서 국내외 위기 상황을 계기로 그동안 평화헌법 제9조가 규정한 군사력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부인에 의해 제한되었던 안보법안을 제정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평화헌법을 파괴,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의 개정 없이 헌법해석을 통해 평화헌법을 공동화시켜 자위대를 군대화하고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필자의 분석과 주장에 동의하며 특히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위기 상황을 계기로 평화헌법의 개정 없이 해석을 통해 안보체제를 강화하는 입법에 성공했다는 예리한 지적은 매우 탁월하다. 이는 한일 양국의 현안을 이해하고 그 해법을 찾는 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리라 믿는다. 이에 대한 필자의 구체적인 의견을 아래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시했으면 한다.

우선, 이러한 일본의 안보체제 강화가 그동안 한일관계 전반에 미친 영향에 관해 언급했으면 한다. 다음에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관련된 논의를 소개해주었으면 한다. 유사법제의 경우 한반도의 상황도 많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 또한 국내외 위기 상황 중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무장 등의 위협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알려주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주로 전전의 한일관계를 연구하는 토론자의 입장에서 고언하면, 「2012년 7월에 국가안보기본법안을 제정하였다. 이는 현대판 국가총동원법(1938년 4월 제정)이라 할 수 있다. 「2013년에 국가안보장회의(NSC)를 설치했다. 이는 일본의 외교방위에 관한 정보의 일원적 관리와 지도를 하는 기관으로, 과거 전시체제에서大本영이 수행했던 외교·방위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등의 표현은 가급적 피했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전전으로의 회귀성 발언은 오히려 필자가 심혈을 기울여 분석한 전후의 일본 사회의 변화를 왜소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